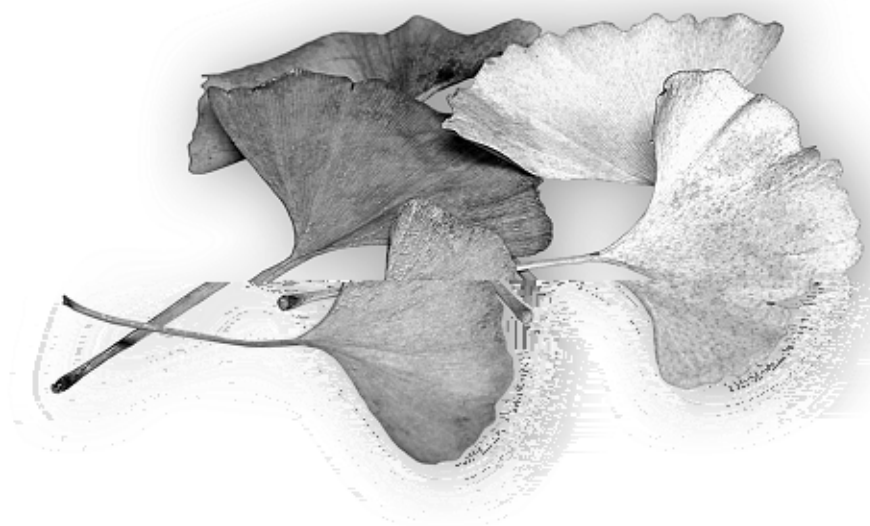


제8회 청소년자원봉사박람회

수상작모음집



충청남도 | Youth Service Center

청소년 활동진흥센터

청소년현장

청소년은 자기 삶의 주인이다.

청소년은 인격체로서 존중받을 권리와 시민으로서 미래를 열어 갈 권리를 가진다.

청소년은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하며 활동하는 삶이 주체로서 자율과 참여의 기회를 누린다.

청소년은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며 정의로운 공동체의 성원으로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간다.

가정·학교·사회, 그리고 국가는 위의 정신에 따라 청소년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청소년 스스로 행복을 가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여건과 환경을 조성한다.

청소년의 권리

1. 청소년은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인 영양·주거·의료·교육 등을 보장받아 정신적·신체적으로 균형 있게 성장할 권리를 가진다.
1. 청소년은 출신·성별·종교·학력·연령·지역 등의 차이와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1. 청소년은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공포와 억압을 포함하는 정신적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1. 청소년은 사적인 삶의 영역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1. 청소년은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자유롭게 펼칠 권리를 가진다.
1. 청소년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건전한 모임을 만들고 올바른 신념에 따라 활동할 권리를 가진다.

- 1. 청소년은 배움을 통해 진리를 추구하고 자아를 실현해 갈 권리를 가진다.
- 1. 청소년은 일할 권리와 직업을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 1. 청소년은 여가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 1. 청소년은 건전하고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1. 청소년은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자신의 삶에 필요한 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 1. 청소년은 자신의 삶과 관련된 정책결정 과정에 민주적 절차에 따라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청소년의 책임

- 1. 청소년은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며 자신이 선택한 삶에 책임을 진다.
- 1. 청소년은 앞 세대가 물려준 지혜를 시대에 맞게 되살려 다음세대에 물려줄 책임이 있다.
- 1. 청소년은 가정·학교·사회·국가·인류공동체의 성원으로서 자기와 다른 삶의 방식도 존경할 줄 알아야 한다.
- 1. 청소년은 삶의 터전인 자연을 소중히 여기고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살아야 한다.
- 1. 청소년은 통일시대의 주역으로서 평화롭게 공존하는 방법을 익힌다.
- 1. 청소년은 남녀평등의 가치를 배우고 이를 모든 생활에서 실천한다.
- 1. 청소년은 가정에서 책임을 다하며 조화롭고 평등한 가족 문화를 만들어 간다.
- 1. 청소년은 서로에게 정신적·신체적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 1. 청소년은 장애인을 비롯한 소외 받기 쉬운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간다.

목 차

개인봉사활동

▶대 상(국가청소년위원장)

- 고을림/삼교고등학교 2 13
- 신진철/봉황중학교 3 19

▶최우수상(충청남도지사)

- 한예지/천안여자고등학교 2 23
- 김봄이/연서중학교 3 26

▶우 수 상(충청남도교육감)

- 조우경/병천고등학교 2 31
- 남예진/해미중학교 3 35

▶특 선(충청남도교육감)

- 이슬기/서일고등학교 2 38
- 김태은/서일고등학교 2 43
- 김윤지/면천중학교 3 48
- 이미소/해미중학교 3 54

▶봉 사 상(충청남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소장)

- 이재림/논산여자고등학교 2 59
- 박경리/정산중학교 1 61

동아리봉사활동

▶대 상(국가청소년위원장)

- 홍성군연합봉사동아리 청로회/홍성여자고등학교 65
- 조치원중학교 스카우트/조치원중학교 70

▶최우수상(충청남도지사)

- 더불어 숲/(사)한국청소년마을 연기군지회 77
- 사제동행 독거노인 도우미/정산중학교 80

▶우 수 상(충청남도교육감)

- 나누미/청양여자정보고등학교 84
- 석성아리/석성중학교 87

▶특 선(충청남도교육감)

- 서일고 4-H회/서일고등학교 90
- 징점다리/홍산농공업고등학교 96
- 청양중 예절실천 봉사단/청양중학교 101
- 밝은세상실천단/태안여자중학교 103

▶봉 사 상(충청남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소장)

- 안면도지킴이/안면고등학교 106
- 한마음봉사단/온양용화고등학교 110
- 알곡/강경고등학교 115
- 용달샘 발마사지/면천중학교 117
- 사랑을 찾아다니는 반/결성중학교 126
- 그루터기/해미중학교 135

체험수기

▶최우수상(충청남도지사)

- 이종선/홍산농공업고등학교 3 145
- 이재일/서령중학교 1 148

▶우 수 상(충청남도교육감)

- 김의주/병천고등학교 2 151
- 김영란/금호중학교 3 154

▶특 선(충청남도교육감)

- 양은지/청양여자정보고등학교 2 157
- 박현아/온양용화고등학교 1 162
- 강윤하/광석중학교 1 164
- 조정희/온양용화중학교 3 166

▶봉 사 상(충청남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소장)

- 김슬기/홍성여자고등학교 1 169
- 장용익/청양정산고등학교 3 170
- 신세리/공주금성여자고등학교 2 173

- 김요셉/강경고등학교 1	174
- 이경호/논산고등학교 2	176
- 호종원/합덕중학교 3	179
- 김범유/조치원중학교 2	181
- 서보람/정산중학교 3	184
- 이미영/석문중학교 1	187
- 김에스더/대술중학교 2	190
- 안새롬/순성중학교 2	191
- 이가연/연동중학교 2	193

만화 · 포스터 · 컴퓨터그래픽

▶ 최우수상(충청남도지사)

- 김희선/천안여자고등학교 2	197
- 오예나/은양용화중학교 1	198

▶ 우수상(충청남도교육감)

- 최미연/청양여자정보고등학교 3	199
- 이상아/강경여자중학교 3	200

▶ 특 선(충청남도교육감)

- 강은영/청양정산고등학교 2	201
- 서은지/공주정보고등학교 1	202
- 황수지/천안동여자중학교 2	203
- 방정민/조치원중학교 1	204

▶ 봉사상(충청남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소장)

- 임현미/논산여자고등학교 1	205
- 임윤아/논산여자고등학교 2	206
- 안소정/천안여자고등학교 2	207
- 조성미/청양여자정보고등학교 3	208
- 이건혁/봉황중학교 2	209
- 강진석/합덕여자중학교 3	210
- 유지현/천안동여자중학교 1	211
- 이보라/강경여자중학교 3	212

제8회 청소년자원봉사박람회 수상자

- 실천부문 -

◇ 개인봉사활동 ◇

구 분	중학교		고등학교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대 상 (국가청소년위원장)	신진철	봉황중학교 3	고을립	삼교고등학교 2
최우수상 (충청남도지사)	김봄이	연서중학교 3	한예지	천안여자고등학교 2
우 수 상 (충청남도교육감)	남예진	해미중학교 3	조우경	병천고등학교 2
특 선 (충청남도교육감)	김윤지	면천중학교 3	이슬기	서일고등학교 2
	이미소	해미중학교 3	김태은	서일고등학교 2
봉 사 상 (충청남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소장)	박경리	정산중학교 1	이재림	논산여자고등학교 2

◇ 동아리봉사활동◇

구 분	중학교			고등학교		
	동아리	소 속	지도자	동아리	소 속	지도자
대 상 (국가청소년위원장)	조치원중학교 스카우트	조치원중학교	김동섭	홍성군 연합 봉사동아리 청로회	홍성여자 고등학교	이강로
최우수상 (충청남도지사)	사제동행 독거노인 도우미	정산중학교	김은수	더불어숲	(사)한국청소년 마을 연기군지회	유금봉
우 수 상 (충청남도교육감)	나누미	청양여자정보 고등학교	신삼철 김동일	석성이리	석성중학교	김미현
특 선 (충청남도교육감)	서일고 4+회	서일고등학교	이세용	청양중 예절실천 봉사단	청양중학교	남기성
	징검다리	홍산농공업 고등학교	김계수	밝은세상실천단	태안여자중학교	이영란
봉 사 상 (충청남도청소년활동 진흥센터소장)	인면도지킴이	인면고등학교	김정호	용달샘 발마사지	면천중학교	백운자
	한마음봉사단	문양봉화 고등학교	권차남	사랑을 찾아대리는 반	결성중학교	임태수
	알곡	강경고등학교	김세영	그루터기	해미중학교	김선중


- 문예부문 -

◇ 체험수기 ◇

구 분	중학교		고등학교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최우수상 (충청남도지사)	이재일	서령중학교 1	이종선	홍산농공업고등학교 3
우 수 상 (충청남도교육감)	김영란	금호중학교 2	김의주	병천고등학교 2
특 선 (충청남도교육감)	강문하	광석중학교 1	양은지	청양여자정보고등학교 2
	조정희	몬양용화중학교 3	박현아	몬양용화고등학교 1
봄 사 상 (충청남도청소년활동 진흥센터소장)	호종원	합덕중학교 3	김슬기	홍성여자고등학교 1
	김범유	조치원중학교 2	장용익	청양정산고등학교 3
	서보람	정산중학교 3	신세리	공주금성여자고등학교 2
	이미영	석문중학교 1	김요셉	강경고등학교 1
	김에스더	대술중학교 2	이경호	논산고등학교 2
	안새롬	순성중학교 2		
	이가연	연동중학교 2		

◇ 만화 · 포스터 · 컴퓨터그래픽 ◇

구 분	중학교		고등학교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최우수상 (충청남도지사)	오예나	몬양용화중학교 1	김희선	천안여자고등학교 2
우 수 상 (충청남도교육감)	이상아	강경여자중학교 3	최미연	청양여자정보고등학교 3
특 선 (충청남도교육감)	황수지	천안동여자중학교 2	강은영	청양정산고등학교 2
	방정민	조치원중학교 1	서은지	공주정보고등학교 1
봄 사 상 (충청남도청소년활동 진흥센터소장)	이건혁	봉황중학교 2	임현미	논산여자고등학교 1
	강진석	합덕여자중학교 3	임윤아	논산여자고등학교 2
	유지현	천안동여자중학교 1	안소정	천안여자고등학교 2
	이보라	강경여자중학교 3	조성미	청양여자정보고등학교 3



제8회 청소년자원봉사박람회

- 실천부문 -

| 개인봉사활동 |

※ 수상자들의 자료가 너무 많아 다 실지 못하고
중요부문만 요약하였습니다.

개인봉사활동

구 분	중학교		고등학교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대 상 (국가청소년위원장)	신진철	봉황중학교 3	고을립	삼교고등학교 2
최우수상 (충청남도지사)	김봄이	연서중학교 3	한예지	천안여자고등학교 2
우 수 상 (충청남도교육감)	남예진	해미중학교 3	조우경	병천고등학교 2
특 선 (충청남도교육감)	김윤지	면천중학교 3	이슬기	서일고등학교 2
	이미소	해미중학교 3	김태은	서일고등학교 2
봉 사 상 (충청남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소장)	박경리	정산중학교 1	이재림	논산여자고등학교 2

대상(국가청소년위원장)

고을림 | 삼고고등학교 2학년



따뜻한 눈빛 하나가

1. 처음엔 이런 마음으로 시작 했습니다.

저의 학창 시절에 있어 커다란 행운은 다양한 분야의 활동을 경험한 것입니다. 특히 많은 만남들을 통하여 또 다른 삶을 경험하게 되었고 저의 삶에도 커다란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열심히 한 것은 아닙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불쌍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부모님을 따라서, 혹은 학생회 활동의 하나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5일장이 서는 날이면 교회 청소년부와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시장의 상인들과 손님들에게 따뜻한 등글레 차와 커피 대접을 하고 여름철에는 얼음 보리차로 대접하는 봉사활동을 하는데 저도 함께 참여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때 학생회를 통해 복지 시설에 봉사활동을 나간 적이 있는데 그 곳에서 치매에 걸린 할아버지를 돌보아 드리게 되었습니다. 나는 우리 할아버지라 생각하며 정성껏 몸도 닦아드리고 손녀처럼 말벗도 해드렸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께서도 당뇨 합병증으로 30여 년간 생활하고 계신데 지금은 한쪽 눈이 실명 되셨고 다른 쪽 눈마저 시력이 떨어져 먼 곳을 외출하실 때는 반드시 가족들의 도움이 필요하십니다. 할아버지는 저희들이 어렸을 때 경운기와 오토바이를 태워 주시며 우리들을 무척 사랑해 주셨는데, 이제는 눈이 보이지 않아 그렇게 재미있게 보셨던 TV마저도 제대로 보지 못하시고 소리로서 뉴스와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접하시곤 하십니다. 나는 시설에 계신 노인 분들의 모습에서 우리 할아버지를 생각하게 되었고, 나의 작은 실천이 할아버님의 눈과 발이 되고 있는 것처럼 그분들에게도 사랑이 필요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후 저는 주일학교 학생회장을 하면서 책임감이

생겨 봉사활동의 기회가 있을 때마다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였고 고등학교를 입학한 후에는 <예당사랑> 효 실천 봉사 동아리와 MRA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봉사 활동은 어느새 저의 생활의 일부가 되었고 지금까지 우리 학교에서 봉사활동을 가장 많이 하였다는 선생님의 말씀에 자부심도 느끼고 있습니다.(148회 478시간) 이러한 봉사 활동은 우리 역사 바로알기 봉사활동으로 이어져 지난해에는 한민족 역사 의식과 민족정신을 지키기 위한 중국 내 '고구려 역사유적 탐방 및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었던 기회도 주어져 무척이나 기뻐했습니다.

지금까지의 봉사활동 중 특히 <가나안 노인의 집> 과 인연을 맺어 매달 토요일 휴무제가 있는 2-4주(2-4회)에 봉사활동을 하게 되면서 봉사가 시간이나 물질이 남아서 하는 것 보다는 진정한 마음이 생겨 자신을 이끌어 내어 실천으로 이어질 때 큰 기쁨이 생긴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통할 수 있는 따뜻한 눈빛 속을 보며 실천의 징검다리를 놓아갑니다. 이제 봉사는 남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만이 아닌 서로가 사랑을 나누고 있음을 깨닫게 되면서 내 자신이 오





히려 사랑받고 있음에 감사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II. 실천의 징검다리 이어가기

봉사활동을 하면서 노인분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을 몇 가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는 어른들은 특히 뽀 때마다 몇 번이고 인사하는 것을 무척이나 좋아 하지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사를 잘하기로 마음먹고 웃으면서 인사를 하곤 합니다. 이러한 결심을 하게 된 것은 학교에서 반장을 하면서 매시간 전체학생들이 일어나 공수 배를 한 후 “효도 하겠습니다”라는 구호를 외치며 지금까지 인사를 해 왔던 것이 저에게 자신감을 심어주었고 친절하게 먼저 인사하게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어디서나 인사는 “효도하겠습니다.”로 바뀌게 되었고 하루에도 수십 번 외쳐대고 있습니다. 어느 날인가 복도에서 바쁜 일이 있어 선생님께 공손히 인사하지 못하고 뛰어 가면서 말로만 “효도하겠습니다.” 라고 뛰어가자 선생님께서는 “야 고을림, 너 누구보고 인사하는 거야” 하시며 기분 안 좋은 모습을 하시는 것을 보고 내가 정말 진정으로 어른들께 효도하고 있는가하는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경험을 통해 나는 내가 반장인데 지금까지 형식적으로만 인사했다는 반성을 하면서 기왕 할 바엔 정말 공손하고 예쁘게 인사하자라는 마음이 생겨 인사를 할 때는 반드시 상대방을 보고 정지한 상태로 허리 굽혀 인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제는 선생님들과 웃어른들이 인사하는 모습이 상냥하고 예쁘다는 칭찬을 많이 해주십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책의 말처럼 어른들의 칭찬이 저를 더욱 인사 잘하게 만들었고 그것을

통해 웃어른을 공경하고 효도하는 마음으로 이어져 봉사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먼저 인사를 하고 몇 번이고 인사를 하는데 시설에 있는 어린 동생들이나 어른들께도 이러한 과정을 통해 더욱 남보다 먼저 친해지고 거리감도 없어진 것 같습니다. 특히 어른들은 자신의 손녀인냥 인사를 하면 손을 잡으신 채 쓰다듬어주시어 한 가족과 같이 대해주시어 저 역시 기분이 좋습니다.

봉사활동을 조직적으로 실천한 것은 교회에서 학생회장을 하면서 목사님들과 시작한 봉사활동이 계기가 되어 자연스럽게 이어진 것 같습니다.

근처에 있는 가나안 노인복지 시설에 활동을 나간 것이 인연이 되어 매달 2-4회씩 지속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학년이 되면서 대학진학 때문에 조금은 부담이 된 것이 사실이지만 주일은 전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날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며 어려운 일은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자 마음의 편안함을 느끼게 되었고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생활을 통해 이제는 시간의 소중함도 느끼게 되어 자투리 시간까지 열심히 노력하고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주로 우리들이 봉사활동을 하는 곳은 노인복지 시설인 「가나안 노인복지원」 과 「덕산 신생원」 으로, 노인분들이 계신 곳과 다른 한곳은 어린아부터 청소년들이 있는 교아원입니다. 처음에는 어린이들이 있는 곳을 자주 가다가 이제는 노인 분들이 계신 곳이 손길이 더욱 필요함을 느끼면서 주로 노인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본래 5명이 봉사활동을 시작 하였습니다. 교회 학생회 임원들로 3학년 언니들 3명과 2학년 2명으로 토요일 1시부터 2시 사이에 모여 5시까지 봉사활동을 하고 주일에는 예배를 마친 후 1시에 모여 5시까지 활동을 주로 합니다.

이제 고3언니들이 대입 시험 준비에 바빠 우리 2명만이 활동을 하다가 2학년 남학생 5명과 1학년 남학생 2명이 활동을 하게 되어 무척이나 활기가 넘칩니다.

저희들이 하는 봉사활동의 내용으로는 여학생들은 시설 내 청소와 할머님들을 목욕 헤드리기를 주로 하고 담소나누기를 해드립니다.

남학생들은 시설 내 잡초 제거 및 외부청소를 담당하며 할아버님들의 목욕담당 등을 하며 봉사하고 있습

니다. 봉사활동을 하며 느낀 점은 노인 분들은 목욕하거나 씻기기를 매우 싫어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자신들의 물건에 손을 대는 것조차 싫어하며 또한 짐을 옮기고 정리 해주는 것을 싫어하신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든 버리지 않고 모아두는 습성이 있는데 요구르트 병 이라든지 일회용 컵은 물론 라면 봉지까지 주어 수심 장을 모아 두며 즐거움을 느끼시는 분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알츠하이머라는 치매의 병이 얼마나 무서운 병인가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인간의 기억들은 언제인가 잃어버리게 마련이지만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조차를 잊게 하는 치매야말로 가장 서글픈 병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우리들을 자신의 아기라고 했다가 엄마라고 부르기까지 하는 어른들을 볼 때 정말 안타까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그동안의 봉사활동을 통해 생활한 것과 느끼고 배웠던 것을 몇 가지 소개 하고자 합니다.

활동하나: 차별이 아닌 차이(2006년 1월 20일)

절대정직, 절대순결, 절대무사, 절대사랑은 MRA 자원봉사 동아리의 실천덕목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아리들은 우리들이 질서의식을 먼저 실천하기위해 학교에서 부정행위 하지 않기 캠페인을 벌였고, 지난 학교 축제와 체육대회를 통하여 일일차집과 아이스크림을 판매하여 수익금(39만원)으로 급우를 도와주고 농아인 교회에 후원활동(20만원)을 한 것에 많은 자긍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농아인 교회를 방문하여 그들과 교제하며, 주변 청결 및 환경 미화 등 봉사 활동을 하면서 장애인에 대한 생각이 바뀌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장애인 협회를 방문하였을 때에 여자 간사님이 어느 지체장애 아동을 아무 거리낌 없이 자기 딸처럼 안아주고 입맞춤 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저렇게 자연스럽게 활동할 수 있을까하여 의아해 하기도 하였습니다.

1시간 쯤 그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사라졌고 '장애의 벽을 넘어서'라는 포어처럼 저는 장애인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제 자신이 얼마나 편견이 심했는지를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방학이 되어서는 친구 평은과 장애인독거노인 방문 활동을 하기로 결심하고 장애인 협회에 자원봉사활동을 갔습니다. 두 집을 소개 받았는데 한집은 한 쪽 눈을 실명하고 오른 팔이 없으신 아저씨의 집이

였고, 다른 한 집은 허반신이 소아마비이신 할머니의 집이었습니다. 아저씨는 웬지 무섭기도 하고 불편하게만 느껴졌는데, 아저씨가 우리를 보고 착한 학생들이라며 고구마와 밤을 구워서 주시는 모습에 그동안 가졌던 마음이 부끄러웠습니다.

할머니 댁에 갔을 때에는 추운 겨울 날씨에 수도가 퐁퐁 열어서 물도 나오지 않았고, 녹슨 연탄보일러는 위험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옆집에서 뜨거운 물을 받아다가 언 수도를 녹이고, 설거지도 해 드렸으며 방도 닦아드렸습니다. 청소를 끝내고 할머니의 말동무가 되어 어께도 주물러 드리고 손바닥처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픈 허리로 인해 제대로 잠을 이루지도 못하시는 할머니께 파스를 붙여 드리고 냄새나는 기저귀도 빨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은 결코 외형으로 그 사람에 대한 판단을 해서 안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장애가 있지만 마음이 따뜻한 분들이 더 많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정상인일지라도, 정신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더 많으며 우리는 장애를 편견의 눈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더 많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오체불만족>의 오토다케의 말이 생각납니다. 장애는 신체적 특징에 불과하며 눈이 나쁘면 안경을 쓰고 손을 베었을 때 잠시 불편을 느끼는 것처럼 누구에게나 다가 올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람은 어떠한 사고로 언제 장애인이 될지 모르는 일입니다. 이제 신체적 장애를 극복한 헬렌 켈러를 생각하며 정상인들보다 더 훌륭한 일을 해낸 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장애 이해 및 체험의 날'에 여러 가지 역할을 바꾸어 체험하는 이해 교육이 많이 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누구든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사고가 생겨서 장애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역지사지하는 마음으로 봉사와 친절을 베푸는 그런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 서로 도움을 주고 인정이 많아지는 그런 사회가 될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저는 봉사를 차별이 아닌 차이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또 다른 삶을 배우고 소중한 그 어떤 것을 얻었다는 것을 깨달았으며 봉사는 한마디로 정의할 수는 없지만, 나에게 있어 삶의 일부분이 되는 소중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둘: 엄마가 된 마음으로(2006년2월 5일)

교회 주일학교 학생회 회장과 학급의 반장을 하면서 소극적이고 내성적이던 나의 마음이 점점 적극적이고 책임감이 생겼습니다. 자원봉사활동을 하기 전에는 타인을 대하는데 수줍음과 많은 어색함이 있었는데 이제는 어른들과 농담을 하며 그분들이 속상해하고 계시면 위로해 드리며 기분전환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어린이들이 너무나도 귀엽고 예뻐 친동생이 하나 있었으면 바램도 해 보았습니다.

처음 봉사활동을 다닐 때에는 무엇인가 큰일이나 하는 것 같은 자만심이 먼저였는데 봉사활동을 통해 이제는 친척집에 들러 가족들에게 내가 해야 할 일을 한다는 느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봉사는 능력과 힘이 있어 하는 일방적인 사랑이 아닌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나를 반겨주고 기다리며, 소중하게 생각해주는 분들 많이 계시다는 것에 오히려 내가 사랑받고 있음을 느끼게 되면서 기쁨은 물론 자긍심과 희망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덕산에 있는 신생원이라는 고아원으로 친구들과 봉사활동을 갔습니다. 봉사활동을 가기 전에는 고아원하면 웬지 아이들이 꼬질꼬질하고 뭔가 반항적인 아이들이 많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나의 편견은 아이들을 보는 순간 날아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곳의 아이들은 어쩌면 이기적인 우리들보다는 더 순박하면서도, 깔끔하고 귀여운지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원생들은 4살에서부터 나와 같은 고등학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아이들이 있었는데, 어린 동생들이 엄마라고 부르며 안아달고 할 때는 엄마가 된 마음으로 아이들을 안아주고 놀았습니다.

아이들은 사랑이 그리웠는지 서로 안아달라고 즐라대어 한번에 2-3명씩 안아주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아이들과 색종이 접기도 하고 윷놀이 등을 하며 시간가는 줄을 몰랐습니다. 봉사활동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원장 수녀님께서 저희들을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수고가 많았다고 칭찬을 하신 후 아이들을 대하는 모습을 보니 조금은 주의를 해둘 것이 있다며 몇 가지를 당부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원장선생님께서서는 우리들에게 한 원생들에게만 편애하거나 동정하는 마음으로 지나친 사랑을 주지 말라는 말씀을 당부하셨습니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어린원생들은 봉사자가 떠난 후에는 사랑이 그리워 몸살까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말씀해주시며 여러분이 자주 와서 놀아주는 것이 가장 좋은 봉사라고 말씀도 곁들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히 편애하여 사랑하지 말고 골고루 사랑을 주라는 우리는 원장님의 말씀을 다시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돌아오는 길에는 친구들은 너무 아이들이 귀엽고 잘 따라 동생보다 더 예쁘다는 친구도 있었고 동생이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여 간신히 돌아섰으며 눈물을 흘리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원생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고 더 자주 와야겠다는 생각을 늘 다짐해 봅니다.

셋: 어버이날을 생각하며(2006년 5월 13일 토요일)

고교 입학을 하여 나는 특별한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윤리를 가르치시는 선생님과 만남으로 예절 실천 봉사활동을 하면서 매년 2회씩 노인정 방문이나 독거노인을 찾아 봉사하시는 선생님의 모습을 통해 나도 남을 위해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는 기쁨이 마음에 변화를 가져오게 했고, 이제 노인정 방문이나 위문활동 실천은 우리 학교의 전통이 되었습니다.

5월은 보은 감사의 달입니다. 오늘은 토요일로 특히 지난 5월8일이 어버이 날이었지만 독거노인들과 노인정의 어른들을 찾아뵙지 못했던 것을 위해 오늘 위로잔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선생님께 제가 봉사활동을 다니고 있는 「가나안 노인의 집」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하면서 올해에는 그곳으로 위문활동을 하자고 말씀 드렸더니 선생님들께서 흔쾌히 승낙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과일과 떡 그리고 과자와 라면 등을 준비하여 가나안 노인회를 찾았습니다. 청소와 음식준비를 하기 위하여 아빠의 차를 타고 아침 9시쯤에 노인복지회에 도착하였습니다.

고등학교에 들어오면서부터 우리는 고아원과 노인복지회의 봉사활동을 다녔지만 오늘은 어버이날 행사를 대신하여 위문잔치를 하는 날이라 조금은 분주하면서도 흥분이 되었습니다.

여느 때와 같이 가나안 노인회 임구에는 몸이 불편하신 할아버지들께서 마중을 나와 계셨습니다.

김판준 할아버지께서는 귀에 보청기를 끼고 계셨는데 우리가 인사 하자 손녀들을 보듯 아주 반가운 모습으로 우리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할아버지의 손은 마치 나무 등결같이 거칠하고 너무 세게 잡아서 아프기까지 했지만 잡은 손을 뿌리칠 수는 없었습니다. 오래 동안

놓지 않으시는 마음을 이제는 조금 알 것만 같습니다.

매번 느끼는 것이지만 노인들의 모습은 항상 외롭게 보입니다. 우리는 청소를 하기 전 할아버지와 할머니께 먼저 카네이션 꽃을 달아드리고 알사탕도 하나씩 드렸더니 너무나 좋아하셨습니다.

우리는 시절의 이곳저곳을 청소하며 결례질을 시작했습니다.

도로변이라서 유리창은 왜 그렇게 먼지가 잘 끼는지 한참을 뒤야 했습니다. 그리고 왜 그리 유난히도 수돗가는 코를 싸서 질 정도로 지린내가 심했는데 한참 후에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화장실 보다 조금 가까우니 그 곳에 할아버지들이 소변을 보셨음을 금방 눈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락스로 수돗가와 화장실 청소를 말끔히 하고 어른들을 모실 준비를 했습니다.

그동안 2개월 모은 쌀로 떡(시루떡, 절편, 비빔떡, 썩떡)을 만들고, 용돈을 모아서 음료수와 과일, 삶은 돼지고기, 김치 등으로 상차림을 했습니다. 특히, 떡은 학교 주변 야산에서 우리들이 직접 썩을 캐서 만들었고, 과일은 방울토마토를 재배하는 영선이가 5박스 가져와 잔치를 치르기도 남았다. 떡과 과일 및 음료수를 준비하여 상을 차리니 그런대로 푸짐했습니다.

우리는 음식을 대접하며 어깨도 주물러 드렸더니 무척이나 행복해 하셨습니다. 우리는 민요와 신나는 대중가요를 들려주었더니 낄는 것조차 힘들어하지는 않으신들이 신나는 음악을 들어드리자 가볍게 몸을 흔드시는 모습을 보면서 남을 위해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는 뿌듯함이 마음에 가득 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의 어깨를 주무르고 담소도 나누는 동안 어느새 어른들의 얼굴에는 함박웃음이 가득했고 모두가 마치 동네 잔치집에 온 듯 즐거운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습니다.

어른들은 청소해주고 찾아와 준 것도 고마운데 이렇게 맛있는 음식에, 어깨까지 주물러 주는 학생들이 기특하다"고 칭찬이 대단하셨습니다. 우리들이 힘들다며 연신 "그만 하라"고 손사래를 치지만 싫지 않은 표정을 이셨습니다.

넷: 찔레꽃과 할머니(2006년 7월22일)

오늘은 김중혜 할머님을 목욕해 드리고 돌보아 드리는 날입니다. 할머니는 치매가 있으신데 가끔씩 우리들이 가면 얘기가 하며 반겨 주시다기도 어느 때는 엄마라는 말을 하여 우리들을 당황하게도 하십니다. 얼마

후 우리는 할머님의 방을 청소하기 시작했는데 어디선가 코를 싸서 질 정도의 지린내로 구토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까지 깨끗했던 할머니의 옷이 앞뒤가 누렇게 젖어 있었는데 자신도 모르게 소변을 싼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치매에 전립선염까지 앓고 계시다고 합니다.

누구나 몸이 불편하면 저렇게 되는구나! 아마 저 할머니도 젊은시절에는 피 예쁜 미인이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며 우리 할머니가 생각나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 할머님은 순천향병원에서 신장이 나빠 혈액투석을 하시다가 복막 패혈증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너무나도 저를 귀여워 해주셨던 할머님이었는데 결국 천국으로 간신 것을 생각하며 한참 눈물이 났습니다. 할머니는 찔레꽃 노래를 무척이나 좋아하셔서 그 노래를 하실 때면 저도 함께 불렀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렇게 곱고 예쁘시던 할머님께서 지난 5월 하얀 찔레꽃이 만발했던 향기를 뒤로하고 천국을 가셨던 것입니다. 나는 할머님의 모습을 떠올리며 그동안 엄마 아빠가 얼마나 힘드실까 하는 생각을 하며 부모님을 위해 동생들과 집안일을 도와 드려야 함을 다시한번 느꼈습니다.

우리는 할머니를 씻겨드리고 옷을 갈아 입혀드리려 하자 그날은 고집을 부리시며 부끄러워 옷을 벗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그분을 통하여 나의 미래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할머님은 젊은 시절 매우 열심히 사신 것 같습니다. 두 아들을 두셨는데 한분은 외국에 이민 가셨고 또 한분은 공무원이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정신이 좋을 때는 당신의 자식들 자량이 대단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일은 자식들이 당신을 모시러 온다며 자꾸 복지원의 현관문에 기대서서 누가 오느냐에 온갖 정신이 아들을 향한 마음으로 계신 모습을 보면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종일 유일한 친구인 TV와 지내다 우리들이 가면 손녀인냥 반겨주시는 어른들이 특히 맘은데 복지원에는 자식이 있으면서도 돌보기 힘들다는 이유로 자식들에게 버림받아 충격을 받고 정신병을 앓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일주일 전의 일이었습니다.

노인의 집에 왔을 때도 할아버지님 두 분께서 무척이나 심하게 몸싸움 계셨는데 현 칫솔과 모아둔 종이컵 봉치가 서로 당신들의 것이라며 양보하지 않고 다투시는 것을 본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새 칫솔과 플라스틱 컵을 새로 드리며 서로 할아버님들이 잘하신 것이라는

두둔을 해드렸더니 화가 풀렸던 적을 목격도 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가정에서의 효도와 봉양이 얼마나 소중한 훌륭한 예절인가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화가족화 되어있고 개인주의화 되어 있는 현대사회에서는 노인들의 문제를 이제 사회나 국가에서 노인들을 잘 모실 수 있는 대책과 제도가 필요함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할머니를 보면서 우리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도 생각해 보았고 모든 어르신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남은 생애를 편안하게 지내셨으면 기도도 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나이 보듬께 만백만 인사 즈미르 채드

만 지속적인 봉사활동은 5명 정도가 가장 잘 맞고 움직이기에 신속한 것 같습니다. 저희학생회의 인원이 총 27명인데 6개의 팀을 나누어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중학생 후배들과 서로 조를 같이 만들고 남학생과 여학생들을 혼합하여 가나안 노인의집과 덕산 신생원 그리고 예산 농아인 협회를 주로 봉사할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토요일 휴무제가 모두 이루어지면 1달에 3회는 사랑의 실천을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선생님의 말씀에 착한 일 좋은 일을 하는 선행도 매우 소중하지만 이런 선행을 지속적으로 하는 봉사가 말로 정만 호루라기 일이라 많은 다지 한 번 기수에 새겨보입니다.

봉사하는 사람도 봉사하는 사람에 맞아야

저는 1989년 11월 15일 19살의 나이로 서울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당시 서울대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은 대부분 서울에서 자란 학생들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자란 학생들이 서울대학교에 입학한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저는 서울에서 자란 학생이 아니라 강원도 정선에서 자란 학생이었습니다. 정선에서 자란 학생이 서울대학교에 입학한 것은 매우 드문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대학교에 입학한 후, 서울에서 자란 학생들과 어울리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에서 자란 학생들은 서울에서 자란 학생들과 어울리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에서 자란 학생들과 어울리려고 노력했지만, 서울에서 자란 학생들은 서울에서 자란 학생들과 어울리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에서 자란 학생들과 어울리려고 노력했지만, 서울에서 자란 학생들은 서울에서 자란 학생들과 어울리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자란 학생들과 어울리려고 노력했지만, 서울에서 자란 학생들은 서울에서 자란 학생들과 어울리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자란 학생들과 어울리려고 노력했지만, 서울에서 자란 학생들은 서울에서 자란 학생들과 어울리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자란 학생들과 어울리려고 노력했지만, 서울에서 자란 학생들은 서울에서 자란 학생들과 어울리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자란 학생들과 어울리려고 노력했지만, 서울에서 자란 학생들은 서울에서 자란 학생들과 어울리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자란 학생들과 어울리려고 노력했지만, 서울에서 자란 학생들은 서울에서 자란 학생들과 어울리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자란 학생들과 어울리려고 노력했지만, 서울에서 자란 학생들은 서울에서 자란 학생들과 어울리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자란 학생들과 어울리려고 노력했지만, 서울에서 자란 학생들은 서울에서 자란 학생들과 어울리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자란 학생들과 어울리려고 노력했지만, 서울에서 자란 학생들은 서울에서 자란 학생들과 어울리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자란 학생들과 어울리려고 노력했지만, 서울에서 자란 학생들은 서울에서 자란 학생들과 어울리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자란 학생들과 어울리려고 노력했지만, 서울에서 자란 학생들은 서울에서 자란 학생들과 어울리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자란 학생들과 어울리려고 노력했지만, 서울에서 자란 학생들은 서울에서 자란 학생들과 어울리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자란 학생들과 어울리려고 노력했지만, 서울에서 자란 학생들은 서울에서 자란 학생들과 어울리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자란 학생들과 어울리려고 노력했지만, 서울에서 자란 학생들은 서울에서 자란 학생들과 어울리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자란 학생들과 어울리려고 노력했지만, 서울에서 자란 학생들은 서울에서 자란 학생들과 어울리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자란 학생들과 어울리려고 노력했지만, 서울에서 자란 학생들은 서울에서 자란 학생들과 어울리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자란 학생들과 어울리려고 노력했지만, 서울에서 자란 학생들은 서울에서 자란 학생들과 어울리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자란 학생들과 어울리려고 노력했지만, 서울에서 자란 학생들은 서울에서 자란 학생들과 어울리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자란 학생들과 어울리려고 노력했지만, 서울에서 자란 학생들은 서울에서 자란 학생들과 어울리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자란 학생들과 어울리려고 노력했지만, 서울에서 자란 학생들은 서울에서 자란 학생들과 어울리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자란 학생들과 어울리려고 노력했지만, 서울에서 자란 학생들은 서울에서 자란 학생들과 어울리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자란 학생들과 어울리려고 노력했지만, 서울에서 자란 학생들은 서울에서 자란 학생들과 어울리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자란 학생들과 어울리려고 노력했지만, 서울에서 자란 학생들은 서울에서 자란 학생들과 어울리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자란 학생들과 어울리려고 노력했지만, 서울에서 자란 학생들은 서울에서 자란 학생들과 어울리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자란 학생들과 어울리려고 노력했지만, 서울에서 자란 학생들은 서울에서 자란 학생들과 어울리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자란 학생들과 어울리려고 노력했지만, 서울에서 자란 학생들은 서울에서 자란 학생들과 어울리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대상(국가청소년위원장)

신진철 | 봉황중학교 3학년



敎學相長, 施受相長

— 음악봉사를 하면서 —

I. 봉사활동 동기

누군가를 즐겁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언제나 나에게 큰 힘이 되어줍니다. 봉황중학교에 입학해 리코더부의 한 단원으로 활동하게 되면서 나는 전일제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혼자 사시는 할머니를 찾아가 틈틈이 연습한 곡들로 리코더연주를 해 드리곤 했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은 연주였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기뻐하시며 내 손을 꼭 잡고 고맙다는 말을 연거푸 하시는 할머니의 얼굴을 보면서 나는 내 부족하고 소박한 연주로 누군가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큰 힘이 되어 내가 음악봉사를 펼치기로 결심하는 데에 견인차 역할을 해 주었고 선생님의 도움으로 마음이 맞는 친구, 후배들과 공주 관내의 많은 복지시설을 다니며 음악봉사를 몸소 실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처음에는 단순히 내가 좋아하는 리코더로 음악을 연주하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일종의 '욕심'으로 음악봉사를 다녔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었다는 즐거움보다는 봉사활동 시간을 채우고 있다는 만족감 내지는 자기만족으로 음악봉사를 다녔습니다. 하지만 많은 복지시설에 음악봉사를 펼치면서 음악을 듣고 마음의 상처를 조금이나마 잊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장애우와 할아버지, 할머니의 모습을 보게 되었고 그 과정을 통해 '참된 봉사활동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참된 봉사활동. 그것은 바로 '사랑을 베풀며 더불어 성장할 수 있는 아름다운 길이었습니니다. 따뜻한 사랑을 베풀고 동시에 인격을 수양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었으면 하는 바람을 윤희유로 하여 나는 따뜻한 사랑의 선

올과 함께 더욱 적극적인 음악봉사를 펼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II. 활동내용

학생들은 보통 바쁘다는 이유로 봉사활동에 있어 곤란함과 난색을 표하곤 합니다. 나도 음악봉사를 하기 전까지는 시험공부, 학원시간 등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봉사활동거리를 찾아 봉사활동하기를 꺼려했었습니다. 하지만 리코더로 새로운 봉사활동을 접하게 되면서 나는 더욱 활발히 봉사활동을 펼치게 되었고 나아가 스스로 봉사활동거리를 찾아 나서게 되었습니다. 봉황음악봉사단 단원들 중 마음이 맞는 친구, 후배들 몇 명과 함께 직접 복지시설을 찾아 더 많은 음악봉사를 하게 되면서 봉사활동은 어느새 나의 취미가 되었습니다.

1. 봉사활동을 위한 준비

친구들은 나를 찾을 때 항상 음악실부터 올라옵니다. 나는 점심시간은 물론 쉬는 시간이나 방과 후 시간에도 음악실에 남아 몇몇 친구, 후배들과 함께 리코더로 위문공연을 펼칠 곡을 선정하고 연습하기 때문입니다. 친구들은 이런 나를 보며 음악실이 집인 것 같다고 말하고는 합니다. 물론 '봉사활동은 작은 것부터'라는 신념을 가진 나이지만, 더욱 좋은 음악과 훌륭한 연주로 사람들의 마음 속 상처를 치유해주어야겠다는 생각을 하면 더욱 노력하고 많은 연습을 하게 됩니다.

음악봉사를 하기 전 내가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봉사활동 연주곡을 선택하는 일입니다. 나는 연주곡을 선택할 때에는 대중성을 수준보다 먼저 검토하는데 이것은 음악봉사를 펼치면서 터득한 나의 '노하우'와도 같은 것

입니다. 많은 음악봉사활동을 하면서 사람들은 아름답고 화려한 기교가 섞인 어려운 클래식보다는 함께 따라 부르고 연주에 맞추어 흥겹게 춤을 출 수 있는 곡을 더욱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음악봉사를 펼칠 장소와 듣는 분들의 연령에 따라 연주곡의 선택 기준 또한 달라지고 있습니다. 음악봉사를 하기 위해 내가 찾아놓은 리코더악보만도 100여 개가 넘을 만큼, 나는 음악봉사 연주곡 선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밖에 음악봉사에 필요한 물품들도 함께 봉사활동을 갈 몇 명의 친구, 후배들과 손수 준비합니다. 플랜카드와 팜플렛, 복지시설의 가족 분들께 전달할 과일, 떡 등의 위문품들, 연주에 필요한 보편대 등 대부분의 물품들을 직접 준비합니다. 위문품이나 플랜카드의 경우에는 봉황음악봉사단을 지도하시는 박영주 선생님과 현정호 선생님께서 도와주셔서 비교적 쉽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2. 참사랑의 실천

가. 뜻 깊은 방학, 아이들에게 리코더를 가르쳐 주었어요

무더위에 지쳐 나태해지기 쉬운 여름방학. 나 또한 인터넷을 하거나 TV를 보며 헛되이 보내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여름방학은 봉사활동을 하며 바쁘면서도 즐겁고 보람차게 보냈습니다. 이번 여름방학기간동안 집중적으로 공주기독교사회복지관 아이들에게 리코더를 가르쳐주게 되었습니다. 복지관의 아이들은 모두 유치원, 초등학교 학생들이었고 나는 이 아이들의 리코더선생님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에게 기본적인 운지법이



열심히 가르치는 나, 열심히 배우는 아이들
나 악보 보는 법을 맨 먼저 가르쳤습니다. 방학 전 학기 중에 이미 우리학교 봉황음악봉사단 단원들 중 2학

년 학생들 3명이서 복지관 아이들에게 매주 수요일 리코더를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아이들은 소프라노 리코더 운지법과 악보 보는 법을 알고 있었지만 방학이 시작되어 뒤늦게 리코더교실에 합류한 아이들은 조금 어려웠습니다. 이를 동안은 운지법과 악보 보는 법을 가르치고 간단한 테스트를 보았고 나머지 기간 동안 등대지기, 미뉴에트, 즐거운 행진곡 등의 재미있고 대중적인 곡들을 가르쳐주었습니다. 내가 준비해간 곡들을 쉽게 익혀 리코더교실이 일찍 끝나는 날도 있었는가 하면, 준비해간 곡이 어려워 아이들이 집에 돌아가지 않고 조금 더 복지관에 남아 연습에 여념 없던 날도 있었습니다. 나는 이 아이들과 함께 12월에 있을 우리학교 봉사체 무대에 올라 열심히 연습한 음악들을 연주해 아이들에게 좋은 추억을 만들어 줄 생각입니다.

원래 낯을 가리는 성격이라 처음에는 아이들에게 다가가기 리코더를 가르쳐주기 힘든 점도 있었고 서먹서먹하기도 했지만 지속적으로 아이들에게 리코더를 가르쳐주면서 이러한 점들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가르치며 서로 성장한다는 교학상장의 의미처럼, 리코더교실을 통해 아이들을 지도하면서 나도 배운 점이 많습니다. 활발하고 사교성 있는 성격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 부족한 리코더실력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가르치며 배우는 알찬 여름방학이었습니다.

지금도 여름방학 리코더교실을 회상하면 이상하게 설레고 리코더만 잡으면 진지해지면 개구쟁이 아이들과 함께 연습한 곡으로 무대에 오를 생각에 가슴이 벅차옵니다.

나. 매주 목요일, 공주의료원으로 아름다운 출근을 합니다

나는 매주 목요일 5시, 공주의료원에서 위문공연을 펼치고 있습니다. 마음이 맞는 친구, 후배들 6명과 함께 대중적인 곡을 연습, 준비해 공주의료원 로비 앞에서 30여 분간 작은 음악회를 엮니다. 미리 환자 분들을 로비에 모신 후 시작하는 음악회가 아니라 그냥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자연스럽게 시작되는 음악회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브려, 고리는 잔차, 본들이 많지 않아 걱정도 많이 했습니다. 첫 위문공연이 끝난 후 나는 계속 공주의료원 음악봉사를 펼칠 수 있을지 고민에 휩싸였고 야속한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의료원 음악봉사가 입에 입으로 전해지면서 점점 우리의 작은 음악회를 보기 위해 의료원을 찾는



공주의료원 작은음악회 모습입니다.

사람들과 환자 분들이 늘어났으며 병원 관계자 선생님 들께서도 직접 음악회를 보고 격려해주셔서 많은 힘이 되었습니다. 연주가 끝나고 나에게

“학생, 수고했어. 다음에도 또 와서 멋진 피리 불러 줘.”

라고 말씀하시는 환자 분들, 음악 훌륭했다고 격려해 주시며 음료수 건네시는 의사선생님들을 보며 의료원 위문공연을 위해 일주일동안 열심히 준비한 나와 친구, 후배들의 땀과 노력이 헛되지 않았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어김없이 목요일 5시가 되면 시작될 공주의료원 작은 음악회를 통해 모든 환자 분들의 육체적인 병은 물론 마음의 병까지 치유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토요일무일을 활용한 음악위문공연 봉사활동

나는 봉황음악봉사단원들과 함께 매월 토요일무일을 활용해 공주 관내의 복지시설을 방문, 작은 음악회를 열어 시설의 가족 분들께 다양한 음악을 선사합니다. 음악회라 하여 딱딱한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지는 악기 연주가 아니라 다함께 노래하고 춤추며 즐길 수 있는 편안하고 소박한 음악회입니다. 리코더, 피아노, 색소폰, 플룻 등 다양한 악기로 대중적인 곡들은 연주, 시설의 가족 분들도 쉽게 알 수 있는 지루하지 않은 음악회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는 봉황음악봉사단원들과 함께하는 음악위문공연에 2005년 6월 동곡요양원 위문공연을 시작으로 지금도 꾸준히 참가하고 있으며 소망의집, 누리재활원, 금강원 벨엘 정신요양원 등 공주 관내의 다양한 복지시설을 방문하며 위문공연을 펼치고 있습니다. 나는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음악으로써 따뜻한 사랑을 전달하고자

적극적으로 토요일무일을 활용한 음악위문공연 봉사활동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나는 가장 기억에 남는 봉황음악봉사단 음악위문공연 봉사활동을 말하라면 단연 2005년 10월에 있었던 “소망의 집” 작은 음악회를 이야기합니다. 우당학교 본편이 아니라 대전전민중학교 가야금부와 충청남도 색소폰동아리까지 연계해서 함께 음악회를 펼친 대규모의 위문공연으로, 봉사활동 파급효과의 향을 펼칠까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의 작은 봉사활동이 조금씩 파급되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더욱 폭넓은 방법으로 힘든 사람들에게 사랑과 희망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라. 어버이날을 맞이해 음악봉사활동을 펼쳤어요

나는 이 밖에도 명절이나 기념일 등을 기회로 삼아 음악봉사활동을 펼치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어버이날을 맞이해 펼쳤던 에덴노인병원 음악봉사활동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나와 친구들이 직접 만든 카네이션을 준비해 에덴노인병원을 방문하여 할아버지, 할머니께 달아드리고 리코더연주를 시작하기 위해 자리에 앉았습니다. 나는 대표로 할아버지, 할머니께 인사드린 후 우리를 소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할머니. 저희는 병원 옆 봉황중학교에서 어버이날을 맞이해 할아버지, 할머니께 음악선물을 드리기 위해 온 학생들입니다. 이 악기의 이름은 리코더인데, 쉽게 피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손자들이 와서 재롱을 피운다고 생각하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편히 저희 음악을 듣고 빨리 원래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건강히 오래오래 사세요.”

할아버지, 할머니들께서는 뱃노래, 한강수타령 등의 귀에 익숙한 민요를 들으시며 박수를 치셨고 아는 노래가 나오면 음악에 맞추어 따라 부르기도 하셨습니다. 비록 정기적인 방문이 아니라 어버이날을 맞이해 펼친 음악봉사였지만 마치 내 할아버지, 할머니를 보는 것처럼 낯설지 않았습니다. 음악연주가 끝나고 푸근하고 넉넉한 웃음으로 나를 격려해주시고 앞에 차려진 떡이나 과일들을 넉넉히 그릇에 담아 먹고 가라며 주신 할아버지, 할머니. 최선을 다하여 연주해 할아버지, 할머니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안식을 준 그 날을 나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III. 앞으로의 계획

1. 지속적인 음악봉사를 약속하며

음악봉사활동을 하면서 나는 ‘베풀고 받으면서 서로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봉사활동은 결코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만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사랑을 실천하면서 나 또한 인격적으로 성장하고 사랑과 봉사활동의 참된 의미를 알아갈 수 있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자신의 부족한 결함도 채워갈 수 있고요. 아직 부족한 나를 채우기 위해, 아직 사랑이 더 필요한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희망을 전달하기 위해 나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음악봉사를 실천하겠습니다. 고등학생 되어서도 지금까지 실천해왔던 공주의료원 봉사활동, 정기적인 위문공연을 비롯하여 더욱 다양한 복지시설을 정기적으로 방문해 음악봉사를 펼치고 우리학교 학생들, 더 나아가 다른 지역의 학생, 동아리वाद도 연계해 다양한 개념의 봉사활동을 실천에 옮기고 싶습니다. 또한 어른이 되어 사회에 나가서도 나보다는 남을 먼저 배려하고,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먼저 살피고 도움의 손길을 건낼 수 있는 아름다운 사

각종 봉사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학교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음악봉사로 지역사회에 널리 봉사활동을 파급시키고 싶습니다. 아직까지 부족한 점도 많고 미숙한 나이지만, 음악봉사에 대한 열정과 노력은 절대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더욱 다양한 복지시설과 기타 기관에 방문, 음악봉사를 펼침으로써 널리 봉사활동을 알리고 이를 통해 많은 학생들과 사회인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봉사활동의 씨앗을 보다 널리 퍼트리려고 싶습니다.

3. 이 글을 마치며

현재 단지 봉사활동 시간을 채우기 위해 맹목적으로 봉사활동을 다니는 학생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들은 봉사활동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한 채 눈과 귀를 가리고 무의미한 시간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나도 한때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서 허우적대던 중학생에 불과했지만 선생님의 도움으로 음악봉사라는 것을 알게 되어 지금처럼 아름다운 사랑을 실천하게 되었습니다.

2. 봉사활동의 '씨앗을 널리 퍼트리기 위해

나는 처음에 전일제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혼자 독거노인을 찾아 음악봉사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곧 나의 음악봉사가 학교로 파급되어 봉황음악봉사단이 창설되게 되었고 그 후 우리학교는 봉사활동을 잘 하는 학교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만큼 매우 적극적으로 전교생이

각종 봉사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학교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음악봉사로 지역사회에 널리 봉사활동을 파급시키고 싶습니다. 아직까지 부족한 점도 많고 미숙한 나이지만, 음악봉사에 대한 열정과 노력은 절대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더욱 다양한 복지시설과 기타 기관에 방문, 음악봉사를 펼침으로써 널리 봉사활동을 알리고 이를 통해 많은 학생들과 사회인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봉사활동의 씨앗을 보다 널리 퍼트리려고 싶습니다.

이 글을 마치는 지금도 나는 행복한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음악으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더불어 나의 마음 또한 즐거움으로 충만하게 될 아름다운 미래, 그리고 현재를 말합니다. 앞으로도 부드러운 멜로디로 따뜻한 사랑을 베푸는 멋진 학생이 되겠습니다.



어버이날을 맞이해 열린 작은음악회

최우수상(충청남도지사)

한예지 | 천안여자고등학교 2학년



1. 실천사례

1. 사회복지법인 신아원

평소에 남 돕기를 좋아하고 봉사활동에 흥미를 띠고 있었는데, 고등학교에 들어와서 적극적으로 봉사를 하게 되었고 학교 근처에 '신아원'이라는 사회복지 시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효자원에 가서 할머니 할아버지도 도와드려보고, 캠프에 함께 참가해서 다른 아이들을 지도하고 도와주는 등의 여러 활동을 해보았지만 아이들을 돌보는 활동을 해본 적이 없어서 한번 가보고 싶었다. 그리고 친구와 이야기를 하던 중에 그 친구도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다. 다른 친구들을 더 모아서 함께 한 달에 한번, 학교에 가지 않는 토요일마다 같이 가기로 하였다. 학교에 가지 않는 날에도 일찍 일어나야 되는 게 처음엔 짜증나기도 했지만 계속 다니다 보니 익숙해져서 편찮았다. 아이들만 돌보고 청소만 하면 되는 줄 알고 힘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은 점이 봉사에는 쉬운 것이 없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처음에는 가서 청소나 풀 뽑기 등의 일만 하고 아이들을 보지 못해서 아쉬웠다. 그렇지만 이것도 봉사다! 라는 생각에 집에서는 하지도 않는 청소를 구척구척 쓸고 닦고 하였다. 아이들 공부방을 치울 때에는 의자를 다 올려서 책상 밑에도 다 청소하고 책상에 묻은 것들도 다 닦아 냈다. 한번은 열심히 청소를 하다 보니 옆에 주전자가 있는 것도 모르고 주전자를 쳐서 안에 있던 물을 엮는 바람에 그 물을 치우느라고 힘들었던 적도 있었다. 창문 틈새들도 열심히 치우고 유리창도 유리창이 없다는 생각이 들도록 깨끗이 닦기도 하였다. 화장실 청소를 할 때는 바닥에 뿌려놓은 물 때문에 미끄러지거나 넘어진 적도 여러 번 있었다. 풀 뽑는 것은 아이들의 놀이터의 풀을 뽑았는데 애들이 와서 말을 걸기도 하고 자기들도 해본다고 하였다. 또 풀을 뽑는 것은 평소에 해보지 못한

활동이어서 좋았다. 그렇게 몇 번은 청소를 하다가 날씨가 좀 풀려서 애들을 데리고 삼거리에 가서 함께 놀았다. 가서 그네도 타고 물고기도 보고 뛰어 다니기도 하고 사진도 찍었다. 그네를 서로 먼저 타겠다고 싸워서 줄을 서서 타고 30번씩 밀어주겠다고 달래기도 하였다. 30번씩 밀어주고는 팔이 너무 아파서 다음날까지 아무것도 못해서 고생하기도 하였다. 그 다음에 갔을 때는 놀이터나 방에서 놀았다. 한번은 놀다가 두 아이가 병원을 가야 되서 차에 태우려고 하는데 한 아이가 나한테서 안 떨어지려고 해서 같이 병원까지 따라갔다. 병원에서도 내가 안고 진찰받고 주사도 맞았다. 얼마 전에는 방학숙제도 함께 해줬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한참을 고민하다 겨우 겨우 완성을 했는데, 하고 나서 보니 어설피긴 하지만 내가 이런 것도 할 수 있구나! 라고 느끼기도 해서 좋았다. 신아원에 한국기술대학교 봉사 동아리 언니 오빠들이 매주 주말마다 오는데 신아원 애들이 그 언니 오빠들을 알아보는데 신기하고 부럽기도 했지만, 이제는 우리도 알아보는데 웬지 뿌듯하고 좋았다. 신아원 아이들이 우리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에서도 마주치면 알아보고 밖에서 지나치다가 만날 때 알아보는 게 웬지 더 친근하고 좋았다. 신아원을 꾸준히 다니면서 평소엔 하지 못해봤던 활동을 할 수 있어서 나에게도 이득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여러 활동 중에 내가 원활히 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 많이 생각해 보았다. 아이들과 함께 놀 때는 여러 활동을 준비해가야겠다고 놀다가 다름을 하는 아이들이 있을 경우에는 중간에서 잘 해결해주는 능숙함을 더 길러서 잘 화해시켜줘야겠다고 느꼈다. 내가 이렇게 다니면서 많은 친구들이 신아원이란 곳을 알게 되어서 좋았고 나를 보고 많은 친구들이 봉사활동을 다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많은 사람들에게도 많이 소개 하였고 미니 홈페이지에도 신아원에서 찍은 사진을 올려놨다. 앞으로 많은 친구들에게 소개해야겠다고 최대한 기회를 많

이 만들어 친구들과 신아원 뿐만이 아닌 다른 사회복지 시설에 많이 가 볼 것이다.

2. 자장면 봉사 - (재)프란치스코회 산청분소

엄마께서는 현재 장구를 배우고 계시는데 그 곳은 장구를 가르칠 뿐 아니라 정말로 많은 봉사를 하는 단체이다. 이 봉사단체를 보고 봉사에도 정말 갖가지 많은 활동이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그 곳에서는 개방교도소 체육대회 날 가서 장구도 쳐주고, 독거 노인들을 방문해 음식도 해드리고, 장애우들의 집에 방문해서 여러 가지 도와주는 등의 일을 많이 하는데 그 중에서 자장면 봉사라는 활동이 있다. 이 활동은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무료로 자장면을 만들어서 같이 먹고 청소도 해주는 활동이다. 여러 사회복지 시설도 가지지만(재)프란치스코회 산청분소(이하 산청) 라는 곳은 3개월에 한번 씩은 꼭 간다. 산청은 나병환자가 사는 곳이다. 말은 많이 듣고 싶지만 나병환자를 처음 보는 나로서는 생각과 많이 달라서 놀랄 수 밖에 없었다. 생각보다 징그럽고 한뼘으로는 무섭기도 했다. 그렇지만 같이 자장면도 먹고 먹는 것도 도와드리고 이야기도 하다 보니 그런 생각보다는 우리와 조금 다르고, 불편한 곳이 있는 것 뿐이고 우리와 같은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 할 수 있게 되었다. 자장면은 하루 전날 밀가루 반죽 등을 준비하고 가서 반죽을 잘 펴서 먹기 좋은 길이로 자르고 면발을 뽑아내고 양념도 만드는데 만드는 동안 큰 공간을 차지하므로 밖으로 나가서 했다. 그래서 너무 추웠지만, 그런 활동은 처음이어서 재밌기도 하였다. 나는 양념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재료들의 껍질도 까고 자르고, 면발을 먹기 좋은 길이로 자르고 그릇에 담고 등의 간단한 일들을 하였는데도 너무 힘들었다. 그렇지만 나보다 더 힘들 일을 하시는 어른들을 생각해서 열심히 하였다. 만들면서 몰라 먹다가 들키기도 하고 덜렁대서 밀가루를 온 몸에 묻히기도 했다. 다 만들고 먹는 동안 너무 맛있어서 그분들 보다 내가 더 많이 먹어서 놀릿감도

되었다. 처음 때에 자장면그릇만 400여개를 설거지 해야 해서 소도 시리고 추웠지만 치우고 나서 그분들에게 고맙다는 얘기를 들었을땐 한결 편찮아 졌다. 지난 5월 달에는 할머니 할아버지 3분의 팔순잔치를 해드렸다. 음식도 하고, 상도 차리고 여러가지 공연도 하였다. 나와 내 동생도 준비해간 공연을 보여드렸다. 여러공연들도 보시고 직접 나와 노래도 부르시고 춤도 추심면서 잔치를 즐기시는 모습을 보고 나도 기뻐다. 우리 외할머니도 함께 가서서 그 분들과 재밌게 이야기 하시는 걸 보고 왠지 기분이 좋았다. 이 봉사단체의 책임자(이하 단장님)께서는 이곳 산청을 다니신지 꽤 오래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인지 단장님을 알아보시는 분들도 많고 단장님과 모자관계를 맺으신 할머니도 계셨다. 한번은 단장님의 어머니의 방에 찾아가 인사도 드리고 함께 이야기도 하고 나서 가려고 하는데 그 할머니께서 이것저것 싸주시는 것을 보고 그분들보다 우리가 더 편하게 생활하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 텐데 마음만은 우리보다 더 구우시구나.. 라고 생각하였다. 또한 산청은 동이 나뉘어져서 더 심한 사람이 있는 곳은 따로 배치되어 있고, 그곳에는 거의 가지 못하는데 꾸준히 다녀서 그 동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싶었다. 나병환자라고 하면 기피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쉽게 이야기를 꺼내 보지를 못해 보았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보니 그 곳 사람들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니 기피할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제 산청에 갈 때 친구들에게도 이야기를 해서 같이 가고 싶고 나쁜 일도 아니고 좋은 일인데 얘기하지도 않은 내가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 부터 봉사를 하고 계시는 단장님을 본받아서 나도 열심히 봉사해야겠다고 다짐하였고, 그것을 자랑하고나 하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자고 나에게 약속하였다. 내 주 의 사람들에게도 그 사람들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다음에 갈 때 같이 가자고 해야겠다.

II. 봉사활동 실천내용

활동 일시	활동 터 전 프로그램명	활동인원	주소 및 연락처(활동장소)
05년 10월 22일 09:00~12:00	청소 및 아동 돌보기	5	사회복지법인 신아원
05년 10월 30일 08:00~12:00	어르신 식사보조 및 위문방문	50	프란치스코회 성심원 [(재)프란치스코회 산청분소]

05년 11월 22일 08:40~09:30	봉사활동 소감문 쓰기(교육과정)	450	천안여자고등학교
05년 11월 23일 05:00~09:00	3학년 수험생 응원 및 대학 수학 능력 시험장 정돈	200	천안여자상업고등학교
05년 11월 26일 09:00~12:00	청소 및 아동 돌보기	5	사회복지법인 신아원
05년 12월 18일 08:00~16:00	청소 및 아동 돌보기	5	사회복지법인 신아원
05년 12월 20일 08:40~09:30	학교 정화 활동(교육과정)	450	천안여자고등학교
06년 02월 19일 08:40~09:30	식사보조, 청소, 말벗	50	프란치스코회 성심원 [(재)프란치스코회 산청분소]
06년 02월 25일 09:00~12:00	청소 및 아동 돌보기	5	사회복지법인 신아원

40	사회복지법인 정자동
50	(재)프란치스코회 산청분소
6	사회복지법인 신아원
450	천안여자고등학교
150	독립기념관
4	사회복지법인 신아원
450	천안여자고등학교
3	사회복지법인 신아원
50	(재)프란치스코회 산청분소
5	사회복지법인 신아원
2	사회복지법인 신아원

06년 04월 23일 13:00~14:00	자살예방 교육 실시
06년 05월 27일 08:00~14:00	환경 정화 활동
06년 05월 27일 09:00~12:00	청소 및 아동 돌보기
06년 06월 03일 10:40~11:30	교내 및 학교주변 정화
06년 06월 06일 08:00~14:00	현충일 추모행사 지원
06년 06월 24일 09:00~12:00	청소 및 아동 돌보기
06년 07월 15일 10:40~11:30	교내 및 학교주변 정화
06년 07월 22일 09:00~12:00	청소 및 아동 돌보기
06년 08월 20일 08:00~12:00	어르신 식사보조 및 위생 (자장면 제공)
06년 08월 26일 09:00~12:00	청소 및 아동 돌보기
06년 09월 23일 09:00~12:00	청소 및 아동 돌보기

최우수상(충청남도지사)

김봄이 | 연서중학교 3학년



나눌수록 커지는 기쁨

웃음, 희망, 추억 그 모든 아름다움을 간직한 “봉사”

I. 봉사를 향한 나의 첫 걸음

“스스로 원해서 만들어 섬긴다”

무슨 의미일까? 나에겐 봉사라는 단어가 쉽게 마음에 와 닿지 않았다. 그 의미 또한 나한테 생소하기만 했다. 내가 처음 봉사활동을 시작한 것은 중학교에 입학하면서이다. 중학교에서는 1년에 봉사활동 20시간을 채워야 한다는 소리에 나는 그저 어떻게 하면 좋을지 걱정만 앞서고, 귀찮게만 느껴졌다. 공부하기도 바쁜데 언제 봉사활동을 하라는 것인지 딱딱했다.

“스스로 원해서 만들어 섬긴다구? 뭐, 그냥 시간만 채우면 되겠지?”

이렇게 한 시절을 철없는 생각으로 의미없이 보냈다.

하지만 학년이 올라가면서 봉사의 참의미를 알게 되었고 봉사활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너무나 즐겁고, 뿌듯하고 행복으로 충만하게 됨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이제는 나도 우리 주변의 수많은 어려운 이웃들의 웃음을 되찾아주고, 그들의 슬픔을 함께 나눌수 있는 무언가를 할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다. 나는 TV에서 선행을 베푸는 사람들, 어려운 이웃들을 위

동 소양 교육도 여러 차례 받고, 좀 더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면서 남들에게 자랑거리가 아닌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그리고 대가를 바라는 대신 내가 그들에게 조금 더 도와줄 것을 찾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진정한 봉사활동을 하고 싶었다. 그리고 소외되고 상처받은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희망이라는 빛을 전해주고 싶었고, 따뜻한 사람의 정을 함께 나누고 싶었다. 또한 내가 살고 있는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이웃 사랑 뿐만 아니라, 내가 사는 자연을 보호하고 깨끗한 환경을 위한 실천위주의봉사를 하고 싶었다. 이렇게 나의 생각이 바뀌자 나의 행동 또한 변화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좀 더 주위의 모습에 눈을 돌리고, 주변의 소리에 귀 기울이게 되었다.

어렵다고만 생각했던 봉사가 이제는 나에게 즐겁고, 희망을 주는 삶의 의미가 되었다. 그리고 봉사의 의미를 이제는 이해할 수 있고 ‘스스로 원해서 만들어 섬긴다’라는 말도 내 마음 속 깊숙이 새겨졌다. 그리고 이제 봉사는 나에게 있어 내 생활의 일부이자 나에게 변하지 않을 꿈이 되었다. 그만큼 나에게 있어 봉사란 더없이 소중한고, 더 없이 행복한 것이다. 이제부터 나의 머릿속, 마음속에 담긴 커다란 주머니 속에 희망과 사랑 그... 어려운 분들과 함께 **웃으며 희망을** 전해주는 그 분들의 모습에 감동을 받았다. 또한 그 분들이 정말 대단하고, 작지만 큰일을 하시는 분들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내심 그 분들을 본받고 싶었고 이제는 나도 잘 할 수 있다는 자부심이 생겼다.

내가 더 활발하게 봉사활동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은 봉사활동 동아리인 ‘나누리’에 들면서 부터다. 봉사 활

번의 이웃 한 간직하고 있다.

II. 활동

내용 및 실적

1. 나눌수록 커지는 사랑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특별 임무, 할머니들과 함께 부활절 달걀을 만들고 반짝반짝 청소 대작전!

오늘은 학교에서 멀지 않은 ‘사랑의 마을’로 봉사활동을 떠났다. 양손 가득 달걀과 여러 재료들을 손에 들고, 다함께 콧노래를 부르며 힘차게 출발했다. 도착해서 할머니들을 뵈었는데 우리를 너무나 반갑게 맞아주셨다. “후~ 우리 이제 힘차게 시작해 볼까?” 우리는 서로 한 차예 호흡을 가다듬은 후 손에 손을 모으고, 오늘 하루를 보람차게 보낼 것을 서로서로 약속하고 힘차게 시작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희가 오늘 좋은 시간 보내기 위해서 찾아왔어요 먼저 할머니들과 함께 부활절 달걀 만들려고 하는데 어떠세요?”



▲ 할머니들과 함께 계란에 꾸밀 예쁜 포장지 지르는 중

할머니들께서는 다들 좋아하시는 듯하셨다. 할머니들과 함께 열심히 가위질도 하고 열심히 달걀을 꾸몄다. 다 만든 달걀들은 할머니 우리들이 하나 씩 손에 쥐고, 할머니 한 분, 한 분께 전해 드리고 이야기도 나누었다. 할머니들께서는 우리의 손을 꼭 쥐고는 너무나 고마워하셨다. 그 모습에 내 마음도 얼마나 쫘아났는지..... 우리가 이렇게 할머니들과 오순도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다른 한편에서는 열심히 청소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쓱쓱쓱 화장실 청소! 정말 만만치가 않았다. 집에서 잘 하지 않던 청소를 여기서 하려니 잘 될 수가 없었다. 그래도 우리가 누구든가! 자신감 가득 찬 씩씩한 봉사단이 아니던가. 우리는 못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구척구척 그동안 찌든 때까지 열심히 밀고 닦고 또 닦았다. 화장실 청소뿐만 아니라 그 많은 방들도 하나하나 열심히 쓸고 닦았다. 쓰레기통 가득한 쓰레기들을 비우면서 그동안 봉사활동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도 함께 버렸다. 이렇게 우리의 보람찬 하루도 날이 저물어 가고 있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왔다. 생각보다 너무나 빨

리 온 것 같아 아쉽기만 하고 좀 더 할머니들과 함께 하고 싶었다. 하지만 다음을 기약하며 할머니들과 꼭 잡은 손을 놓아야만 했다. 사랑의 마을을 뒤로 한 채 걸으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다. 무엇보다도 우리들을 너무나도 반갑게 맞아주시던 할머니들이 모습이 눈에 아른거렸다. 함께 하면서 할머니들께서는 청소를 할 때에도 혹시나 우리가 다치지 않는까 걱정하며 바라봐주시고, 전부터 알고 지냈던 친한 사이처럼 우리를 친손녀, 손자처럼 잘해주셨다. 오히려 우리가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돌아가는 것 같았다. 오늘은 너무 보람차고 뿌듯한 하루다. “할머니, 다음에 뵈 때까지 건강하세요.”

2. 나눌수록 커지는 기쁨



▲ 할머니들과 오순도순 이야기 나누며 어깨 주물러 드리는 모습

학교에서 가까워 사랑의 마을 자주 찾게 된다. 오늘도 할머니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단단히 마음의 준비를 했다. 봉사활동 처음 시작할 때 보다 많이 자연스러워 졌지만 아직도 긴장이 된다. 사랑의 마을로 출발, 할머니께 인사를 드렸다. 역시 할머니들은 우리를 잊지 않으셨고 더욱 환하게 웃으며 맞아주셨다. 할머니들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니 내 마음도 뿌듯하고 친 할머니와 같은 정을 느낄 수 있었다. 오늘 할머니들의 어깨를 주물러 드리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할머니 시원하세요?”

“그래 시원하네.. 고마워”

그리고 얼마 주무르지도 않았는데 할머니께서는 팔이 아프지 않으나며 그만 해도 된다고 하셨다. 혹시나 우리가 힘들지 않을까 걱정해주셨다.

“할머니 저 튼튼해요. 제 팔 굵은 거 안보이세요? 이게 다 할머니 아프신데 주물러 드리라고 튼튼한 거라니까요”

할머니께서는 웃으시면서 내 손을 꼬옥 잡아주셨다.

덕분에 우리 모두 함께 웃을 수 있었다. 우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다음 프로그램으로 할머니들과 함께 노래를 불렀다. 할머니의 멋진 노래 실력에 우리는 너무 놀랐다. 열심히 박수도 치면서 할머니의 노래에 장단을 맞췄다. 그리고 우리가 할머니들께 노래도 직접 불러드리기도 하고 정말 즐거운 시간 이었던 것 같다. 또한 우리가 학교에서 같고 닦았던 여러 가지 우리의 실력을 할머니들께 자랑하기도 했다.

멋진 기타 연주도 하고 말이다. 할머니들의 우리의 재롱에 신이 나신 것 같아 우리도 너무너무 좋았다. 그리고 식사 시간이 되어서 같이 상을 차리기도 했다. 열심히 상도 닦고, 물 컵과 수저도 놓고 말이다. 오늘 참 다양한 일을 경험해 본 것 같았다.

오늘 역시 그 어느 날 보다 좋은 시간을 보낸 것 같다. 항상 방 청소를 하다 보면 방 안 가득 쌓인 할머니들의 약 봉지에 마음이 너무 아프고 속상하기도 했다. 그리고 어떤 할머니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해도 끝내 우리를 외면하고 웃음을 보이지 않은 분도 계셨다. 그런 분들은 아마 많이 힘들고, 깊은 상처를 받아 우리에게 쉽게 마음을 열지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더 많이 고민이 된다. 어떻게 하면 더 좋고, 더 낫아진 모습으로 할머니들께 다가갈 수 있을까 말이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솔직한 모습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할머니들께 다가간다면 언젠가는 마음속에 가득 담긴 마음의 상처를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한다. 오늘도 사랑의 마을에서 나오면서 다음에는 할머니들께 더 많은 웃음과 더 많은 희망을 빛을 전해 드려야겠다고 다짐을 해 본다.

우리의 모습도 많이 달라졌다. 맨 처음 할머니들을 뵈었을 때는 어색하고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 힘이 들었는데 이제는 매 순간이 너무 즐겁고 행복하기만 한 걸 보면 말이다.....

3. “요셉의 집” 창문으로 파란 하늘이 들어와요.

오늘은 내가 활동하고 있는 ‘나누리’ 동아리에서 특별히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청소와는 달리 창문을 닦으러 간다. 처음 해 보는 일이라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그래도 마음만은 즐겁고 가볍다.

도착하자 마다 그 넓은 규모에 흠칫 놀라긴 했지만 우리는 3명씩 몇 팀으로 나누어서 일을 시작했다. 창문에는 그동안의 찌든 때들이 많이 있었다. 먼저 우리가 할 일은 창문들에서 창문을 빼내는 것 이었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잘 빠지지 않아 다들 애를 썼다. 이리저리 밀고 또 밀어서 겨우겨우 하나씩 빼내었다.

창문 빼는 데도 벌써 많은 땀을 뻘뻘 흘렸다. 창문을 떼고 나서 우리는 창문들을 닦는 사람과 창문을 닦는 사람으로 나누어서 본격적으로 청소를 시작했다. 걸레와 휴지를 빨아 그동안의 찌든 때들을 말끔히 쓱싹쓱싹 닦아 냈다. 우리는 구척구척 깨끗이 닦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창문위에 올라서서 손이 닿지 않은 곳까지 열심히 닦고 또 닦았다. 끝이 없을 것만 같던 일도 우리의 값진 땀방울 덕분에 조금씩 끝이 보이기 시작했다. 찌든 때가 가득했던 창문들도 이제는 방금 사온 새 것같이 말끔해 보였다. 우리의 기분도 같이 깨끗해지는 것 같아 내심 뿌듯하고, 자랑스러웠다.



▲ 쓱싹 쓱싹 창문 들 닦는 모습

다른 한편에서도 창문을 열심히 닦고 있었다. 창문 역시 그동안의 먼지들로 가득 차 이대로 둔다면 온 방안에 창문에 낀 먼지들이 가득 차지는 않을까 걱정스러웠다. 그래서 더 깨끗하게 더 열심히 닦았다. 비누칠도 하고, 물로 뿌려 말끔하게 만들었다. 이제 창문도 다 닦았고, 다시 창문을 끼워 넣는데 이것 또한 만만치 않았다. 메어낼 때 힘들었던 것처럼 다시 끼워 넣는 것도 또한 우리를 다시 힘들게 했다. 겨우겨우 다시 처음 상태로 만들어 놓구 우리는 온 몸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방에서 나왔다.

오늘 봉사활동을 마치면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할아버지들과 너무 어색했던 것 같아서 너무 아쉬웠다. 우리가 청소를 하려고 방에 들어갔더니 할아버지께서 조금은 불편하셨는지 방에서 나와 버리셨다. 그리고 너무 청소하는 데만 열중하다 보니 할아버지들께 제대로 인사도 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너무 죄송스런 마음도 들었다.

하지만 오늘의 실수가 다음에는 더 좋은 기회를 마련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오늘 안 좋았던 부분들을 다음에는 더 개선해서 더 좋은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다.

다시 돌아오는 차안 몸은 지쳤지만 마음만은 따뜻함으로 가득 참을 다들 느낄 수 있었던 시간 이었던 것 같다.

4. 행복전도사, 사랑실천가



▲동산 만드는 모습

이런에는 좀 더 다양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 직접 '나누리' 동아리에서 강사님을 모셔와 풍선아트 교육을 실시했다. 처음에는 풍선이 터질까봐 걱정도 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힘들기 했지만 배우다 보니 풍선아트만의 매력을 느낄 수 있었고, 너무 재미있었다. 그리고 드디어 우리의 풍선아트 실력을 이용한 봉사활동 기회가 우리에게 찾아왔다. 바로 지역의 행사를 찾아 사람들에게 풍선아트로 즐거움을 전해주는 것이었다.

그 첫 번째 기회는 5월 5일 어린이날을 이용해서 열린 행사에 우리도 함께 도우미로 참여해서 풍선아트와 각종 여러 게임들을 준비했다. 오늘은 어린이 날인 만큼 어린이들에게 즐거움을 전해주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아이들은 순식간에 몰려들고 손이 너무 바빠졌다.

“ (광~) 아 깜짝이야! ”

너무 긴장한 나머지 풍선이 터지기도 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했다. 사과를 만들기도 하고, 칼, 귀여운 강아지, 예쁜 팔찌와 멋진 왕관까지 하나하나 정성스레 만들어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모습에 우리도 덩달아 신이 났다.

아이들도 재미있는 풍선의 모양에 이것저것 주문하기도 했다.

“ 누나 나는 거북이 만들어 주면 안되요? ”

우리가 만들지 못하는 것을 만들어 달라는 주문에 솔직히 당황하기도 했지만 아이들을 잘 설득해 예쁜 강아지를 대신 만들어 주기도 하는 에피소드도 빠지지 않았다. 어린이날의 행사도 우리가 고운 밤을, 사랑을 만끽

하게 조심조심 예쁘게 만들어서 팔에 하나하나씩 달아 주었다.

사람들의 손에 우리가 만든 풍선이 하나하나 들린 것을 볼 때마다, 풍선을 보며 사람들의 얼굴에 웃음이 가득한 걸 보면서 우리의 기분 또한 무척이나 즐겁고, 더 힘이 나는 것 같았다. 나중에는 재료가 다 떨어져서 기다리신 분들께 더 만들어 드릴 수 없어서 너무나 아쉬웠다. 하지만 오늘도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과 즐거움을 선사한 것 같아서 기분이 좋다.

내가 생각해서 봉사가 어려운 이웃과 함께 정한 '나누리' 모임이라는 것도 생각, 봉사와 함께 하면 어떻게 편하게 함께 참여해 많은 차한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이용해서 즐거움과 웃음을 전하려고 할 수 있다면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면 이것 또한 참된 봉사라고 생각한다. 서로에게 기쁨을 주고, 서로 도우며 상부상조하며 사는 것이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본다.

이렇게 오늘 깨달은 소중한 생각과, 기분 좋은 또 하나의 추억을 만든 채 풍선아트 봉사활동도 끝이 났다.

5. 환경사랑 나눔 장터

매월 넷째 주에는 조치원역 앞에서 환경사랑나눔 장터를 연다. 다른 곳곳에서 보내진 옷들을 이용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사람들에게 옷을 파는 일이다.

또 하나의 다른 일은 환경 제품을 소개하는 것이다. 환경제품을 무료로 나누어 드리면서 세제 등의 환경을 심하게 오염시키는 것들을 조금씩 사용해서 환경을 사랑하자라는 의미에서 환경 제품과 이것에 관한 여러 가지 내용을 담은 쪽지를 함께 드린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우리의 환경의 소중함을 인식시키려 노력하고 있다. 양 쪽으로 나누어서 일을 맡아서 진행했다.

“ 옷 사세요! ”

“ 옷 좀 보세요~ ”



▲ 나눔 장터 모습

열심히 말하고 발로 뛰면서 사람들의 발걸음을 옮기게 만드는 일 또한 중요하다. 처음에는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기만 하고 질하지 못했는데 하다 보니 나름대로 노후도 생겨서 지금은 즐기면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손님들이 오시면 나름대로 서비스도 많이 해드리고, “ 뭐 찾으세요? ”

“ 이거 어떠세요? 진짜 잘 어울리는데 ” 직접 옷을

골라드리기도 하면서, 열심히 했다. 환경, 제품을 소개하

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 굳것질 할 것을 줄여 불우이웃 돕기 성금을 내고, 공부하는 틈틈이 여가시간을 활용해 봉사활동을 하고, 나 혼자 보단 친구들과 함께 조금만 생각을 바꾼다면 더 넓은 세상을, 더 깊은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되지 않을까? 나는 앞으로 아직도 잘 다듬어지지 않은 나의 모습을 조금씩 가꾸어 나갈 것이다.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서로의 상처를 간직하여 파

는 지혜와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는 지혜와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는 지혜와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는 지혜와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는 지혜와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는 지혜와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는 지혜와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는 지혜와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는 지혜와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는 지혜와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는 지혜와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는 지혜와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는 지혜와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는 지혜와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는 지혜와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는 지혜와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는 지혜와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는 지혜와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는 지혜와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는 지혜와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는 지혜와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는 지혜와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는 지혜와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는 지혜와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는 지혜와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는 지혜와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는 지혜와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는 지혜와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는 지혜와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는 지혜와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는 지혜와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는 지혜와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는 지혜와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는 지혜와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는 지혜와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는 지혜와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는 지혜와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는 지혜와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는 지혜와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는 지혜와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는 지혜와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는 지혜와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IV. 앞으로의 계획

주목하게 두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

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수상(충청남도교육감)

조우경 | 병천고등학교 2학년



I. 사랑의 씨 뿌리다.

나는 중학교 때부터 요리 공부를 시작하였다. 자격증을 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배운 기술로 어려운 이웃을 도와 보았으면 하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중학교 때는 이런 기회가 없어 아쉬웠었다.

다행히 병천고등학교에 진학하여 보니 조리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아름다운 조리 나눔터'라는 조리과라는 특유의 본질을 살려서 봉사활동을 하게 만들어진 동아리가 있었다.

때 마침 학교에서 봉사활동 동아리 단원을 모집한다는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바로 가입하게 되었다. 이제 드디어 내가 중학교 때부터 갖고 있던 꿈을 실현할 수 있다는 설렘으로 동아리 활동을 기대하고 있었다.

첫날 서로 이사를 한 다음, 우리는, 다자과, 부다자, 그 다음에...

...는 사랑의 씨앗을 뿌릴 장소로 병천읍을 찾았어요. 병천읍은...

우리 동아리 지도를 담당하신 선생님은 강경심 선생님이셨다. 첫날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 "우리 동아리는 언제나 선생님이 아닌 학생이 주축이 되어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맞추어 활동이 이루어지는 동아리라야 봉사정신이 없는 사람, 남들보다 힘든 일은 하고 싶지 않은 사람, 조리과로서의 자부심이 부족한 사람은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다른 동아리로 옮겨도 좋아"

모두들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한 명도 자리를 뜨지 않았고, 그렇게 구성된 우리는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였다.

먼저 활동 계획을 세우기 위해 활동 목적을 정하였다. 우리들의 활동 목적은 '병천의 어려운 독거노인 돕기'였다. 그리고 이를 위한 활동 계획으로 이웃돕기를

위한 자금마련 방법은 작년에 이어 음식 판매를 하기로 하였고, 봉사 활동 방법은 독거노인 댁 방문으로 정하였으며,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서로 논의하였다.

II. 사랑의 꽃 피우다.

1. 첫 번째 실천 사례

〈봉사활동을 위한 대상 선정〉

우리는 먼저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 봉사활동 대상을 선정하려고 회의를 하였다. 우리는 우리 학교 주변의 독거노인을 돕기로 결정하였다. 그래서 병천 면사무소에서 봉사활동을 담당하고 계신 분께 우리들이 갈 수 있는 곳에 기거하시고 계신 독거노인 분들의 성함과 연

락처를 문의하면, 동건노인, 10명의 명단을 보았다. ...

1. 동건노인 10명에게 부탁해서 40달러, 한 달에 일해 독거노인 10명에게 할양하여 찾아 찾기로 결정하였다.

우리는 독거노인 분들에게 제책 및 방바닥을 알려 드리기 위해 전화를 드렸다.

우리 조에서 할아버지와 통화한 내용이다.

조장 :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저희는 병천고등학교 조리과에 있는 학생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전화를 드린 이유는, 할아버지께서 혼자 계시면 적적하기도하시고 활동하기에 불편한 점도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한 달에 두 번씩 찾아뵙고 말동무도 해드리고 불편하신 곳도 보드리고 청소도 해드리려구요, 저희가 찾아 뵈실 수 있도록 허락해주세요.

할아버지 : 아니여, 귀찮어, 힘든데 뭐 하려고 여기까지와.....

조장 : 아니에요, 저희 걱정하지 마시고 기다려주세요.

할아버지 : 그러, 고마워.

조장 : 감사합니다. 그럼 가끔 전화도 드릴게요, 다음에 봐요.

우리 조에서 담당하기로 한 할아버지 중 한 분은 전
 원 독거노인이다. 매우 가난한 이 할아버지에게
 이 계절을 맞아 한끼의 따뜻한 밥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실지 고민을 하셨다. 이를 도와줄 수
 있다. 우리 조의 할아버지 한 분이 있는 곳이었다. 바로 우리
 조 할아버지 1층 5층 리어였다.



▲ 독거노인 집을 찾아서

우리 조가 담당할 할아버지의 집은 다량히 찾게 찾을
 수 있었다. 우리는 할아버지 집에 도착한 다음 할아버지 정
 함을 볼랐다. 하지만 할아버지께선 바깥을 기렸는지 계시
 지 알았다. 조금 기다려 보았지만 할아버지께선 돌아오지
 않. 결국 우리는 다음 날 다시 찾아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다.

2 두 번째 실천 시작

(어려운 이웃돕기를 위한 자금 마련)

우리는 독거노인을 돕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작년과 마찬가지로 토스트를 만들어 팔기로 결정하였다.
 가장 고민거리였던 것은 개당 얼마에 판매할 것 인가
 였다. 선배님들 말을 들어보니 작년처럼 500원씩 판다
 면 이윤이 얼마 남지 않을 거라고 하였다. 하지만 가격
 을 올린다면 학생들이 많이 사먹을 것 같지 않았다. 우
 리는 한참을 토의하다가 결국 500원에 팔기로 결정하였
 다.

우리는 격주 금요일 방과 후에 다음날 만들어 판매할
 토스트에 들어갈 재료를 손질 하였다. 각자가 역할은 선
 생님께서 우리의 의사를 물어보신 다음 결정을 해주셨다.

각각의 역할로는 양배추양파햄·당근 채썰기, 토스트
 를 찢아 썰기, 파울 날장으로 뜯어 놓기, 소스 만들기, 반
 죽 구울 도구 준비하기 등이었다.



▲ 토스트용 빵 굽기

이날은 토요일이다. 우리 조원들은 일찍 학교에 나와 아침
 7시 30분부터 학교에서 토스트를 팔기 시작했다. 토스트
 굽기, 빵 굽기, 소스 만들기, 판매하기 등으로

분주하였다. 이는 정도 판매 할 수 있는 분량이 만들어지
 면 실습실 천판을 통해 판매를 시작하였다.
 토스트를 100원씩 판매하고 50원짜리 동전으로
 100원을 받았다. 양배추양파햄 토스트를 만드는 제
 이 되던 양식 분주했다. 7시 30분부터 판매를 시작하여
 하기 때문에 행동을 빨리 빨리 해야만 했다. 각각의 토
 스트 반죽 굽기, 식빵 굽기, 소스 만들기, 판매하기 등으
 로 분주하였다. 이는 정도 판매 할 수 있는 분량이 만들어
 지면 실습실 천판을 통해 판매를 시작하였다.

시간이 점점 8시 30분까지 이르러서 10분 정도
 지체되었다. 8시 30분 이후에야 겨우 우리는 팔라
 지를 알 수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하루에 준비하는 분량
 은 30.1인 정도였고, 학생들이나 선생님께 인기가 좋
 아서 8시 30분 정도면 모든 토스트가 판매되어 줄을 서
 서 기다리던 학생들이 아쉽게도 사먹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교내에 행사가 있어 학생들이 별로 많지 않을
 경우에는 교내방송실을 통해 학생들이 찾아올 수 있도
 록 유도하였다.

나는 1학년 교실을 돌며 “맛있는 토스트가 단돈 500
 원입니다. 특히 아침을 거르고 온 학생들 많이 찾아주
 세요”하며 외치기도 하였다.



▲ 토스트용 반죽 굽기

3. 세 번째 실천사례

〈외로운 노인분들을 찾아〉

우리는 어느 정도 자금이 마련된 다음 격주 금요일마다 독거노인 돕기 활동을 시작하였다. 방문을 앞두고 어르신들이 어떤 음식을 좋아하실지 고민을 하였다. 고민을 하다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이가 안 좋으시니까 말랑말랑한 인절미와 건강에 좋은 베지밀, 사탕 등을 준비하기로 하였고, 선생님께서 일괄적으로 조원들이 가지고 가야할 음식들을 준비해주셨다.

우리는 5교시가 끝난 후 선생님께서 준비해 주신 음식을 가지고 할아버지 댁으로 향하였다. 병천 6리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정확히 어디지는 알 수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면사무소에 연락해 할아버지 댁을 여쭙었다.



“아~ 그러 어여 들어와” 우리는 방안으로 들어갔다. 모두 들어가니 방이 꽉 찼다.

“할아버지 건강은 좀 어떠세요? 편찮으신 데는 없으세요?”

“판날 그렇지요~”

“네~ 할아버지 혼자 계셨을 때 하기 힘든 일 있으세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아니여 괜찮어”

“아니예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우리는 신발장과 방안에 쓰레기들만 청소해드렸다.

“아이고 여기까지 오는데도 힘들었을 텐디 고마워”

“아니예요 할아버지 저희가 이번에 추석이고 해서 송편이랑 베지밀 좀 싸왔어요.”

“아이고 뭘 이런 걸다 가지고 왔어”

우리는 점시에 송편을 담았다. 그리고 베지밀을 드렸다.

“할아버지 드세요”

“아이고 같이 먹어야지.”

“네”

“젓가락이 없구려” 할아버지께서 젓가락을 주신다며 서랍에서 나무젓가락을 꺼내 주셨다

“감사합니다”

“저희도 감사해요”



▲ 2시간 걸려서 찾은 할아버지댁

“저희도 감사해요”

우리는 전담해 할아버지에게 베지밀과 송편을 나눠 드시게 하였다. 그리고 작은 음료를 치워드렸다. 할아버지 쓰레기통은 과일 박스였다. 여기에 다 딱딱 베지밀 각을 버리니 쓰레기통이 꽉 찼다. 우리는 쓰레기통을 비워드렸다.

“할아버지 저희가 이제 안마 해드릴게요”

“아니여 안마는 무슨”

“그럼 저희가 어깨만 주물러 드릴게요”

“그려 고마워, 아이고 시원하다 이제 땀어 고마워”

“할아버지 저희가 이렇게 가끔 찾아뵙게요”

“아이고 힘들텐데 괜찮어 학생들 바쁠텐데 어여 기뻐”

“네 건강하세요 다음에 봐요”

우리는 인사를 마치고 방문을 나왔다.

“할아버지 나오지 마세요”

“그려 더 안 나갈게 잘 들어가”

담당 직원께서 이쪽은 찾기가 힘들며 학교에서 쫓는다면 2시간 30분 정도는 가야 할 것 이라고 했다. 너무나 길이라는 것을 알지만 우리는 6리 쪽을 향해 걸었다. 베지밀과 송편을 들고 가야 했기 때문에 돌아가며 들었다. 길을 가다가 잘못 들어 눈을 건너기도 하고 가파른 언덕도 넘어야 했다.

그렇게 2시간 정도를 걸어 6리 동네 앞에 들어서게 되었다. 이제 할아버지 집을 찾기 위해 우리는 훑어졌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친구 하나가 “찾았어”하고 소리 질렀다. 집을 보니 3평 남짓 한 집이었다. 근데 대문이 방문처럼 만들어져 있었다. 이 집이 맞나하고 우리는 할아버지 댁 문을 두드렸다.

“안에 계세요? 할아버지?”

“누구여?” 하시며 문을 여셨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저번에 전화 드렸던 병천고등학교 학생이에요”



▲ 할아버지 시원하시죠?

할아버지께선 문 앞까지 나오셔서 고개를 내미시고 우리가 안보일 때까지 손을 흔들며 주셨다. 우리는 나가는 길에 복지회관 차를 만나 6리 임구까지 갈 수 있었다. 나는 처음 할아버지께서 낯설게 여기실까봐 걱정했지만 잘 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뿌듯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혼자 사시는 할아버지께서 안쓰럽게 느껴졌다. 그래서 앞으로는 자주 할아버지를 찾아뵙고 안부전화를 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III. 사랑의 열매 맺다.

남다른 각오로 들어온 ‘아름다운 조리 나눔터’. 7개월 여의 활동을 하고 난 지금의 나는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해왔던가 반성해보게 된다.

한번은 늦잠을 자서 다른 친구들보다 30분가량 늦은 적이 있었다. 평소에는 7시 이전에 학교에 도착했지만 그날은 도착하니 7시 30분이었다. 모두들 땀을 흘리며 반죽을 굽고, 빵을 굽고, 소스 바르는 모습을 보면서 미안한 마음에 얼른 실습실을 돌려 쓰레기를 치우고 설거지를 하였다.

그 모습을 보신 선생님께서 “우경이 오늘은 늦었지만 다음엔 좀 일찍 와. 한 명이 늦으면 다른 사람이 그 몫

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더 분주해지잖아”라고 하시며 괜찮으니 다른 친구들을 도우라고 하셨다.

우리 동아리엔 게으름뱅이는 없다. 다른 친구들보다 쉬운 일을 찾아 하려고 하는 암채도 없다. 그 속에서 나는 정말 많은 것들을 얻게 된다.

비록 적은 힘이지만 이렇게 해서 쌓은 것들을 사람이 그리운 홀로 계신 어르신들을 위해 쓸 수 있다는 기대감과 뿌듯함은 나를 더욱 동아리 활동에 열심히 참여하게 만든다. 이것은 우리 동아리 단원 모두의 생각일 것이다.

우리 동아리에서 현재 토스트만 팔고 있지만 앞으로 더 발전해 나가기 위해 스파게티도 해볼 예정이다. 그리고 2학기에는 무엇보다도 적극적으로 독거노인 댁을 방문 할 예정이다.

이렇게 계속 누군가를 위해 땀을 흘리고 노력함으로써 기쁨을 줄 수 있다는 것은 나에게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보람과 삶의 가치를 느끼게 해주었고 주위의 친구들이나 가족들 산후배에게 이런 경험을 이야기하고 함께 활동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한다.

또한 올해의 활동이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남은 시간들은 더욱 많은 활동으로 많은 분들에게 기쁨을 드려야겠다는 각오를 하게 되었으며, 대학에 진학하더라도 또 다른 봉사활동 동아리를 통해 항상 사회의 그늘에서 누군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적게나마 따스한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노력 해야겠다는 각오를 하게 된다.

앞으로 3학년이 되어 후배에게도 멋진 모습을 보여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후배와 함께 노력하여 내년에도 더욱 발전된 아름다운 조리 나눔터를 만들어 볼 생각이다.

‘아름다운 조리 나눔터’

그 빛이 세상에 꼭 필요한 등불이 되길 바라며.....



봉사활동의 즐거움

I. 봉사활동을 하게 된 동기

“봉사 활동” 솔직히 처음에는 아무것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랐어요.

TV에서나 신문에서 남을 위해 불우한 사람이나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흔히 어른들께서 늘 하시는 그런 것으로 여겼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농산물이 물에 잠겨 무지는 할아버지 할머니, 집이 무너져 갈 곳이 없어 마을 경로당에서 잠은 자고 있는 모습들...

이런 어려운 곳에 도움을 주시는 많은 사람들의 손길이 봉사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제가 봉사활동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끔 해준 것은 학교를 다니면서 봉사 시간을 채워야 된다는 것 이었습니다.

처음엔 흥미와 보람보다는 지루함과 힘들다는 생각과 빨리 마쳤으면 하는 마음이 었지만, 시간이 더하고 하루 이를 지나면서 여러 곳을 다니면서 조금씩 “가고 싶다” 힘이 들지만 그래도 가야지 하는 마음이 조금씩 조금 씩 커지면서 저의 손길이 이렇게 필요가 있구나 하는 마음이 앞서게 되었습니다.

청소도하고, 쓰레기도 줍고, 그 중에 가장 마음이 가고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이끌었던 것은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외롭고 힘들게 살고 계시는 보금자리 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자꾸 할아버지 할머니님들을 만나면서 그 분들께서 손녀처럼 밝게 맞아주시고, 어느 때는 딸이 왔구나 하시면서 손을 잡아 주시고 얼굴을 만져 주실 때 그 동안 느끼지 못했던 아늑한 느낌이 었습니다.

기습이 뭉클해지고 괜히 눈물이 맺힐 때의 그 기분은 지금도 잊지 않고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게 된 저의 마

음입니다.

앞으로도 조그마한 저의 마음과 손길이 필요로 하는 곳에서 실천 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셨던 할아버지 할머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II. 봉사활동 내용

1. 노인 복지 시설에서의 봉사 활동

가. 봉사 동아리 활동

우리 학교 봉사활동 동아리 ‘그루터기’에서는 무의탁 어르신들이 계시는 사론의집이라는 곳에서 주로 봉사활동을 하였습니다. 동아리에 함께 참여하여 제가 한 활동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할머니 목욕시켜드리기

할아버지들은 남학생들이 시켜 드리고 할머니들은 여학생이 시켜 드립니다. 선생님과 친구들이 함께 모여서 한분을 씻어 드리는 것이 많이 서툴러서 힘이 듭니다. 목욕을 시켜드리는 것도 요령이 있는 것 같은데 처음 해 보는 일이어서인지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 할머니들께서 목욕을 하시고 개운해 하시면 힘이 들어도 다음번에도 또 해드리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 산책시켜 드리기

몸이 불편해서 바깥 구경을 좀처럼 하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사론의 집에는 아주 많이 계십니다. 밖을 나오지 못하는 분들을 휠체어에 태워서 산책을 해 드리는데 휠체어를 뒤에서 밀며 이런 저런 대화를 하는 일은 참 즐거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할아버지 할머니께서는 밖

에 나오시는 것을 즐거워하기 때문입니다. 그 분들의 즐거워하시는 모습을 보는 것은 너무 행복한 일입니다.

◆ 위문공연



▲ 가래 놀이 공연

작년 크리스마스에는 젊은 동화극을 사뭇한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가래 놀이를 들고 나왔을 때, 어르신들 앞에서 재롱을 놀려드렸습니다. 몇 번 공연을 하자, 얹자 깔은 뜻하지만 3학년 연나의 피아노 반주에 맞추어 기쁘다 쿠쿠오셨네를 부르니 어르신들이 무척 좋아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지난 7월 22일에는 어르신들께 동화책을 읽어 드렸습니다. 어떤 어르신은 시끄러운 것을 싫어하기도 했지만 한 방에서 친구들과 함께 번갈아가며 책을 읽어드리니 무척 흥미 있어 하셨습니다. 그리고 손을 만져주고 고맙다는 말씀을 하시니 내가 아주 훌륭한 일을 한 것 같아 기분이 정말 좋았습니다.

◆ 말동무와 안마를 해드리기

안마를 받으면 시원한가? 가끔 친구가 어깨를 주물러 주면 아프고 간지러울 때가 많은데 어르신들은 참 좋으신가보다. 살살 주무르라고 하시지만 기꺼이 어깨를 우리에게 맡기신다. 그리고는 이야기를 하신다. 아마도 내가 손녀처럼 생각이 되거나 보다 할아버지 할머니들께서 좋아하시는걸 보면 내 자신도 기분이 좋아지곤 한다.

나. 어머니들과 함께한 봉사활동

올 해부터는 어머니들이 우리 동아리와 함께 봉사활동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되는 부분을 어머니들이 도와주시는 거라고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무의탁 어르신들 간식을 만들어 드리는 일들을 주로 하였는데 어머니들은 재료를 준비해 주시고 만드는 법을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게 만든 음식들

은 우리가 예쁘게 장식해서 대접했습니다. 어느 때는 먹여 드리기도 했습니다.



▲ 카네이션 만들기

◆ 카네이션 만들기

5월 5일에는 카네이션을 함께 만들었습니다. 무의탁 어르신들께 드릴 꽃과 우리 병아리들에게 드릴 카네이션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할머니들께 보냈던 말, 오렌지, 딸기, 사과, 그리고 생소함에 반들거리는 과일들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어른들의 도움으로 새 장미꽃을 만들었습니다.

◆ 같은 날 카네이션을 어르신들께 달아

드리며 어머니·마음을 동아리원들과 어머니들이 함께 불러드렸습니다. 눈물을 흘리시는 할머니들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결연을 맺은 할머니께 꽃을 달아드리니 손을 꼬옥 잡으며 말을 잊지 못하셨습니다. 그 때 왜 그렇게 할머니께 죄송한 마음이 들었는지 그 이유를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는 쭉개떡을 만들었습니다. 초록빛 떡이 까만 색이 되어 나오는 것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나는 누워계시던 할머니께 떡을 조금씩 떼어 입에 넣어 드렸습니다. 잡수시는 데 아주 오래 걸려 지루했지만 꼭 참고 모두 먹여 드렸습니다.

◆ 만두 빚어 드리기

어머니들이 준비해온 고기속과 김치속으로 만두피에 담아 만두를 빚었습니다. 우리는 할머니들이 보는 가운데 어머니들께 열심히 만드는 법을 배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쪽에서는 부지런히 쪄 내놓았습니다. 처음 만들어본 만두지만 그렇게 밍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어머니께서 솜씨가 있다고 칭찬을 해 주셨습니다. 만두를 대접하면서 나는 또 할머니들과 재잘대곤 했습니다.

◆ 화채 만들어 드리기

화채 만들기는 우리가 할 일이 많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들을 옆에서 조금 거들과 그릇에 담겨진 화채를 어르신들께 대접했습니다. 어르신들께는 얼음은 빼고 드

렸습니다. 아마도 배탈이 날까봐 어머니들이 넣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어르신을 모실 때는 여러모로 생각을 많이 해야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송편 빚어 대접하기



▲ 송편만들기

수린목요양원에 두 번째 방문한 날은 송편을 빚었습니다. 그곳에서 행사가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만든 송편을 반찬 봉사하는 곳이라 행사에 사용한다고 하였습니다. 반죽과 속은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 오시고 우리는 할머니, 어머니들과 함께 미리 추석을 맞아 송편을 빚었습니다. 남자 아이들은 참 크게도 만들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음식을 만든다는 것은 가슴 벅찬 일인 것 같았습니다.

2. 환경정화활동

가. 당산 쓰레기 줍기

학교에서 현장학습일에 우리는 환경정화활동을 하였다. 남들은 놀이공원 같은데 주로 가는데 학교에 남아 봉사활동을 하고, 미니체육대회를 하면서 하루를 보냈다. 당산엘 가는 길에 휴지를 줍는 일은 그렇게 힘들지는 않았다. 하지만 해미의 상징인 당산을 깨끗하게 하는 일에 내 힘을 보탤다는 것 때문에 뿌듯했다.

나. 신두사구 외래식물 제거

태안군 원북면에 있는 신두사구는 환경보호지역이라

고 하였다. 그 곳은 습지가 있어 바닷물을 정화하는 역할을 하기에 아주 중요한 지역이라고 하였으며 이 지역에 있는 해당화 등 우리 식물들이 외래식물 때문에 살지 못하다고 하여 그곳에 많이 자라고 있는 달맞이꽃을 뿌리채 뽑는 일을 했다. 봉사활동은 힘으로만 하는 일이 아니며 배우면서 일하는 것이기도 하다는 것을 알았다. 봉사활동을 하려면 그 방법은 무궁무진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식물을 뽑아내며 마음이 후련해 지는 것을 느꼈다.

III. 앞으로의 계획

봉사활동을 다니면서 느낀 점과 스스로 실천 할 수 있는 용기를 더 갖게끔 열심히 활동을 해 나갈 마음입니다.

아직은 많은 것이 부족하지만 좀 더 학교생활을 충실히 하면서 배울 것입니다.

지금은 조그마한 저의 손길이 필요로 하는 곳에서 하나씩 배운다는 생각과 즐거움을 줄 수 있도록 청소도 쓰레기도 줍고 할아버지 할머니님께 작은 웃음이라도 보여 줄까 합니다.

활동 속에서 조금씩 용기와 흥미를 더 하면서 앞으로는 학업을 통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고민하면서 배우고 싶습니다.

저에게는 봉사활동을 통해서 마음속에 조그마한 꿈과 희망을 찾아서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사회 복지사” 랍니다.

아직은 어색하고 놓아만 보입니다.

봉사활동을 통해서 얻은 즐거움과 용기를 바탕으로 사회 복지사의 꿈을 키워가는 밑 걸음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에게 흥미와 마음을 이끌어 주신 분들을 위해서라도 힘들겠지만 열심히 길을 가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통해 저의 꿈을 이루도록 열심히 힘을 쓰겠습니다.

특선(충청남도교육감)

이슬기 | 서일고등학교 2학년



희망과 사랑의 꽃밭

사랑의 힘은 실천 속 봉사활동을 타고...

1. 동기 및 실천계획

1. 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된 동기

중학교 때에는 20시간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 의무였습니다. 그때에는 어떻게 봉사활동을 하는지조차 잘 몰랐기 때문에 아이들이 하는 것처럼 마음에서 나오는 봉사활동 보다 그냥 시간 채우기에 급급한 봉사활동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한 살 두 살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 시기가 언제가 될지라도 마음에서 나오는 진정한 봉사활동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셨고, 그 때부터는 주변의 노인 분들께 잘해 드리고 싶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게 조그만 힘이라도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부모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선뜻 독거노인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해보고 싶은 봉사활동, 즉 소외되고 사랑이 부족한 사람들과 함께할 시간은 그렇게 제게 다가왔고, 그 때부터 지금까지 봉사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2. 활동계획 수립

제가 살고 있는 곳이 농촌에 가깝기 때문에 혼자 사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적적함을 조금이나마 없애 드리기 위해서 1학년 때부터 지속해서 독거노인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 봉사활동을 하

고등학교에 올라와서 친구의 권유로 사물놀이를 하는 4H에 들게 되었고, 사물놀이만 하는 줄 알았던 4H는 독거노인 봉사활동과 사론의 집 방문 등 다양한 봉사활동도 하고 있었습니다. 봉사활동을 주로 하는 부서라 해서인지 당연히 해야 한다는 생각과 중학교 때에 마음 먹었던 진정한 봉사활동의 기회가 주어진 것으로 여겼습니다.

전에 소외된 사람들을 보면서 '언제쯤은 나도 저들에게 조그만 힘이라도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부모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선뜻 독거노인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해보고 싶은 봉사활동, 즉 소외되고 사랑이 부족한 사람들과 함께할 시간은 그렇게 제게 다가왔고, 그 때부터 지금까지 봉사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이 농촌에 가깝기 때문에 혼자 사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적적함을 조금이나마 없애 드리기 위해서 1학년 때부터 지속해서 독거노인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 봉사활동을 하

전에 소외된 사람들을 보면서 '언제쯤은 나도 저들에

의 확인이 이루어지고 나서야 방문을 합니다.

목욕 등이 이루어지는 날에는 많은 아이들과 함께 가서 일손을 덜어드리기 위한 봉사활동을 계획합니다. 이외에 이루어지는 봉사활동들 역시 학교에서 봉사활동 계획서를 작성하고, 관련 기관에 전화를 하여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묻고 실천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II. 활동내용 및 실적

저는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봉사활동에 참여할 뿐 아니라 독거노인 봉사활동 및 사론의 집과 농촌의 일손 돕기, 장애인과 친구 되기 봉사활동, 사물놀이 공연봉사활동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전개해오고 있습니다.

1. 독거노인 봉사활동

1학년 때부터 지속해오던 독거노인 봉사활동을 한 지 어느덧 2년이 다 되어갑니다. 시간은 우리에게 더 많은 추억과 경험을 주었습니다. 그래서인지 1학년 때보다는 할머니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할머니 생신이 연말이기 때문에 작년 말에는 적적하신 할머니를 위해서 생일 파티도 해 드려 할머니께 조금이나마 행복한 시간을 선물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올 어버이날에는 할머니를 위한 조그만 선물도 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런 선물보다도 할머니께서는 저희가 찾아오시는 것을 더 좋아하십니다.



▲ 할머니와 함께

몸이 많이 좋지 않으신 할머니께서는 말동무를 필요로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가는 것을 많이 반기십니다. 요즘 들어 할머니께서는 사람의 정이 그리우신지 저희가 할머니 집을 나갈 때면 “또 올라 와줄 줄 몰라? 그때

여주시고 좋은 말씀도 많이 해 주십니다. 할머니께 가면서 말동무로써, 그리고 손녀처럼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할머니께 돌아가신 외할머니의 따뜻한 마음을 느끼곤 합니다.

2. 사론의 집 방문

제가 사는 곳 근처에 ‘사론의 집’이라는 노인요양시설이 있습니다. 버스를 타고 한 40분을 가야하기 때문에 자주는 가지 못하지만 한 번 갈 때면 할머니들께서 반겨주십니다. 4H부에서 사물놀이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곳에 가서 공연을 하기도 합니다. 지난번 공연에서 풍물이 울려 퍼지자 한 할머니께서 어깨춤을 추시고 어떤 할머니께서는 눈물을 흘리기까지 하셨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눈물을 흘리시면 할머니께 다가가자 “예전엔 이런 것 좋았는데 늙으니까 이런 것도 못보고……”라 말씀하시니 마음 한 편이 찡해졌습니다. 때문에 시간이 날 때면 찾아가는 곳입니다.

그리고 전에 갔을 때에 한 할머니께서 제 손을 만지시며 “참 곱다. 아이쿠, 장난감 같아. 자꾸 이렇게 주무르게 되네” 하시며 제 손을 잡고 손녀처럼 대해 주셨습니다. 이 이외도 거기 계신 노인 분들을 목욕 시켜드리고 손톱 발톱도 깎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갔을 때에 제 손을 만지셨던 할머니께서 안 계셔서 무슨 일인지 여쭙어 보고 싶었지만 아낀 것은 아닌지 괜스레 걱정이 되어 묻지 못한 것이 지금까지도 마음에 걸립니다. 이렇게 갔다 올 때면 우리 주변에는 사람의 정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몸소 느끼고 돌아옵니다.

3. 장애체험 및 장애우와 친구 되기

저희 학교 4H에서 올해 새롭게 실시된 장애우들과 함께 하루를 보내는 봉사활동이 있었습니다. 개교기념일에 맞추어 실시된 이 봉사활동은 근처 장애인들이 공부하고 있는 선산중학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장애인들을 이해하기 위한 장애 체험을 학교, 3교로 나누어 장애인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을 겁니다. 저는 그 아이들과 협동축구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 선생님께서 장애의 이해를 위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들은 활동에서 우리와 조금 다른 것뿐이자 틀림없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 후에는 우리보다 나은 것, 만능선 볼펜도 제작

적으로 참여하고, 계속해서 말을 붙이며 우리 사이의 간격을 조금이나마 줄이게 먼저 다가왔습니다. 협동화를 다 그리고 마지막 사진을 찍는데 아쉬움이 남았고, 나중에 꼭 다시 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미소를 가득 담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어찌하면 나보다 더 밝고 맑은 영혼을 가지지 않았을까 생각해봤습니다. 장애인들과 함께한 하루에서 그들을 더 많이 이해할 수 있었고, 장애인과 우리는 하나도 다를 것이 없고,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 장애체험을 통해서 장애우의 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 우리 함께 협동하든 그리고 언어와

4. 농촌체험 및 일손 돕기

처음 제가 농촌의 일손을 돕게 된 것은 고구마 심기입니다. 농촌에 살지만 한 번도 해 본적이 없기 때문에 재미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체험판 농기 체험하려 했었는데, 면적이 작고, 일손이 너무 많고, 농촌에 갈 때와 돌아오는 길에 물이 부족하고, 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관동에서 농촌에 가서, 농촌에서 농촌으로, 농촌에서

농촌으로, 농촌으로, 농촌으로, 농촌으로, 농촌으로

농촌으로, 농촌으로, 농촌으로, 농촌으로, 농촌으로

농촌으로, 농촌으로, 농촌으로, 농촌으로, 농촌으로

농촌으로, 농촌으로, 농촌으로, 농촌으로, 농촌으로

농촌으로, 농촌으로, 농촌으로, 농촌으로, 농촌으로

농촌으로, 농촌으로, 농촌으로, 농촌으로, 농촌으로

그렇게 얼마가 지나고 올 가을 수확할 시기가 왔습니다. 고구마를 캐고 땅 속에서 팔뚝만한 고구마가 나올 때에는 탄성이 절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경력이 없어서인지 고구마를 부러뜨려서 상품가치를 잃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일을 너무 열심히 해서인지 밭에서 먹는 감밥은 꿀맛이었고, 이 고구마를 판 금액이 겨울에 불우한 이웃을 위해 쓰여 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더더욱 열심히 고구마를 캐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수확하고 집에 갈 시간에는 우리가 캔 고구마의 일부를 집으로 가지고 갔습니다. 내 손으로 심고, 내가 직접 수확한 농작물을 보며 자연의 신비를 경험했습니다.

그 외에 고추 따기를 하러 청양 가파마을에 갔습니다. 그곳에는 노인 분들만 많았기 때문에 고추를 따는 것에 일손이 부족하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1시간 밖에 돕지 않았지만, 앉았다 일어났다 고추를 따기 때문에 다리도 아프고, 팔도 아파왔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노인 분들을 도와드린단 생각에 마음이 뿌듯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조금 밖에 하지 않아도 힘든데 할머니, 할아버지께서는 얼마나 힘이 드실까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왔습니다. 그 순간 농촌의 일손부족 문제의 심각함을 깨닫기도 했습니다. 힘들기도 한 농촌에서의 일손 돕기였지만, 그 속에서 어르신들의 노고를 느꼈고, 우리 농산물을 더 애용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고추 따는 것은 너무 어렵네요.





▲ 맛있는 고구미를 내 손으로 직접 케고 있어요.

5. 교내 봉사활동

학교에서는 봉사활동을 하기 전에 가져야 할 마음과 짐과 어떻게 실천하는 것이 봉사활동의 진정한 의미인지를 깨닫는 소양교육이 이루어 졌습니다. 1년 동안 봉사활동을 애 오면서 미처 생각지 못했던 점들과 그동안 제가 그렇게 바래왔던 진정한 봉사활동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무언가를 얻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봉사활동은 먼저 베푸는 법을 알려주었고, 작은 일이지만 주변을 위해서는 봉사가 될 수 있다는 큰 의미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후 학교 주변의 쓰레기 수거 및 하천의 정화를 위한 청소도 이루어 졌습니다. 비록 작은 일이지만 이로 인해서 죽어가던 하천 생물들에는 좋은 보금자리를 공급해주고, 주변의 미관을 아름답게 함으로 저 뿐만 아니라 마을 주민들께서도 호뜻함을 느끼십니다. 어쩌면 교내 봉사활동은 당연히 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직접 하도록 만듦으로 작은 것에서도 기쁨을 느끼게 하는 활동이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주변을 위해서 하나라도 할 수 있다는 만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 봉사활동에 대한 마음의 준비

|| 봉사활동에 대한 마음의 준비

차별·차별을 근 대적 시위 시위 목적이었던 풍요로인 봉사활동에 동참한이 있을 뿐 봉사활동의 대에서 줄어 알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하나를 배운다는 마음으로 봉사활동에 임하면서 하나 둘씩 계획을 짜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장 처음에 가졌던 하나의 봉사활동의 계획은 자주 할머니 댁을 방문하는 것이었습니다. 혼자사는 분이기에 적적함을 느끼시고, 외로움을 많이 타실 것을 생각해 세운 것이었다. 욕심 없이 시작한 것이기 때문인지 봉사활동을 실천하고 올 때 마다 하루 기대치 이상이 된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얻는 것이 많아질수록 얻은 것을 남들과 함께 나눠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독거노인봉사활동으로 시작한 것은 어느덧 노인 분들이 계신 사론의 집을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이런 봉사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용돈을 아끼고 아껴서 그 돈으로 노인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을 포함한 다양한 봉사활동으로 확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올 여름 큰 수해재해를 입은 지역을 위해서 기금을 모금했으며, 학교에서 아프리카아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기금모음에 참가해 돈을 모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모금활동을 통해서 돈의 가치를 느끼게 되고 작은 사랑도 모이면 큰 힘이 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봉사활동은 지역신문 등에 탑재되기도 했습니다.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고구마 심기 봉사활동은 대전일보에, 성봉초등학교를 찾아갔던 봉사활동은 충청투데이라는 신문 등에 실렸으며, 지역신문인 서산타임즈와 서산신문에는 4-H 회원들과 함께하는 사론의 집을 방문해 사물놀이 공연을 봉사한 것이 실리기도 했습니다. 작은 봉사활동의 실천이기에 신문에 실린다는 것이 남들에게는 우습게 여겨질지도 모르지만, 다양한 봉사활동을 한 것이

▲ 봉사활동에 대한 마음의 준비

▲ 봉사활동에 대한 마음의 준비

장애인들을 바라봤던 것을 이제는 우리와 같은 동등한 사람으로 여기며 아픔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마음가짐이 바뀌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체험을 통해 우리 농산물에 애정을 느끼며, 일손 부족을 느끼고 계실 노인분들을 위해서 많은 농촌체험 참여하고 있습니다.

Ⅳ. 앞으로의 계획 및 배운 점, 느낀 점

봉사활동을 하고 오던 어느 날, 우연히 버스에 비친 제 모습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왠지 모를 뿌듯함이 밀려오고 있음을 알아 차렸고, 피곤함과 함께 얼굴에는 미소가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때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진작 진정으로 봉사활동을 한다면, 전에는 미처 느끼지 못했던 사랑을 느낄 수 있을 텐데, 그동안 왜 이렇게 나만 생각했을까?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조금만 투자하면 그 시간의 배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데...' 하는 아쉬운 마음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 때에는 진정한 봉사활동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매력을 가진 봉사활동 속으로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봉사활동을 하며 할머니께 이런 저런 이야기를 들으며 가 살아보지는 못했지만 그 시대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것은 세대차이의 폭을 줄이기 위한 하나의 변화를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할머니 댁을 방문하기 위해 준

비하는 제 모습 속에서 뭔가가 변한 제 모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만을 생각하던 '나'에서 누군가를 위해서 준비하고 사랑을 나누는 법을 알며 변하고 있는 '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변하고 있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나, 그리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나가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봉사활동을 하기에 충분한 시간을 가졌지만, 이제 고3이 되기 때문에 많은 봉사활동은 이루어지기 어렵겠지만 봉사활동이 허락되는 시간에는 지금처럼 꾸준히 봉사활동을 할 것입니다. 만약 찾아 뵈 충분한 시간이 허락되지 않는다면 지금 하듯이 전화로라도 안부를 물을 수 있도록 해 처음 해보는 독거노인 봉사활동의 연을 발전시켜 평생 동안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대학에 가서 시간이 되는 때에는 제 힘을 필요로 하는 곳에서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싶습니다. 농촌에서 일손을 도우며 느꼈던 일손부족에 조금이라도 힘이 되도록, 희망을 잃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며 작지만 제가 받았던 사랑들을 조금이라도 나누도록 할 것입니다. 봉사활동을 처음 하면서 깨달은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꾸준히 봉사활동을 하면서 이웃과 함께 하는 저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참여하고 있지는 않지만 조금 더 나이를 먹게 되면 저와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하는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여 지금보다 더 다양하고 더 많은 도움을 주기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특선(충청남도교육감)

김태은 | 서일고등학교 2학년



내가 내민 작은 손길, 세상을 보듬는 큰 마음

1. 동기와 활동계획

1. 동기

가. 초·중학생 때의 나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마치 자신의 일인 것처럼 도와 주시는 사려 깊으시고 정이 많으신 부모님 밑에서 자라왔다. 부모님께서도 매주마다 외할머니 댁에 가신다. 어렸을 적부터 그런 부모님을 따라 외할머니 댁에 자주 갔다. 외할머니 댁은 소도 키우시고 포도농사도 지으신다. 초등학교일 때부터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은 곧잘 도와드렸다. 외할아버지를 따라 사료바가지를 들고 소에게 사료를 줄 것이라며 할아버지를 따랐다.

그때는 아직 어리고 많이 서툴러서 일을 딱 부러지게 도와드리지는 못했지만 어렸을 적부터 부모님을 따라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를 찾아뵈면서 내가 하는 작은 일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차츰 알게 되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생이 되어서도 같은 반에서 적응을 잘 하지 못해 어려워하는 친구들이나 형편이 어려운 친구들을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잘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무엇보다도 내가 지금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부모님의 애정 어린 관심과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이다.

나. 4-H로서 봉사활동을 하게 된 동기

고등학교에 입학하여 클럽활동을 위해서 부서를 정하였다. 그런데 초등학교 때 사물놀이를 배웠었는데 마침 교내의 4-H클럽에서 사물놀이 공연 방문 봉사활동 등 사물놀이도 배울 수 있고 다양한 봉사활동을 한다고 하여 4-H회원으로서 봉사활동을 하게 되었다. 4-H는 지

(習) 덕(德)노(勞)체(體)의 기본 이념 아래 겸손한 자세로 인격을 도야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며 지역 사회 봉사를 중요시 하는 단체이다. 이런 기본이념 아래 단순히 봉사에서만으로 그치지 않고 나의 발전과 사회 발전에 작은 보탬이 될 수 있는 봉사활동을 하게 되었다.

4-H회원으로서 '무의탁 어르신 자녀 되기' 봉사활동, 장애 복지시설 방문을 통한 '장애 체험 및 장애인식 개선활동', '농작물 돌보기', '사물놀이 공연 방문 봉사활동'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몸소 실천할 수 있게 되었다.

2. 활동계획

가. 무의탁 어르신 자녀 되기 봉사활동 계획

무의탁 어르신 자녀 되기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서 조를 구성하였다. 혼자서 아닌 한 조가 함께 활동을 하면 더욱 체계적으로 봉사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다음으로는 무의탁 어르신 댁과 연결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주변에 무의탁 어르신 댁이 어디 있는지 잘 알지 못해서 4-H선생님의 지도에 따랐다. 선생님께서 무의탁 어르신 댁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셨다. 각 조는 사전에 미리 어르신 댁에 전화를 드려 방문 가능한 날짜와 시간을 여쭙는다. 그리고 쉬는 시간 등을 이용해서 조원이 모여서 방문 가능한 날짜와 시간을 두고 회의를 한다. 서투르지 않은 봉사활동이 되기 위해서 어르신 댁에 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활동이 어떤 것이 있을지 서로 이야기 해본다.

봉사활동을 한 후에는 다음에 더 나은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서 봉사활동 내용 중 반성내용과 할머니께서 필요하신 것이 없으신지 봉사활동 기록 일지에 기록하여

복지원에 알린다.



▲ 봉사활동을 하고 난 후 봉사활동기록일지에 봉사활동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나. 장애 복지시설 및 복지시설 봉사활동 계획

장애 복지 시설을 방문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친근감을 갖고 다가가는 것이다. 단지 장애라는 이유로 멀리 대하고 낮설게 생각하는 사람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봉사활동을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봉사활동이 아닌 것이다. 따라서 장애 복지시설에 계시는 안내 선생님의 지도에 따라 행동하고 장애우들과 친구가 되려고 한다.

이 밖에 다른 복지시설 즉, 노인 복지시설 등을 방문할 때에도 지도 선생님께서 복지원에 방문 봉사활동이 가능한지를 물어봐주시면 지도에 따라 봉사활동을 한다. 봉사활동을 할 때에는 역시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를 뵙는 것처럼 할머니 할아버지의 말벗이 되어드리고 손자 손녀딸이 되어드린다.

다. 사물놀이 공연 봉사활동 계획

사물놀이 공연 봉사활동을 위해서 점심시간이나 클럽 활동시간을 활용하여 각자 한 악기씩 맡아 사물놀이를 연습한다. 공연 봉사활동을 선생님과 친구들과 함께 공연 봉사활동을 할 때 앉을 배치도 만들어보고 어떻게 하면 더욱 흥겨운 가락이 될까 구상도 해본다. 선생님께서 요양원과 같은 시설에 연락을 해 주시면 그동안 연습해왔던 공연 봉사활동을 한다.

라. 농 작업 돕기 봉사활동 계획

농 작업 돕기 봉사활동은 손이 많이 가는 봉사활동이다. 따라서 봉사활동을 하러 갈 때에는 편한 복장으로 갖추어야 한다. 또한 날씨가 많이 더울 경우 땀을 닦을 수 있는 수건을 준비해도 좋다. 농 작업 돕기는 열매와 곡식을 수확하는 것이기 때문에 농 작업하는 곳에 계시는 선생님 또는 영농 회원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아 수

확하는 방법을 배워 잘 수확하도록 한다.

3. 봉사활동 시 나의 다짐

첫째 실천으로 행하자.	말만으론 그치지 않고 직접 봉사를 실천으로 행한다.
둘째 나의 일과 같이 하자.	어떤 봉사활동도 나의 일과 같이 적극적으로 한다.
셋째 다시 되돌아보자.	봉사활동을 한 후에 보다 더 나은 봉사활동을 위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봉사활동 내용에 대해 반성해보는 시간을 갖는다.

봉사활동을 하는 것은 나의 발전에서 나아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활동으로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한다. 그리고 무작정 봉사활동에 임하는 것이 아닌 사전에 세워진 계획에 따라 봉사활동을 하여 의미 있는 봉사가 되도록 한다. 또한 봉사활동을 함으로써 부족한 봉사의식을 함양하여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

II. 활동내용 및 실적

1. 활동내용

가. 무의탁 어르신 자녀 되기 봉사활동

선생님께 주변에 무의탁 어르신이 사시고 있는 곳을 여쭙보고 미리 연락을 드리고 찾아뵈었다. 혹시나 할머니께서 우리를 불편해 하지는 않으실까 여러 걱정을 하면서 할머니 댁을 방문하였다. 할머니께서는 걱정과는 달리 웃으시면서 우리를 반갑게 반겨주셨다. 처음 할머니 댁을 방문봉사한지도 2년째다. 할머니께서는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를 맞아주신다. 할머니께서는 우리가 오면 주시려고 복지원에서 준 사탕이니 젤리를 챙겨 두신다. 그때 마다 우리가족이 찾아뵈면 호박이나 나물이나 꼭꼭 싸주시는 할머니가 생각이 난다.



▲ 할머니의 말벗이 되어 드린다.

라. 농 작업 돕기(고구마 캐기 봉사활동)

고복면으로 고구마 캐기 봉사활동을 갔다. 날씨가 흐려서 비가 오면 어쩌나 걱정을 했는데 비가 그렇게 많이 오지 않아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었다. 그냥 호미로 고구마를 캐기에는 흙이 딱딱하게 말라서 영농 회원 선생님들께서 트랙터로 흙을 얹어주시면 우리가 호미로 고구마를 캐다. 고구마를 캐 때마다 즐기에 여러개씩 고구마가 따라 나오는 모습이 신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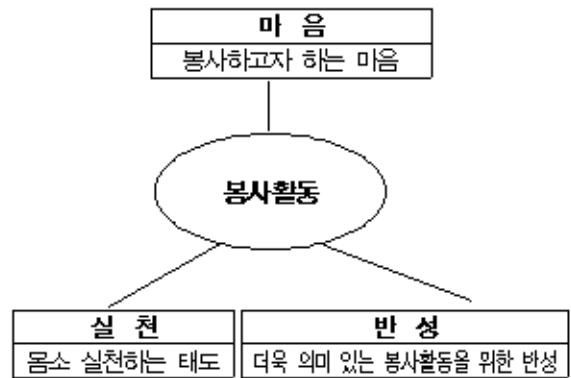
고구마 즐기 넣쿨도 치우고 고구마도 캐고 또 그렇게 캐 고구마를 껍질이 많이 얇아 벗겨지고 부러지지 않은 것을 선별하였다.

우리가 먹는 채소는 시장에 가면 쉽게 구입할 수 있다. 그래서인지 우리들은 그 채소를 수확하기까지 농부들의 노력과 수고로움을 잘 알지 못한다.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곡식을 수확하는 농부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고 우리에게 채소와 곡식을 주는 자연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



고구마를 수확하고 있다.

3. 봉사활동의 기본요소



III. 현대 사회에서 봉사활동의 필요성

현대 사회는 급속하게 발달 하는 가운데, 사람들의 마음은 사회 발달 수준으로 보면 개발도상국에도 미치지 못하는 후진국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즉, 다시 말하면 인정이 많이 메달라 있다는 것이다. 주변의 소외된 이웃보다는 텔레비전에 나오는 연예인들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 그리고 이러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듯한 사회적 분위기까지... 이제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2. 봉사활동 크고 어려운 점과 개선방향

어려웠던 점	개선방향
무슨 봉사활동이 있으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지 못했다.	인터넷에서 봉사활동과 관련된 사이트를 찾아보며 다양한 봉사활동이 있다는 것과 그것들이 향해지는 방향을 살펴보았다.
장애인 복지 시설을 방문할 때 어떻게 활동해야 하는지 잘 알지 못했다.	장애복지시설에 계신 선생님의 지도하에 활동하여 어렵지 않게 활동할 수 있었다.
처음 봉사활동을 시작했을 때 많이 서툴렀다.	봉사활동을 다녀온 후 봉사기록일지를 작성하면서 더 나은 봉사활동 방향을 찾아 개선하였다.

IV. 앞으로의 계획

지금까지 내가 해온 '목거노인 자녀되기' 봉사활동, 노인복지시설방문 사물놀이공연 농 작업 돕기 등의 봉사활동도 뜻 깊었지만 무엇보다도 이를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더 의미 있을 것이다. 앞으로도 4H클럽 활동을 통하여 더 많은 독거노인 할머니, 할아버지 댁을 방문하여 말벗이나 잔심부름을 해드리고 교내 클럽활동시간에 선생님의 지도에 따라 사물놀이를 열심히 배우고 연습하여 노인복지시설뿐만 아니라 서산성봉화교와 같은 장애우들을 방문하여 공연 봉사활동을 하고 싶다.

또한 요즘 교통과 통신수단의 발달로 세상은 나날이 발전해가는 가운데 사람들의 마음은 그와 반대로 많이

각박해져 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만큼 우리는 가까운 이웃과 몸이 조금 불편한 장애인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앞으로 장애인들이 머물고 있는 복지원에 많이 방문하여 장애인에게 친구가 되고 버팀목이 되어주고 싶다. 또한 나뿐만이 아닌 주변 친구들에게도 나의 봉사 실천 내용을 말해주며 그 친구들도 몸소 봉사활동을 실천하게끔 할 것이다.

나 혼자만으로 그치지 않고 내가 두 친구를, 그 두 친구는 또 각자 두 친구를...그렇게 실천하게끔 도와주

면, 서로 힘든 것을 나누며 살아가는 한결 더 나은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것이다.

봉사활동은 결코 거창한 것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다. 그저 처음 시작이 서투를 뿐이다. 현재까지 봉사활동을 통해서 그것을 더욱 절실히 깨달았고 내가 하려고 하는 마음만 있다면 그 마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봉사활동의 밑거름이 된다는 것을 알았다.

앞으로 이런 마음가짐으로 나의 성장을 위하여, 나아가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에 작은 보탬이 되기 위해서 능동적이고 더욱 적극적인 봉사활동을 할 것이다.

특선(충청남도교육감)

김윤지 | 면천중학교 3학년



사랑해요, 우리

I. 마음전하기

남을 도와주는 건 생각해보지도, 잘해보지도 못하는 나이다. 결코 그것을 즐거움이라 생각해 본 적도 없었던 딸. 남에게 사랑을, 딱히 베풀어 텔레비전에 나오는 사...

추석이 지났던 어느 해 가을, 학교 선생님이신 부모님을 따라 언니, 오빠들과 함께 서림복지원으로 갔다. 한번도 남을 위해 이렇게 어딘가를 가본 적이 없는지라 들뜬 마음을 감출 수 없었고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서기도 하였다. 부모님과 언니, 오빠들과 함께...

는 사회적 사는 과금의 우리도 얼굴이 붉어질 정도 부끄러운 모습이다. 몇 몇의, 아니 알고 있는 것보 훨씬 많은 사랑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아직까 그들을 외면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것에 아쉬움과 마음을 표하게 된다. 웃고 즐길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게 무엇보다 가장 행복한 일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나의 과 아픔, 그리고 기쁨을 내 곁의 다른 사람과 함께 고 더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더할 나위없는 행복한 이 아닌가.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 활동

선니들, 미안했어요. 사회활동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그냥 어렸었던 초등학교 시절, 서림복지원에서의 봉사활동 관계 엄청난 변화를 주었고 또 엄청난 여운을 남기 하였다.

올 드실 때도, 텔레비전을 볼 때도 몸을 잘 다루자 못 하였다. 그리고 계속해서 침이 나와 부득이 턱반으로 침을 받아내야 하는 분이셨다. 두 번째 만남. 분은 검은 게 많이 불편한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는 반가움에 기어오셨는데 솔직히 나는 웬지 모를 공포감에 뒤로 주춤했다. 나의 주춤거림과는 달리 그분은 우리를 보고는 매우 즐거워하는 것 같았다. 우리는 서림복지원에 있는 장애우들과 함께 텔레비전도 보고 식사시간에는 그분들께 밥도 먹여드렸다. 소화기능이 좋지 않아 죽을 드셨는데 많이 드시지도 못하고 거의 뱉어내다시피 흘리며 드셨다. 씹지도 삼키지도 못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안쓰러웠다.

유난히 작고 퉁퉁해 귀엽다는 생각이 들게 만든 분이 있었다. 활동하는 데에 불편이 없어서 처음 만남 때부터 달려와 우리를 반겨 주셨던 분이였다. 이 것 저 것 잘 알려주고 밥도 잘 먹고 잘 웃어서 다가가기 쉬웠고 또 그만큼 친근감이 들었다. 이해되지 않는 얘기를 할 때에 난처한 표정을 짓자 부끄러워 웃어버리는 모습에 전혀 우리와 다르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우리가 떠

1. 인
봉
기만
은 나
기도

난다고 할 때에 바닥에 누워 땀을 쓰며 가지 말라던 그분의 행동에 놀라웠다. 지금까지 우리와 웃으며 즐거워했는데……. 간다는 말에 눈물을 똑똑 흘리던 그분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돌아와야만 했던 내가 웬지 미워졌다.

하루 일과를 정리하며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도 그분 생각에 모두의 마음이 편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던 중 언니, 오빠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다. 내가 친구로만 동생으로만 생각하고 편하게 대했던 그 분들이 나보다 훨씬 나이가 많으신 어른이거나 언니, 오빠뻘 되는 분들이었다. 작고 왜소했던 걸모습만 보고 판단하여 편하게만 대했던 것이 못내 죄스러운 마음으로 남아있었다. 특히, 우리를 보고 반가운 맘에 바빠 기어오던 그 모습에 나는 공포감을 느껴 뒤로 주춤거렸던 내 행동에 많은 생각을 하게 됐다. 내 주변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모습이 아니어서 그 낯설음이 내게는 공포감으로 다가오지 않았나 싶다. 아마도 그분들이 좀 더 자주 외출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그래서 내가 한번이라도 장애우들이 우리 주위에서 함께 살아가는 이웃이라는 생각이 있었다면 나의 반응은 좀 다르지 않았을까? 말로만 들었고, TV에서만 보았던 장애우들과 함께 한 하루는 내게 큰 충격이었다. 내가 가지고 있던 작기만 한 삶의 울타리를 조금이나마 넓게 만들어준 소중한 시간이었다.

2. 친구야, 봉사활동기자~

처음 서림복지원에서의 봉사활동을 시작으로 봉사활동의 즐거움을 깨달았다. 그래서 친구들과도 함께 봉사활동을 하기로 하였다. 당진에서 초등학교를 다니다가 면천으로 전학 온 나는 친구들과 친해질 기회가 적었는데 함께 봉사활동을 감으로써 같이 땀 흘리고 같이 힘들어하면서 친구들과 더욱 친해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어 주었다.

면천 부근에 소망의 집이라는 노인복지 시설이 있다. 나와 친구들은 봉사활동 시간도 채울 겸 모여 소망의 집으로 갔다. 그 곳에는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셨다. 우리는 노동봉사를 하러간 것이었기 때문에 가자마자 자기 청소구역에 맡아 청소를 시작하였다. 쓸고 닦고……. 집에서 하지 않는 청소를 소망의 집에 와서 최고로 열심히 한 것 같았다. 어느덧 우리의 이마엔 땀방울이 하나 둘 늘어갔고 점점 지쳐갔다. 하지만 깨끗해진 방과 깨끗해진 유리창을 보면서, 기뻐하시는 할

머니,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고는 힘이 생겼고 보람을 느꼈다.

기억에 남는 두 번째 방문은 여름방학 중에 다녀왔던 소망의 집이었다. 무덥던 여름방학 중학교에서는 봉사활동 희망자를 모으고 있었다. 한 번 더 열심히 해보자는 마음으로 힘차게 손을 들었다고 우리는 학교 앞에 모였다. 차로 몇 번을 왔다 갔다 한 후에 다 모인 친구들과 함께 소망의 집으로 들어갔다. 각자의 역할이 주어졌는데 나와 몇 명의 친구들은 세탁실을 맡았다. 처음 세탁실에 가본 우리는 놀라 눈이 휘둥그레 졌다. 오랫동안 밀렸었던 것처럼 많은 빨랫감들과 찰찰 넘치는 물들. 한 명씩 빨래 통에 들어가 이불이며 옷이며 많은 빨랫감들을 있는 힘껏 밟았다. 밟고 또 밟았다. 만만하게만 보고 쉬울 것이라고만 생각했던 빨래하는 일이 청소하는 것보다 더 힘들고 어려웠던 것으로 기억된다.

너무 열심히 빨래를 했나, 한 친구는 핸드폰을 빨래 통에 빠뜨려 고장 나는 일까지 생겨버렸다. 평소 핸드폰을 손에 달고 살 정도로 핸드폰에 대한 사랑이 굉장했던 친구라 슬슬 걱정이 되었고 나와 남은 친구들이 더 난처해졌다. 하지만 그 친구는 이제 다 봉사활동의 즐거움이라며 고장 난 핸드폰을 뒤로 하고 더욱 열심히 빨래를 하기 시작하였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그동안 그 친구에 대해 미처 몰랐던 부분을 새삼 깨닫게 되었다. 그리곤 친구가 더 좋아졌다.

열심히 밟았던 빨랫감들은 새 옷이라 할 정도로 깨끗해져 있었다. 더러웠던 것들이 깨끗해지는 것을 보니 한 걸음 더 나아가 내 마음도 깨끗해지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았다.

모든 봉사활동이 끝나고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함께 했던 간식시간도 있을 수 없었다. 가져간 음식들을 할머니, 할아버지와 같이 나누어 먹고 또 우리가 노래를 불러드리면 그분들은 즐겁게 웃고 하셨다. 학생과 할머니, 할아버지가 함께 한 이 시간을 계기로 할머니, 할아버지와 좀 더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그분들의 마음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그분들이 우리에게 바라는 건 깨끗한 주변 환경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웃고, 외로움을 달랠 수 있는 시간이었다는 걸……. 우리들이 내미는 작은 관심을 표현한 손길이었다는 걸.

3. 우리는 발마사지 봉사단이에요!

2학년 마지막 기말고사를 앞두고 있던 그 때, 선생님께

서는 발마사지 봉사단을 모집하고 계셨다. 꾸준히 발마사지를 배워 가까운 시설에 가서 할머니, 할아버지께 발마사지를 해드리자는 취지로 시작하고 계셨다. 발마사지도 배우고 봉사활동도 하고 우리에게 도움 되는 것이 참 많을 것이라고 확신하곤 번쩍 손을 들어 ‘웅달샘 발마사지 봉사단’에 가입하였다. 평소 발마사지에 대해 관심이 많고 궁금한 점도 많이 있었는데 좋은 기회가 되었다. 목요일, 금요일 수업이 다 끝나고 2시간씩 단원들은 선생님과 강사님의 지도 아래 서로의 발을 상대로 열심히 연습했다. 한 겨울이라 춥기도 엄청 추웠지만 무언가를 배운다는 즐거움에, 친구들과 함께 라는 기쁨에 콧물이 나오는 줄도 모르고 열심히 배웠다. 처음에는 도서실이 딱 찰 정도로 많은 희망자가 있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한 명 두 명 빠져나가다보니 마지막까지 남은 사람은 20명도 채 되지 않았다. 처음의 목표가 줄어 많이 아쉬웠다. 12차례의 발마사지 교육을 완벽하게 끝마치고 기다리고 기다리던 수료증을 받게 되었다. 우리 웅달샘 발마사지 봉사단은 감격의 수료증을 받아들고 본격적인 발마사지 봉사활동을 시작하였다.

우리의 첫 번째 손님은 노력봉사로만 갔었던 소망의 집 식구들이었다. 청소하러 갈 때와 발마사지 하러 갈 때의 기분은 확실히 달랐다. 그전보다 좀 더 책임감도 들고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할머니의 발을 마사지 해드릴 때는 친구의 발을 상대로 마사지 할 때와 차이가 있었다. 친구의 발을 만질 때는 장난치느라 일부러 좀 더 세게 아프게 했었다. 그러나 할머니, 할아버지의 발은 우리의 발보다 뼈가 약하고 잘 부러진다고 하였던 강사님의 말씀이 귀에서 맴돌았다. 그래서 난 진지하게 발마사지에 임했고 할머니께서 안 아프시게 손가락 하나하나에 심혈을 기울여 발을 만져드렸다. 조그만 할머니의 발, 묵묵하고 나온 듯 주글주글 해진 발가락, 너무 기늘었던 할머니의 다리……. 펜스레 내 마음이 아팠다.

나는 발마사지를 잘 하지도 못하고 순서마저도 헛갈려가파지 했다. 하지만 할머니께서는 나를 연신 웃는 얼굴로 대해주셨고 자꾸만 고맙다고 하셨다. 잘하든 못하든 할머니, 할아버지께서는 다 이해하셨고, 우리가 온 것만으로도 많은 기쁨과 즐거움을 포하셨다. 크림도 듬뿍 발라드리고, 자압도 ‘오래, 많이’ 해주었다. 자압해드릴 때 간지럼다며 아이처럼 해맑게 웃으시는 할머니의 모습이 오래도록 가슴속에서 지워지지 않는다.

우리의 두 번째 손님은 광명실버하우스 식구들이었다.

다. 계속 소망의 집으로만 봉사활동을 다녔는데 새로운 곳을 방문하기로 한 것이다. 처음 들어서는 낯선 곳이라 할머니, 할아버지와도 조금 서먹서먹하고 어색한 침묵만이 흘렀다. 그러나 곧 발마사지를 하면서 팔, 다리를 주물러드리고 할머니, 할아버지와 얘기를 나누다보니 금세 가까워진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만나기 전에는, 발마사지를 해 드리기 전에는 할머니, 할아버지와 친해질 수 없을 것이라고 친구가 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먼저 말 걸어주시고 먼저 다가와주셨다. 그 모습이 나에게겐 엄청난 힘이 되었고 또 즐거움이었다.

“어디서 왔나?”

“면천중학교에서요, 할아버지.”

“면천중학교?”

“여기서 가까워요. 대계 작는데 무지 예쁜 학교예요.”

“예뵤?”

“정원에 나무랑 꽃이 많아서 진짜 예뵤요.”

“몇 명이나 있나?”

“100..백..백명 조금 넘어요.”

“그렇게나 작나?”

“네~ 하하하.”

그렇게 나와 할아버지는 가까워졌고 또 곁에 있을 좋은 사람, 그런 사이가 되어버렸다. 침묵의 삭막한 봉사가 아닌 봉사활동을 통해 좋은 사람, 좋은 친구 하나 더 만드는 게, 그게 난 참 좋다.



▲ 참사랑 복지재단 발마사지 장면



▲ 광명실버 하우스 발마사지 장면

4. 카네이션에 사랑을 실어

5월은 가정의 달이라서 행사가 많았다. 학교에서는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카네이션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었다. 우리는 열심히 카네이션 만드는 법을 배웠다. 선생님들께서는 아주 쉽게 꽃을 완성시키셨다. 보기에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너무나 쉬워 보였다. 그런데 직접 만들려고 하니 마음대로 좀처럼 잘 되지 않았다. 이리저리 친구들에게 만드는 방법을 물어보러 다니고, 친구들의 꽃을 살펴보고, 아~ 거의 끝날 무렵까지 한 개도 완성시키지 못하였었다. 미리 마친 친구들의 가르침을 받고 어설퍼지만 내손으로 직접 나만의 카네이션을 겨우겨우 만들었다. 그 꽃은 부모님과 또 소망의 집 할머니, 할아버지를 위해 우리가 직접 마련한 어버이날 선물이었다.

5월 8일이 되었고 학교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를 위해 준비한 선물을 예쁘게 포장하였고 친구들과 소망의 집을 방문했다. 들이닥친 많은 인원의 학생들에 조금 놀라는 기색을 보이는 분들도 있었지만, 늘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셨다. 할머니, 할아버지의 옷에 직접 만든 빨간 꽃을 달아드리고 선물도 전해드렸다. 할머니, 할아버지께서는 마치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은 아이들처럼 좋



▲ 어버이날 참사랑 복지재단 위문 장면

5. 의사가 될래요!

무더웠던 한 여름날,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소망의 집으로 봉사활동을 떠났다.

항상 거실에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의 발을 만져드리곤 했는데 오늘은 영역을 넓혀 방 안에 계셔 한번도 마사지 받아보지 못하신 할머니의 발을 만져드리기로 하였다. 처음 들어가 본 방 안은 깨끗하게 치워져 있긴 했지만 사람 드나들의 흔적이 적어서인지 썰렁하게만 느껴졌다. 침대에는 너무나도 마른 할머니께서 환한 웃음을 머금으며 누워계셨다. 첫 만남이었지만 할머니의 밝은 웃음 때문인지 여러 번의 만남이 있었다는 두

번의 만남이 있었다는 두

번의 만남이 있었다는 두

번의 만남이 있었다는 두

번의 만남이 있었다는 두

번의 만남이 있었다는 두

번의 만남이 있었다는 두

번의 만남이 있었다는 두

번의 만남이 있었다는 두

번의 만남이 있었다는 두

번의 만남이 있었다는 두

번의 만남이 있었다는 두

번의 만남이 있었다는 두

번의 만남이 있었다는 두

번의 만남이 있었다는 두

번의 만남이 있었다는 두

번의 만남이 있었다는 두

번의 만남이 있었다는 두

번의 만남이 있었다는 두

번의 만남이 있었다는 두

번의 만남이 있었다는 두

번의 만남이 있었다는 두

번의 만남이 있었다는 두

번의 만남이 있었다는 두

번의 만남이 있었다는 두

번의 만남이 있었다는 두

번의 만남이 있었다는 두

번의 만남이 있었다는 두

번의 만남이 있었다는 두

번의 만남이 있었다는 두

번의 만남이 있었다는 두

번의 만남이 있었다는 두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 정말 나는 ‘할머니, 할아버지 실까? 우리를 보며 손자 습도 떠올리시겠지…….’ 음이 좀…… 쟁……해졌

한 소망의 집 봉사활동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를 만났는데 할머니께서는 내게 말씀하셨다. “그날 있던 날이 기억나지 않아요. 하지만 다리가 불편해 쓰러 지신 할머니께 조금씩 나가 오실까 봐요. 할아버지께 인사해주세요. 할아버지께 인사해주세요. 할아버지께 인사해주세요.” 할머니는 계속 나의 활동을 걱정해주셨다. 항상 하게 보면 남은 할머니의 다리를 보고는 안쓰러운 마음과 함께 좀 더 열심히 해 드려야겠다는 투지가 불타올랐다.

그렇게 할머니의 다리와 발을 주물러 드릴 때 할머니께서는 갑자기 다리를 위로 올렸다 내렸다 하시면서 기

“할머니, 왜 그러세요?”
 “다리가 인제 올라가, 다리가 올라갔다 내려와.”
 “예?”
 “확상, 실습 나온거? 의사 될라구?”
 “아니요~ 그냥 중학생이예요.”
 “나가 다리가 아파서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못했는데 확상이 해주니까 이렇게 다리가 올라가.”

할머니께서는 사고로 다리가 불편하셨는데 알마사지 후 다리 움직임이 좀 더 편해졌다는 것이다. 다리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걸 직접 보여주시면서 정말 진심으로



우리는 장면



▲ 카네이션 배

로 즐거워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나에게 의사선생님이라며 옆에 계신 할머니께도 자랑하시는 할머니의 모습에 무한한 감동과 뿌듯함이 밀려왔다. 연신 고맙다는 할머니의 말씀에 부끄러움을 감출 수 없었고 정말 내가 해낸 일인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하였다.

나중에 의사가 되라는 할머니의 말씀에 힘입어 나의 꿈을 바꾸는 일까지 생겼다. 정말 열심히 공부하여 꼭 의사가 되겠다고 할머니처럼 몸이 불편하고 마음이 외로운 분들을 아프지 않게 고쳐드리고 내 사랑으로 외로운 마음을 꼭꼭 채워드리겠다고



▲ 소망의 집 발마사지 장면

6. 소망의 집 습격 사건

늘 그래왔듯이 돌아오는 토요일엔 항상 발마사지 용구를 챙겨 차에 올라타기 바쁘다. 이번 주엔 다가오는 추석을 맞이하여 좀 더 뜻 깊은 방문을 만들기 위해 추석 선물을 안겨 드리기로 하였다.

학교에서 할머니, 할아버지께 드릴 선물 포장에 한창이었다. 몇 명의 봉사단 친구들과 함께 선물을 받고 기뻐하실 할머니, 할아버지의 모습을 생각하며 하나하나

과 밤 등 영양가 있는 것들을 넣고 명절 때 친척집에서 어껴내며 배운 솜씨로 모양을 내려 하였지만 송편이 아니라 만두가 되어버렸고, 나중엔 손 맛이 최고라며 주무르기까지 하였다. 송편 만들기에 모든 기를 쏟아 부을 때쯤 발마사지 일손이 필요하다는 선생님의 말씀에 벌써 일어나 손을 씻고 할머니께 다가갔다. 항상 만나던 그 다정한 할머니였다. 말은 못하셨지만 할머니께서도 날 보며 기억한다는 의미의 웃음을 보여주셨다. 발마사지 해 드릴 동안 옆의 할아버지와 손을 잡고 장난치는 모습을 보니 영락없이 천진난만한 아이 같기만 하였다. 두 손을 마주 잡고 해맑게 웃는 할머니, 할아버지는 무척이나 행복하고 즐거워 보여 덩달아 나도 따라 웃게 되었다. 그러던 중 할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생각났다.

“이번 추석엔 밤 송편도 먹어보겠네~ 계속 못 먹었는데……. 이가 하나도 없어서 씹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 할머니도 좋지요?”

웬지 가슴이 아왔다. 시장에 가면 쉽게 구할 수 있는 밤 송편을, 할아버지께서는 먹어보지 못한 채 그동안은 외로운 추석을 보냈던 것이었다. 작년에도 제 작년에도 와서 할머니, 할아버지와 송편을 만들어볼걸 하는 생각에 후회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지금 부엌에서 열심히 쪄고 있는 송편이 맛있게 잘 되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한 술 한 술 정성들여 만들고 쪄 송편을 꺼내 점시에 예쁘게 담고 과일과 함께 할머니, 할아버지께 대접하였다. 밤 송편을 먹게 되었다며 기뻐하시던 할아버지와 맛있다고 웃던 할머니, 모두 가슴 한 칸에 깊이 박혀 오랫동안 기억될 것이다. 준비해간 선물과 함께 할머니,



▲ 추석맞이 송편 빚기

Ⅲ. 나 변할래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야겠다.’ 항상 말로만 열심히 다짐하고 실천으로는 옮겨본 적이 손으로 꼽을 수 있을 정도로 적었다. 봉사활동을 처음 시작할 때에는 정말 거창하게 일주일에 한번씩 소망의 집에 간다고 다짐하였었다. 하지만 나의 다짐은 나에게 의해서 무참히 짓밟혔다.

남을 위한 봉사활동이 아닌, 나를 위한 나 자신을 위한 봉사활동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할 것이다. 거창하지는 않지만 지킬 수 있고 오래오래 할 수 있는 목표를 정한 것 같아 뿌듯하다. 우리가 남을 위해 봉사활동을 하면 그 사람도 우리로 인해 기분이 좋아질 뿐만 아니라, 우리도 남을 위해 무언가를 해 줬을 때의 성취감과 보람을 느낄 수 있다.

이 글을 쓰며 흐트러진 마음을 다잡아본다. 내가 봉사활동을 하는 건 남에게 사랑을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성장할 수 있는 자양분을 얻는 일이라고……,

앞으로도 나는 꾸준히 내 삶에 활력을 충전하고 지금껏 키워온 내 마음속 작은 사랑의 나무를 성장시킬 수 있는 이 고마운 일을 계속 해나가리라 다짐한다. 나아가 내 주위 친구들에게도 함께 손 내밀어 이 아름다운 일에 동참하자고 말하고 싶다.

Ⅳ. 모두가 사랑이에요!

우리 주위엔 다른 사람의 도움을, 사랑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다. 난 모두 다 잘 사는 줄 알았다. 모두 다 가족이 있는 줄 알았다. 모두 다 행복하지만, 즐겁기만 한 줄 알았다.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우리의 주위 가까이에 도움과 사랑이 필요하였다.

봉사활동을 처음 시작할 때에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겠다고 그렇게 다짐했었다. 횡수가 늘

어갈수록 처음 다짐과 달리 점점 피가 생기고 성의가 줄어드는 듯한 느낌을 받았을 때가 종종 있다. 처음 다짐, 처음 생각 그대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좋아질 줄만 알았는데, 아니 더 좋아져야 할 텐데 인간에게는 피라는 선물이 하나 더 주어졌나보다.

처음엔 봉사활동 가는 날이면, 발마사지 하러 가는 날이면 준비물도 잘 챙기고, 옷도 단정히 입고 몸과 마음의 준비를 모두 끝내서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발마사지를 해드리며 하루를 보냈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집에서의 휴식과 봉사활동이란 것에 대한 심리적 내적갈등에 휩싸이게 되었다. 그래서 청소를 하면서, 발마사지 하면서도 열심히 할 수 없었고 거기 계신 분들을 잔뜩 찡그린 얼굴로 밖에 대할 수 없었다. 항상 뒤늦게 후회를 하는데도 말이다.

그동안의 나의 봉사활동 실적과 태도를 뒤돌아보고 반성해보았다. 그래도 자랑할만한 것이 있다면 한번도 빠지지 않고 꾸준히 봉사활동에 참여하였다는 것이다. 아직 더 많은 곳을 가보지는 못하였다. 좀 더 새로운 곳에, 많은 곳에, 낯선 곳에 도전해 보지 못하였다는 아쉬움이 남기도 한다.

할머니, 할아버지, 서림복지원식구분들께서 보여주시는 훈훈한 웃음은 내 마음속에 영원히 남을 것이다. 그렇게 따뜻하고 정겨운 웃음을 본적이 참 오래되었을 정도로 너무 바쁘다고만, 바쁜 척만 하고 지내왔던 것 같다. 나는 너무 오랜만에 느낀 그 웃음이 참 좋았다.

친구들과 함께 모여 봉사활동을 하러 다니면서 자칫 따들림이 생길지도 모르는 위기의 순간들을 잘 넘겼다고 생각한다. 함께 다니면서 공동체 의식이 형성되었고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 모르는 것은 알려주고 서로 도와주면서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심이 생겼다. 함께 흘렸던 땀이, 함께 했던 웃음이 좀 더 나은 삶을 위한 밑바탕이 될 것이라고 우리가 사는 작은 세상에 환한 웃음이 넘쳐나길 기원한다고…….

특선(충청남도교육감)

이미소 | 해미중학교 3학년



한 톨의 밀알을 꿈꾸며

I. 봉사를 향한 발자국을 처음 내딛던 날

처음 봉사활동을 하게 된 것은 중학교에 들어와서 하게 되었다.

중학교에서는 봉사활동 시간을 한 학년마다 무조건 20시간씩 채우게 되어 있었다.

그래서 1학년 때는 친구들과 면사무소, 사론의 집을 주로 다녔는데, 그 때에는 아무 생각없이 시간만 보내다가 학년말이 되어서야 20시간을 급하게 채웠다. 지금 생각해 보면 봉사활동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면서 봉사활동을 의무적으로 했던 시절이었다.

체계적인 봉사활동을 하게 된 것은 2학년이 되어서였다. 하루는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과 싸우고 다른 친구들을 사귀었는데, 우연찮게도 그 친구들은 그루터기라는 봉사활동 동아리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그 친구들의 추천으로 '그루터기'라는 봉사활동 동아리에 가입하게 되었고 2학년에서의 봉사활동은 거의 '그루터기'와 함께 하였다. 우연히 만나게 된 '그루터기'에서 나는 나의 작은 힘이 다른 사람에게 큰 위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고, 나누면 더 커지는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 그렇게 봉사활동의 참맛을 조금씩 알아가면서 나는 동아리 활동에 차츰 빠져들게 되었다. 그리고 1학년이던 내동생도 함께 활동하자고 권하여 '그루터기'에 합류하였다.

2006년 3월, 3학년이 되어서 동아리 지도 선생님과 우리들은 더욱 체계적으로 활동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올 해는 우리의 부족한 점을 보충해 주실 수 있는 어머니 봉사단과 주로 활동하기로 되어 있었다.

어머니 봉사단과 함께 한 활동에는 5월에는 어버이날

이 있어서 카네이션을 만들고 작은 선물과 위문공연을 준비하여 우리가 주로 활동하던 사론의 집을 방문하기로 하였고, 6월에는 어머니 봉사단 분들과 함께 만두를 빚어서 대접하고 7월에는 더운 여름이라서 과일화채를 만들어 드리기로 하고 9월에는 10월 첫 주에 추석이 있기 때문에 추석을 미리 기분을 내기위해서 송편을 빚기로 하고, 12월에는 크리스마스가 있기 때문에 크리스마스를 미리 기념하기 위해서 작은 공연을 하기로 하였다. 그루터기는 청소년활동진흥센터 홈페이지에 봉사활동을 신청하여 집에서 쉽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해졌고, 다음에 '그루터기'라는 카페를 만들어서 그루터기 회원들끼리 대화를 나누거나 어려운 점을 말하기도 하고, 봉사활동을 하고 난 뒤에 느낌을 쓰는 등의 활동도 하고 있다. 그루터기에 가입하게 되면서 체계적인 봉사활동으로 내 몸도 정신도 모두가 점점 성장해 나가는 것 같다.

II. 봉사라는 이름의 활동들

1. 가족과 함께 한 봉사활동

동아리 활동의 처음 1년은 나 혼자 였으나 그 후로 2학년인 내 남동생이 그루터기에 몸담게 되었고, 올해에 처음 만들어진 어머니 봉사단에는 우리 엄마께서도 가입을 하셨다. 그렇게 해서 우리 가족 모두가 그루터기에 몸담게 되었다. 우리 아빠는 무엇을 하시냐고요?? 물론 우리 아빠는 우리가 봉사활동을 하러 가는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태워다 주시는 역할을 하신다. 우리가 가는 길에는 항상 아빠와 엄마, 나, 동생이 있었다.

동생과 나는 임원은 아니지만 성실하게 동아리활동에 참여하면서 마음을 키워가고 있고, 올 해 우리와 함께 한 엄마는 어머니봉사단을 주로 이끌어 가지는 역할을 하신다. 어머니들께 연락을 하시고 우리가 만들 만두나 화채의 재료를 준비하여 주셨고, 또한 우리가 잘 만들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셨다.

엄마와 동생이 함께하여 좋은 점은 봉사활동 장소까지 함께 가면서 해야할 일들을 미리 이야기 하고 마음가짐을 새롭게 가질 수 있다는 점과 가족이 나의 봉사활동을 지지해 주어 더욱 힘이 나고, 뿌듯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엄마께서 나의 활동을 지켜 보시

네이션 접는 법을 배워서 카네이션을 만들고, 무의탁 어르신께 선물로 드릴 양말들을 포장했다. 그리고는 무의탁 어르신을 보호하고 있는 '사론의 집'을 방문하여 노래를 부르며 작은 위문 공연을 펼쳤고, 결연을 맺은 할머니, 할아버지들께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선물을 전달했다. 그리고는 어머니들과 썩개떡을 만들어 어르신들께 대접해 드렸다. 썩개떡은 처음 만들어 보는 것이었다. 반죽을 하여 동그랗게 떠 만드는 일은 생각보다 쉬웠고 재미있었다.

어머니들이 짐을 올려 꺼낸 썩개떡은 무척 맛이 있었다. 비록 아버지날보다 3일 빠르게 방문했지만 늘 쓸쓸

...여기나 할아버지, 다른 사람과 말하느라...
 ...비교를 하는데 할머니의 손목은 내 1/2이었고... 살도...
 ...있어 가족만 있었다. 그것을 보니 괜히 울적해 지고 말...
 ...었다. 다음엔 뼈도 튼튼해지고 안마해도 잘 아프지 않...
 ...은 안마법을 연구하기로 마음먹으며 집으로 돌아왔다.
 ...7월 8일, 더운 여름날에 사론의 집에 계시는 어르신...
 ...들께 조금이라도 시원하게 해 드리기 위해 어머니들과...
 ...과일화채를 만들어 대접해 드리고 이야기꽃을 피웠다.
 ...주박은 주로 어머니들이 자르셨고, 우리는 바나나를 까...
 ...고 요거트를 쏟아주는 일등을 하며 어머니들과 함께...
 ...했다. 나는 엄마가 담아주시는 화채를 가져가 팔이 부...
 ...다유스러운 할머니께 먹여 드렸다. 조심 조심, 조금씩...
 ...입에 넣어 드리는 것은 쉬운일이 아니었다. 우리 엄마...
 ...도 이 분들처럼 늙으시는 날이 올까? 그렇겠지만 난 아...
 ...워 상상이 가지 않았다. 이 날은 외계어 할머니께서 우...
 ...였는데 얼마나 슬펐는지 모른다. 특유의 알아듣지 못할...
 ...외계어와 남자는 아저씨, 여자는 아줌마라고 부르시면...
 ...서 항상 우리를 웃겨 주시던 할머니가 울고 계시니 가...
 ...슴이 떨려 내려 앉았다. 외계어 할머니는 이지숙 선생...
 ...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는데 이야기를 하면 도...
 ...중에 할머니께서 몇일 전에 돌아가신 할아버지를 보고...
 ...나도 언젠가 저리 될 까봐 무섭고, 그 할아버지가 보고...
 ...있다고.....우리 봉사단은 물론이고 주위의 할머니, 할...
 ...아버지, 선생님, 아줌마들까지 눈시울을 붉히었다. 나...
 ... 또한 나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다. 봉사활동을...
 ...다치고 돌아가는 우리 봉사단의 모습은 평소와는 달리...
 ...조금은 착잡하고 의기소침한 모습이었던 것으로 보였다.
 ...엄마도 돌아가는 길에 조용히 운전만 하셨고 나도 이런

...드러나는 것! 그리고... 할 일을... 하려본 것...
 ...등은 나의 봉사활동 태도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함께 활동을 하면서 우리는 서로의 선한 눈빛을 보면...
 ...서 행복해 하고 있다. 이렇듯 우리 가족은 모두가 봉사활...
 ...동의 매력에 푹 빠져가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봉사활동을...
 ...하듯 가족 서로 서로에게 마음을 내어주면서 우리는 더욱...
 ...사랑으로 다져진 가족이 되어가고 있는 듯 하다.

2. 무의탁 어르신께 간식 만들어 드리기

2006년 우리학교 봉사활동 동아리 '그루터기'는 어머니 봉사단과 함께 하였다. 우리는 매달 둘째 주와 넷째 주에 봉사활동을 가기로 하였는데, 둘째 주에는 어머니 봉사단과 함께 가며, 넷째 주에는 우리끼리 선생님과 가는 것이었다. 어머니봉사단과 함께하는 활동은 우리가 하기 어려운 간식만들어 드리기였다.



▲ 할머니, 꽃 받으세요.

- 5월 5일, 어린이날에는 5월 8일에 있을 아버지날을 미리 축하해 드리기 위해서 다른 때보다도 아침 일찍 학교로 향했다. 우리는 학교 회의실에서 어머니들께 카

처럼 생각을 하면서, 집으로 갔다. 할머니께서, 얼마나 슬프셨으면, 그 동원제 어르신들을, 허 힘히 찾아야 드리지 못했다는 생각이 마음에 씹혔다.

- 9월 23일, 추석은 10월이었지만 추석엔 우리가 봉사 활동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미리 쓸쓸하실 무의탁 어르신들을 찾아 뵙고 송편을 빚어 대접하고자 우리 동아리는 할머니요양원인 수린목요양원을 찾았다. 송편을 빚는데 너무 오랜만에 해서 그런지 나같이 예쁜 모양이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 힘 좋은 나는 쌀가루 반죽을 부드럽게 주물러 주고 조금씩 떼어서 동그란 모양으로 만들어 주면 친구들과 할머니들이 송편을 만들었다. 그렇게 송편을 만드니 꼭 친할머니와 송편을 빚는 느낌이 들었다. 서로 말은 별로 없었지만 마음이 서로 통하는 느낌이었다. 마을 할머니들께서 썬 내신 떡을 맛보았는데 맛도 좋았다.

3. '사론의 집'에서의 위문활동

- 2005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하루 전 날에는 '사론의 집'에 가서 캐롤송을 불러 드리며 재롱을 떨었고 나와 동급생인 몇몇 친구들은 방 하나하나를 돌아다니면서 할머니들의 18번이 트로트곡을 부르면서 스텐다를 돌렸다. 할머니들은,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도와주니까, 자랑스러워하고 그것을 보는 것도 무척 즐거웠다.

- 직전부터, 곧 해가지 '사론의 집'을 방문할 때마다 다들 시간이 되는 대로 할머니들을 찾아다니며, 어깨와 다리 등 타닥타닥, 팔뚝을 해드리는 등 돌보았다. 손을 어깨를 주물러드리며, 목욕이 어려울 때, 물으면 할머니들은 귀거름이 들뜨게도 재미있어 하였다. 그러고는 다음에 갈 때는 무척 반가워하는 것이 나를 가쁘게 하였다.

4. 노인요양원에서의 일손돕기 활동

- 2005년, '사론의 집'에 방문하여 나는 주로 청소를 하거나 할머니와 할아버지들의 휠체어를 밀어 드리면서 산책을 하였다. 또는 감자를 캐고 밭독을 만드는 일들도 하였다. 실내 청소는 주로 어르신들이 먼지를 마시지 않도록 창틀의 먼지를 제거하는 일이나 침대의 머리카락을 제거해 드리는 일들을 하였다. 휠체어를 밀어드리는 일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지만 휠체어에 앉혀드리는 일이 힘들었다. 그 일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원장님께

서, 책, 주셨는데, 노인분들을 잘 돌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로 많이 배워서 한다는 말을 깨달았다.

- 9월 23일, 수린목요양원을 방문하던 날, 그곳에서는 할머니들을 위한 위안잔치가 벌어졌는데 무대를 만들고 장식은 하기 위해 봉사활동을 나오신 분들이 계셨다. 이를하여 풍선아트... 나는 풍선아트를 하기엔 모자란 솜씨였지만 풍선으로 꽃도 만드는 등 처음해 보는 것도 여러 가지였다. 내 손길이 간 예쁜 풍선이 할머니들의 마음을 푸근하게 해 드릴 수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정성들여 풍선을 장식했었다.

- 8월 26일, 우리 동아리는 수린목요양원을 방문하였다. 처음 방문한 곳이어서 어색한 점들이 있었는데 그 날 나는 휠체어를 닦았는데 처음 닦아보는 것이어서 긴장이 되기도 했지만 거의 끝날 무렵 힘든 것을 떨쳐내고자 물놀이까지 하면서 신나게 닦았다. 할머니들이 타고 다니실 휠체어를 반짝거리게 닦으며 나의 이런 활동들이 부디 얼굴도 보지 못한 분들을 흐뭇하게 해 드리길 바랐다.



▲ 청춘이노모습에 시작가운다

5. 환경정화활동

- 2005년 5월 28일, 그루터기가 거의 2달 동안 활동하고 있던 시기였다.

그 때 나는 그루터기에 가입을 하였고 그 때부터 새로운 모험의 시작이었다. 봉사활동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 말고도 우리가 사는 고장을 아끼고 보살피는 일도 봉사활동의 한 가지라는 것을 알았다. 내가 처음 그루터기에 가입해서 했던 활동이 해미천과 그 주변을 청소하는 일이었다. 땀방이 내리 쬐는 더위 속에서 우리는 조금이라도 시원한 곳을 찾아가며 청소를 하였다. 산 만큼 커 보이던 쓰레기 자루도 어느새 채워져 있었다. 길가에 버려진 쓰레기도 문제였지만 작은 담배꽂이는 줍기도 힘들었고 너무 많아 짜증이 나기도 하였다.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이 더욱 중요한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제 3학년도 2개월도 남지 않았다. 1학년이 된 것도 몇 일전일인 것만 같은데 봉사활동을 시작한 것도 아직 1달도 되지 않은 것 같지만 거의 3년이 다 되어 간다. 처음 봉사활동을 시작할 때 가졌던 이 마음들을 남은 2개월여 동안 한결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을지 의문점이 든다. 벌써부터도 약간의 요령을 부리면서 하는데 이것이 더욱 심해져서 봉사활동 하는 것에 귀찮아하고 봉사활동 점수에만 연연하지 않을까? 하고 걱정이 들기도 한다. 이러한 두려움을 떨치기 위해서는 봉사활동을 하기 전에 항상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친구들의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루터기를 떠나기 전에 앞으로 가입하게 될 후배들에게 꼭 전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 항상 내가 강조하는 내용인데…….

첫째 할아버지, 할머니를 두려워하지 마라.

둘째 그 분들을 동정의 눈빛과 동정의 손길을 내밀지 말며 사랑으로 대하라.

셋째 봉사점수가 아닌 자발적인 힘과 사랑으로 해라.

그 동안 내가 봉사활동을 다니면서 꼭 지켜야겠다고 세워놓은 각오 같은 것이다. 후배들은 이것 말고도 필요한 것이 있으면 이것에 더 첨부를 해서라도 이 세 가지는 꼭 지켜주길 바란다.

그래서 우리가 떠난 뒤에도 후배들이 열심히 해주기를 바란다. 그동안 우리가 했던 봉사활동이 밑알이 되어 우리 동아리의 봉사활동이, 나아가서는 우리 학교의 봉사활동이 더욱 발전된 모습으로 번져가기를 바란다.

봉사상(충청남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소장)

이재림 | 논산여자고등학교 2학년



날 깨닫게 해준 환우분들

-색안경을 벗고-

논산정신요양원에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다닌 지 2년이 다 되어간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2년여 동안 한달에 두 번씩 정양원을 다니며 난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달았다. 내가 정양원을 처음 온 것은 중학교2학년 때이다. 정양원 후원행사에 고모를 따라갔다가 처음 알게 되었다. 몇몇 행사에서 정양원 ‘손짓사랑’ 환우분들의 수화공연을 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몇몇 낯익은 환우분들도 계셨다. 하지만 정신요양원이라는 이름에 선입관 때문에 당연히 미친 사람들만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난 무서운 마음에 고모 옆에만 붙어있었다.

고등학교를 들어가고 ‘예담’이라는 동아리에 가입하면서 정양원을 다시 접하게 되었다. 그때의 선입관이 남아있어서 정양원으로 봉사활동이 굉장히 가기 싫었었다. 정양원에 가면 웃으면서 인사하라는 언니들의 말에 애써 억지웃음을 지어 보았다.

정양원에 봉사활동을 가며 하나둘씩 편견이 깨지고 환우분들과 진심으로 어울리게 되었을 때, 나는 순천만 겨울 철새 여행을 환우분들과 함께 가게 되었다. 나는 봉사활동이라는 생각보다 철새를 본다는 생각만으로도 들떠있었다. 금강대, 전양대 등지, 논산여고 예담 6명의 봉사자와 늘푸른나무의 권선학회장님과 함께 환우분들과 함께하는 순천만 철새탐사여행을 참가했다. 모두 정양원에 주기적으로 봉사, 후원을 하고 있는 단체들이었다. 우리학교에선 나 혼자 가는 것이였기 때문에 걱정반 설렘 반이었지만 놀게이트 모금 봉사에서 본 적 있는 규림언니와 함께 다니게되어 걱정은 사라지고, 규림언니와 개인적으로도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버스를 타고 가며 환우분들은 굉장히 친절하였다. 간

리다는 이유로 모든 간식을 챙겨주셨다. 그 환우분계선 아직도 나를 철새탐사 짝꿍으로 기억하고 계신다. 난 해드린 것이 없는데 좋은 인상으로 기억해주시는 환우분이 너무 감사했다.

가장 친해진 환우분은 자신을 ‘폴종민’ 이라 소개 하시던 종민 오빠이다. 사진도 직접 찍어주시고, 밤도 같이 먹으면서 굉장히 친해졌다. 한마음병동으로 논산여고 예담이 라운딩 왔다고 하면 바로 나오셔서 날 찾아주시는 고마운 환우분이다. 철새탐사보다 환우분과 더 친해질 수 있는 봉사활동은 병동 라운딩과 환우분과 함께 하는 산책이다. 이 두 활동 모두 환우분들과 웃고 얘기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느 여행보다 환우분들이 좋아하는 일이 아닐까 생각된다. 정양원에서 수차에 봉사활동을 하고 몇몇 환우분들과 인연을 익혀온 터라 어느 병동에 가도 아는 환우분이 꼭 계신다.

라운딩이나 산책으로 친해진 환우분이 남철오빠와 환숙언니이다. 남철오빠는 ‘손짓사랑’과 남철오빠의 넘치는 끼로 인해 정양원의 유명인사다. 환숙언니는 3학년 언니들과는 친했지만 나와는 친하지 않던 환우분이었지만 언니들과 함께 라운딩하며 이제 3학년언니들은 입시준비로 못 온다고 하며 날 소개 시켜주신 환우분이다.

정양원 봉사를 계속 다니다 보면 ‘저분이 왜 여기에 계실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든다. 그만큼 우리와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우리보다 더 맑고 순수하다. 내가 봉사활동을 가서 도움을 준다는 것보다는, 환우분들과 대화를 나누며 배우는 것이 더 많다. 각 방면으로 뛰어나신 분이 굉장히 많으시기 때문에, 정양원은 그런 환우분들을 위해 문예반, 미술반, 음악반, 축구반 등 환우분들이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친구들이 가끔 “재림아, 너 봉사활동 다니는데 미친 사람 있는데 아니야? 거기서 무슨 일해?” 라고 물을 때마다 너무 속상하다. ‘우리랑 똑같은 사람인데.’ 편견을 버리고 마음으로 바라보면 전혀 다르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른 사람들도 편견을 버리고 바라보았으면 좋겠다.

나의 꿈은 경영학과를 나와서 사업가가 되는 것이었다. 하지만 정양원 봉사활동을 다니면서 꿈이 바뀌었다. 사회복지를 배워서 환우 분들에게 더욱 도움이 되는 봉사활동을 하고 싶다. 또 할 수만 있다면 해외봉사활동을 가보고 싶다. 정양원 주영수과장님께 베트남에 다녀온 얘기를 들어 보니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날 다른 길로 인도 해주신 환우 분들 감사하고 사랑해요



▲ 슈천마 철새탐사여행에서(육산 정식)



▲ 제26회 장애인의 날 행사

I. 동기

중학교 2학년 때 정양원을 고모를 통해 처음 알고 고등학교 입학 후, ‘예담’이라는 동아리 가입 후 한달에 두 번씩 정기적인 봉사를 가고 있습니다. 처음엔 선입견으로 환우 분들이 무서웠지만 지금은 친절하게 대해 주시는 환우 분들과 매우 친해졌습니다.

활동 계획 : 정기적으로 정양원으로 봉사활동을 가고 있는 같은 학교 동아리인 ‘솔빛누리’와 상의를 하여

‘예담’은 매월 첫째, 둘째주, ‘솔빛누리’는 셋째, 넷째주에 정양원으로 봉사활동을 가기로 하였습니다. 봉사활동을 갈 인원을 모집한 후, 정양원 주영수 과장님이나 사회복지사 김효주 선생님과 연락을 하여 그때그때의 상황에 맞는 봉사활동을 정했습니다.

II. 활동내용 및 실적

활동시설 : 사회복지법인 정양원 (논산 정신 요양원)

활동내용 : 정양원을 가면 처음엔 봉사자 소양교육을 합니다. 처음 오는 봉사자들은 정신장애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나 편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신장애에 대한 설명과 시설현황을 소개하고 그 달의 행사소식을 제공 받습니다.

환우분들과 일상적인 만남을 위한 활동으로는 병동 Rounding을 합니다. Rounding을 하며 환우분들과 대화도 나누고 서로의 장기를 보여주는 좋은 시간을 갖습니다. 더욱 많은 환우분들과의 대화는 마을산책 동행에서 이루어집니다. 환우분들과 손잡고 마을정자까지 가서 휴식을 취하며 즐거운 시간을 갖습니다. 가끔은 환우분들이 부업으로 하시는 봉투작업을 도와드립니다.

환우분들이 시설 안에만 계시면 감감하지기 때문에 사회적응훈련으로 테마여행, 등산 등을 하시는데 함께 동행하여 말벗이 되어드립니다.

시설기획 및 행사로 법인설립기념행사나 송년잔치, 초청공연, 명절 및 어버이날 행사, 정신장애편견해소 캠페인, 톨게이트 모금활동 등 환우분들과 함께 즐기고, 행사를 지원합니다.

시설홍보 및 지역사회화 사업으로 논산사랑걷기대회, 딸기축제, 강경젓갈축제, 장애인의 날 등에서 함께 동행하여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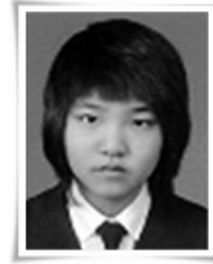
실적 : 충남청소년자원봉사센터에서 4월 우수봉사자(월간 최다 시간 봉사자)에 선정되었습니다.

III. 앞으로의 계획

지금 우리나라엔 장애인 특히 정신장애에 대한 편견이 굉장히 심합니다. 정신장애인이지만 속은 우리보다 더 순수하고 우리에게 전혀 해 될 것이 없다는 사실을 널리 퍼트리고 싶습니다. 정신장애에 대한 생각은 편견일 뿐입니다. 또한 사회복지를 배워서 환우분들과 더욱 친근하게 다가가고 싶습니다.

봉사상(충청남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소장)

박경리 | 정산중학교 1학년



새로운 눈으로 본 새로운 세상

우리의 희망으로 사는 아이

"나와는 조금 다른 아주 특별한 아이".

내가 처음 봉사활동을 시작했을 때 그때 내 나이는 겨울 초등학교 3학년 10살이었다.

그때 나와는 조금 다른 아이를 봤다. 내 친구들은 그 아이를 보며 정신지체장애인이라고 하면서 놀려댔다.. 나와 다르지 않은 아이 하지만 어딘가 다른 아이.. 나는 그래서 그 아이를 조금씩 도와주게 되었고 그때부터 내 봉사가 시작된 것 같다. 아니. 어떻게 보면 봉사가 아닌 그냥 친구로 다가 갔던 것 같다.

"누워서 세상을 다스리는 임금님"

교회에서 봉사활동을 한지 3,4년은 넘은 것 같다.

혼자사는 할머니네 집에 가서 노래와 춤 그리고 청소도하고 또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도와주고 정말 많은 봉사활동을 한 것 같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제일 보람 있고 재밌었던 봉사활동은 송윤이를 만나서 춤과 노래를 하는 것이다. 송윤이는 태어날 때 부터 장애인으로 태어났다. 그리고 할머니와 아빠랑 같이 산다. 할머니는 농사를 하시면서 송윤이를 돌봐야 하는 탓에 송윤이는 하루 종일 집에 누워있어야 한다. 아빠역시 몸이 좋지 않다. 엄마는 송윤이와 아빠가 장애인인 것을 알고 도망갔다.

송윤이의 장래희망은 임금님이다. 빨리 일어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임금님이 되고 싶다고 한다.

"새로운 세상에 첫발을 내딛다."

우리는 송윤이를 위해 아주 큰 결심을 했다.

송윤이가 제일 좋아하는 동물을 보여주러 동물원에

가기로 했다.

송윤이는 신이 나서 노래도 부르고 말도 많이 했다.

"송윤아 뭐가 그렇게 좋아"

"다 좋아"

나는 송윤이의 그 말을 기억한다. 다 좋다는 그 말 아직도 내 머릿속에 송윤이가 좋아하는 모습이 생생하다.

드디어, 동물원에 가는 날 사람들의 뜨거운 시선도 있었지만 송윤이에게는 새로운 즐거움이었다. 새 옷을 입고 휠체어에 탔다

송윤이가 제일 좋아하는 낙타와 새 그리고 사자 등 많은 동물을 봤다.

너무 행복해 보였다. 그래서 나는 다시 한번 물었다

"송윤아 뭐가 그렇게 좋아"

"다 좋아 동물도 좋고 할머니도 좋고 사람들도 좋고"

나는 아직도 기억한다. 송윤이의 웃음을 아주 행복해 보였던 그 웃음 정말 장애인이 아닌 그냥 보통의 사람 처럼 활짝 웃는 그 얼굴을 나는 아직도 잊지 못한다.

나중에 목사님께서 말씀해주셨다. 할머니께서 너무 고맙다고 하시면서 으름을 주셨다고 한다. 나는 세상에서 이 으름이 제일 맛있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아주 소박한 선물일지 모르지만우리에게는 아주 크고 맛있는 선물이었다.

"학교종이 땡땡땡"

오늘은 할머니께서 할 일이 없다고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송윤이한테 책을 읽어주고 노래와 춤을 하기로 했다.

송윤이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 "학교종이 땡땡땡" 우

리는 재미있는 율동까지 하면서 노래를 불렀다.

나는 승윤이한테 물어봤다

“왜 이 노래가 좋아?”

“그냥 재밌잖아”

나는 승윤이가 왜 이 노래를 좋아하는지 우리보고 왜 이 노래를 불러달라고 하는지 나는 알고 있다. 승윤이는 몸이 불편해서 학교에 가지도 밖에 나가지도 못한다. 그래서 공부도 집에서 혼자 한다, 학교에 가서 공부도 하고 싶고 선생님도 만나 선생님하고 불러보고 싶은데 그렇게 못하는 승윤이가 안쓰러웠다.

그래서 나는 승윤이를 위해 이 한 몸 다 반쳐 율동도 깜찍하게 하고 노래도 크게 했다. 승윤이도 웃고 친구들도 웃었다. 승윤이와도 조금 더 가까워진 것 같았다.

우리는 승윤이방을 청소해주고 승윤이와 대화도 했다.

“승윤아 어디 놀러가고 싶은데 없어?”

“응..... 놀이동산!”

“응?... 응 네가 임금님이 되면 나랑 같이 가자.”


“약속!”

“그래, 약속!”

나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 나는 승윤이가 임금님이 안 되더라도 같이 놀이동산에 놀러가고 싶다. 도움을 청해서라도 승윤이를 놀이동산에 데려가고 싶다. 하지만 그 꿈이 너무 크기에 그러지 못한게 너무 미안하다. 그래서 이런 약속을 했다. 그래도 승윤이가 임금님이 되어서 나와 같이 놀이동산에 가자는 약속을 꼭 지켰으면 한다.

나는 봉사활동을 이렇게 말하고 싶다. 봉사활동이란 단순히 도와드리고 청소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처럼 내가 아끼는 사람처럼 내가 돌봐주는 사람처럼 마음이 전해지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마음을 다해 말 한마디 건네주는 것이 아무런 마음 없이 그냥 대충대충 100번 청소하는 것보다 100배 1000배 더 낫다고 생각한다.

빛나는 세상에서 빛을 잃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주는 아름다운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제8회 청소년자원봉사박람회

- 실천부문 -

| 동아리봉사활동 |

※ 수상자들의 자료가 너무 많아 다 실지 못하고
중요부문만 요약하였습니다.

[동아리봉사활동]

상 명	동아리명	학교명	지도교사
대 상 (국가청소년위원회위원장)	홍성군 연합 봉사동아리 청로회	홍성여자고등학교	이강로
	조치원중학교 스카우트	조치원중학교	김동섭
최우수상 (충청남도지사)	더불어숲	(사) 한국청소년마을 연기군지회	유금봉
	사제동행 독거노인 도우미	정신중학교	김은수
우수상 (충청남도교육감)	나누미	청양여자정보고등학교	신삼철 김동일
	석성아리	석성중학교	김미현
특선 (충청남도교육감)	서일고 4-H회	서일고등학교	이세용
	징검다리	홍신농공업고등학교	김계수
	청양중 예절실천 봉사단	청양중학교	남기성
	밝은세상실천단	태안여자중학교	이영란
봉사상 (충청남도청소년 활동진흥센터소장)	안면도지킴이	안면고등학교	김정호
	한마음봉사단	온양용화고등학교	권차남
	알곡	강경고등학교	김세영
	몽달샘 발마사지	연천중학교	백운자
	사랑을 찾아다니는 반	결성중학교	임태수
	그루터기	해미중학교	김선중

대상(국가청소년위원회)

홍성군연합봉사동아리 청로회 | 홍성여자고등학교

대표 | 김효라



작은 사랑 실천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는 청로회

I. 시작하기 전에

1. 들어가는 말

우리는 흔히 ‘요즘 아이들’이라는 말을 자주 들곤 한다. 이 말에는 그만큼 요즘 우리들의 행동이 어른들의 시각에서 볼 때 바르지 않다는 부정적 함의가 들어 있다.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자가 되어간다면 급변하는 세상에 대해 걱정하시는 선생님들도 많으시다.

특히 핵가족화와 더불어 부모님의 무조건적인 과잉보호 속에서 오직 자기 자신만을 아는 세대로 자란 우리 학생들, 타인을 배려하는 것에 소홀히 하고, 배움은 인색한 세대다. 하지만 풍족한 세대이기도 하다.

IT 산업의 급격한 발달로 컴퓨터, 핸드폰이 없는 학생은 요즘 찾아보기 어렵다. 이것으로 인한 게임, 채팅, 오락, 메시지에 자신도 모르게 중독되어 가고 있으며 때로는 건전하지 못한 교감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따라 예전의 집안어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자연스럽게 터득하던 가족의 소중함, 형제간의 우애,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 더불어 살아가는 마음 등, 소중한 전통적 가치들이 빠른 속도로 사라져 가고 있는 현실에, 마음 한쪽에는 허전함이 있었다.

그때가 중3. 고입시험을 마친 겨울이었다. 언니가 독거노인 댁에 간다하여 나도 언니 따라 간적이 있었다. 언니는 할머니께서 이가 없으셔서 라면을 즐겨 드신다며 용돈을 모아 라면을 사들고 갔다. 차가운 방안에 쌀인 빨래와 청소를 마치고 라면을 끓여 함께 점심을 하였다. 그런데 할머니께서는 라면을 동치미 국물로만 드시는 것이었다. 왜 김치는 안 드세요? 하니까 “아무리 맛있는 쇠고기가 있어도 다 소용없어 이가 없어서...” 하

시는 것이었다. 그때 언니는 벽살종게 “할머니! 오래오래만 사세요 이 손녀딸이 돈을 벌어서 이 해 드릴게요!” 하니까, 할머니께서는 “이는 무슨 이! 이렇게 학생하고 밥상을 하니 너무 고마워! 학생 또 안 오려고 그러지!” 하면서 울먹이셨다. 그날 나는 독거노인의 외로움이 무엇인지를 처음 알게 되었다.

2. 새로운 삶의 시작

그 후 나는 가슴속에 허전함이 계속남아 있었다. 마침내 홍성여자고등학교에 입학하여 남들은 대학 진학이라는 큰 목표를 세우고 새로운 미래를 설계할 때, 나는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는 천사들의 모임인 청로회 회원 모집 광고 앞에 발길을 멈추고 가슴 뭉클함에 젖어 있었다. 그렇게 따스한 가슴을 소유한 청로회 회원들과의 만남이 시작되었다.

나눔의 정으로 가득한 친구들의 따스한 온기, 우리들의 봉사활동에 동기를 부여해주시고 후원해주는 선생님들, 함께 협의하여 프로그램의 운영과 활동방향을 제시해주는 지도자선생님, 또 보이지 않게 우리들의 활동에 후원해주는 어른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들에게 새로운 삶의 방향과 의욕과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셨다.

21세기를 주도하며 살아갈 인간다운 인간이란, 남을 존중하고 남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동아리에서 참된 봉사활동을 실천함으로써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함과 정성으로 깊어가는 사랑을 전해주고 싶었다. 또 작은 사랑을 실천하여 처음에는 잔잔할지 모르지만 갈수록 커져가는 메아리로 우리의 작은 고울에 퍼뜨리고 싶었다. 우리들의 작은 사랑을 머지않아 활활 타오르는 켈블로 승화시켜 우리 지역사회를 환하게 밝히는 소중한 불씨가 되어보자 다짐도 하

면서, 봉사동아리 청로회에서 나는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기 시작하였다.

II.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는 청로회

1. '봉사동아리 청로회' 란?

청로회 봉사동아리는 어려운 이웃들의 벗이 되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데 뜻을 두고 있는 봉사동아리이다. 홍성읍에 소재하는 홍성여고, 홍성고, 홍주고등학교 그리고 기타교 학생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홍성군에 거주하는 무의탁 노인들 및 장애인인가정과 결연을 맺어 학생들 6명이 한조가 되는 조를 편성하고, 격주로 가정방문하여 작은사랑을 실천하면서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고 있는 천사들의 모임이다.

연간 봉사활동이나 행사활동의 계획수립을 위한 정기적인 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주요 봉사활동 내용으로는 경로잔치, 불치병 어린이들기 행사활동, 불우시설방문활동, 장애인과 함께하는 캠프활동과, 무의탁노인과 장애인가정의 가정방문봉사 및 목욕시켜드리는 조별봉사활동(월2회)이 있으며, 꽃동네 방문과 같은 타지역 봉사활동, 금년에 주5일제 시행과 함께 시작하는 호암(이우로화백)공원 대청소(매월 4째주)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운영하고 있다.

2. 청로회 조직은?

청로회는 우리 지역사회에 어려운 이웃에 사랑과 봉사를 실천하여 따뜻한 사회를 만들고 건전한 청소년문화를 조성하는데 뜻을 두고 있다.

청로회 활동은 3개 학년간 활동이 가능하지만 3학년은 대학입시 준비관계로 실제적인 활동은 1, 2학년 학생중심으로 이루지고 있다. 따라서 홍성고 17명, 홍성여고 15명, 홍주고 22명 총 54명 (1,2학년)으로 구성되어 있다.

3. 청로회 회원은?

청로회원은 아래와 같이 현재 총 54명으로 활동하였다. 비교적 3월초에 일찍부터 서두른 관계로 봉사정신이 투철한 학생들이 다수 지원하였고, 1학년학생들을 제외한 나머지 단원은 기존단원으로 편성되었다. 수시로 연락하고 격려해주기 위해 E-mail 주소와 핸드폰 번호를 조사하여 긴급 상황에 대하여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4. 2005 주요 활동 경력은?

청로회가 작년에는 그동안의 봉사활동의 실적을 가지고 '제7회 전국중고생 자원봉사대회'와 'KBS 충남대전 청소년 봉사대상'에 참가하여 각각 장려상과 동상을 수상하였다.

본 대회 참가를 통해서 활동에 대한 반성과 새로운 의미를 깨닫고 또 봉사활동의 다양하고 가치 있는 활동의 방법을 배울 수 있었다.

앞으로 봉사활동의 영역 확대와 활성화를 통해서 건전한 청소년문화를 정립하는데 도움이 되길 희망하고, 올해도 여러 대회에 참가하여 입상을 함으로써 봉사활동에, 청로회 회원들에게 봉사에 동기를 부여하고 보람을 가지게 하고 싶다. 그래서 중등교육협의회 주최 2006 전국봉사대회에도 응모하여 동상을 수상하였다.

III. 아름다운 세상의 실현계획

학교별로 청로회 임원들은 모집공고와 면접을 실시하여 청로회 신입회원을 모집하고, 봉사활동은 매년 3월에 선생님들과 지도자분들의 격려말씀으로 발대식과 함께 시작된다. 이때 봉사활동의 연간계획, 청로회 안내자료, 조 편성자료, 회원명부 등을 소개를 오리엔테이션이 있다. 봉사활동의 구체적인 계획과 준비는 월례회(학교별) 임원회의(셋터) 조별회의에서 하며 중요사항들은 e-mail이나 SMS문자메시지로 전달하거나 학교별 책임자가 전달해 준다.

그동안 우리지역에서 10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청로회는 다양하고 참신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봉사활동을 실시하여 옴으로써 봉사동아리의 이미지가 브랜드화가 되었고, 회원들은 모두 청로회 회원이 되었음에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긍지와 보람을 느끼고 있다.

홍성군청에서도 지역사회에 대한 청로회의 활동의 기여도를 인정하여 우수동아리로 인정하고, 활동사업 지원금을 적은 액수이지만 예산에 책정해주어, 앞으로 있을 행사마다 활동지원금을 계획성 있고 짜임새 있게 운영을 할 수 있게 되었다.

1. 활동과정

가. 청로회 신입회원 모집

- 1) 청로회원 학교별 모집공고 : 3. 5(토)~3. 17(금)
공고문, 홍보물, 학부모 동의서, 가입신청서

- 2) 회원 면접 실시 : 3. 18(토) 14:00~ : 17명 확정
 신입회원 1학년 28명을 포함하여 기존단원27명, 합
 계 55명 확정

나. 청로회 발대식

- 1) 일자: 2006. 3. 25(토) : 홍성읍 소재 남산공원 12:00 -
 2) 준비물: 청로회 정관배부, 조편성 자료, 회원명부, 안
 내장만들기, 간식준비(빵, 음료)
 3) 참가자: 청로회 회원, 강사(봉사자의 자제: 특강), 지
 도교사5명(격려사) 후원회

다. 활동 기간 : 2006. 3. 18(금)~2007. 2. 28(수)

(지역사회의 췌발을 밝히는 청로회 아이들의 봉사활
 동 기간)

- 라. 활동 경비 : 2006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신청서제출(홍
 성군청-기획관리실-2006. 01. 10.)

2006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지원결정(홍성군청 기획관
 리실 -2006. 02월)

2. 활동 방법

- 가. 월례회 개최 : 매월 3째주 토요일 14:00~16:00

학교별 조별 봉사활동 상황 점검, 주요봉사활동 세부
 실천계획점검, 다음달 주요행사 계획 수립. 기타 안전
 협의, 봉사활동 소감문제출

- 나. 임원회의 : 매월 첫주, 전체 행사활동 계획 수립

다. 임시회의 : 필요시 마다 회의, 현안문제 협의, 현안 발
 생 조 - 조별모임

- 라. 조별회의 : 학교별모임 격주, 결연가정방문 계획수립

마. 봉사활동 : 조별봉사활동, 학교별봉사 활동, 연합회 봉
 사활동,

- 바. 기타 : e-mail 상담, 전화 격려, 간접상담

월	일	활동 계획	월	일	활동 계획
3월	4	청로회 신입생미팅	4월	1	임원소집 2시
	5	청로회 임원소집		8	홍성역 청소의 날
	11	신입생 및 임원 홍성역청소		9	결연대상방문 조별 봉사활동
	12	결연대상 목욕봉사(홍주교)		22	결연대상 모시고 아우회 봉사활동
	18	조별 봉사		29	결연대상 목욕봉사(홍여교)
	26	청로회 발대식(남산공원 12시)			
5월	5	어린이날 자원봉사(장애어린이와 함께 하기)	6월	3	우리지역 불치병어린이 돕기음악회
	6	결연대상 방문 조별봉사활동		10	결연대상 방문 조별봉사활동
	14	홍성역 청소의 날		17	홍성역 대청소의 날
	20	결연대상 경로잔치(후원회와 함께)		18	결연대상 목욕봉사(홍주교)
	27	부적응학생과 함께하는 체육대회		25	자매결연대상(청우회) 목욕봉사
7월	1	임원소집	8월	5	임원소집
	8	결연대상 방문 조별봉사활동		12	결연대상 방문 조별봉사활동
	15	홍성역 청소의 날		13	목욕봉사(홍성여교)
	22	목욕봉사(홍주교)		19	홍성역 대청소의 날
	27~ 29	자원봉사 체험활동		24	장애인과 함께하는 청로회 MT
9월	2	임원소집	10월	4	추석음식차려드리기(어머니청로회)
	9	홍성역 대청소의 날		14	홍성역 대청소의 날
	10	목욕봉사(홍주교)		15	결연대상 방문 조별봉사활동
	23	결연대상 방문 조별봉사활동		21	목욕봉사(홍성여교)
	30	결연대상 생일상 차리기		29	독거노인 돕기 위한 등전모으기
11월	4	임원 소집	12월	2	임원 소집
	11	결연대상 방문 조별봉사활동		9	홍성역 대청소의 날
	12	홍성역 대청소의 날		17	불우이웃을 위한 봉어빵 장사
	18	목욕봉사(홍주교)		25	목욕봉사(홍성여교)
	26	결연 가정 김장 담가주기 도우미 활동		29	송년회
1월	1	경로잔치(구항면 지정리)	2월	3	장애어린이 동물원여행 도우미
	3	결연대상 새해인사 드리기		10	복지관 장애인 어린이 돌봐주기
	13	청로회 임원들 봉사활동		13	목욕봉사(홍주교)
	27	결연대상 설음식 배달(어머니청로회도우미)		16	장애인 수유시설 방문 장애 체험
			21	장애인수유시설 점심원 자원봉사	
			24	쓰레기매립장 분리수거체험	

3. 연간 활동 계획

2006학년도 청로회의 연간 활동 계획은 다음 표와 같다.

Ⅳ. 아름다운 세상을 위한 주요활동

2006학년도의 청로회의 봉사활동은 홍성군청 우수동아리활동 지원금을 신청하여, 현재 홍성군으로부터 예산 배부가 확정되어 있어서 청로회가 보다 더 계획성 있고 짜임새 있게 운영을 할 수 있게 되었다.

2006년도에도 다양하고 참신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사회에의 신뢰를 받는 봉사동아리 청로회를 운영함으로써 청로회를 브랜드 화하여 회원들 모두가 청로회 회원임에 긍지를 가지고 더욱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활동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력하였다.

주요 봉사활동으로는 독거노인 및 장애인가정과 결연 활동을 통하여 ‘집안청소 헤드리기’, ‘말동무되어드리기’, ‘목욕시켜드리기’와 같은 조별활동이 있고, ‘불치병 어린이 돕기’ 모금행사나 ‘사랑의 동전 모으기’ 행사와 같은 행사활동이 있으며, 불우이웃돕기위한 ‘봉어빵 및 호떡장사’, 그리고 ‘일일차집 운영’ 등과 같은 ‘노동봉사활동’이 있다.

또 장애우와 부적응 학생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인 캠프체육활동이 있고, 명절 때마다 독거노인 초대하거나, 경로당을 방문하여 경로잔치를 열어드리는 위문활동이 있으며, 쓰레기 매립장을 방문하여 분리수거 현장 체험을 하는 ‘환경보호활동’이 있고, 혈족이 없는 외로운 결연 독거노인이 돌아가시면 장례를 모시는 ‘장례

Ⅴ. 아름다운 세상을 향한 메아리

청로회가 연합동아리이다 보니 큰 행사활동에 가리어 작은 조별 봉사활동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 따라서 조별봉사활동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선생님께서 체크를 해주신다. 독거노인의 행동변화나 건강의 변화, 가정환경의 변화에 대한 질의가 월례회에서 이루어진다. 또 청로센터에는 갑작스런 봉사활동이나 도움의 요청이 최근 들어 부쩍 늘어났다. 아마 근래에 들어서 청로회는 봉사동아리로서 지역사회에 브랜드화 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금년 들어 주5일 수업제가 월 2회 실시되다보니 봉사활동을 위한 시간 마련도 훨씬 수월하여졌고 학생들의 참여율도 높아지고 있어 봉사의 질도 많이 향상되었다.

Ⅵ. 아름다운 세상을 향한 청로회의 더 큰 꿈

언니를 따라 멋모르고 봉사활동을 나섰을 때, 독거노인을 친 할머니처럼 녀살스럽게 대하던 언니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 될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청로회에 들어와 지도자선생님들과 학교별 후원선생님들을 만나 조직적이고 뜻있는 봉사를 하게 되어 보람을 얻게 되었고, 그러한 경험들은 평생을 두고 봉사를 계속하리라는 믿음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제는 작은 봉사가 제 보람이자 기쁨이 되었습니다.

1. 따라서 작은 봉사로 큰 기쁨을 얻는 즐거운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개발구안적용해보고자 합니다.
그동안의 봉사활동을 통하여 사람들과 우리 주변에



(2006년 11월) 봉사활동



(2006년 11월) 장애인가정 방문



(2006년 11월) 봉사활동

작은 봉사가 더 많은 사랑을 낳아 더욱 많이 다양한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통하여 새로운 봉사활동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앞에 작은 관심을 갖게 되었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점에 눈을 뜨게 되었으며,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을 배우는 것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공부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2. 따라서 자신의 인생에서 크나큰 보석이 될 봉사활동을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봉사가 아닌 진심에서 나오는 봉사되도록 실천하고자 합니다.

우리 회원들은 봉사활동으로 조금이나마 이기주의적

니다.

우리 청로회가 행한 봉사활동은 지역사회에 기여한 면도 대단히 크다 생각합니다. 지역사회에 봉사활동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요선도 학

3. 따라서 민주시민으로서의 책임감과 협동심 배양을 위한 바람직한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시켜주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는 어려움 속에서 사는 사람들도 많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사람들도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봉사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하여, 이제는 웬만한 일에는 어려워하지 않으며 힘들어하지도 않고 짜증을 내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정말 몇 년 사이 우리들은 부쩍 성숙해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4. 따라서 봉사활동을 통해 교육의 장을 넓히고자 합

5. 따라서 봉사활동을 통해

움이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창원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고 삶은 곧 나눔이라는 소박한 우리 회원들은 믿기 때문인 것은 아닌 곳에서 청로회의 봉사는 보이지 않는 시간에 이루어지며 아름답게 할 수도 있기 때



대상(국가청소년위원회)

조치원중학교 스카우트 | 조치원중학교

대표 | 안광모



사제동행 이웃사랑 · 향토사랑 스카우팅(Scouting)

I. 동기

조치원중학교의 동아리 및 계발활동 부서인 스카우트에서 이웃과 향토를 사랑하자는 '지역사랑 봉사활동'이 시작된 것은 1학년이 입학하기 전인 2003년부터라고 한다. 스카우트에서는 '항상 다른 사람을 돕겠습니다'라는 스카우트 선서(宣誓)와 '스카우트는 도움이 된다'라는 스카우트 규율(規律), '1일(日) 1선(善)'이라는 스카우트 표방(標榜)을 실천할 것을 강조한다. 이들 모두는 하나같이 스카우트 대원들이 추구해야 할 사회적 역할과 자세를 잘 나타내주고 있다. 따라서 진정한 스카우팀은 '이웃과 함께 하는 삶을 실천'하는 것으로서 「사회에 공헌하는 스카우팅(Scouting for Community Service)」을 생활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스카우트 목표 달성을 위해 우리 학교 스카우트 대원들은 우리 고장 연기군의 불우 이웃 및 사회복지시설 돕기와 향토 문화사랑 봉사활동을 생각하게 되었다. 핵가족화 되어가는 현대사회에서 노인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하여 무의탁 노인의 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 학교 주변 서창리(瑞蒼里)에도 독거노인이 여러분 살고 계시며, 학교 후문 밖 다리 밑에는 한 노숙자 아저씨가 언제부터인가 종이박스를 수거해 필며 살고 계신다. 그래서 그 분들을 돕는 방법으로서 학교 급식 후 남은 음식을 배달하게 되었으며, 그 분들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지역에 있는 3곳의 사회복지시설에서 봉사활동을 했다.

그리고 우리 고장은 한국 근·현대 4대 화가 중의 한 분인 장욱진화백의 고향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 그 분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고, 그분의 생가와 탐미(묘

지)에 대한 관리, 그리고 그 주변 환경정화 활동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을 인식하고 2003년부터 우리 학교 스카우트 대원들이 향토문화 인물 장욱진화백 홍보 및 그분의 생가와 탐미 환경정화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II. 활동 내용 및 방법

내용	횟수	활동 기간
독거 노인음식 배달	매주 1회(목요일)	2004년 5월-2006년 10월 현재
노숙자 음식 배달	매주 1회(목요일)	2005년 9월-2006년 10월 현재
사회복지시설 방문	연간 4회	2004년 5월-2006년 10월 현재
향토문화 홍보·환경정화 활동	연간 4회	2003년 7월-2006년 10월 현재

1. 독거노인·노숙자 음식 배달 봉사

가. 사전 준비

- 1) 시행 전에 교장·교감 선생님, 행정실장님께 말씀드리고 허락을 얻었다.
- 2) 급식 담당 선생님(영양사와 조리사)께 음식 배달의 취지를 말씀드리고 일하는 아주머니들께도 협조를 구했다.
- 3) 스카우트 담당 선생님께서 학생회의에 안전으로 제출하여 학생회의의 협의를 거쳐 의결하고 전교생에게 홍보하여 먹을 만큼만의 음식만을 받아가도록 권고했

다(간부수련회의 때 취지와 목적, 협조 사항들을 전달)

4) 학생들이 음식을 남기지 않는 습관을 갖도록 방송을 하고, 음식물의 소중함을 환경 및 자연 보호와 연계하여 홍보했다.

5) 스카우트 담당선생님께서 반찬 담을 도시락통을 3셋트(독거노인 2통, 노숙자 1통) 구입해주셨다.

6) 급식 도우미 아주머니들에게도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여 불편함이나 번거로움으로 인한 불만이 없도록 사전 이해와 양해를 구했다. 매주 1회씩이지만 도시락통 세척 및 음식 담기가 그분들에게는 하지 않아도 될 귀찮은 잡무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이었다. 학년말에는 그 분들에게 고마움의 표시로 양말 1켤레 정도를 선사했다.(2004년과 2005년 학년말에도 양말을 선물했음)

7) 서창1리 이장님께 전화하여 음식 지원 받을 독거노인을 추천 받아 인적 사항과 기초 자료를 수집 했으며, 1명의 노숙자는 교감선생님께서 특별히 추천하셨다.

나. 대상자 선정

2004년에 서창1리 이장(里長)이신 노규철 아저씨(865-4638)로부터 6분의 독거노인을 소개 받았으나 2005년에 3명(최금순할머니, 정낙성할아버지, 양수만할아버지)의 노인들이 돌아가신 후에 다시 1명의 할머니와 노숙자 1명을 소개받아서 현재는 모두 5명의 이웃 어른들을 대상으로 음식 배달을 하고 있다. 그 중 김원복 할아버지는 출가했던 딸이 돌아와 홀아버지를 모시고 있어서 독거노인이라 볼 수는 없지만, 생활 형편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음식 배달을 계속하고 있다.

다. 실시 방법

1) 배달 일 매주 목요일(1주일 식단 중 영양가 높은 음식이 제공되는 날)의 방과 후에 배달을 했다.

2) 배달할 음식 학교 급식 후 남겨진 반찬과 밥을 위주로 하며, 때에 따라서는 전날에 남겨진 밥이나 국도 포함했다.

3) 배달 방법 지원 받을 총 4분의 노인들을 2명씩 2개조(S지역 조 학교 남쪽 마을, N지역조 학교 북쪽 마을)로 편성하여 1주일 2명씩 배달했으며, 1명의 노숙자에게는 매주 배달하였다. 그래서 매주 3명의 불우 이웃들에게 음식을 배달함

4) 목요일에 학교 행사가 있는 경우나, 당일 배달할 음식이 부족한 날에는 다음날에 실시했다.

5) 배달일이 아닌 다른 요일에 특별하게 음식이 많이

남겨져서 급식실에서 연락이 오면 특별 배달을 실시했다.(1학기에 3-4회 정도 있었음)

6) 배달 당번조는 스카우트 대원들 중 연락을 담당할 반장을 제외한 나머지 대원들을 5명을 한 개조로 하여 총 4개조로 편성하고, 각 조는 월 1회 정도 배달임무를 수행했다.

7) 방과 후 자율학습을 하는 3학년의 경우에는 학급담임 교사에게 말씀드린 후에 임무를 수행했다.

8) 스카우트 담당 선생님이 연가 조별 '배달 계획표' 만들어서 대원들에게 나누어주고 배달 날짜를 잊지 않도록 강조하였다.

9) 하절기에는 음식물 부패로 인한 식중독 발생을 대비하여 쉽게 상할 수 있는 반찬류는 가급적 제외시키고 배달했다.

10) 독거 노인 음식 배달 봉사활동은 1일 1회 실시에 대해 30분의 봉사활동 시간을 인정해주었다.

11) 당번 학생은 음식이 상하지 않도록 당일 방과 후 학교 길에 배달함을 원칙으로하며, 출장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담당 선생님이 매년 동행해주셨다.

12) 학교 축제 공연 때에 독거노인분들을 초대하여 관라과 급식실에서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학교 측과 협의하여 연락하기로 했다.

13) 학년말에 독거노인 음식배달 봉사 활동 소감문을 쓰도록 했다.

14) 연말에는 독거노인 돕기 자선 바자회를 계획했다.(겨울 방학부터 다음 해 봄까지 음식 배달이 어려워서 그 동안 잠수실 라면 구입 용 경비 마련 바자회)

라. 배달 중점 및 개선점

1) 음식물이 상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달되도록 하며, 당일 배달을 원칙으로 했다.

2) 연세가 많거나 건강이 안 좋은 분을 우선 고려했다.(음식이 부족한 경우가 있음)

3) 같은 조건이면 여성 노인보다는 남자 독거노인을 더 배려했다.(위와 같은 이유)

4) 경로호친의 마음가짐을 갖고 내 부모님께 더욱 효도하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5) 물자 절약 및 환경 보호 차원에서 쓰레기로 아깝게 버려지는 음식물을 줄이고, 식량 자원의 효율적 재활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6) 독거노인에게 폐를 끼치거나, 무례함을 저지르지 않도록 담당 선생님께서부터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았고,

정성을 다해 음식 배달 봉사활동이 되도록 힘썼다.

7) 음식 도시락통 회수를 담당 선생님이 퇴근길(배달 전날 수요일)에 회수하셨는데, 앞으로는 배달용 도시락통을 2배로 더 마련하여 음식을 배달한 우리들이 돌아올때에 전 주 배달했던 도시락통을 회수해 오도록 해야겠다.

8) 배달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담당 선생님이 학생들과 동행을 하였는데, 우리들이 안전에 유의하여 학생들 스스로 배달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9) '배달 일지'를 만들어서 기록하기로 했으나 실제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문제점을 보완하여 앞으로는 꼭 쓰도록 해서 지금의 봉사활동이 더 업그레이드 되도록 하고, 독거노인들의 어려움을 찾아서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해야겠다.

마. 활동 결과

1) 음식 나눔 봉사활동 일지(이하생략)

독거노인 먹거리 나눔 봉사 활동 일지	
활동일시	2005년 10월 6일 16:00-16:30
독거 노인	김옥성, 김원복, 김태환
봉사활동 참가자	(3-6)유제호, (3-7)안승수, (2-1)장동혁, (2-5)이민희
전달 음식	현미밥, 쇠고기토란탕, 비름나물무침, 감자조림, 배추김치, 송편
개선점 (건의 사항)	▶음식 담은 통 회수를 깜박 잊어서 비닐 봉지에 음식을 배달해드렸다. 잊지 않고 미리 미리 회수를 해야 하겠다. ▶내년에는 음식 담은 통을 6개 더 구입하여 배달 후에 그 자리에서 지난 번에 배달된 음식통을 회수해 올 수 있도록 해야겠다.
특기 사항	▶최금순 할머니께서 몸이 편찮으셔서 집에 가지시지 않아 김옥성할머니께 배달해 드림. ▶김원복 할아버지와 김태환 할아버지 기념촬영을 하였다. ▶서창리 1리 오규철이장님을 만났는데 이장님께서 우리 학생들을 격려해주시고, 칭찬해주셨다.

2) 활동 사진



음식배달 후에 김원복 할아버지와 함께



고(故)최금순 할머니와 함께

3) 봉사 활동 소감문

※ 학생들이 소감문 작성용 A4용지에 써 온 것을 보고 워드로 입력한 것임

스카우트 목요 봉사활동 소감문 -독거노인 음식 배달 봉사-	
소속 및 성명	(2)학년 (5)반 성명: 박 의 빈
	나는 올해 목요 봉사 활동을 할 때 마다 많은 것을 느끼고 생각하게 되었다.
	목요 봉사활동을 할 때는 혼자 사시는 할머니, 할아버지께 음식을 나눠드렸는데
	한 집, 한 집 찾아가서 음식을 나눠드릴 때마다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이 고맙다고
	하실 때면 기분이 참 좋았다. 또 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 겪으시는 외로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었다는 보람도 느껴졌다.
	앞으로는 우리 스카우트 대원들이 독거노인에게 음식만 배달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시간을 내서 말동무가 되어 드리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겪으시는 기쁜
	일, 슬픈 일을 같이 나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비록 우리 스카우트 대원들
	이 하는 봉사활동이 작은 일일 수도 있지만, 그 일로 인해 할머니, 할아버지들께
	작은 기쁨을 선사할 수 있다면, 나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스럽고, 내 자신이
	자랑스럽게 여겨진다. 그래서 나눔의 봉사활동은 모두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다.
가장 좋았던 점 2가지	외로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었던 점 정말 좋은 일을 했다고 느낄 수 있었던 점
개선할 점 (반성할 점) 2가지	음식만 전해드릴 뿐, 다른 불편한 점을 잘 해결해 드리지 못한 점 좀더 세심한 신경을 써드리지 못해 죄송했음

2. 향토문화 홍보 및 환경정화 봉사 활동

가. 향토문화인물 장욱진화백에 대하여

장욱진화백은 아래와 같은 위상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생가(生家)와 탐비(묘지)가 아직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아서 그 관리와 주변 환경정화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스카우트 담당 선생님과 함께 자랑스러운 향토문화 인물 홍보 및 관련 시설물들에 대한 보존과 주변 환경정화 활동을 2003년부터 실시해 오고 있다.

1) '장욱진화백은 한국 근·현대 미술사의 한 시대를 풍미한 거장' (정영목,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교수)

2) '국제화도 좋지만 지방화 시대의 향토문화도 중요하다. 서산의 안견, 예산의 추사 김정희, 연기의 장욱진 선생 등 뛰어난 서화가 많이 있지만, 그들의 예술과 정신이 고향과 연계되지 못해 안타깝다.' (1995. 11. 24 : 경향신문)

- ⑤ 장화백 홍보 학급(본교 3학년 4반) 환경 게시물 1점
- ⑥ 장화백 작품 전시회 홍보 팸플릿 액자 2점, 장화백 작품 CD 1점
- ⑦ 장화백 그림 손수건 3장, 장화백 TV 방영 비디오 4편
- ⑧ 향토미술관 사진(이중섭 미술관, 박수근 미술관, 환기 미술관) 3점
- 5) 관람 총 인원: 학생 학부모 포함 900여명
- 6) 전시장 안내 및 준비: 조치원중학교 스카우트 대원 14명



스카우트 대원의 장욱진화백 전시회 안내

9. '장욱진화백 2004. 12. 27 : 추모식 개최'

9-1. 미술계장르인물과 유족회 (2004. 9. 26 : 22전일) (9)

중: '장욱진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누구든 유족과 관련 없는 독자적 작품으로 일관한 화가' (미술신문 제47호, 2004. 10)

9) 문화관광부 '2004년 이달의 문화인물' 선정

10) 중앙정부에서 장욱진미술관 건립 위한 국비 15억 원 내려줌 (2005년)

나. 장욱진화백 작품 및 도서 전시회 개최

1) 일시: 2005년 10월 12(수)-13(목) (조치원중학교 가을 축제 기간)

2) 장소: 조치원중학교 직원휴게실

3) 주최: 조치원중학교 스카우트

4) 전시물(총 88점-그림은 장욱진화백 유족과 장욱진 선양사업회, 연기군청의 도움으로 원화가 아닌 복사본을 구함)

- ① 장화백 작품: 유화(복사본) 18점, 먹그림(복사본) 2점
- ② 장화백 그림 옆서: 15점
- ③ 장화백 그림 달력(칼렌더): 3점
- ④ 장화백 관련 도서: 연구 논문 9점, 단행본 25권, 스크랩북 1권

다. 장욱진화백 추모식-참가(및 제철)작업

스카우트 활동을 처음 시작 했던 2003학년도 1학년 때부터 3학년이 된 2005학년도 까지 3년 동안 우리 교장의 문화인물 장욱진화백 생가, 탐비 보존 및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해왔던 3학년생 6명이 장욱진화백 제15주기 추모식 참가를 하게 되었고, 전 날에 많이 쌓인 눈을 말끔히 치운 후에 추모식에 참가하였다.

- 1) 일 시: 2005. 12. 27(화) 13:00-16:00
- 2) 장 소: 연기군 동면 용암리 장욱진화백 탐비
- 3) 활 동: 추모식 참가 및 제철 작업
- 4) 참가자: 스카우트 대원 중 고교 입학시험을 마친 3학년 학생 6명(현재는 고교 1년) (3-4 김준상, 3-5 민현기, 3-6 류제호, 박성규, 3-7 장순홍, 안승수)

리. 장욱진화백 생가(生家) 환경정화 활동

- 1) 일 시: 2006. 6. 3(토) 13:40-14:40 (스카우트 1차 야영 활동 중에 실시함)
- 2) 장 소: 연기군 동면 송용리 장욱진 생가
-장욱진화백의 작은 어머니(80세, 투병 중) 그분의 따님이 생가에 거주하고 계심
- 3) 활 동: 생가 마당 잡초 제거 및 생가 주변 쓰레

기 수거 활동 (2003년부터 실시함)

4) 참가자 : 조치원중학교 스카우트 대원 22명

마. 장육진화백 탐비 주변 환경 정화 활동

1) 1차 환경정화 봉사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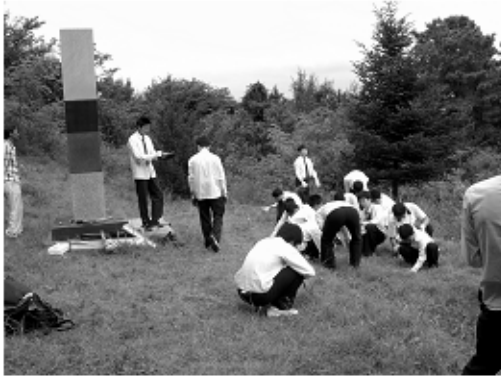
가) 일 시 : 2006. 6. 3(토) 11:20 - 12:20 (스카우트 1차 야영 활동 프로그램의 일부)

나) 장 소 : 연기군 동면 용암리 장육진 화백 탐비(묘지)

다) 활 동 : 장육진화백 탐비 주변 잡초 뽑고 탐비에 붙은 이물질 세척하기

라) 참가자 : 조치원중학교 스카우트 대원 22명

마) 교 통 : 연기군 전의초등학교 통학 공동 버스(귀가 시는 대중교통 이용)



장육진화백 탐비 주변 잡초 뽑기

2) 2차 환경정화 봉사 활동

가) 일 시 : 2006. 9. 16(토) 13:30 - 15:40

나) 장 소 : 연기군 동면 용암리 장육진 화백 탐비(묘지)

다) 활 동 : 장육진화백 탐비 주변 잡초 뽑고 탐비에 붙은 이물질 세척하기

라) 참가자 : 조치원중학교 스카우트 대원 22명

마) 교 통 : 연기군 전의초등학교 통학 공동 버스(귀가 시는 대중교통 이용)

3. 사회복지 시설 방문 봉사활동

가) 노아티 집 (사회복지 영인 미화)

1) 장 소 : 연기군 전동면 송정리, 852-7052 (중증 장애인 요양 시설)

2) 일 시 : 2005. 9. 10(토) 10:30-13:00 (계발 활동 시간)

3) 활동 내용 : 장애인 점심 배식 및 식사도우미, 놀이치료 프로그램 도우미 활동

4) 참가자 : 스카우트 13명, 학부모 1명

5) 교통편 : 전동초등학교 통학공동버스

나) 평인의 집

1) 장 소 연기군 동면 송정리, 865-0905

-무의탁 노인 양로원 (스카우트 1차 야영 활동 중에 방문함)

2) 일 시 : 2006. 6. 4(일) 09:00-10:30

3) 활동 내용: 평인의 집 마당 및 주변 잡초 제거, 위문품(라면 2상자) 전달

4) 참가자 조치원중학교 스카우트 대원 22명

5) 교통편 연기군 동면 송정리, 865-0905

6) 연기군 동면 양로원 '평인의 집' 방문은 2005년부터 시작 되었다.

0 일 시 : 2005년 5월 7일(토)- 스카우트 봄 야영 활동 중 야영지 인근 양로원

0 참가자 : 스카우트 대원 15명, 라면 2박스 전달



노아티 집 사회복지시설 방문 봉사활동

다) 상오실 치매 센터

1) 장 소 연기군 전의면 원정리, 868-5001

-사회복지법인 대전 카톨릭 사회복지회

2) 일 시

▶1차 05. 5. 27 (토요일 오후) 13:00-13:03

▶2차 05. 5. 05 (토요일 오후) 10:30-13:30

3) 활동 내용

▶1차 천안 이마트 나들이 쇼핑 도우미

▶2차 노인 식사 돕기, 센터 시설 청소

4) 참가자

▶1차: 스카우트, 3-8반 포함 10명

▶2차: 스카우트, 3-8반 포함 12명

5) 교통편

▶1차: 지도 교사 승합차와 자모(학부모 지도 봉사

하게 느끼었다.

■ 할머니와 할아버지께서 호뭇해하시고 좋아하시는 것을 보면서 지속적으로 그 분들을 도와드려야겠다는 마음을 갖았다.

... (사태버스)를 들어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 노인분들의 외로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는 보람을 얻었다. 앞으로는 음식만이 아니라 말동무도 되어주어야겠다고 다짐했다.

■ 음식을 노인들에게 배달해 드린 날들이 너무 기뻐다. 우리들에게 이제까지 이런 뜻 깊은 봉사활동은 많지 않았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 우리들의 할머니, 할아버지 중에서도 혼자 계신 분(아 있다. 목요봉사활동으로 독거노인 집에 가보나 쓸쓸히 계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떠올라 그 분들과 함께 살아야겠다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다.

... (지도 교사 승합차와 자모) ...

▶2차: 지도 교사 승합차와 대중교통 이용함



치매 노인 식사 도와 드림

2. 사회복지 시설 위문·봉사활동(양로원, 치매 센터, 장애인 요양 시설)

우리들에게 종종 장애인 복지 시설에서의 봉사활동은 매우 낯선 경험이었다. 처음에는 호기심과 약간의 두려움 같은 것을 갖고 참가하였는데, 곧 그분들과 친숙해지고 기쁜 마음으로 봉사할 수 있었다.

■ 장애인이자라면 소름이 돋을 정도로 싫었었는데 이제는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든다.

■ 처음 왔을 때는 기분이 이상하고 조금 무서웠지만 곧 익숙해졌으며, 자주 와서 봉사 활동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3. 향토문화 인물 홍보 및 관련 시설 보존, 환경정화 활동

향토문화 탐방 야영 및 하이킹 활동 중에 행했던 봉사 활동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역사랑과 향토의식이 많이 고취되었다. 특히 스카우트 활동은 봉사활동이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다.

■ 향토문화인물 홍보 및 관련 문화시설 환경정화활동이 어른들만 할 수 있는 거창한 일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다.

III. 스카우트 봉사 활동의 보람과

‘항상 다른 사람을 돕겠습니다’, ‘스카우트’... 된다’, ‘1(일) 1(선) 1(선) 1(선)’이라는 스카우트 조치원중학교 스카우트 대원들은 이웃과 는 지역사랑 스카우팅을 4년째 전개하... 교에서의 ‘계발 활동’, ‘준거집단 활동’과 트 봉사 동아리 활동은 우리들에게 ‘대... 삶’을 체험케 하여 보람찬 학교 생활을... 니다.

그러하여 지역 사회에 봉사하고 공헌... 나아가 창된 민주시민으로서, ‘이웃과... 통해 「사회에 공헌하는 스카우트... Community Service)」이 될 수 있도록 하... 리들은 그런 점에서 다음과 같은 보람과... 습니다.

1. 독거 노인 음식 배달하기(목요 봉사)

우리들이 오기 전에는 그늘진 표정의 노인들께서 우리들이 말을 건네고, 음식... 금새 표정이 밝아지셨다. 또한 대문 밖... 흔들며, 여러 번 고마움을 표하는 모습... 들은 나눔의 진정한 기쁨과 독거노인들

■ 고장의 자랑스러운 향토문화인물에 대한 긍지를 갖게 되었고, 향토의식을 고취하는 계기가 되었다. 나라 사랑은 다른 게 아니라, 향토와 지역 사랑이라는 점을 깨달았다.

■ 향토 문화 관련 시설 봉사 활동을 하면서 우리 군청과 면사무소 같은 지방자치단체와 문화시설 인근의 학교 학생들이 지역 문화재 보존 및 주변 환경정화 활

동을 위해 좀더 관심을 기울여야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앞장서서 우리 고장의 문제점을 찾아보고,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겠다고 다짐했다.

Ⅳ. 스카우트 앞으로의 계획

<p>독거노인 및 노숙자 음식 배달</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독거노인과 노숙자 음식 배달이라는 스카우트 선배님들의 좋은 전통을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후배들도 계승해 나가도록 할 것이다. 2) 부모님께 말씀드려서 각 가정에서도 그 분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할 것이다. 그 예로 겨울 김장을 하면 김장 김치, 명절날에는 남겨진 명절 음식들을 싸서 보내드릴 것이다. 올가을에도 2학년 김범우 대원이 집에서 농사지은 고구마와 겨울 옷가지를 노숙자 분께 전해 드렸음 3) 연말(12월)에 독거노인과 노숙자 돕기 자선바자회를 개최하여 겨울방학 이후에 그 분들에게 필요한 식품 및 물품을 마련해 드리겠다. (2005년 겨울 방학 전에도 독거노인들에게 라면 2박스씩을 마련해 드렸고, 서창리 노인회관에도 라면 2박스를 전달했음) 4) 학교 후문 밖 노숙자분은 최근에 건강이 무척 안 좋아 보이신다. 연기군청 사회복지과에 말씀드려서 겨울을 잘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거나 그 분과 상의하여 우리가 봉사활동 가는 연기군 전의면에 있는 '요셉의 마을' 입소를 권해보겠다. 5) 2007년부터 학교 후문 밖 노숙자 음식 배달 만은 매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아이디어와 방법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
<p>향토문화인물 (장욱진화백) 홍보 및 생가, 탐비 환경정화 활동</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향토문화인물 홍보 및 관련 문화시설 환경정화활동 이라는 스카우트 선배님들의 좋은 전통을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후배들도 계승해 나가도록 하겠다. (2003, 2004, 2005, 2006년까지 4년 째 생가, 탐비 환경정화활동 실시) 2) 대원들의 전 가족이 장욱진화백 생가와 탐비를 방문하여 자랑스러운 향토문화인물에 대한 긍지를 갖고, 향토의식을 고취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 3) 2006년 12월 27일 제16주기 장욱진화백 추모식 참가 및 주변 환경 정화 활동을 실시 할 것이다. (2005년 제15주기 장욱진화백 추모식 참가, 주변 제설작업 실시함) 4) 장욱진 생가와 탐비 안내표지판 또는 이정표가 세워져야할 곳을 찾아서 군청 및 군의회 홈페이지에 올리고, 그 시행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스카우트 대원들이 릴레이로 올리겠다. 5) 장욱진 생가와 탐비가 문화재로 지정 받을 수 있도록 연기군청의 홈페이지 '연기군수에게 바란다' 코너에 지속적인 건의문을 올리겠다. 그래서 생가와 탐비의 보존 및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6) 2007년 스카우트 봄 야영 시에는 장욱진화백 탐비 주변에 꽃을 심고 탐비 올라가는 길 양쪽에 꽃씨를 뿌려 꽃길을 만들겠다. (2005년 스카우트 봄 야영 시에는 장화백 생가 뒷산에 맥문동 꽃 심기 봉사활동을 했었고, 2006년 스카우트 봄 야영 시에는 탐비 주변 잡초 제거를 했었음)
<p>사회 복지 시설 봉사</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12월 봉사활동 시에는 연말 독거노인·노숙자 돕기 자선바자회 개최로 모은 성금 일부로 요셉 치매센터에 위문품을 전달하겠다. (금년 5월 치매 센터 봉사 시에는 물 화장지 세트를 전달했었음) 2) 2007년에는 매월 1회(토요 휴무일) 요셉 치매센터 봉사활동을 나가겠다. (금년에는 본교 3학년 8반에서 매월 실시하는 요셉 치매센터 봉사활동에 부분적으로 2회 참여했고, 12월에 1회 더 남았음) 3) 요셉 치매 센터에 봉사 회원으로 등록하여 평생 회원으로 활동하고 봉사활동 마일리지도 지속적으로 쌓아가도록 하겠다. 4) 봉사활동을 마치면 봉사활동 소감문을 개인적으로 꼭 쓰도록 하고, 전체적으로는 봉사활동 일지를 돌려가며 써서 기록으로 남기겠다. 5) 고교 진학 후엔 중학교 때 스카우트 외에 봉사에 뜻있는 친구를 포함한 봉사동아리 만들어 정기적인 치매센터 봉사활동을 하겠다.

최우수상(충청남도지사)

더불어 숲 | (사)한국청소년마을 연기군지회

대표 | 최지혜



1. 동기

그리고 어린이날 한마당, 정월대보름, 도원문화제, 청소년 어울마당 및 푸른음악회, 충남도민 생활 체육 문

입니다. 특히, 어린이날 한마당, 정월대보름, 도원문화제, 청소년 어울마당 및 푸른음악회, 충남도민 생활 체육 문화제에 많은 도움이 되었

의 지원과 도움으로, 어린이날 한마당, 정월대보름, 도원문화제, 청소년 어울마당 및 푸른음악회, 충남도민 생활 체육 문화제에 많은 도움이 되었

교육 활동으로, 어린이날 한마당, 정월대보름, 도원문화제, 청소년 어울마당 및 푸른음악회, 충남도민 생활 체육 문화제에 많은 도움이 되었

복지 기관 및 시설에 계시는 분들께 간단한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할 것임

연기군의 급격한 도시화로 인한 지역적 특성에 이해를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어, 지역사회 및 복지기관,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시설이 많이 존재하여 있는 등 우리 연기군의 소외 지역이 많아 사회복지 시설,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시설의 활기와 열정으로 지역 내 도움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지 찾아가 도움이 손길을 함께 나누며 지역의 자원 봉사 활동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3. 앞으로의 목표
우리 “더불어 숲”은 앞으로 지역 사회에 대한 봉사활동을 계속 이어 나갈 것입니다. 본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준비하는 등 보다 더 적극적으로

적으로 참여하여 봉사활동의 따뜻한 정을 나눌 것입니다.

또한 자원봉사라는 다양하고 실질적인 사회경험과 폭넓은 인간관계를 통해 자기를 발견하는 기회가 되고, 여러 사람들과 만나 어울리면서 협동심과 공동체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연기군의 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도우미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역 내 활동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과 교류의 문화와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합니다. 봉사 정신을 기르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배우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자원봉사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봉사 정신을 기르고, 이웃과 함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활동을 계속 해 나갈 것입니다.

바라는 점
의미를 잘못알고 있는 공식적으로 돕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도 청소, 말벗 봉사활동이 될 수 있

2. 봉사활동 내용 및 실적

“더불어 숲”은 일손돕기 활동, 환경·시설 보전활동, 지역 사회개발활동, 교육활동, 기탁활동 등 도움이 필요한 곳이면 언제든지 찾아가 다방면의 활동을 하였습니다.

부랑인 및 장애인 복지시설 “노아의집, 방주의집, 금이성마을”, 무의탁 노인시설 “평안의집, 사랑의 마을, 오암원”, 영유아 복지시설 “산들 어린이집, 영명보육원” 등을 찾아가 시설의 일손을 돕고, 장애우와 어르신 아이들의 말동무가 되어 정서적인 교감을 나누었습니다.

또한 하천탐사 및 환경보호활동, 갯벌체험 및 환경보호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환경의 소중함 및 중요성을 깨닫는 소중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4. 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요즘 청소년들은 봉사활동의 의미가 무엇인지 잘 모르거나, 그저 형식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흔히 봉사활동하면 봉사만 생각하는 청소년들이 많은데, 봉사활동이 봉사활동과 같은 개인적인 것도 충분히

습니다.

게다가 학교에서는 10시간이면 10시간, 20시간이면 20시간으로 봉사활동 시간을 정해놓고 학생들을 반강제적으로 봉사활동을 시키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앞으로 봉사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학교나 단체 같은 곳에서는 봉사활동이 어떠한 활동인지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봉사활동 실천현장에 배치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은 시간적 제약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절한 해결방안도 찾아보아야 할 것이며, 개인적으로는 봉사활동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일단 가까운 곳에 있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끝으로 봉사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인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발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일 것입니다.

II. 활동내용 및 실적

활동 일시	활동 전 프로그램명	활동 인원	주소 및 연락처(활동장소)
10월 08일	환경보호 활동	8명	연기군청소년자원봉사센터
10월 29일	산들어린이집 운동회	7명	산들어린이집 (서면 신대리866-3232)
10월 29일	사랑의 마을	6명	사랑의마을 (서면 기룡리 867-9002)
10월 29일	평안의 집	5명	평안의집 (동면 내판리 865-0905)
10월 29일	평강의 집	4명	평강의집 (조치원읍신안리 867-5430)
11월 05일	노아의 집	6명	노아의집 (전동면 송서리 862-7004)
11월 05일	방주의 집	6명	방주의집 (전동면 송서리 862-7004)
11월 05일	기장단 회의	1명	(사)한국청소년마을 연기군 지회
11월 12일	연극제		(사)한국 청소년마을 연기군지회 (연기군민회관)
12월 16일	산들어린이집 산타활동	4명	산들어린이집 (서면 신대리866-3232)
12월 23일	동아리 회의	6명	연기군 청소년 문화의집
12월 30일	연탄은행	3명	충남연기자활후견기관 (남리 298)
12월 31일	청소년 마을 송년회	30명	(사)한국청소년마을 연기군 지회 (충남연기자활후견기관 강당)
01월 14일	산들어린이집	6명	산들어린이집 (서면 신대리866-3232)
01월 14일	사랑의 마을	5명	사랑의마을 (서면 기룡리 867-9002)
01월 21일	노아의 집	6명	노아의집 (전동면 송서리 862-7004)
01월 21일	방주의 집	7명	방주의 집 (전동면 송서리 862-7004)

02월 07일	동아리 회의	25명	연기군 청소년 문화의집
02월 08일	정월대보름 행사 회의	25명	연기군 청소년 문화의집
02월 11일	정월대보름 행사	25명	(사)한국 청소년마을 연기군지회 (연기군 문화예술회관)
02월 22일	평안의 집	5명	평안의집 (동면 내판리 865-0905)
02월 25일	노아의 집	10명	노아의집 (전동면 송서리 862-7004)
02월 25일	방주의 집	9명	방주의집 (전동면 송서리 862-7004)
03월 11일	동아리 회의	25명	연기군 청소년 문화의집
03월 25일	신인생활영회	40명	-
04월 01일	동아리 인준식	30명	(사)한국청소년마을 연기군 지회
04월 22일	나눔장터	15명	푸른연기자 추진협의회
05월 05일	어린이날 행사	16명	연기사랑청년회 (고려대학교 서창캠퍼스)
05월 13일	금이성 마을	11명	금이성마을 (전동면송서리 862-7004)
05월 13일	사랑의 마을	8명	사랑의마을 (서면 기룡리 867-9002)
05월 13일	평안의 집	8명	평안의집 (동면 내판리 865-0901)
05월 15일	동아리 회의	31명	연기군 청소년 문화의집
05월 27일	나눔장터	15명	푸른연기자 추진협의회
06월 03일	산들어린이집	10명	산들어린이집 (서면 신대리866-3232)
06월 03일	평안의 집	8명	평안의집 (동면 내판리 865-0905)
06월 03일	오암원	8명	오암원 (전동면 송서리 862-4911)
06월 17일	영영보육원	16명	영영보육원 (서면 칠하리 867-2059)
07월 08일	동아리 회의	31명	연기군 청소년 문화의집
07월 22일	나눔장터	10명	푸른연기자 추진협의회
07월 22일	방주의 집	6명	방주의집 (전동면 송서리 862-7004)
07월 22일	금이성 마을	7명	금이성마을 (전동면송서리 862-7004)
07월 29일	사랑의 마을	10명	사랑의마을 (서면 기룡리 867-9002)
07월 29일	평안의 집	9명	평안의집 (동면 내판리 865-0905)
08월 12일	영영보육원	13명	영영보육원 (서면 칠하리 867-2059)
08월 19일	산들어린이집	13명	산들어린이집 (서면 신대리866-3232)
08월 26일	동아리 회의	31명	연기군 청소년 문화의집
09월 02일	동아리 회의	31명	연기군 청소년 문화의집
09월 9, 10일	자원봉사 캠프	30명	(사)한국청소년마을 연기군 지회 (달성전통문화체험학습장)



최우수상(충청남도지사)

사제동행 독거노인 도우미 | 정산중학교

대표 | 노지영

I. 동아리 소개

정산중학교의 '사제동행 독거노인 도우미' 활동은 2001년도 김은수 선생님이 정산중학교에 부임하면서 처음으로 담임반 26명의 아이들과 함께 3명의 독거노인 돕기를 시작하면서부터 시작된 동아리로 올해로 6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2005년에는 12분에 거의 80명이 참여하였고 2006년에는 12분에 공식적으로 64명과 나머지 20명이 비공식적으로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교장, 교감,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후원 속에서 우리학교의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여 독거노인들에게 기쁨을 주고 있습니다. 요즘은 노인문제, 가족해체 현상, 청소년들의 방황, 학교폭력, 집단 따돌림 등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지만 우리학교는 체험 중심의 봉사 동아리 활동을 통해 우리들에게 따뜻하고 탄인을 배려하는 마음과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태도와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과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봉사활동 후에 소감문을 작성하면서 우리들의 작은 사랑의 실천이 독거노인 분들 뿐만 아니라 우리들까지 변화 되는 모습을 보면서 학생들의 인성교육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우리학교의 자랑거리인 독거노인 도우미 활동 계획 및 실제 활동한 사항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II. 사제동행 독거노인 도우미 활동 계획

1. 목적

- 가. 독거노인 도우미 봉사활동을 통하여 경로효친 사상을 고취함으로써 바른 인성교육
- 나. 지역 사회의 문제에 대한 관심과 공동체 의식의 함양
- 다. 지역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봉사활동의 저변 확대 및 활성화

2. 활동 내용

- 가. 독거노인 돕기 봉사활동 실시(청소, 빨래, 설거지, 안마, 위문 등)
- 나. 학부모 지도 봉사단과 연계하여 밀반찬 및 김치 지원
- 다. 독거노인 위안잔치 개최
- 라. 알뜰시장 및 먹거리 장터 운영을 통한 수익금으로 생활용품 지원
- 마. 봉사활동 실천사에 발표대회 개최

3. 활동 일시

매월 1째주, 3째주 토요일 13:00~16:00

4. 사제동행 독거노인 도우미 동아리 조직

가. 도우미 동아리 조직

전체동아리 (대표 노지영) 산하에 18개의 소동아리를 조직하여 2개조 각 9개 동아리가 나누어 학부모봉사단(12명)과 연계하여 12명의 독거노인을 도와 드리고자 조직하였다.

나. 학부모 봉사단 조직

학부모 봉사단은 총단장(1명), 부단장(1명), 임원(10명)으로 구성되었다.

5. 학부모 지도 봉사단과 연계활동

가. 목적

2003년부터 학부모 봉사활동 지도단을 창단하여 학생 봉사활동의 계획과 실천과정을 도와줌으로써 학생들이 보다 쉽고 다양하게 봉사활동을 할 수 있게 함

나. 방침

- 1) 학부모지도봉사단은 그 자녀의 소속 학년과 연계하여 희망자로 조직하고 학생들의 자원봉사 활동을 지도하고, 지원하도록 함

2) 담당교사와 학생 봉사활동 진행 상황을 상의하여 지도의 효율성을 높임

다. 조직

학부모지도봉사단은 총단장(1명), 부단장(1명), 임원(11명)으로 구성

6. 월별 추진내용

월	월별 주제	활동일	활동 내용
4월	사전교육 및 동아리 조직	5일	봉사활동 사전교육 (2006. 4. 5) 18개 소동아리 조직 및 발대식 (2006. 4. 5)
5월	카네이션 만들기	3일	카네이션 만들기 교육 (2006. 5. 3)
		6일	독거노인방문 카네이션 달아드리기
		13일	청소, 세탁, 안마
6월	학교홈페이지 소감문 탑재 및 발표회	10일	집안 청소 및 주변 잡초 제거, 안마 해드리기 (소감문 탑재 : 8명)
		17일	반찬(엽무김치, 장조림) 만들어 전달
7월	1학기 봉사활동 평가회	15일	삼계탕 및 김치 만들어 전달 (7. 15)
9월	추석맞이 방문	16일	청소, 세탁, 알벗해드리기
		30일	송편, 김치 및 위문품 전달(예정)
10월	독거노인 위안 잔치	18일	독거노인 위안잔치 (예정)
		21일	집안 청소 및 안마해드리기
11월	실천사례발표대회 개최	4일	집안 청소 및 편지 써드리기
		18일	청소년자원봉사대회 참가, 발표 (예정)
12월	봉사활동 마무리 평가회	16일	성탄, 설날맞이 위문품 전달 및 알벗 해드리기

7. 독거노인 돕기 밑반찬 사업

월	밑반찬 만들기	소요금액	참가 학생
4월	배추김치, 숙인절미	140,000	남학생 11명, 여학생 18명 어머니봉사단 12명, 지도교사 10명
5월 8일	엽무김치, 장조림	130,000	남학생 11명, 여학생 18명 어머니봉사단 8명, 지도교사 10명
6월 7일	물김치, 해물동그랑땡	100,000	남학생 9명, 여학생 22명 어머니봉사단 7명, 지도교사 9명
7월 5일	삼계탕 반찬 만들기 (배추김치, 장조림)	120,000	남학생 9명, 여학생 22명 어머니봉사단 10명, 지도교사 8명
8월	송편, 총각김치, 오징어 회무침	100,000	남학생 11명, 여학생 18명 어머니봉사단 11명, 지도교사 10명
10월	산적, 젓갈	130,000	예정
11월	배추김치, 동태전	130,000	예정
12월	흰떡, 잿잎떡	110,000	예정

III. 향토사랑 봉사대 활동 계획

1. 목적

가. 건전한 봉사활동을 활성화한다.

나. 봉사대 활동을 통한 효행심과 애乡심을 함양한다.

다. 내 고장 환경 보전을 위한 환경 친화적인 태도를 가진다.

2. 조직

가. '리' 단위의 거주 학생별로 조직

나. 소수 거주 지역은 인근 지역과 통합하여 편성

다. 대장 1명, 부대장 1명, 이하 대원으로 구성

3. 활동 내용

가. 청소, 정화 활동, 자연 보호 활동, 환경 보전 활동

나. 효 실천 운동

다. 향토 조사 및 탐구 활동 등

4. 운영

가. 월 1회 정기 활동, 필요시 수시 활동, 방학 중 특별 활동으로 운영

나. 활동 시간은 봉사대별로 계절과 지역 실정에 맞게 운영

다. 활동 시간, 장소, 내용 등은 대원 전체의 토의를 거쳐 결정

라. 간사는 활동일지를 기록하고, 월 1회 지도교사의 확인 및 지도

IV.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 우리들의 이야기

매월 첫째 주, 셋째 주에는 동아리별로 각 담당선생님과 함께 독거노인 도우미 활동을 하러간다. 한달에 한번은 학부모 봉사단 어머니들이 만들어 주신 김치와 반찬 등을 가지고 가는데 텅 빈 냉장고를 채울 때는 우리 집 냉장고를 채울 때처럼 너무너무 기쁘다. 처음에는 대화거리도 별로 없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었는데 3년째 계속하다보니 이제는 할머니들과도 친하고 방청소 및 집 주변 청소도 익숙하게 잘 하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우리들이 가면 할머니가 너무 너무 반가워 하셔서 기쁘지만 한편으로는 혼자 사시는 모습이 너무 불쌍하고 안타깝다.

1. 카네이션 만들기

어머니날을 맞이하여 학부모지도 봉사단원들과 함께 5월 6일(토요일) 독거노인들께 달아드릴 카네이션을 5월

3일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꽃을 받고 환하게 웃으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를 마음속에 그리며..... 그리고 선생님들께서도 돈을 모아서 사랑, 세제, 라면 등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드릴 선물을 준비하셨습니다.

2. 독거노인분들에게 드릴 음식 만들기

6월 17일 토요일은 우리 친구들이 어머니봉사단(단장 이정량)과 함께 독거노인에게 갖다 드릴 반찬(김치, 장조림, 멸치고추볶음, 감)을 급식실에서 정성을 다해 만들었어요. 봉사활동 희망자가 많았지만,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모두 참여할 수 있게 하지 못해 미안합니다.



3. 홀로 사시는 할머니께 여름철 보양식을

이번 달 7월 15일(토요일) 독거노인 돕기 봉사활동에는 학부모봉사단으로 활동하시는 혜경이 엄마, 정용이 엄마, 예스터 엄마, 선영이 엄마, 지형이 엄마, 병혁이 엄마, 은새 엄마께서 오셔서 가사실에서 삼계탕, 배추김치, 닭죽, 계란 장조림 등을 만들어 싸주셨습니다. 예린이, 해연이, 지영이, 수진이는 이순혜 할머니 댁에 들려 상도 차려 드리고, 삼계탕 드시는 것을 도와 드리고, 함께 닭죽도 먹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아홉분의 독거노인 댁을 방문하여 같은 활동을 하였습니다.



9월 30일은 10월 10일 추석을 앞두고, 사랑과 행복 사시는 할머니, 할아버지께 드릴 선물팩트도 준비하고,

어머니봉사단원들과 함께 송편도 만들어, 시루떡, 포도, 돼지고기장조림, 파김치와 함께 꾸집한 위문품을 준비하여 출발하였습니다. 비록 가족들만은 못하지만 우리 학생들과 함께 따뜻하고 풍성한 한가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4. 홈페이지 활용을 통한 봉사활동 소감 발표

학교 홈페이지에 봉사활동 방을 개설 운영하였는데 봉사활동과 관련된 제반 공지사항을 홈페이지 '공지사항'란에 게시하여 학생, 교사, 학부모가 쉽게 그리고 정확하게 안내를 받을 수 있게 하였고 봉사활동을 실시한 후에는 동아리별로 소감문을 홈페이지에 올리게 함으로써 많은 학생들이 읽고 자연스럽게 봉사정신이 내면화 되도록 하였으며, 칭찬을 통해 봉사활동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지속적인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지도하였습니다. 나아가 봉사활동을 다녀와서는 소감문을 써서 학교 홈페이지에 올리도록 하는데 이를 통해 학생들은 가정의 소중함도 느끼고 집에 가서는 부모님께 효도를 해야겠다는 생각도 갖게 될 뿐만 아니라 더불어 사는 사회의식 함양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5. 독거노인 돕기를 위한 먹거리 장터 및 알뜰 바자회

매년 가을 축제 때에는 선생님들께서 재료를 제공하고 학교 급식실의 지원을 받아 독거노인 도우미들이 떡볶이와 어묵을 만들어서 먹거리 장터를 운영하여 나온 수익금으로 생활필수품을 사다 드리고 월동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작년 축제 때에는 학부모봉사단과 함께 떡볶이, 어묵, 김밥, 샌드위치 등 여러 가지 음식을 다양하게 팔아 행사를 크게 했으며 알뜰 바자회도 함께 개최하여 독거노인 돕기에 전교생이 참여하였습니다. 올해는 학부모 봉사단과 함께 더욱 풍성한 음식으로 독거노인 돕기 행사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독거노인 돕기 봉사활동은 노인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경로효친정신을 함양하며, 봉사활동의 참뜻을 직접 체험하고 실천하게 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6. 학부모 봉사단과 협력 '좋은 독거노인 돕기'

2009년 독거노인 돕기 활동을 통해 독거노인분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 주신 학부모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독거노인 돕기 활동을 통해 독거노인분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7. 향토사랑 봉사대 활동

2001학년도부터 내 고향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지역 사회에 대한 봉사활동을 통하여 애郷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향토사랑봉사 동아리를 조직하여 운영하였습니다.



V.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며

처음에는 단순하게 한 반의 봉사로 시작된 작은 씨앗들이 이제는 뿌리를 내린 나무처럼 든든한 버팀목으로 자라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으려 합니다. 독거노인 도우미 봉사활동을 통한 동아리 활동은 각 가정에 대한 불평을 하던 학생들에게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과 타인

을 배려하는 마음과 더불어 사는 삶의 태도를 길러주었습니다. 또한 학교에서 건전한 학생 또래 문화를 형성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즐거운 학교생활에도 도움을 주었습니다. 또한 학부모 지도봉사단의 활동은 선생님들만의 지도에서 오는 한계를 극복하고 봉사활동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부모와 자녀의 사랑을 더욱 돈독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전교생이 향토사랑봉사대 활동에 참여하여 자신의 마음에 '관심을 갖는 것'과 함께 '봉사활동을 하겠다'고 마음속으로 '가족임을 더욱더 깨닫고' '독거노인 봉사활동과 장을 통해 차츰 서로 의견을 나누어 가며 '하나씩 문제점들을 개선해가면서' '행동하는 자세와' '많은 의견을 나눔으로써'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과 더불어 사는 삶의 태도를 기르게 되었습니다.

또한 봉사활동이라는 것이 우리가 다른 누군가에게 베푸는 것만이 아니라 그 속에서 오히려 우리가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과 우리들의 작은 노력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 준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앞으로는 독거노인들이 더 증가 할 텐데 버림받지 않고 주변사람들에 의해서 관심과 사랑이 풍성한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세상이 되기를 꿈꾸어보고 우리 정산중학교 학생들이 앞장서서 그 꿈을 이루어가기를 기대합니다.

우수상(충청남도교육감)

나누미 | 청양여자정보고등학교

대표 | 양은지



I. 나누미의 탄생

지금부터 3년전 2003년 가을 실업계고등학교 특별교육과정인 제과제빵시설을 이용한 보다 특별한 이웃사랑 실천방법을 생각하면서 학생들의 자생동아리인 이웃사랑 실천봉사반과 제과제빵반이 함께 모여 「나누미」라는 봉사활동 동아리를 결성하여 동아리 학생들에게 제과제빵에 대한 기본지식과 실무기능을 익히게 하여 제과제빵에 대한 전문인 양성을 통해 자기개발 및 관련 직업에 활용할 수 있게 함은 물론 더불어 이웃사랑 실천으로 연계하여 학생중심의 자율적인 이웃사랑실천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하고자 결성되었다 즉 우리 나누미 동아리의 창단 목적은 학생들의 전문적인 능력양성과 더불어 인성교육의 실천을 통해 나눔을 아는 아름다운 사회 만들기를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차세대 주인공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게 할 목적으로 결성되었다.

나누미 동아리의 운영방침 ①학습과 생활이 잘 조화되어 융합될 수 있도록 운영하며②이웃사랑 실천 활동이 학생중심의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며 ③가정 학교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이웃사랑 실천의 생활화 확산에 기여하고④ 이웃사랑 실천 미담과 우수사례를 발굴 보급하여 효실천 및 이웃사랑 충남정신의 발양 환경보호 운동으로 확산시키고⑤ 봉사활동 동아리인 나누미의 활동실적을 자체 카페운영 및 각종 봉사활동 센터의 홈페이지에 탑재하여 교육공동체의 공감대를 형성한다 로 정하여 나누는 삶의 생활화 확산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II. 우리 이런 활동을 합니다

1. 나누미 연간 활동계획

월	추진 내용	비고
3	나누미 이웃 사랑 실천 동아리 봉사단원 모집	
	나누미 봉사 조직 구성 및 계획 수립	
	나누미 봉사단원 봉사자교육	
4	나누미 카페 개설	나누미 카페에 활동소감 등록
	장애인의 날 기념 사랑의 빵 전달 및 봉사활동(청양군청협조)	
	이웃 사랑 실천 봉사 활동(독거노인 위문 방문)	
	나누미 활동 효행 우수 학생 발굴 및 추천	
5	나누미 활동 카페 관리	나누미 카페에 활동소감 등록
	어린이날 기념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의탁보호대상 관내초등생 사랑의 케 만들어 전달하기	
	어버이날 기념 청양관내 무의탁노인 대상 사랑의 빵 전달 및 손녀왕되어드리기(자매결연)	
	이웃 사랑 실천 봉사 활동(무의탁노인 위문 방문)	
	무의탁노인 대상 테마출도여행	
6	나누미 활동 카페 관리	나누미 카페에 활동소감 등록
	무의탁 노인 무료 목욕 봉사활동	
	청연제 애나바다 운동 및 사랑의 빵 판매 등을 통한 불우 이웃 돕기 활동	
	이웃 사랑 실천 봉사 활동(무의탁노인 위문 방문)	
7	나누미 활동 카페 관리	나누미 카페에 활동소감 등록
	무성산 및 용배 지천 환경 정화 활동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보호대상 청소년대상 제과제빵 실습(하계방학중)	
9	이웃 사랑 실천 봉사활동(무의탁노인 위문 방문)	나누미 카페에 활동소감 등록
	1학기 「나누미」 활동 자기 상호 평가	
10	무의탁노인 무료 목욕 봉사활동	나누미 카페에 활동소감 등록
	노인의 날 기념 사랑의 빵 전달 및 봉사활동(청양읍 사회복지회관 및 무의탁노인)	
	이웃 사랑 실천 봉사활동(무의탁노인 위문 방문)	
11	무의탁노인 무료 목욕 봉사활동	나누미 카페에 활동소감 등록
	학생의 날 기념 사랑의 빵 만들기 및 전달	
	무성산 및 용배 지천 환경 정화 활동	
12	이웃 사랑 실천 봉사활동(무의탁노인 위문 방문)	나누미 카페에 활동소감 등록
	「나누미」 활동 자기 상호 평가	
	연간 「나누미」 봉사단 활동 평가 및 반성	

2. 무의탁 노인가정 연중 돌보기 활동

해마다 3월 새 학기가 시작되면 청양군청 사회복지과를 방문하여 본교 학생들이 연중 결연을 맺고 활동을

할 터전(무의탁노인가정)을 찾습니다 2006년 올하는 지도 선생님과 협의결과 학교 인근의 4가정을 선정하고 매월 2회 이상씩 나누미 전회원이 4개조로 나뉘어 각조가 1가정씩 돌봐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는 어버이날을 맞아 학생들이 평소 배우고 익힌 기술을 발휘하여 롤 케익을 만들어 전달하였고 7월에는 결연을 맺은 할머니 할아버지와 같이 저녁식사를 준비하여 거동이 불편하신 할머니 할아버지와 삼겹살을 구워 저녁식사를 같이하는 즐거운 시간도 가졌습니다.



▲ 무의탁노인가정에서 식사준비

3. 어린이날 및 어버이날 행사활동

2006년 어린이날 및 어버이날을 맞아 학생들로 하여금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들을 위해 학교에서 배운 제과제빵 기술을 이용하여 조그만 선물(롤케익 및 쿠키류)을 전달함으로써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체득케 하고 학생들의 올바른 인성함양으로 미래사회의 주역으로 바람직한 인간상을 심어주는 활동을 하였다. 이때는 총 15가정의 청양군 관내 초등학교 소년소녀가장과 무의탁노인가정을 방문하여 전달하였는데 특히 초등학교 방문지 현장의 선생님



▲ 케익만들기 준비과정



▲ 청송초교학생들과

4. 장애인시설방문 봉사활동(명절 송편빚기활동 포함)

우리 나누미의 주된 활동터전인 청양군 정산면 소재 장애인 시설체인 사랑의 집은 우리 나누미 회원들이 월 2회 주말을 이용하여 활동을 하는 곳이다. 3년여 전부터 충청남도청소년 활동진흥센터의 도움과 지원으로 매년 추석맞이 송편빚기 봉사활동이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올해부터는 우리 나누미 학생들이 염색하는 방법을 배워 장애인 아저씨 아줌마들께 머리 염색을 해드리는 등 해마다 활동방법이 다양해지고 있으며 올해도 변함없이 본교의 청연 축제 시에 나누미 학생들이 아나바다 시장을 개설하여 남은 수익금과 물품 그리고 제과제빵을 축제기간 중 구경은 청양군 관내 학부모 및 동료 학생들에게 판매하여 얻은 수익금을 전액 사랑의집에 기증하는 행사를 가졌다.

또한 여름방학 기간 중에는 작년 어린이날 빵과 케익을 만들어 찾았던 부여에 있는 삼신보육원을 방문하여 원생들의 공부도 도와주고 청소도 하는 등 유익한 봉사활동을 실시하였다.



▲ 예쁘게 만들어요

5. 아나바다 장터운영을 통한 사랑 나눔활동

제16회 본교의 청연축제 기간 중(2006년 6월 8일-9일) 전 교직원과 전체학생들을 대상으로 아나바다 장터를 운영하였고 더불어 제과 제빵시설을 이용하여 빵과 과자를 만들어 축제기간 중 판매하여 수익금으로 위문품을 구입하여 장터의 남은 물품과 같이 활동터전인 사랑의 집을 방문하여 전달하는 행사를 가졌다(판매수익금

은 총 132,900원이었으며 기타 의류 57점, 신발류 1점, 가방류 5점, 선물세트 2종 기타 12점임) 이 행사는 지역 사회의 교육공동체 여러분께 매우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활동 내용면이나 결과 면에서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 좀더 사세요

6. 교내의 각종 행사시 도우미 활동

본교는 실업계열 고등학교로 매년 테크노캠프(진로체험학습)등의 크고 작은 행사가 열리고 있는데 매 행사 때마다 나누미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안내도우미 혹은 진행도우미 역할을 담당하여 행사진행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2006년에도 입학식장에서 유인물배부 및 학부모 안내활동을 시작으로 축제 시 안내 보조활동, 테크노캠프 봉사활동, 직업교육박람회 봉사활동,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운영 시 보조활동 등 다양한 교내외 활동에 참여하여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2006년에는 청양군민축제(10월1일)시 피켓을 들고 참여하는 봉사활동 외에도 안내포스트에서 각 경기장을 안내하는 봉사활동 실시하여 청양군민으로부터 많은 칭송을 받고 있기도 하다.

7. 기타 교육활동 · 해외 봉사활동 · 체험활동 등

본 나누미 동아리는 위의 여러 봉사활동뿐만이 아니라 봉사활동 시 필요한 소양교육을 지도교사의 지도로 매 학기 초 실시하고 있으며 학교의 총 단장이 중심이 되어 각 학년별 단장의 지도로 조별로 편성 활동이 운영되고 있다 올해도 소양교육은 물론 청소년 여름문화학교에 8명의 단원들이 참가하여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소재 둔내유스호스텔에서 봉사활동 및 소양교육 레크레이션 등 다양한 교육활동을 수료하였고 나누미 단원학생들 중 2명의 학생이 해외 문화체험봉사활동을 신청하여 러시아 연해주에서 10박 11일의 봉사활동을 무사히 마쳤고 2005년 봉사활동 박람회 결과 본 동아리가 특선을 수상하여 대표학생이 베트남을 방문하여 봉사활동 및 우리나라의 문화를 알리고 오는 등 다양한 활동들을

펼치고 있다.

또한 충청남도 청소년 진흥센터가 펼치는 청소년 시설체 복카페 운영을 위한 도서수집 봉사활동에도 참여하여(9월-10월 현재 실시중) 기증할 도서를 수집하는 봉사활동을 실시 중에 있으며 이러한 활동들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다.

Ⅲ. 앞으로는 이런 활동들을...

1. 전문성 있는 봉사활동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할 것이다

지금까지는 우리의 노력봉사 위주의 활동이 중심이 되었으나 앞으로의 활동은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고 익힌 지식을 바탕으로 하는 활동중심으로 계획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 배운 컴퓨터 기술을 마을의 경로당이나 무의탁노인가정 장애인 시설체 등의 활동터전에 전수한다든지 아니면 활동터전에서 요구하는 활동들의 기본이 되는 기술을 꾸준히 연마하여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할 것이다.

2.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율적인 운영

지금까지의 노력 봉사형 형태에서 탈피하여 좀더 전문성을 갖추고 학생들의 끼와 정성을 살리며 나아가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접목시켜 봉사활동과정에서 학생들의 인성은 물론 기능신장 또는 자기발전을 위한 활동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이 다양화되어야 하겠고 또한 봉사활동의 운영상 개인이나 동아리 위주의 활동에서 보다 발전시켜 전교생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의 개발이라든지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즉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봉사활동 프로그램의 개발이 시급하다 할 것이다.

3. 봉사활동 소양교육의 내실화

많은 우리 동아리 학생들이 활동터전에서 어떻게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잘 몰라 우왕좌왕 시간만 때우다 돌아오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다 따라서 활동 전 활동에 필요한 봉사활동 소양교육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며 각각의 활동터전에 대한 이해와 하는 일에 대한 올바른 판단이 중요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본 나누미 동아리는 매년초에 실시하는 자체소양교육을 꾸준히 실시할 예정이며 나아가 청소년활동진흥센터 등의 전문가 집단으로부터 꾸준히 자문도 구하고 도움요청도 할 예정이다.

우수상(충청남도교육감)

석성아리 | 석성중학교

대표 | 한승봉



나눔을 통해 진정한 사랑을 ...

I. 진정한 나눔의 의미를 알고 실천하기 위해

우리학교는 '학교폭력예방 및 교육복지 증진을 위한 사회복지사활용연구학교'로 지정되어 2005년 5월 3일부터 2006년 10월 현재까지 계속 학교사회복지실이 운영되고 있다. 학교사회복지실에서 하는 일은 상담활동과 다양한 집단프로그램, 각종 문화체험활동, 가정방문, 급식지원 그리고 자원봉사활동 등이다.

때마침 자원봉사에 관심이 있던 우리 몇몇 친구들은 일부 학생들이 학교에서 주어진 시간을 채워야 한다는 생각만으로 자원봉사에 나가는 것을 보면서, 자원봉사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먼저 진정한 자원봉사의 의미와 가치를 깨닫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학교사회복지사 선생님의 도움으로 자원봉사동아리 '석성아리'를 조직하게 되었다.

이후 석성아리는 먼저 충남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도움으로 자원봉사소양교육을 받았으며, 남을 위해 사랑을 베풀고 실천하는 마음과 굳은 마음을 지니고 열정적으로 일하는 '일임을 깨닫고, 기쁜 마음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꾸준히 자원봉사 활동을 추진하게 되었다.

II. 치매와 중풍을 앓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사랑을 배워요!!

2005년 7월부터 우리 '석성아리' 회원들은 공주 소망공동체, 탄천 하늘공동체 등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펼쳤으나, 교통의 어려움 때문에 2005년 10월부터 부여중앙노인전문요양원에서 월 1-2회의 정기적인 봉사활동을 실시하게 되었다. 부여중앙노인전문요양원은 치매와 중

풍을 앓고 있는 어르신들이 거주하는 곳으로 2층부터 4층까지 60여분의 어르신들이 생활하고 계신다.

처음에는 치매와 중풍을 앓고 있는 어르신들을 보면 가까이 가길 꺼려하고 겁을 먹던 학생들이 자원봉사가 계속되면서 어느덧 어르신들 곁에 가까이 다가가 있음을 발견한다. 어르신들과 손도 잡고 이야기도 하면서 자신들의 할머니 할아버지를 떠올리며 웃고 울며 헤어짐을 아쉬워한다.

처음에는 단순히 봉사시간을 채우기 위해 나섰던 친구들도 자원봉사를 마치고 돌아와서는 다음 주에 또 가자고, ○○○할머니가 보고 싶다고 말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자원봉사가 우리들에게 오히려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믿음을 가지게 된다.



아이들은 어르신들과 말벗도 되어드리고 시장이나 마트도 동행하며 현재에서 과거로, 과거에서 현재로 시간을 넘나드는 여행을 하게 된다. 현재 살아계시거나 혹은 돌아가신 자신들의 할머니 할아버지를 떠올리며 생각에 잠기기도 하고, 어려운 처지에 놓인 어르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기도 한다.

또한 추석을 맞이하여 우리 석성아리 회원들은 사제

동행 송편빚기 자원봉사에 나섰다. 송편빚기에 필요한 물품들은 충남자원봉사활동진흥센터에서 지원해주셨고 우리 회원들 25명과 교장선생님 이하 여러 선생님들이 함께 참여해주셨다. 휠체어를 타신 채 송편을 빚으시는 어르신, 한 손으로 송편을 빚으시는 어르신들까지 모두 참여하셨으며, 예쁜 송편빚기 대회를 열어 간단한 선물을 증정하기도 하였다. 우리가 빚은 예쁜 송편처럼 늘 어르신을 공경하며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예쁜 마음이 우리들의 가슴에 남아있길 바라는 마음이다.

우리는 자원봉사를 통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돌아온다. 어르신들의 애기 속에 숨겨져 있는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과, 요양원에 계시는 처지이지만 학생들에게 무언가 먹을 것 하나라도 더 주려고 애쓰시는 모습들, 자원봉사 갈 때마다 “우리 학생들, 고생한다!”며 아이들의 마음을 용서와 사랑으로 채워주시는 모습들..

이 모든 것에서 우리들은 나눔의 참된 의미와 진정한 사랑을 배우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 많은 것을 배울 것이다.

※ 2005년 10월부터 현재까지 부여중앙노인전문요양

2006. 01. 03	-	오병찬 외 12명	· 요양원 환경정리 · 어르신 오락프로그램
2006. 01. 07	-	오병준 외 12명	· 어르신 알벗되어드리기 · 어르신 목욕봉사
2006. 02. 04	-	함승봉 외 7명	· 어르신 산책 동행 · 어르신 오락프로그램
2006. 03. 18	-	김정애 외 17명	· 요양원 환경정리 · 어르신 오락프로그램
2006. 04. 03	-	함승봉 외 28명	· 어르신 장보기 동행 · 요양원 내부 정리
2006. 05. 20	-	이상현 외 11명	· 어르신 알벗되어드리기 · 요양원 내부 정리
2006. 06. 17	-	오병준 외 17명	· 어르신 알벗되어드리기 · 요양원 내부 정리
2006. 07. 15	-	조인지 외 28명	· 어르신 산책 동행 · 어르신 오락프로그램
2006. 07. 29	-	이성실 외 11명	· 어르신 알벗되어드리기 · 요양원 내부 정리
2006. 08. 02	-	함승봉 외 13명	· 어르신 알벗되어드리기 · 요양원 내부 정리
2006. 08. 30	-	김정애 외 24명	· 송편빚기 · 어르신 알벗되어드리기



원에서 실시된 '석성아리'의 활동 내용은 같다.

일 정	활동기관 (위치/ 연락처)	참여인원	활동내용
2005. 10. 29	부여중앙노인 전문요양원 (838-6300)	박수진 외 18명	· 어르신 산책 동행 · 어르신 오락프로그램
2005. 11. 05	-	박정윤 외 20명	· 어르신 장보기 동행 · 요양원 내부 정리
2005. 11. 19	-	윤여은 외 16명	· 어르신 산책 동행 · 어르신 오락프로그램
2005. 12. 03	-	백진경 외 24명	· 어르신 장보기 동행 · 요양원 내부 정리

III. 교내환경정화활동도 우리가 먼저

우리들은 교내환경정화활동에도 다른 친구들의 모범이 되기로 하였다. 석성아리 회원들에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담당 요일을 정해주고 주 1회 아침 EBS 방송이 시작되기 전에 20분씩 교내 및 학교주변의 휴지를 줍는 봉사활동을 실시하였다. 떨어져있는 휴지를 줍다 보니 휴지를 버리지 않는 것이 우선이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고, 우리가 휴지 줍는 모습을 보는 다른 친구들도 같이 줍는 현상이 일어났다.

우리가 하는 작은 일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다른 친구들에게도 조금씩 전파되어 남을 먼저 배려하고 생각하는 마음들이 모아지고 그렇게 함으로써 정말 행복한 학교가 되었으면 좋겠다.



IV. 알밤따러 갑시다!!!

우리 석성아리 회원들은 9월 23일 부여군 은산면 인근 수확농가의 일손을 덜어주고자 알밤줍기 자원봉사에 나섰다. 26명의 석성아리 회원이 참여한 이번 자원봉사는 동아리 회원 외에도 자원봉사를 원하는 다른 학생들과 선생님들도 함께 참여하여 더 큰 의미가 있었다.

V. 향후계획

자신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남도 사랑할 줄 모른다고 한다. 이 말은 다시 말해 남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자신도 사랑한다는 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나눔의 봉사활동을 통해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장애를 가졌거나 치매와 중풍으로 고생하시는 어르신들, 또한 일손이 부족하여 노인들만이 농사를 짓는 등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밝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장애인들과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비록 힘들지만 나에게 주어진 환경을 인정하고 바로 그곳에서부터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얻는 방법을 그리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노력하는 것의 소중함을 깨닫게 된 것이다.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자신을 사랑하게 되고 나에게 최선을 다해야한다는 의지를 배웠다는 것이다.

자원봉사를 할 때는 어떤 보상이나 조건을 바라지 않고 해야 한다고 들었다. 하지만 나는 이미 충분한 보상을 받은 것 같다. 자원봉사를 통해 내 자신과 이웃을 사랑하게 되었고 또 미래에 대한 자신감을 얻었기 때문이다.

부족한 것이 많은 나이지만 나에게 희망과 비전을 준 자원봉사라는 씨앗을 결코 헛되게 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우리 석성아리가 앞으로도 매월 지속적인 자원봉사활동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거동이 불편한 분들께 목욕을 시켜드렸는데 정작 목욕을 시켜드리는 것보다 손발이 자유롭지 못해 옷을 벗기는 것과 자기의 옷이 아니라고 입었던 옷을 고집하는 어른께 새 옷을 입혀 드리는 것이 더욱 어려웠다. 그리고 평소에 우리 4H부에서 연마했던 사물놀이 가락을 연주해 드렸을 때 어르신들이 명실명실 춤을 추시고 손바닥이 아픈 줄도 모르고 박수를 치며 기뻐하셨던 것도 잊혀지지 않는다.

어르신들이 기가하시느 좁은 집에는 많은 장애인들이 살고 있어 접할 기회가 많은데, 일손이 부족했기에 우리 4H부에서는 화장실, 거실, 방을 깨끗하게 청소·유지·보수 작업을 없애고 유리창을 깨끗하게 닦아 거동의 불편한 노인들께서 거실이나 방에서도 편이 잘 보이도록 해드렸다. 청소가 끝나면 자신의 파르너·허트신을 찾아서 도란도란(귀가 어두운 분께는 마차 싸움을 하듯이 크게) 이야기도 나누고 어깨와 팔다리를 주물러 드렸는데 어찌나 말랐는지 뼈만 앙상하게 남았다고 할 만큼 여윈 몸이 만져질 때는 참 가슴이 아팠다.

사론의 집에 계시는 어른들도 가끔은 젊었을 때를 회상하며 이야기를 하고 건강이 온전치 못한 자신의 걱정보다 멀리 떠난 자녀들을 걱정하며 눈물을 흘리시기도 했다.

올해 9월 23일에 찾아가서 함께했던 제2회 수린목 가요제에서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우리들의 어설픈 사물놀이 가락에도 흥겹게 박수를 보내주시는 때는 학생과 지도교사 모두 눈시울이 붉어지며 지속적으로 찾아와서 우리들의 작은 공연을 보내드려야겠다는 다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다. 장애우와 친구 되기 활동



▲장애우와 협동화 그리기로 하나 되기



▲장애우와 함께 토마토 밭에서

올해 우리 4H부는 저금리정책과는 다른 새로운 봉사활동의 형태로 '지역에 있는 저산정봉회'를 찾아 장애우들과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인문계 '고등학교' '학교' 수업에 취장을 중시·않는 범위에서 봉사활동을 실시해야 했기에 우리 학교의 '개교기념일'인 6월 7일에 체험학습 겸 봉사활동을 하기로 회의를 통해서 결정했다.

처음에는 장애우들과 만나본 경험이 거의 없었기에 많은 걱정을 했었고, 미리 성봉학교로 전화를 드려서 우리들이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이나 행동이 있는지 선생님들께 여쭙어 보았다. 그러나 이런 우리들의 걱정이 말 그대로 헛된 것이었음을 장애우들과의 첫 만남에서 자연스럽게 깨달을 수 있었다. 눈이 좋지 않은 사람이 안경을 쓰듯이 장애우도 단지 몸의 일부가 좋지 않은 것이라는 선생님의 설명은 우리들의 편견을 깨고 친구가 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우리는 시각 장애체험과 간단한 수화를 배우고 장애우들과 함께 떡볶이를 만들어서 맛나게 먹었고, 한 장의 캔트지에 장애우와 우리가 함께 사는 세상을 협력하여 그릴 수 있었으며, 그들이 가꾸는 고추, 토마토, 참외가 심겨진 밭에 함께 물을 주고 풀을 뽑아 주면서 장애우들과 우리가 하나임을 알 수 있었다.

라. 학교를 가꾸며 자신을 찾는 봉사활동



▲365일 꽃피는 학교 가꾸기 꽃묘 심기



▲땀과 노력의 결실체 우리들의 옥수수

1991년부터 2006년 9월까지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지식위주의 대학입시 교육에서 잠시나마 벗어나 화단을 일구며 흙을 만지고 꽃묘를 심으면서 친구와 얘기를 나눌 수 있었고 뽕얇게 마른 화단에 물을 줄 때 촉촉이 젖는 흙을 보면서 다음에 필 꽃들과 말없는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우리가 주로 심었던 꽃 중에는 팬지가 있다. 이 꽃은 이른 봄에 마치 나비를 닮은 듯한 잎사귀를 가져 아지랑이가 피는 화단에서 노랑 나비, 흰 나비들이 무리지어 춤을 추는 듯했다. 여름에는 매리골드가 피었는데 주황색 꽃은 예쁜지만 비가 오면 꽃봉오리가 빗물을 머금어 목이 부러지기도 해서 마음이 아프기도 했다. 가을에 피는 해바라기와 깨꽃이라는 별명을 가진 사루미아가 있는데 너무도 붉은 빛과는 대조적으로 선생님 몰래 꽃을 따서 콩무늬를 빨면 꿀이 나와서 신기하기도 했고, 보고서를 쓰는 지금은 이른 서리에도 굴하지 않고 꽃을 피워 향기를 내뿜는 국화가 다가오는 가을을 실감케 하고 있다.

우리가 심지는 않았지만 4H부 선배들이 심었다는 영산홍이 언덕을 온통 붉은 양탄자처럼 물들이며 담장 옆에 핀 노란 개나리와 함께 봄을 물고 왔고, 오월에는 울타리를 타고 넘는 장미와 벚꽃이 다가오는 여름을 미리 알려주었다.

학교에서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각 학급에서 모아오는 잡다한 쓰레기를 종류별로 분류하여 쓰레기의 발생량을 줄이고,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자원 절약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자신과 친구들에게 실천을 통한 봉사활동을 실시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학교를 가꾸고자 노력하고 있다.

마. 식량무기화의 파도에 신음하는 농촌일손돕기 봉사활동

우리는 태어나면서 음식을 먹고 그것을 마치면서 죽는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렇게 기본적인 먹거리의 생산이 시대가 변화했다고 해서 그 중요성이 약화될 수

는 없다는 것을 누구나 인정하면서도 현실은 농촌을 외면하고 우리들의 먹거리를 남의 손에 의지하고 있다.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코앞에 닥친 대학 입시를 위한 공부도 소중하지만 우리들과 후손들의 식량 주권을 지키기 위한 사투를 벌이고 있는 농촌의 현실을 직시하고 농부들의 흙 물은 손을 마주잡을 수 있는 실천도 중요하다. 이 생각에서 농촌 일손돕기 봉사활동을 계획하고 고구마 심기에서 거두기까지 함께 참여하였다.

V. 사랑 나눔에 대한 평가

1. 사랑 나눔의 효과

이제까지 실시했던 무의탁 어르신 자녀 되기, 농촌일손돕기, 학교 꽃 가꾸기,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봉사활동을 실시한 결과 학생들은 자신의 시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고, 집에서 항상 어린 아이처럼 부모님께서 모든 것을 해 주길 바라던 태도를 버리고 자신이 할 일은 자신이 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시대의 변화에 따라 일반화된 핵가족화의 영향으로 조부모님들과 떨어져 살더라도 먼저 전화를 드리며 다시 한 번 웃어른의 고마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더욱 바람직한 변화는 학생 자신 뿐만 아니라 학부모님들도 바쁜 사회생활 중에도 자녀들의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지역적 특성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노인들이 사는 곳이 교통이 좋지 않은 곳이므로 아버지들은 자동차를 태워 주는 일에서 시작하여 노인들의 생신상을 차리는 데 필요한 케이크를 제공하기도 하고, 미장원을 경영하시는 어머님께서 학생과 동행하여 거동이 불편하여 미장원을 찾기 어려운 할머니의 머리를 깎아주시는 따뜻한 동참을 해 주시기도 하여 효 실천의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됨을 느낄 수 있었다.

2005년 가을, 찬바람이 일면서 겨울이 되자 할머니를 생각하며 온 가족이 집에서 김장을 담아서 학생과 함께 무의탁 어르신을 찾아 위로해 드리는 모습이 자연스러운 것도 4H부 봉사활동의 가슴 뿌듯한 효과라고 아니 할 수 없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학교에서 꽃 가꾸기를 통한 자기 찾기 봉사활동에서는 꽃을 보는 것은 누구나 좋아하지만 그 꽃이 피기까지의 어려움은 생각하지 않았던 학생들이 흙을 만지고 물을 주면서 농민들의 어려움과 생명의 가치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길가에

핀 야생화를 아무 생각 없이 꺾고 흙과 거름을 만지는 것을 꺼려했던 학생들이 조금은 서늘고 어색하지만 자연스럽게 만지게 되고, 공부하는 짝꿍이 화단을 거닐며 자신들이 가꾼 꽃들을 친구들에게 설명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

2. 어려웠던 점과 변화된 모습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을 가야 하는데 개인 공부를 해야 할 주말에 봉사활동을 하는 것을 처음에는 못마땅해 하시던 부모님들이 간혹 있었다. 그러나 우리 동아리는 학교 홈페이지에 봉사활동과 관련된 공지사항이나 활동사진을 공유하여 학생들의 봉사활동 참여 의욕을 높이고 봉사활동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함은 물론 학생들이 활동을 하고 돌아와 노인들과 함께 했던 학생들의 경험을 듣고 난 이후 이제는 부모님들도 학생들의 봉사활동에 흔쾌히 참여하게 되었다.

처음에 무의탁 어르신과 장애인 봉사활동을 계획했을 때 핵가족화의 영향으로 노인들을 친숙하게 접하지 않던 학생들도 정작 한 번 봉사활동을 해 보고 나자 노인들을 대하는 것이 무척 자연스럽게 되었다는 점이다. 무의탁 어르신 봉사활동을 시작한 지 3년째 되면서 이젠 주말이 되면 우리 4H부 학생들은 아주 바쁜 일이 아니면 홀로 계신 할머니를 찾는 것이 당연한 일과가 되었다.

특히 사론의 집에 사시는 장애인들의 경우 많은 분들이 적은 공간에서 살고 있고 기저귀를 차고 있는 분들도 있어서 췌퀴한 냄새가 나서 학생들이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도교사와 함께 노인들을 목욕시켜 드리고 기저귀를 갈아 드린 후 깨끗한 옷으로 갈아 입혀 드리는 봉사활동의 결과 이제는 추운 밖에서 유리창을 닦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방에서 인마를 하고 말벗을 하게 되었다.

농촌일손돕기와 학교에서의 꽃 가꾸기 봉사활동에서도 처음에는 다른 학생들과 같이 흙과 거름을 만지는 것이 지저분하고 힘들게 생각하여 선뜻 나서지 못하고 머뭇거리던 학생들이 전공이 농업인 지도교사의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며 참여하여 자신들이 정성들여 키운 꽃을 보고 다른 친구들에게 자랑하면서 꽃 가꾸기에 동참하게 되었다.

어려웠던 점	변화된 모습
학생들이 무의탁 어르신을 막연히 가까이 하기 어려운 분들이라는 선입견과 어르신들이 학생들을 불편해 함	처음의 생각과는 다르게 직접 무의탁 어르신들을 만나고 얘기해 보면서 자연스럽게 해소되고 지속적인 방법으로 오히려 기다리심
장애우와 장애인들은 정상인과는 다른 사람으로 생각하고 어떻게 대해야 할지 막연한 두려움을 가짐	장애우들이 먼저 밝고 스스럼없이 학생들에게 다가가고 지도교사가 먼저 다가와 장애우들을 대하자 학생들도 거부감 없이 받아들임
농촌일손돕기 봉사활동에서 머뭇거리고 쉽게 팔을 걷고 들 어오지 못하며 머뭇거리거나 꽃을 보기는 좋아해도 흙과 거름을 손으로 만지는 것에 대한 거부감	자신이 먹는 곡식과 아름다움에 감탄하는 꽃도 흙과 더러워 보이는 거름이 필요함을 설명하고 지도교사가 솔선하여 흙과 거름을 맨손을 만지면서 학생들도 자연스럽게 동참하게 되면서 해결됨
형식적으로 봉사활동 시간을 채우면 된다는 안이한 생각으로 실질적인 봉사활동 참여 저조	학교 홈페이지 4H동아리방을 활용한 봉사활동 공지사항과 활동 사진 공유를 통하여 봉사활동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
인문계 고등학생들이 대학 입시에 필요한 공부를 해야 할 주말에 봉사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지나친 열려	봉사활동을 다녀온 학생들의 이야기를 듣고 학생들의 태도가 달라진 것을 보며 대학 진학에 실질적인 봉사활동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동참함

VI. 넓혀야 할 사랑의 실천 계획

우리 4H부는 기존의 사물놀이 과제 이수에 2004년부터 새롭게 시작한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도입한 이래 학생들의 봉사 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많은 학생들이 봉사활동에 참여하고자 원하고 있으며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실천으로 연결하기 위하여 서산시종합사회복지관과 협력하여 농촌지역에 살고 계신 보다 많은 무의탁 어르신과 자매결연을 통하여 자녀되기 봉사활동을 확대할 계획이다.

돌아오는 학교 축제에서는 그동안 실시했던 봉사활동 관련 사진전시와 봉사활동 백일장 당선 작품 전시를 통하여 봉사활동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학생들의 봉사활동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사랑 나눔 한마당 공간을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기존에 찾던 '사론의 집', '수린목 요양원', '서림 복지원', '서산성봉학교' 등에 규칙적이고 체계적인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지역 어르신을 학교로 초대하여 사물놀이 공연도 실시하여 학생들에게 봉사는 일회성 행사가 아닌 일상생활임을 깨닫게 하여 봉사활동이 아닌 봉사교육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

특선(충청남도교육감)

징검다리 | 홍산농공업고등학교

대표 | 류병갑



“아름다운 세상으로 가는 징검다리”

I. 우리들 소개

우리들이 자원봉사활동을 목적으로 모이기 시작한 것은 2005년도부터이다. 선생님의 권유로 문제학생 몇 명 성실한 학생 몇 명 나처럼 중학교 때 봉사활동을 하던 학생 약간이 모였다. 이름은 “돔”이었다. 자원봉사활동이 남을 돕는 일이니까 남을 돕는다는 도움의 합친 글자 돔으로 하였으며 건축에서 반구형으로 된 천장이나 지붕을 의미하는 돔에서 동아리 자체를 의미하기도 하는 말로 돔에 여러 가지 의미를 담았다.

공부가 하기 싫어서, 하고 싶은 일이 별로 없어서, 그냥 학교를 다니기 쉬운 지역에 있는 농공업고등학교를 진학한 학생들이니 우리들은 부족한 것이 참 많다. 그런 우리들을 모아놓고 선생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시를 읽어 주셨다.

관점의 차이

'내성적인 학생은 생각을 진지하게 해서 좋습니다.
사교성이 적은 학생은 정직하고 과장되지 않아 좋습니다.
소심한 학생은 실수가 적고 정확해서 좋습니다.
질투심이 많은 학생은 의욕이 넘쳐서 좋습니다.
말이 많은 학생은 지루하지 않아 좋습니다.
자신감이 없는 학생은 겸손해서 좋습니다.
직선적인 학생은 속정이 깊어 좋습니다.'

나는 여기서 감동을 했다. 세상사 모든 것이 이렇게 마을먹기 나름이구나. 그 후로도 선생님은 가끔 우리들에게 그런 감동을 주셨다.

토요일에는 매주 봉사활동을 하며 정말 바쁘게 2005년도를 보냈다. 그리고 2006년은 새로운 활동을 계획하

며 이름부터 바꾸었다. “징검다리” 우리들이 가진 것과 아는 것은 많지 않지만 그래도 아름다운 세상 따뜻한 세상으로 건너가는 돌들이 되어보자는 뜻이다. 지난 2년간의 활동으로 우리들이 이제는 남을 조금이라도 생각하는 학생이 되어가고 있음을 느낀다. 특히 동아리 활동으로 얻은 가장 큰 얻음은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장애인이 되어 정부보조금으로 살아가면서도 봉사활동을 같이 다니는 멋진 선배 단원과 같이 활동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II. 우리들의 흔적

2005년도 동아리 자원봉사활동은 봉사활동이 무엇인지도 모른 잘 모른체 남들이 하던 대로 따라하며 열심히 다녔다.

아동복지시설인 삼신보육원과, 정신지체장애인 생활시설인 밀알의집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학생으로서 봉사활동이 무엇이며,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생각과 봉사라는 것을 배우기 위하여 비교적 다니기 쉽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복지시설에서 활동을 하였다면 2006년도에는 학생 봉사활동의 본연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봉사활동이 무엇인지를 알고 배우기 위해, 자원봉사활동을 알기 위한 여러 시설과 다양한 활동을 하기로 하였다.

또한 선생님의 강력한 권유로 배우는 자원봉사활동을 위하여 떠나기 전에 해당시설의 사전조사활동과 주의점, 시설의 전문지식을 스스로 공부하고 우리들끼리 배우고 가르쳐줌으로써 보다 의미 있는 활동을 하고자 하였다. 또한 활동 후에도 반드시 소감문을 작성하도록 하여 느끼는 자원봉사활동을 하도록 하였다.

연 제	장소 및 단체	활동내용	
2005년	10월	삼신보육원, 일일의 집	청소, 책가방 세탁, 문동화 세탁
	11월	삼신보육원, 일일의 집	청소, 책가방 세탁, 문동화 세탁
	12월	삼신보육원, 일일의 집	김장하기 보조, 청소, 목욕봉사
2006년	4월 20일	장애체험	학교에서 시각장애 체험활동
	4월 26일	사랑의 동전 모으기	학교에서 기아체험24시간 활동 동전 모으기 활동
	5월 06일	삼취복지원	부여보건교사 봉사단과의 합동활동
	5월 06일	사랑의 바자회 운영	학교 축제 때 기증품 및 식품 판매 바자회
	5월 20일	삼취복지원	지체장애인에 대한 예절공부 및 일손 돕기
	6월 03일	부여노인병원	청각장애인에 대한 공부, 청소
	6월 17일	일일의 집	정신지체인에 대한 예절 공부, 목욕봉사, 청소
	7월 01일	부여노인병원	청각장애인에 대한 공부, 청소
	7월 15일	일일의 집	청소, 목욕봉사, 건물공사 돕기
	8월 16일	독거노인 리택안 할아버지	노인 복지 분야 봉사자의 기본예절, 안마
	8월 16일	일일의 집	청각 및 언어장애인에 대한 예절공부, 목욕봉사
	8월 29일	백제문화제 행사참여	부여 구드래 행사장 일원 뒷정리
	10월 01일	백제문화제 행사참여	부여 구드래 행사장 일원 뒷정리

2. 장애체험 활동

장애인의 날(4월 20일)을 맞이하여 학교에서 시각장애 체험활동을 하였다. 눈을 가리고 지팡이 하나에 의지하고 장애물을 피해간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무섭고 힘이든지 알았다. 특히 계단을 내려올 때는 정말로 무서웠다. 체험을 하며 시각장애인들은 얼마나 답답할까 이제야 시각장애인의 점자블럭이나 경사로 등이 왜 필요하며 많이 만들어야 하는지를 알 것 같다. 이런 체험활동을 모든 사람들이 해본다면 장애인들에게 좀 편리한 세상이 될 것 같다.

1. 이동복지시설

■ 삼신보육원

삼신보육원은 부여군 석성면 소재 아동생활시설로 우리들이 작년에 가장 많이 활동을 하던 곳이다. 그곳에 가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부여까지 버스로 30분 다시 부여에서 보육원까지 30분을 가야만 한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버스비도 4000원이나 든다. 너무 많은 교통비 때문에 선생님께서 승용차로 태워다 주신다.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다. 시설도 좋고 봉사활동을 하기에 좋고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들도 많이 있다. 그러나 활동을 마치고 나올 때는 횡수를 거듭할수록 왠지 허전함을 느꼈다. 나중에 느낀 점이지만 우리들이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것도 사람과 사람이 살아가는 삶이라고 본다. 그러나 우리들은 봉사활동을 가면 담당선생님으로부터 일을 지시받고 열심히 활동을 하고 그러다가 확인서 받고 돌아온다. 스스로 위안과 보람과 감사를 부여한다. 우리 동아리가 부족한 점이 많아 아이들과 어울리며 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가지지 못하여 단순한 일손 돕기 정도의 일만을 하다보니 항상 부족하고 허전한 감을 어찌할 수가 없었다. 어떨 때는 아이들 얼굴도 한번 보지 못하고 올 때도 있다. 그럴 때는 되돌아서면 우리들이 무엇을 하였는지도 생각이 나지 않는다. 우리 동아리도 보다 의미 있고 보람을 느끼고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봉사활동을 하였다는 감을 느끼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겠다.

시각장애 체험 활동

- 준비물
 - 흰 지팡이, 안대(삼각건), 각종 장애물
- 활동 방법
 - 2인 1조가 되어 1명은 안대를 이용하여 시각장애인이 되고 1명은 안내자역할을 한다.
- 활동 1
 - 짝과 함께 정해진 코스를 따라 이동하기
 - 목표점을 정하고 혼자 돌아오기(계단 및 장애물)
 - 안내자가 뒤에서 이동을 도와주기
 - 안내자가 장애체험 학생 앞 반걸음 앞에서 안내하기
- 활동 2
 - 1코스 : 정해진 곳에 가서 자신의 물건을 찾아오기
 - 2코스 : 정해진 장소에 있는 전화 이용하기
 - 3코스 : 화장실 이용하기
- 장애 체험시 주의할 점
 - 자칫 잘못하다간 다칠 수 있다.
 - 발을 걸거나 일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 장난은 절대 하지 않는다.
 - 가능한 스스로의 힘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한다.
 - 안대는 체험이 끝날 때 까지 풀지 않는다.
- 정리 학습
 - 시각장애 체험활동 후 느낌을 발표하고 소감문 쓰기
 - 친구가 힘들어했던 점이 무엇인지 알아본다.
 - 시각장애의 어려움을 알고 도와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본다.





안 가졌던 장애인들에 대한 나의 편견을 깰 수 있었고 처음으로 이분들도 나와 똑같은 사람들이구나, 그리고 우리들보다 훨씬 마음이 순수하고 맑은 것을 느낄 수 있었다.



3. 공주삼회복지원(누리재활원)

■ 처음으로 이곳에서...

「내가 왜 '공주삼회복지원(누리재활원)'에...

「학교에서부터 '장애인'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가는 장애인들이 '공주삼회복지원(누리재활원)'에 오게 된 것은 '장애'라는 말을 지극한 곳에서 '천연궁'의 원부로 첫 번째 발문을 부여지역 보건교사 자원봉사 동아리 선생님들과 합동으로 하게 되었다. 이곳을 우리 학교에서는 너무 낯익다. 학교에서 부어, 부어에서 다시 등주까지 단원까지 가이신 했다. 다행히 선생님과, 보건선생님들의 승용차를 타고 편안히 갈 수 있었다. 활동을 하기 위해 앞서 복지원의 복지사님께서 복지원에 관한 일반적인 것과 봉사활동의 의미와 종류, 사회복기시설에 관한 것 등 많은 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다. 그리고 활동할 때 입으라고 노란색 조끼를 주었다. 왠지 새로운 느낌이 들었다. 중학교 입학 때 처음 입었던 교복처럼 무언지 모르는 의욕이 넘친을 느꼈다. 작년에 일년을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다녔지만 이런 교육은 이곳에서가 처음이었다.

그래서 내가 이곳에서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할 것인지 생각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식당 청소부터 시작을 했다. 역할을 나누어서 청소를 했다. 작년도와는 다르게 열심히 하는 우리를 보게 되었다. 딸도 나고 텀기도 했지만, 우리는 그냥 열심히 하였다. 여럿이서 같이 하니 힘이 드는 지도 모르고 주방 바닥 솔질과 옥상 청소까지도 했다.

청소가 끝난 후 보건 선생님들이 하시는 건강 검진 일을 도와 드렸다. 여태껏 봉사활동을 다니면서 청소와 빨래만 하던 것이 생각났다. 보건선생님들의 일을 거들어 드리면서 자연스럽게 정신지체장애인들과 어울리게 되었다. 나보다 어리거나 같은 또래도 있었고 더러는 나이가 훨씬 많은 아저씨도 있었다. 처음으로 정신지체 장애인들과 신체적인 접촉을 하는 것이라 처음에는 왠지 꺼림칙했지만 정신지체장애인들과 어울리면서 그들



나머지 친구들은 재활원 학생들과 노래방기기를 고 놀아주었다.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노래를 매 불렀다. 언어의 표현은 잘되지는 않았지만 노래를 면서 느끼는 감정은 우리들과 큰 차이는 없는 것이다. 그들과 한마음이 되어 어울린다 보니 어느덧 이 흘러 봉사활동을 마치고 집으로 갈 시간이 또 집으로 돌아오면서 많은 것을 생각했다.

나하고 똑같은 학생들인데...

진심으로 반겨주었는데...

노래도 같이 불렀는데...

악수도 여러 번 하였다.

이름은 하나도 생각이 나지 않았다.

다음에는 꼭 이름이라도 알아주고 불러주어야겠

4. 정신지체장애인과 함께

■ 밀알의집

밀알의집은 충남밀알선교단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복지시설로 우리 동아리에서 작년부터 한달에 한번 동을 하는 곳이다. 항상 갈 때 마다 느끼는 일

우리들의 봉사활동을 도와주시는 선생님에게 감사한다.



시절, 어른들이 도와주시는 선생님께 감사한다. 선생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선생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선생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이런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선생님께 감사한다. 선생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선생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선생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그분들은 정말로 자기 일처럼 꼼꼼하고 재미있게 하시는 것을 보았다. 나도 어른이 되면 저와 같이 할 수 있을까 생각해본다.

5. 독거노인 방문

■ 첫 번째 방문

우리 동네에는 혼자사시는 노인 분들이 참 많다. 자식들은 모두 도시로 떠나고 홀로 남겨진 어르신들만 농사를 지으시며 혼자 사신다. 대부분 자식들이 있지만 자주 찾아오지도 않는다. 그런 분들 중에는 자식도 없고 일할 수일이 없어 경제적으로 어렵고 외롭게 혼자

사시는 분이 있으시다. 이런 우리 주변의 어려운 사람부터 관심을 갖고 도움을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시는 선생님을 권유로 새롭게 시작하게 되었다.

우리 가까이에 그런 분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 어디에 계신지는 알 수가 없어서 면사무소를 찾아 도움을 청하였다.

면사무소의 사회복지를 담당하시는 분이 별도로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도움이 필요한 분을 찾아내고 하시는 일을 한다고 한다.

복지사님의 도움을 받아 학교 주변에 7명이 계시지만 도움을 받고자 하시는 분은 한분이셨다. 그리고 활동을 시작하기에 앞서 선생님과 사전 방문을 하였다. 학교에서 멀지 않은 곳에 평소 등하교시에 무심히 지나쳤던 집이었다. 대문을 들어서자 조그만 텃밭과 좁은 집에 체구가 작으신 할아버지께서 반갑게 맞아주셨다.

집은 치우치 않고 사는 내 방보다 깨끗했다. 성격이

친절한 할아버지께서 반갑게 맞아주셨다. 학교에서 멀지 않은 곳에 평소 등하교시에 무심히 지나쳤던 집이었다.

다. 집에서 가끔 설거지 정도는 도와 드려지만 밤하고 반찬을 하는 것은 아무것도 도와 드릴수가 없다.

도시 같으면 푸드 बैं킹이라든가 하는 것이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이런 시골에서는 그런 것이 어디 있겠는가.

다음에 올 때는 학교에서 제빵 실습할 때 할아버지 것도 별도로 준비하여 드리겠다고 다짐한다.

다. 집에서 가끔 설거지 정도는 도와 드려지만 밤하고 반찬을 하는 것은 아무것도 도와 드릴수가 없다.

도시 같으면 푸드 बैं킹이라든가 하는 것이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이런 시골에서는 그런 것이 어디 있겠는가.

다음에 올 때는 학교에서 제빵 실습할 때 할아버지 것도 별도로 준비하여 드리겠다고 다짐한다.

다. 집에서 가끔 설거지 정도는 도와 드려지만 밤하고 반찬을 하는 것은 아무것도 도와 드릴수가 없다.

도시 같으면 푸드 बैं킹이라든가 하는 것이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이런 시골에서는 그런 것이 어디 있겠는가.

다음에 올 때는 학교에서 제빵 실습할 때 할아버지 것도 별도로 준비하여 드리겠다고 다짐한다.





III. 이렇게 변했어요!

2년 동안의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자원봉사활동이란 장애인을 보모로 두고도 남을 위해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자랑스런 두 명의 선배처럼 내가 갈라거나, 여유가 많거나, 시간이 남아서 하는 것이 아니며 나의 작은 정

성으로 사회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다는 작은 열망이 있었을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자원봉사활동이란 장애인에게서도 배우는 좋은 기회입니다. 자원봉사자들은

활동 중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활동 중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활동 중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활동 중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활동 중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활동 중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활동 중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활동 중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활동 중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활동 중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활동 중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활동 중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활동 중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활동 중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장르: 자서전적 글

부록: 노인요양병원

특히 노인요양병원은 중남서부 지역의 노인요양병원으로 학교에서도 갈차 많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 자주 갈 수 있는 곳이다. 간병인 분들을 도와 드리는 일을 했다. 복도 청소, 병실 청소 등을 하였다. 사설병원이라 그런지 깨끗하고 직원들 모두 친절했다. 우리들 말고도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러 나오는 단체도 여러 팀이 있었다. 우리들이 할 일은 별로 없어서 복도나 병실 바닥 청소 정도가 전부였다. 병실청소를 하는 중에 침대에 고통도 모르고 외롭게 누워계시는 노인 분들을 보고 왔다. 아 이런 것이 노인들 아니 우리 부모님의 모습이며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2050/07/01

특선(충청남도교육감)

청양중 예절실천 봉사단 | 청양중학교

대표 | 최희수



봉사활동의 불모지에서

I. 동기

정하여 집중적 정기적으로 활동하여 실질적 도움을 제공하도록 한다.

우리 동아리는 3월은 계획을 세우고 4월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마침 충남 청소년 활동 센터에서 어머니 봉사단의 활동을 지원해주는 가운데 카네이션 만들기를 배워 어머니들은 다시 방과 후에 학생 단원을 가르쳐 꽃바구니와 가슴에 달아드릴 꽃을 만들었다.

활동을 하는데 우리는 처음이라서 경험도 부족하고

다. 대상자와 단원이 결연을 맺고 같은 동기(집단 청소 등), 안마해드리기, 밑반찬 공급, 대상자의 필요와 상황에 따른 활동 및 지원

라. 단원의 학부모가 있을 시는 가급적 같은 조에 편성한다.

다. 조장과 학부모, 담당교사가 협의하여 활동계획을 수립 및 수정한다.

4. 연간 활동 계획

II. 활동 내용 및 실적

우리 동아리는 3월은 계획을 세우고 4월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마침 충남 청소년 활동 센터에서 어머니 봉사단의 활동을 지원해주는 가운데 카네이션 만들기를 배워 어머니들은 다시 방과 후에 학생 단원을 가르쳐 꽃바구니와 가슴에 달아드릴 꽃을 만들었다.

활동을 하는데 우리는 처음이라서 경험도 부족하고

다. 대상자와 단원이 결연을 맺고 같은 동기(집단 청소 등), 안마해드리기, 밑반찬 공급, 대상자의 필요와 상황에 따른 활동 및 지원

라. 단원의 학부모가 있을 시는 가급적 같은 조에 편성한다.

다. 조장과 학부모, 담당교사가 협의하여 활동계획을 수립 및 수정한다.

연간 활동 계획

일자 (기간)	활동내용(주요 항목 기록)	활동장소	활동 시간	참가 인원
4월15일 오후	첫인사, 청소, 풀뽑기 작업, 팔죽 대전	독거노인, 장애인 각가정	2시간	학생30명 학부모10명
4월29일 오후	일반찬 만들어 드리고 청소, 안마, 알벗	학교 가사실, 봉사대상가정	3시간	학생15명 학부모5명
5월4일 오후	카네이션 만들기	학교 가사실	2시간	학생30명 학부모5명
5월8일 오후	카네이션 달아드리고 위로 파티	봉사대상 가정	2시간	학생30명 학부모5명
5월20일 오후	김치 만들어 전달하고 안마, 발돋 각기, 청소	봉사대상 가정	3시간	학생15명 학부모5명
6월3일 오후	청소, 풀뽑기 작업, 알 벗 해 드리기	봉사대상 가정	2시간	학생15명 학부모5명
6월17일 오후	일반찬 만들어 드리기, 청소, 안마	봉사대상 가정	3시간	학생15명 학부모10명
7월15일 오후	수박 파티, 알 벗 해드리기	봉사대상 가정	2시간	학생15명 학부모5명
7월29일 오후	도시락으로 비빔밥 만들어 함께 나눔 1학기 평가회	봉사학부모 가정	2시간	학생30명 학부모10명
8월5일	일반찬 만들어 드리기, 청소,	봉사대상 가정	2시간	학생15명 학부모5명
8월19일	청소, 풀뽑기 작업, 가벼운 외출 도움	봉사대상 가정	2시간	학생15명 학부모5명
8월2일	청소, 안마, 알 벗 해드리기	봉사대상 가정	2시간	학생15명 학부모5명
8월18일 오후	송편 파티, 청소	학교 가사실, 봉사대상가정	3시간	학생15명 학부모5명
10월21일 오후	호박죽 파티하기, 평가회	학교 가사실, 봉사대상가정	3시간	학생15명 학부모10명
11월4일 오후	김장 해드리기	학교 가사실, 봉사대상가정	3시간	학생15명 학부모10명
12월16일 오후	성탄절 파티	학교 가사실, 봉사대상가정	3시간	학생15명 학부모10명

무엇을 어떻게 활동해야 할까 고민하는데 마침 충남 청소년 활동 센터의 도움으로 활동할 내용에 대한 조언을 받았고 또한 동아리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어 지원금도 받게 되어 활동하는데 더욱 힘이 되었다.

5월 6일 우리는 어머니들의 차량 지원과 정신적, 기술적 도움을 받고, 간식을 사 가지고 봉사 대상 각 가정으로 출발했다.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축하해 드리니 아주 기뻐하시며 민망해 하셨다. 우리는 또한 사 가지고 간 간식을 함께 나누며, 특별히 치아가 좋지 않은 때에는 어머님들이 팔죽을 만들어 주셔서 맛있게 드시게 하였다.

또한 6월 18일에는 동아리 정기모임이 준비된 일요일에, 어머니들의 좋은 능력에 힘입어 동아리 정기모임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동아리로 발전시키는 역할을 조금이라도 하려는

어머니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도 택에 와 기다린다고 하셨다. 우리는 그럴 수 없어 병원으로 문병을 갔다. 이 할아버지께서 물감치를 좋아하신다는 사실을 아신 재욱이 어머니가 자주 담가 드리곤 하셨다.

비봉면 강정리 배 순덕 할머니는 거동이 너무 불편하시어서 화장실 출입을 못하시므로 요강을 사용하지어 갈 때마다 요강을 비워드리는데 눈살하나 찌푸리지 않고 깨끗이 닦는 희수의 모습을 보신 함께 가신 어머니가 눈물이 쩡 하시곤 한다며 감탄하신다.

이런 활동을 가끔은 거르는 때가 있지만 우리는 한 달에 두 번씩 토요일에 지속적인 봉사를 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활동에 더욱 힘이 되었던 것은 어머니 봉사단에서 지원해 주셨다는 것이다. 우리 힘으로만은 반찬을 만들기 어려운데 어머니들께서 가르쳐 주시므로 쉽게 할 수 있었고 갈 때마다 차량을 지원해 주셔서 시골 골짜기까지도 편하게 다닐 수 있었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찾지 못하고 서투른 점은 어머니들께서 귀찮게 주셔서 할 일을 쉽게 찾을 수 있었다.

III. 앞으로의 계획

우리 학교로서는 처음 시작한 봉사활동이지만 회원들은 대부분 봉사 나가는 토요일을 기다릴 정도로 재미있고, 또한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 더구나 할머니 할아버님들께서 그 날이 되면 우리를 기다리시므로 우리 역시 책임감을 가지고 다녀야겠다는 다짐을 하기도 한다. 김장철에는 어머니 봉사단과 함께 김장도 해 드릴 계획이며, 추경에는 여러가지 자원봉사도 같이 하고, 여름에는 동아리 정기모임을 준비하고, 가을에는 준비한 장조림을 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 댁을 방문하였다. 특히, 대치면 광금리 김석환 할아버지는 앞을 보지 못하시는데 매월 2번씩 오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을 기억하시고 기다리시면서 할

특선(충청남도교육감)

밝은세상실천단 | 태안여자중학교

대표 | 김미래



Peer Group 중심의 사랑실천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고 싶어요!!

I. 「밝은세상실천단」 운영의 필요성

작년 2005년도에 「꽃밭향기봉사단」으로 활동해 오던 우리는 2006년도엔 보다 나은 봉사활동을 위해 새로운 이름인 「밝은세상실천단」으로 탄생되었다.

오늘날 청소년들은 현실적으로 입시위주의 교육환경 속에서 살고 있어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고, 봉사활동을 하는 방법과 장소를 잘 알지 못한다는 것 등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때문에 많은 청소년이 정해진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서 청소나 캠페인 활동으로 적당히 시간을 때우거나, 무작정 육아원이나 양로원 등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는 일로 그치고 마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그러나, 참된 의미를 갖는 청소년 봉사활동의 정착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제도는 반드시 정착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청소년이 봉사활동을 통해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고 그 과정속에서 낯선 사람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동체 의식'을 배우는 것은 성장과정에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청소년이 지역사회의 주인으로 참여하는 방법을 익히기 위해서도 봉사활동은 꼭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II. 봉사활동 준비 및 탐색과정

1. 준비과정 : 천리 길도 한걸음부터.....

봉사활동은 첫단계인 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옷의 첫 번째 단추를 잘못 끼우면 결국 마지막 단추까지 잘못 끼우게 되듯이 준비활동을 세밀히 하지 않으면 효

과적인 봉사활동이 되지 못한다. 이것은 봉사활동전에 봉사의 참된 의미(봉사 정신)를 가르치는 것이다. 흔히 이러한 준비는 '사전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진다. 사전교육에서는 봉사자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이론과 봉사자의 역할, 자세 등을 가르친다.

따라서, 봉사활동은 '되로 주룩 말로 받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전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봉사활동의 참된 의미를 이해하도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사전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봉사활동에 임하면, 오히려 '되로 주고 흙으로 받는' 꼴이 된다고 판단된다. 사전에 가르쳐야 할 봉사활동의 참의미는 다음과 같다.

첫째, 봉사활동이란 무엇인가?

둘째, 봉사활동은 왜 필요할까? 또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을까?

셋째, 나에게 어떤 도움을 줄까?

넷째,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갖추고 봉사활동에 임해야 할까?

다섯째, 나는 왜 봉사활동을 하려고 할까?

여섯째, 나는 봉사 대상자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복지사의 지원과, 동아리 및 지도교사와 진지한 토론이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다.

2. 탐색과정 : 두 눈을 크게 뜨고

탐색이란 어떤 종류의 봉사활동이 청소년이 하기엔 적합한지 찾아보는 활동이다. 우리 주위에 봉사활동을 할 만한 일은 얼마든지 있지만, 막상 청소년이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봉사활동을 찾기란 생각보다 쉽지 않

다. 탐색활동이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청소년들을 위해 의미있는 봉사활동을 선택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봉사활동의 내용이 청소년의 욕구와 능력에 맞는가?

둘째, 집이나 학교 근처에서 비교적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곳인가?

셋째,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인가?

그러므로 학습시간에 크게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학교의 동아리인 '밝은세상실천단'의 소모임을 만들게 되었다. 학교의 후원과 지도 교사의 열정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계속 운영하고 있으며, 더욱 바람직한 것은 '밝은세상실천단'이 우리 지역에 있는 태안군 자원봉사센터라는 공공시설과 협력관계를 맺어 봉사활동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다는 것이다.

Ⅲ. 활동과정 : 드디어 현장으로....

1. 마음가짐

준비활동도, 탐색도 모두 끝냈다면, 그 다음은? 당연히 수행이다. 봉사활동은 머릿속으로만 하는 이론이 아니라 직접 자기 몸을 움직여 하는 실제 활동이기 때문이다.

수행 과정에서 몇가지 염두해 두어야 할 것이 있다.

첫째, 봉사활동 현장은 학교에서 배운 것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들 수가 있다.

학생들이 가질 수 있는 단편적이고 감상적인 태도에서 실제 복지현장을 통해 봉사의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많은 조언과 격려를 하였다.

둘째, 성실해야 한다는 점이다

정해진 시간에 효과적으로 수행하려면 무엇보다 참가자들이 성실해야 한다. 봉사활동은 늘면서 적당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인 시간을 나누어 이웃을 돕는 일이기 때문이다.

셋째, 대상자에게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점이다.

아무리 성실히 봉사활동을 하더라도 대상자에게 도움을 주지 못한다면 효과적인 봉사활동이라고 하기 어렵다. 사실 봉사자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대상자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넷째, 봉사활동은 다른 관계자에게도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청소년 봉사자가 다른 전문가를 보조하는 활동을 하는 경우 오히려 일을 그르치는 일도 발생할 수 있다.

순발력 있게 현장을 이해하고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다양한 봉사활동 체험이 필요하다.

2. 봉사활동 실적

순	월	장 소	참가인원	활동내용
1	10월 8일	새롬재활원	31명	이불빨래팀
				목욕팀
				환경정화팀
				압뱃안마팀
2	12월 17일	새롬재활원	25명	위문활동팀
3	4월 1일	태안여자중학교 가사실	28명	소양교육
				월체어교육
				월체어 실제 체험
4	5월 2일	독거노인집	12명	봉사 할머니 소개 및 사전교육
5	5월 8일	새롬재활원	31명	노인소양교육
				목욕팀
				환경정화팀
				압뱃안마팀
6	5월 7일	독거노인집	23명	압뱃나누기
7	5월 8일	학교 강당	600명	소양교육
8	5월 20일	독거노인집	12명	압뱃나누기
9	5월 27일	독거노인집	12명	압뱃나누기
10	6월 3일	독거노인집	6명	압뱃나누기
11	6월 10일	독거노인집	7명	압뱃나누기
12	6월 17일	독거노인집	16명	압뱃나누기, 환경정화팀
13	6월 24일	독거노인집	8명	독거노인압뱃나누기
14	7월1일	샘터어린이집	17명	학습도우미
				주변 정리(잡초제거)
				갯벌탐험
				공놀이
				블럭놀이
15	7월 9일	독거노인 방문	7명	독거노인압뱃나누기
16	8월 28일	독거노인 방문	15명	독거노인압뱃나누기
17	9월 9일	샘터어린이집	15명	민 소개알씀
				정리하기
				부엌청소하기
18	8월 9일	독거노인 방문	7명	독거노인압뱃나누기
19	9월 18일	독거노인 방문	31명	독거노인압뱃나누기
				장보기
20	수시	사이버활동	30명	사이버 활동
21	수시	평가활동	30명	평가활동

Ⅳ. 평가 및 결론 : 활동을 마치고...

힘들었던 수행과정도 마치고 마지막 평가

평가를 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봉사활동의 질을 높

봉사상(충청남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소장)

안면도지킴이 | 안면고등학교

대표 | 편미미



<안면도지킴이> 동아리 활동을 통한 바른 인성 함양

I. 이런 동기로 시작했어요.

1. <안면도지킴이> 조직 동기

내가 다니는 안면고등학교는 충청남도 서북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국에서 6번째로 큰 섬이다. 우리 고장에는 꽃지해수욕장을 비롯하여 13개의 아름다운 해수욕장과 사계절 늘 푸르고 곧게 자란 안면송이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다.

2002안면도국제꽃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서해안고속도로의 개통 그리고 최근 웰빙 바람을 타고 많은 관광객이 우리 고장을 찾아와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가곤 한다. 하지만 그들을 맞이하기 위해 무분별하게 개발된 펜션과 이들이 버리고 간 많은 쓰레기와 오 폐수로 인해 아름다운 우리 고장의 환경이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 이에 '우리 고장의 환경은 우리가 지키자'라는 취지를 내걸고 1,2학년 학생을 주축으로 <안면도지킴이>를 조직하였다.

김정호 선생님을 지도교사로 모시고 연간활동계획을 세워 환경보전활동을 전개하여 자연친화정신을 내면화하고 애郷심을 함양하며, 안면도지킴이 내에 공부를 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뜻을 합하여 <한사모>라는 작은 동아리를 조직하여 한자능력검정고시에 대비함과 동시에 바른 인성을 함양하고 학습동기를 유발하여 바람직한 진로 및 진학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II. 이런 계획을 세워 실천했어요.

1. <안면도지킴이> 활동 계획

가. 활동 목적

우리 고장의 자연보호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자연친화

정신과 애郷심을 고취하고 나아가 올바른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안면도지킴이'를 조직하여 활동하고자 한다.

나. 활동 계획

- 기간 : 2006. 3. - 2006. 12.
- 장소 : 안면도내 해수욕장 13곳, 안면도자연휴양림
- 대상 : 안면고등학교 1,2년 학생(34명)
- 시간 : 매월 홀수주 토요일(13:00~)
- 내용 : 환경보전활동, 캠페인활동, 안내도우미활동

다. 연간지도계획

3월	백사장해수욕장 환경정화활동	8월	방포꽃자두에기해수욕장 환경정화활동
4월	삼봉해수욕장 환경정화활동	9월	셋별해수욕장 환경정화활동
5월	기지포해수욕장 환경정화활동	10월	장삼포장곡해수욕장 환경정화활동
6월	안면해수욕장 환경정화활동	11월	문여해수욕장 환경정화활동
7월	빛개해수욕장 환경정화활동	12월	비림아래해수욕장 환경정화활동

라. 온라인상 카페 운영

- 목적 : 우리들의 활동 사진 및 소감문, 우리 고장 소개
- 주소 : <http://www.anmyeon.hs.kr/> (안면고등학교 홈페이지 봉사활동란)
- <http://www.youthclub.or.kr/amdjkmcfe.daum.net/fourleaflove>

2. 〈한사모〉 활동 계획

가. 활동목적

학생들의 특기 적성을 계발하고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배양과 적성에 맞는 진로선택의 기회를 주며, 나아가 학업 성적의 향상을 통한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한사모 동아리를 조직하여 활동하고자함.

나. 활동계획

- 기간 : 2006. 3. - 2006. 12.
- 장소 : 안면고등학교
- 대상 : 안면고등학교 1, 2년 학생 중 희망자(36명)
- 시간 : 매일 오전 8:00 - 8:20, 야간자율학습 시간, 토요일 오후
- 세부사항 : 3월 6일(월)부터 매일 5자씩 읽고 쓰기 실시

다. 연간 지도 계획

3월	한자능력 8급(50자) 지도	8월	우리 교장 지명 일기
4월	한자능력 7급(150자) 지도	9월	한자능력 4급II 지도
5월	한자능력 6급(300자) 지도	10월	한자능력 4급II 지도
6월	한자능력 5급(500자) 지도	11월	한자능력 4급 지도
7월	-	12월	한자능력 4급 지도

라. 온라인상 한사모 카페(다음카페) 운영

- 목 적 : 우리들의 이야기 모음, 우리 교장 소개
- 주 소 : http://www.youthclub.or.kr/amdjkm_cafe.daum.net/fourleaflove

3. 〈안면도지킴이〉 활동의 실제

가. 환경정화활동

1) 백사장해수욕장

백사장해수욕장은 안면도 초입 첫 번째 해수욕장으로 모래가 희고 고와서 붙여진 이름이다. 입구에 백사장항구가 있어 싱싱한 회와 다양한 수산물 등 먹거리를 맛 볼 수 있어 연중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곳이다. 학년 초 빠쁘고 일기가 좋지 않아 환경보전활동을 실시하지 못하다가 5월 13일 처음으로 이곳에서 봉사활동을 실시하게 되었다. 그리고 9월 2일에 다시 이곳에서 환경보전활동을 하였다.

2) 심봉해수욕장

심봉해수욕장은 봉우리가 세 개라고 해서 붙여진 이

름이다. 이곳은 안면도 초입 두 번째 해수욕장으로 아직도 개발이 되지 않아 천혜의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는 아름다운 해수욕장이다. 사라진 사구를 복원하기 위해 3년 전에 모래포집기를 설치했는데 그 효과로 지금은 예전의 아름다운 사구가 되살아나고 있다.

3) 기지포해수욕장

기지포해수욕장은 안면도 초입 세 번째 해수욕장으로 해수욕장 모양이 벼를모양을 하고 있어서 '機池浦'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한다. 이곳에는 태안국립해안관리사무소에서 생태학습장을 설치하여 해양식물과 갯벌체험을 동시에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곳이다. 우리들은 이곳에서 지난 6월 3일 환경보전활동을 마치고 국립공원관리사무소 해양생태계해설사 선생님을 모시고 우리 교장의 해양식물과 갯벌체험을 함께 하였다. 만일 나에게 안면도에서 가장 아름다운 해수욕장을 추천해 달라고 한다면 주저없이 이곳을 추천할 정도로 아름다운 곳이다.

4) 안면해수욕장

이곳 안면해수욕장은 안면도 초입 4번째 해수욕장으로 안면도의 지명을 따서 붙여진 곳이다. 넓은 백사장 과 갯벌체험도 동시에 할 수 있는 곳이다. 해수욕장 인근엔 모 특수군부대 훈련장이 있어 여름에 이곳을 찾게 되면 멋진 사나이들의 훈련 모습을 보면서 호연지기도 키울 수 있다.

5) 밧개해수욕장

이곳은 안면도 초입 다섯 번째 해수욕장이다. 전에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곳이었으나 최근에 해안도로가 생기면서 아름다운 바다를 가장 가까이서 감상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곤 한다. 인근에 멋진 펜션도 준비하다.

6) 두에기해수욕장

이곳은 안면도 초입 여섯 번째 해수욕장이다. 해안도로를 따라 오다 지구대기상관측소 못미처 좌회전하여 들어오면 되는데, 안면도를 처음 찾아오는 사람은 찾기가 쉽지 않다. 해수욕장도의 백사장도 매우 작다. 하지만 조용하고 솔숲이 잘 보존되어 있어 한적한 분위기속에서 요양을 하고 싶다면, 갯바위에서 바다 낚시를 즐기고 싶은 사람은 이곳을 찾아 오면 매우 좋으리라

생각된다.

7) 안면도 일원 탐방

7월 22일 (사)한그루 녹색회의 지원을 받아 셋별해수욕장, 쌀썩은여해수욕장, 국사봉, 호호극장, 문여해수욕장, 장삼포해수욕장, 바람아래해수욕장, 그리고 안면도의 자랑인 안면도 자연휴양림을 탐방하였다. 안면도에서 태어나 자라온 나이지만 셋별해수욕장을 제외한 나머지 해수욕장은 처음 가 보는 곳이다. 특히 쌀썩은여해수욕장은 들어도 보지 못한 곳으로 찾아가보니 너무 아름답고 환상적인 곳이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탐방하면서 자연보호활동도 하고 숲과 갯벌, 사구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된 유익한 시간이었다.

8) 방포해수욕장

방포해수욕장은 안면도 초입 7번째 해수욕장으로 안면도에서 가장 큰 방포항구가 인근에 자리잡고 있어 많은 미식가들이 찾아오고 있다. 백사장은 그리 넓지 않지만, 안면도에서 가장 깨끗한 수질과 확 트인 수평선 너머로 바라보이는 수 많은 섬들은 한 폭을 그림을 연상케 한다. 그리고 인근에 멋진 펜션과 많은 위락시설이 갖추어져 있어 젊은 탐방객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다.



벽늘은 많은 사람들의 감탄을 자아내게 하는 곳이다. 예전의 아름다운 사구에 웅벽을 쌓아 차도를 내어 지금은 군데군데 시커먼 바위가 드러나고 옛날의 아름다운 백사장과 해당화는 찾아볼 수 없다. 특히 2002안면도국제꽃박람회가 이곳에서 개최되어 '꽃과 바다'라는 주제에 걸맞게 많은 관람객들을 황홀하게 했던 곳이다. 그래서인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면도 하면 '꽃지해수욕장'을 연상되어 찾아 오고 있다.

나. 캠페인 활동 및 안내도우미 활동

환경의 중요성을 내면화시키고자 우리들은 환경 포어를 공모하기로 하였다. 6월 5일 야간자율학습 시간에 <안면도지킴이> 회원들은 도서실에서 환경포어 짓기와 안내 유인물, 안면도 홍보 자료를 만드는 시간을 가졌다.

다. 봉사활동 소양 교육

5월 18일 태안군 충청남도청소년자원봉사센터에서 본교 1,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봉사활동 소양교육을 실시하였다.

4. <한사모> 활동의 실제

우리 학교 학생들은 대다수가 학업성취의욕이 떨어지고 목표 의식이 없이 살아가고 있다. 이런 현상은 초등학교 때부터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이 배양되어 있지 않고 대다수의 부모들이 생계를 꾸려나가느라 자녀 교육에 관심을 갖지 못한 것이 주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안면도지킴이> 동아리 회원들도 예외는 아니다. 따라서 이 학생들에게 매일 한자 5자씩을 쓰고 외우게 하여 학습동기유발과 바른 인성을 함양하는데 일조가 되고자 <한사모>라는 작은 동아리를 만들어 활동하고 있다. 이 동아리는 <안면도지킴이> 동아리 회원 가운데 자발적으로 공부를 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모여 별도로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는 작은 동아리이다.

매일 아침 지도교사 선생님께서 5자씩 유인물을 주시면 우리들은 아침 자습시간, 쉬는 시간, 점심시간을 활용하여 쓰고 외워서 하교 전에 선생님께 드리면 선생님께서 현상 지도를 잘 주시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III. 이런 결과도 있었어요.

1) 꽃지해수욕장





에 한창 자라나는 학생들의 점심식사가 가장 문제가 되었다. 다행히 충청남도청소년진흥센터에서 우수동아리로 선정되어 20만원의 지원금으로 부족하나마 간식(빵1개, 우유1개)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학교에서 해수욕장까지 도보로 이동하는 중에 교통사고 위험과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본교 선생님들의 차량을 지원받아 활동하고 있다.

우리 학생 중에는 기차를 타 보지 못한 학생도 많이 있다. 그 정도로 많은 학생들이 안면도에서 태어나 자기 고장을 벗어나 보지 못한 학생들도 많이 있다는 뜻일 것이다. 이처럼 ‘우물 안 개구리’를 벗어나지 못한 우리 학생들에게 (사)한그루 녹색회에서 푸른숲 선도원 모집에 본교 안면도지킴이 동아리가 선정되어 80만원의 지원금으로 그 동안 가 보지 못했던 안면도 남쪽에 위치한 여러 해수욕장을 견학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갖게 되었다.

2. 바다가 살아나고 있어요.

우리들의 환경보전활동을 통하여 지역민들과 탐방객들이 환경보전의식이 고취되었어요. 일례로 사라져가던 삼봉, 기지포해수욕장 사구가 예전의 모습을 찾아가고 있으며, 게, 갯지렁이, 조개 등 바다 생물들이 예전에 비해 많아졌음을 볼 수 있다.

3. 자신감을 갖게 되었어요.

우리 학교 학생들은 대부분 시골의 농어촌에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심성으로는 순박하고 어른을 공경할 줄 아는 매우 착한 학생들이다. 그러나 학업성취도가 매우 낮고 매사에 소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런데, 봉사활동우수동아리에 응모도 하고, 봉사활동을 하면서 지역주민들과 탐방객들의 격려를 받으면서 학생들이 자신감을 갖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학업성취도도 월등히 향상되었다. 나의 경우는 올해 <안면도지킴이> 동아리 회장을 맡게 되면서 책임감과 지도력을 배양함은 물론 성격도 일취월장하고 있다.

4. 환경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 고향에는 전국 어디에 내 놓아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해수욕장이 13곳이 있다. 그 뿐 아니라 곧고 푸른 아름드리 안면송은 보는 이의 감탄사를 연발하게 한다. 이렇게 아름다운 환경이 사람들의 몰지각한 행동으로 인해 바다와 숲이 오염되어 가고 있다.

<안면도지킴이> 활동을 통하여 쓰레기를 무심코 버린 나의 모습을 반성하게 되었고, 환경보전을 위한 내가 할 일을 찾아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있다.

봉사상(충청남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소장)

한마음봉사단 | 온양용화고등학교

대표 | 유진



따뜻한 땀방울로 덮인 따뜻한 세상

I. 작은 땀방울로 커져가는 우리사회

‘봉사란 국가나 사회 또는 남을 위하여 자신을 돌보지 아니하고 힘을 바쳐 애를 쓰는 것’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진실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순수하게 베푸는 것’이 참된 의미의 봉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청소년 연맹’활동을 시작하면서 서부터 봉사에 대해 조금씩 알아가고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용화고에 들어와 공부도 잘하고 뜻 깊은 학교생활을 해야겠다고 생각하며 꿈에 부푼 때에 ‘한마음봉사단’이라는 봉사동아리에 가입하였습니다. ‘한마음봉사단’은 저에게 봉사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봉사단선생님께서 저에게 봉사 활동을 하게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고 방법을 가르쳐 주신 분입니다. 봉사활동을 계획하고 봉사단원을 통솔하시며 보람된 일을 하시는 선생님이 존경스럽습니다. 존경하는 선생님의 뜻에 따라 봉사단원들도 한마음으로 봉사 활동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저희가 주로 한 봉사활동은 독거노인분들을 위한 봉사활동이 많았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면 서부터 나이를 먹으며 세월이 흘러 나이가 더 들면 노인이 됩니다. 자손들이 있어 모실 수 있는 가정도 있지만 외롭고 쓸쓸한 노후를 보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바라시는 것은 물질적인 도움보다는 정이 그림고 사랑을 그리워하십니다. 저의 바램은 노후를 행복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양로원이 많아지고 돈이 없어도 마음 편안히 사할 수 있는 복지시설이 우리 지역에도 많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봉사활동은 정애원이라는 양로원에 방문했을 때입니다. 양로원은 처음 방문하는 것

이기 때문에 많이 긴장하고 걱정도 하며 정애원으로 향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너무 걱정되고 딱딱해서 ‘어떻게 하면 할머니께서 우리를 편하게 생각하시고 마음을 여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할머니께서 우리를 보시고 잠시나마 행복해 하실 수 있을까?’ 선배님과 친구들과 함께 고민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저런 고민을 했던 것이 무색할 정도로 할머니께서는 환한 미소와 함께 저희들을 반갑게 반겨주셨고 저희들이 편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습니다. 저희를 배려해 주시는 할머니께 너무 감사했고 제대로 도와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죄송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시선으로 저희를 바라보시던 할머니의 눈빛에 한편으로는 가슴이 찡해지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친할아버지 친할머니가 된 정애원 식구들을 자주 찾아뵙어서 기쁨과 슬픔을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하면서 봉사의 즐거움과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봉사는 마음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실천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봉사는 어렵거나 거창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따뜻한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봉사를 할 수 있습니다. 항상 첫 봉사할 때의 다짐을 잊지 않고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봉사를 해 나가며, 앞으로 더 많은 사람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봉사를 하고 싶습니다. 또한 봉사를 통해 자신을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을 배워 한층 더 성숙해진 모습으로 생활을 해 나가고 싶습니다.

II. 실천하나하나에 피어나는 행복

땀방울 ①. 쓰레기를 버리는 미운 손 보다는 쓰레기를 줍는 예쁜 손

‘한마음봉사단’은 한달에 두 번씩 정기적으로 거리의 쓰레기를 줍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쓰레기를 주우러 간 날에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 부끄러워 쓰레기를 제대로 줍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번, 두번, 그리고 세 번째 쓰레기를 주을 때에는 사람들의 시선에 의식하지 않고 당당하게 쓰레기를 주을 수 있었습니다. 거리의 쓰레기를 주우면서 가장 뿌듯했던 적은 쓰레기를 버리던 어른이 쓰레기를 줍던 저희들을 보고 얼른 쓰레기를 다시 주워 쓰레기통에 버리는 모습을 봤을 때입니다. 거리의 쓰레기를 줍는 작은 저희들의 행동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잘못된 자신의 행동을 인식하고 고치는 모습을 보면서 이유모를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를 줍는 이 작은 봉사활동은 저희들에게 많은 교훈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생각 없이 버린 작은 쓰레기 하나가 모여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그것을 보는 사람의 기분을 아주 나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한 저는 이 봉사활동으로 환경오염이라는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환경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작은 실천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 앞으로 우리나라가 깨끗해 졌으면 좋겠습니다.

맘방울 ②. 따뜻한 사랑으로 핀 일신원

‘한마음봉사단’에서는 아산에 있는 복지시설 중 하나인 일신원에 봉사활동을 하러 갔습니다. 일신원이란 정신정적으로 쇠약해지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잘 보살펴 드리는 공간입니다. 일신원은 아산 시내에서 멀기 때문에 버스를 타고 간 뒤에도 버스에서 내려 산 위로 한참을 더 올라가셔야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도착해서 저희들을 맞이하여 주신 분은 일신원에서 생활하고 계신 키가 큰 아저씨였습니다. 그 아저씨께서는 긴장하고 있는 저희들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시기 위해 ‘요즘 아이들은 다 키가 크다’고 말하시곤 이런저런 농담을 하시면서 웃으셨습니다. 저희가 일신원에 들어가자 일신원 관리자아주머니께서 저희가 할 일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하게 된 활동은 청소와 종이가방에 끈을 다는 것이었습니다. 우선 저희들은 일신원에서 생활하고 계신 분들의 건강을 위해 마련된 헬스기가 있는 방을 깨끗이 쓸고 닦았습니다. 그리고 종이가방에 끈을 다는 활동을 했습니다. 종이가방에 끈을 다는 것은 일신원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인데, 끈을 다는 활동은 손을 움직여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신원에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의 건강

에도 많은 도움을 준다고 하셨습니다. 종이가방에 끈을 달면서 일신원에서 생활하고 계신 분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어떤 아저씨께서 저희에게 일신원에 오게 된 이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형과 이야기하는 도중에 화가 나서 친 의자에 형의 머리가 깨져서 가족들이 일신원으로 보냈다는 이야기였는데 그 사연을 듣고 가슴이 너무 아프고 찡했습니다. 또 저희들은 할아버지 할머니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었습니다. 저희의 노래를 들으신 할아버지 할머니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같이 노래를 따라 부르시면서 춤을 추셨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기쁘게 웃으시는 것을 보고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등을 돌려 외로워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과 사랑을 가져 더 이상 이런 사람들 세상에 소외되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한 일원이 되어 행복하게 살수 있는 따뜻한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맘방울 ③. 정애원에서의 사랑 나눔

저희 ‘한마음봉사단’에서는 회의를 통해 정애원에 가기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사랑과 음료 그리고 함께 그림을 그릴 색연필과 크레파스를 가지고 정애원으로 갔습니다. 저희들은 먼저 할아버지 할머니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께서는 기대했던 것보다 더 반가워하셨습니다. 처음 보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친손녀를 대해주시는 것처럼 다정하게 맞이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자들은 2층으로 올라가 할머니의 방을 깨끗이 청소해 드리고 할머니의 말동무도 되어드리고 어깨나 팔, 다리를 주물러드렸습니다. 할머니와 말을 나눌 때에는 어떤 말부터 꺼내야 할지 많이 걱정을 했었는데 오히려 할머니께서 저희에게 이것저것 물어봐주시고 저희들을 따뜻하게 대해주셨습니다. 저는 중간에 다른 건물로 잠깐 자리를 옮기게 되었는데 그 곳에서 아주 특별한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방에는 두 할머니께서 같이 목욕을 하고 계셨습니다. 목욕하시는 것을 거들어 주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옷을 입혀드리고 그림도 함께 그리면서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모든 봉사활동이 끝나고 인사를 드리고 나오려는데 꼭 다시 오라는 할머니의 말씀에 가슴이 찡했습니다. ‘한마음봉사단’ 선생님께서도 정애원 할머니 할아버지가 보고 싶을 거라며 정애원에 봉사활동을 하러 많이 오겠다고 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정애원으로의 봉사활동은 단순한 봉사활동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지역

말씀하십니다.

땀방울 ⑥. 정이 많은 정심원 사람들

용화고 ‘한마음봉사단’은 보령 정심원에 봉사활동을 하러 떠났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떠나는 봉사 활동이라 가벼운 마음으로 3시가 넘어 차가 아산을 떠나 보령을 향해 출발하였습니다. 창밖에 풍경을 바라보며 많은 생각들을 하였습니다. 처음 가보는 곳이라 궁금하기도 하고 정심원 가족들을 만날 생각을 하니 마음이 설레기도 했습니다. 정심원에 도착할 때까지 2시간 정도가 걸렸습니다. 차가 정심원에 다 도착해 버스에서 내리는 저희들을 정심원 생활인들이 반갑게 맞아 주셨습니다. 그곳 식구들은 어른이 많고 아이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정심원에 가져다 줄 것들을 차에서 내리고 그것들을 옮겼습니다. 강당에 모여 봉사 단원들이 장기 자랑을 하였습니다. 여학생들은 ‘사랑으로’를 노래로 부르고 플루트로 연주도 하고, 춤도 추고, 연극도 하고, 수화도 했습니다. 저희는 시험을 핑계로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는 생활인들 사이에서 박수도 쳐주고, ‘사랑으로’를 부를 때 저희는 손에 손을 잡고 입을 모아 노래를 불렀습니다. 옆에 계신 분이 무엇을 물어 보실 때면 저는 친절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기만 했는데 제 손을 잡고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안아도 보는 그분들을 보니 저 또한 기뻐서 손을 꼭 잡고 금새 친해져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작아진 옷을 깨끗한 것으로 가지고 가서 전해 주었습니다. 장애를 갖고 있지만 너무 순수하고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분들을 보며 나 자신이 왠지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부터 장애인 복지시설을 찾아가겠다고 마음만 먹고 있었지 실행하지 못한 게 후회됩니다. 사람들은 장애를 가진 사람을 보면 이상한 눈으로 바라봅니다. 바라보는 사람은 생각 없이 눈길을 주지만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그런 눈빛을 보며 가슴에 상처를 받습니다. 장애는 그들이 원해서 가진 게 아닌데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행동은 어리석다 생각합니다. 저는 장애를 가진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있어도 그 사람이 어떻게 저의 마음 받아들일지 몰라서 망설일 때가 많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이런 행동이 잘못 되었다는 것을 알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먼저 마음의 문을 열고 다가서서 도와준다면 그 분들도 저의 마음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이 곳을 오기 전에 저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고통을 몰랐습니다. 내 몸만 건강하면 된다는

것이 당연한 것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장애를 가진 분들을 보면 저희들과는 다른 사람인 것처럼 생각했는데 정상인이나 장애인도 같은 생각과 따뜻한 마음을 가진 평등한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번 봉사 활동을 계기로 앞으로는 우리 주변에 있는 장애인 복지 시설을 자주 찾아가서 이야기도 나누고 청소도 해주고 따뜻한 사랑을 나눠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땀방울 ⑦. 송편 속에 담긴 사랑과 정성

9월 23일 토요일 학교수업을 마치고 학교 가사실에 ‘한마음봉사단’ 친구들이 모였습니다. 저희 ‘한마음봉사단’에서는 올 추석을 맞이하여 뜻 깊은 봉사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학생들과 결연을 맺은 독거노인 분들을 위로하기 위해 마련한 행사입니다. ‘한마음봉사단’을 이끌어 주시는 권차남 선생님과 학교 선생님들께서도 몇 분 오셨습니다. 어머님들께서도 일찍 오셔서 슬읻을 씻고 제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친구 어머니님과 함께 송편 반죽을 도와 주셨다. 같은 반 친구들끼리 삼삼오오 모여서 송편을 빚기 시작하였습니다. 저희 반 친구들은 일찍 오신 어머니 한 분이 송편모양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학생들과 여자 선생님은 예쁘게 송편에 사랑을 담아 빚었습니다. 사랑과 정성을 담아 송편을 빚으니 예쁜 모양이 나왔습니다. 친구들과 열심히 송편을 빚는 모습을 본 어머니께서 솜씨가 좋다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우리들과 선생님, 어머니님이 힘을 합쳐 열심히 만들다 보니 그 많았던 반죽이 송편이 되어 있었습니다. 빨리 송편을 대접해 드리고 싶은 마음에 열심히 송편을 빚었습니다. 어머님들께서는 슬읻을 깔고 찜통에 송편을 맛있게 찌 주셨습니다. 열심히 만들다 보니 어느덧 2시간이나 훌쩍 지나 몸은 지치고 팔은 아프고 손가락이 굵어 잘 펴지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우리의 정성이 가득한 송편을 맛있게 먹을 어린이들을 생각하니 한결 마음이 뿌듯해졌습니다. 다음날 저희들은 학교에 모여 어제 정성을 들여 만든 송편을 가지고 성모복지원에 갔습니다.

저희들이 복지원에 도착하여 제일 처음 한 일은 아이들과 종이접기를 함께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한 종이접기는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종이접기를 통해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었고 아이들과도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점심때가 되자 저희들은 어제 열심히 빚었던 송편을 꺼내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아이들은 송편을 맛있게 먹어주었습

니다. 저는 송편을 맛있게 먹는 아이들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부모님이 없이 서로 의지해 가면서 살아가는 아이들을 보는 것이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반면에 부모님과 함께 사는 제가 너무 행복하게 느껴졌습니다. 복지원원장님께서 “추석을 앞두고 아이들을 찾아준 학생들, 선생님, 어머님들 고맙습니다” 라며 인사를 아끼시지 않으시며 기뻐하셨습니다. 저희 ‘한마음봉사단’은 9월 24일 대전 일보에 나오는 행운을 얻어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앞으로는 성모복지원에 자주 찾아와 아이들에게 더 잘해주고 그 아이들이 커 가는데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송편을 빚고 있는 모습

III. 작은 땀방울로 채워질 나의 행복

봉사활동을 하고나서 저의 가장 큰 변화는 마음가짐

입니다. 저는 ‘한마음봉사단’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난 이후 처음으로 길가에 핀 꽃들을 보며 ‘소중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사람들이 버린 쓰레기를 줍게 되었고, 무거운 것을 들고 가지는 분이나 길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한번 더 눈길이 가게 되었습니다. 교과서에 나오는 이론적인 봉사활동이 아닌 실생활에서 직접 체험해 보고 느낄 수 있는 봉사를 배우게 되어 작은 것뿐만 아니라 더 커다란 봉사활동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학교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해 온 봉사는 시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학창시절에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한마음봉사단’의 대표로써도 열심히 봉사를 실천해야 할 것이며 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힘이 되어 드리고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는 봉사활동을 하고 난 후의 보람과 즐거움을 알게 되었습니다. 봉사활동은 작은 관심과 사랑으로도 실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학생이라 주어진 시간이 그리 많지는 않지만 그 시간을 최대한 활용해 조그만 일이라도 심혈을 기울여 실천할 것입니다. 저는 후일 장성하여 사회 복지사가 되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른들이 편히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요양시설과 장애인들이 마음 편히 지낼 수 있는 시설을 운영하고 싶습니다. 사소한 것에도 제가 아니라 남을 먼저 생각하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기분 좋은 웃음으로 반기는 따뜻한 멋진 마음을 가진 ‘한마음봉사단’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봉사상(충청남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소장)

알곡 | 강경고등학교

대표 | 남석우



참된 봉사를 깨닫고 싶다면

I. 동기

저는 학교봉사활동 동아리를 들면서 처음 봉사활동을 시작 했습니다. 학교에 있는 봉사활동 동아리였는데 그 동아리 이름은 알곡입니다.

동아리 알곡의 뜻은

쪽정이나 잡것이 섞이지 아니한 곡식.

남알로 된 곡식.

짜지를 벗긴 콩이나 팥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입니다.

알곡 식구는 19명으로 한주 한주마다 봉사활동갈 인원을 정해 서로서로 도와가며 봉사활동을 갑니다. 알곡은 14년의 전통의 동아리입니다. 이 동아리에 들기 전에는 제가 했던 주 봉사활동은 그냥 피출소를 가거나 도서관에서 책 정리를 하는 등 그냥 그 다지 느낌이 없는 봉사활동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저나 제 친구들이 알곡에 들어오면서 저희는 주로 장애인분들의 목욕봉사를 갑니다. 저희가 처음에 알곡을 들기 전에는 장애인 봉사활동이 무엇이고 어떻게 가서 목욕봉사를 해드려야 하고 주의할 점은 무엇이며 어떤 마음가짐으로 해야 하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저희는 참된 봉사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했던 봉사활동이 누구를 위해 행하는 것인지 정말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2학년이 되고 제가 이번에 회장이 되면서 조금 더 자주가게 되고 가기 전주에 연락을 드려 3일전에 계획을 세우고 출발을 합니다. 그곳과는 8년 전부터 알면 곳이라 인연이 아주 많은 곳입니다. 저희동아리 원끼리 모여 "사랑우리 장애인 공동체의 집", "강경 조흥아파트 103동 103호"를 여러 봉사활동 동아리와 함께 연합하여 같이 두 곳으로 갈라져 봉사활동을 하러 갑니다.

II. 봉사활동내용 및 실적

그 곳 원장님 과 팀장님도 장애인이셔서 식구들을 보살피시기 힘든 상황인데도 저희가 가면 아주 방긋 웃어 주십니다. 광척 식구 분들은 아홉 분이시고 조흥 아파트는 한분이십니다. 광척에 가면 우선 남자 분들을 목욕을 시켜드립니다. 처음에는 매우 힘들었지만 지금은 익숙해져서 다들 열심히 합니다. 목욕 봉사가 끝난 뒤에는 청소를 해드립니다. 2층집이라 1층과 2층으로 나누어 청소를 하는데 창들도 닦고, 창문을 닦고 있으면 여자애들은 마을에 계신 할머니들의 목욕봉사를 합니다. 목욕봉사를 해드리면 항상 고마워하시는데 저희가 너무 못 해드려서 죄송할 때가 더욱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 계신 장애인 여성분도 목욕시켜 드리는데 언제나 목욕을 시켜 드릴 때면 저희가 이렇게 봉사를 할 수 있음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와서 걸레질, 청소기를 돌립니다. 그 뒤에는 빨래를 해드리는데 그럴 때는 저희 남자들의 힘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할머니께서 항상 혼자 모든 것을 해결 하실 때가 더 많아서 죄송스러울 때가 더 많습니다. 언제나 항상 반갑게 맞아 주심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장애인 식구분들과 타동아리와 연합하여 캠프를 갑니다. 멀리 못 나가는 광척 식구 분들을 위하여 이번캠프는 냇가로 향하였는데 1박 2일에 즐겁고 알찬 시간이었습니다.

원장님께서 아시는 교회로 캠프를 갔는데 식구들과 저희들이 각자 밥도 해먹고 먹여드리고 목욕도 시켜드리고 캠프파이어도 하구 보람된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원장님과 식구 분들이 즐거워하시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았습니다.

그동안 체험하지 못 하시던 것들을 저희로 인하여 체

봉사상(충청남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소장)

옹달샘 발마사지 | 면천중학교

대표 | 박하늬



‘옹달샘 발마사지’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요

I. 시작하면서

1. 옹달샘에 발을 담그면서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정보화 사회가 가속화됨에 따라 우리는 물질적으로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게 되었고 생

심상이다. 많은 학생들이 꿈과 목표를 정해서 정진하기 보다는 하루하루를 때우는 삶을 살아가고 있고 자기 내면의 철학이 없이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태도로 또래들의 부정적인 면을 먼저 모방하려 애쓰고 있다. 둘째, 사회성이 부족하다. 자신이 포함된 집단에서 살

어려한 학교 교육 환경의 영향을 잘 알고 있었고 아이 셋째만은 환경의 장차이다. 아이들은 지카와 들은 카르탈 할애 중화하면서 나는 일체과관도 방관 명하게 각른다. 준비물을 함께 나누어 쓰는데 자작권 함양에서, 작정만 하고 지켜볼 수만은 없었다. 모기가 어렵고 태화화, 합동보다는 폭력과 따 작은 일부터 실천하면서 나와 아이들의 변화를 피해 보 아 데 생활화 되어 있다. 남을 이해하고 돕기 아야했다고 다짐을 했다. 농촌지역의 작은 면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우리학교 의 아이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점은 별로 없어 보이 는 순진한 아이들의 모습이였다. 그러나 아이들의 초롱 초롱한 눈망을 뒤에는 나의 희망과 기대를 단번에 무너 트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숨겨져 있었다. 나를 혼란에 빠뜨리고 당황하게 했던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짚어 보 았다.

첫째, 가치관의 혼란이다.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서 아 이들은 능률만을 강요하는 시대에 살다보니 옳고 그름 의 혼돈 속에서 방황하고 있다. 특히 가족 모두가 생활 에 바쁘다 보니 가정에서의 기본적인 예절교육과 생활 습관은 기대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학벌과 능률을 강조 하는 사회에서 패배감, 박탈감, 좌절감을 먼저 배우기

이런 여러 문제점을 지닌 아이들을 집단체 통해서 공동체의식과 봉사정신을 기르고 민주 질을 지닌 원만한 인간으로 성장하는데 중점을 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아이들이 학교 사회를 통하여 공동체를 위한 약속과 사랑 만 위가며 신나고 즐거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내자, 조력자, 협력자로서 공동체 의식함양을 위한 체험 활동 프로그램을 전개하여 공동체의 중요성을 심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판단했다.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더불어, 함께’ 하는 공동체 적 삶이 얼마나 값진 삶인지를 그들이 스스로 느껴야 한다. 그리고 자신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참고 견디며 남을 위해 배려하는 마음을 키울 수 있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던 차에 발마사지 자원봉사활동을 만났다. 발마사지를 하면서 봉사활동을 하는 것은 생각조차 해보지 못했던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다. 교단생활 20년을 넘어서 무언가 후회하지 않는 결실을 맺어보자고 생각했던 기회가 왔고, 진정한 봉사활동의 의미를 체험하면서 아이들의 의식을 조금이라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하면서 홍보를 했더니 40명이 넘는 학생들이 순수하게 지원을 하였다.

아이들이 희망이었다. ‘옹달샘’ 지기처럼 많지는 않지만 끊임없이 샘솟는 희망의 물을 세상 곳곳에 감로수처럼 물이 스며들 듯이 우리의 사랑도 스며들리라 생각하면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는 초보의 발걸음을 디디게 되었다.

2. 옹달샘 동아리의 활동은

가. 우리는 전문가예요!!

발마사지 교육을 24시간 이수한 학생들로 구성되었다. 철저히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고, 추운 겨울의 어려운 교육도 무사히 통과한 학생들로 구성되어 철저히 마음의 무장이 되어진 민주적이면서 전문가들의 동아리 단원들이다.

나.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한 봉사활동이에요.

봉사활동을 하면서 가장 큰 걱정 중의 하나가 바로 사고 위험이다. 특히 봉사단을 지도하면서 활동을 하다 보면 활동 장소로의 이동이 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당진군 자원봉사센터에서 봉사단원들에게 보험 가입을 약속하였다.

또한 봉사활동시에 가장 큰 애로사항 중의 하나가 바로 이동문제인데 자원봉사센터에서 인근 교회의 차량을 지원해주어서 수월하게 활동을 할 수 있다.

다. 옹달샘의 향기를 퍼트리며..

발마사지를 배우기를 희망하는 후배들에게 계발활동 시간을 이용하여 열심히 지도하고 있다. 현재 1학년 학생들 10여명이 열심히 배우고 있어서 머지않아 아마츄어 전문가들도 봉사활동에 함께 참여할 것이다.

라. 연간 활동을 보면

일자 (기간)	활동내용(주요 항목 기록)	활동장소	활동 시간	참가 인원
2005.11.24-2006.01.06	발마사지 교육	연천중학교 도서실	24시간	25명
2006. 03. 18	발마사지 봉사활동 및 문화봉사	소망의 집	3시간	38명
2006. 04. 01	발마사지 봉사활동 및 문화봉사	소망의집	3시간	13명
2006. 04. 15	발마사지 봉사활동 및 문화봉사	소망의 집	3시간	39명
2006. 04. 29	발마사지 봉사활동 및 문화봉사	소망의 집	3시간	30명
2006. 05. 06	발마사지 봉사활동 및 문화봉사	광영실버 하우스	3시간	15명
2006. 05. 19 -05. 21	청소년 자원봉사 체험 한마당 참가	서울 무역전시관	2박3일	5명
2006. 06. 03	발마사지 봉사활동 및 문화봉사	광영실버 하우스	3시간	39명
2006. 06. 17	발마사지 봉사활동 및 문화봉사	소망의 집	3시간	30명
2006. 07. 01	발마사지 봉사활동 및 문화봉사	광영실버 하우스	3시간	31명
2006. 07. 15	간식 만들어 드리기	소망의 집	3시간	30명
2006. 07. 20	발마사지 봉사활동 및 문화봉사 어머니 봉사단과 함께 삼계탕파티	소망의 집	3시간	50명
2006. 09. 16	사랑나눔 행사 참가-안내봉사	당진 문예의 전당	3시간	40명
2006. 09. 30	추석맞이 송편빚기 행사	소망의 집	3시간	54명
2006. 10. 21	발마사지 봉사활동 및 문화봉사	광영실버 하우스	3시간	30명
2006. 11. 04	발마사지 봉사활동 및 문화봉사	소망의집	3시간	30명
2006. 11. 18	발마사지 봉사활동 및 문화봉사	광영실버하우스	3시간	30명
2006. 12. 02	발마사지 봉사활동 및 문화봉사	소망의 집	3시간	30명
2006. 12. 16	발마사지 봉사활동 및 문화봉사	광영실버 하우스	3시간	30명

II. 씨를 뿌리며

1. 발마사지 전문가가 되기 위한 교육 실시

2005년 11월 24일부터 시작하여 2006년 1월 6일까지 1주일에 2번 2시간씩 6주에 걸쳐서 발마사지 교육을 받았다. 당진군 자원봉사센터와의 협조아래 시작한 발마사지 교육은 처음엔 서로의 발을 만지려니 쑥스럽고 낯서도 추운 관계로 양말을 벗지를 않아서 애를 먹었다. 특히 여학생들은 긴 스타킹을 벗기를 싫어해서 어색한 분위기였는데 한 시간 하다보니 처음의 쑥스러움도 모두 사라지고 땀이 날 정도로 열심히 문지르고 맛사지 해주면서 서로에게 정이 들어갔다.

특히 냄새나는 발을 서로의 친구에게 내밀고 만지고 맛사지 해주다보니 더 깊은 정을 느끼며 서로 친분을 쌓아갔다.

학생들은 봉사활동을 배우면서 봉사활동이 노력봉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어려운 과정도 배우고 인내심도 기르면서 봉사활동에 대한 바른 의식을 정립하는 것

다른 학생들은 방학이라고 즐거워 하면서 방학식에 들어갔다. 우리 용달샘 봉사단은 방학식에도 하얀 발을 들어내며 서로 맛사지 하면서 즐겁게 웃고 소리 내었다.

놀라운 학생 하나가 있는데 이택주라는 학생은 소문난 싸움꾼이고 불성실해서 설마하는 마음으로 지켜보았는데 한번도 결석한 날 없이 24시간을 모두 이수하여 이수증까지 받았다. 놀람기도 하고 흐뭇하기도 하면서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중요함을 느꼈다.

처음 시작은 47명이었지만 마지막까지 이수한 학생은 25명이었다.

2. 따뜻한 사랑을 나누어요

가. 소망의 집에서

드디어 우리가 배운 발마사지 봉사활동을 나가는 날이다.

학생들은 두려움 반, 호기심 반으로 모두 33명이나 신청을 하였다. 용달샘 동아리 회원들과 노력봉사와 문화봉사를 함께 나갈 학생들이었다.

배운 내용을 잊었으면 어쩌나..., 우리가 잘할 수 있을까?... 여러가지로 걱정을 하면서 봉사활동을 기대하였다. 자원봉사센터의 지원으로 교회 차량으로 이동을 하

면서도 아이들 표정은 썩 만족스럽지 않았다. 양손에는 수건과 발마사지 크림과 마사지봉을 꼭 쥐고는 손에 땀을 흘리는 모습이었다.

인근 장애복지시설인 소망의 집에 도착하였다.

처음 온 곳도 아니었고, 자주 찾았던 복지시설이라 낯설지는 않았지만 발마사지 봉사활동은 처음인지라 어색하면서 봉사활동을 시작하였다.

플릴 새라 옆에 유인물을 보면서, 또 옆에 친구들을 훑쳐보면서 조심스레 할머니, 할아버지 발을 마사지 해가는 아이들의 모습에서 가슴 뭉클한 감동이 잔잔히 밀려왔다.

‘이것이구나. 교사인 내가 아이들에게 해 줄 수 있는 것이 큰 것이 아니고, 작은 사랑을 나눌 줄 아는 기회를 많이 갖게 해주고 행동으로 옮기게 해 주는 것, 열기 왕성한 에너지를 남과 더불어 함께 나누면서 아름다움을 서로 가꾸어 나가는 사회를 만들도록 하는 것’이란 걸 생각하고는 나도 모르게 기쁨의 미소가 피어 올랐다.

처음의 어색함은 잠시 아이들은 땀을 흘리면서 몸이 불편한 할머니, 할아버지의 발을 정성껏 주무르고 또 주무르면서 손녀, 손자가 되어 이야기 꽃도 피우는 모습이 보였다. 발마사지가 끝난 아이들은 할머니 어깨도 주물러 드리고 등도 두드려 드리면서 친손주 같은 행동을 보여 주었다.

어느 할머니는 교통사고로 한쪽 다리를 못 들었는데 발마사지를 받고는 들 수 있다면서 일부러 나까지 불러서 보여 주시면서 고맙다는 인사를 수차례나 하였다. 진정으로 그렇다면 얼마나 신나는 일인가? 그것은 아이들에게 미래의 꿈의 결정에도 한 몫을 하였다. 그 아이 꿈이 그날로 의사로 돌아섰다.

자기 중심적인 학생 하나가 있었다. 외동딸로 커서 남의 사정을 헤아리기 보다는 자기의 이익에 우선순을 둔 학생인데 이 학생은 봉사활동이 있는 날에는 자기의 용돈을 털어서 건빵이나 음료수 등을 아낌없이 사가지고 오는 학생이 되었다.

작은 봉사활동이 점차적으로 아이들의 인성과 심성에 용달샘에 샘물 고이며 끊임없이 맑은 물 내뿜 듯 사랑하는 마음들이 서서히 행동으로 나타나면서 이 사회에 스며드는 것을 보았다. 봉사활동을 다 마친 아이들은 아쉬운 작별인사를 하면서 다음기회엔 더 열심히 하리라 결심을 하고 복지를 떠났다.



나. 광명 실버하우스에서

격주로 하기로 한 봉사활동을 이번엔 광명 실버하우스라는 곳으로 갔다. 그곳엔 소망의 집보다는 시설도 깨끗하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적었다. 하지만 모두들 몸이 불편한 장애를 가지고 계셨다.

처음이 아니라 이전 자신감을 가지고 아이들은 시작하였다. 혹시라도 손자 같은 아이들에게 누가 될까봐 발을 내놓기를 꺼려 하시는 할머니도 계셨지만 그럴수록 아이들은 더 따뜻하게 다가가서 봉사하기를 원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누가 시키면 그렇게 할까? 하는 의문도 들었다. 역시 스스로 원해서 하는 봉사이기 때문에 신명나게, 힘든줄 모르고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하는 봉사임을 확인시켜 주었다.

마침 읍지역 고등학생 몇 명도 선생님과 함께 봉사활동을 하는데 청소 및 발일이 주였다. 우리 봉사단이 발마사지를 하는 것을 보고는 신기해하면서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는 발마사지 배우는 것에 대해서 호감을 나타냈다.

봉사활동이 그동안은 노력봉사나 안마 등 위로 봉사였는데 이렇게 실질적으로 전문적으로 행해지는 봉사활동에 대해서 학생들도 긍지를 갖게 되었다.

봉사단원 중에는 예능 방면으로 끼가 많은 학생들이 있어서 발마사지가 끝난 후에는

학생들이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노래와 춤도 추었다. 처음엔 하려고 하지 않던 할머니가 마이크를 붙잡고 노래를 부르시더니 마이크를 놓지를 않으시려 해서 모두가 즐거워 했던 에피소드도 있었고, 어떤 할아버지는 학도가를 구성지게 부르시면서 이렇게 인생에서 즐거워 본 적이 없던 말씀도 하셨다.

모든 감정이 메달라서 감정이 없을 것처럼 보였던 할머니 할아버지의 감정은 무척 따뜻하였다. 감정이 메마른 것이 아니라 표현을 안 하였던 것이 우리보다도 더 풍부한 감정을 가지신 것 같았다. 이상하게도 광명실버하우스 가는 날에는 비가 잦았다. 그래서인지 더욱 풍

성한 감정을 가졌던 것 같았다.

우리 봉사단은 앞으로도 우리를 필요로 하는 곳은 어디든지 찾아가 따뜻함을 전해 주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3. 동달샘 어머니 봉사단과 함께 사랑을 나누었어요.

: 카네이션 만들어 달아드리기

1) 언제 : 5월 4일에

2) 어디서 : 학교에서

3) 무엇을 : 카네이션을 만들어

4) 어떻게 : 복지시설 장애 노인분들께

5) 왜 : 어버이날 사랑을 전달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어머니 봉사단과 특별한 행사를 계획하였다.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구하는 카네이션을 충청남도 청소년 자원봉사 센터의 도움을 받아 직접 카네이션을 만들기로 하였다.

강사선생님은 어머니들이었다.

동달샘 어머니들은 미리 교육을 받아서 학생들에게 카네이션 만드는 법을 설명하시면서 함께 만드는 시간을 가졌다.

집에서 살림만 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다가 선생님이 된 어머니의 모습이 좋은 지 아이들은 종종 어리광 부리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잘 할 수 있는 일도 못한 다면서 어머니의 손길을 기다리는 아이들의 모습에서 몸은 커가지만 아직도 어리구나.. 하는 생각을 하였다.

하나 하나 완성될 때마다 신기해 하면서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천진하기만 하다.

완성된 카네이션은 한개는 엄마, 아빠, 그리고 복지원에 계시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몫으로 예쁘게 꾸미고 또 꾸렸다.

복지원에 갈 때는 어머니들과 함께 할머니, 할아버지의 속옷도 가지고 가서 풍성한 어버이날 행사를 치루었다. 물론 할머니, 할아버지께서는 너무도 기뻐하시면서 눈물까지 보이셨다.

면 그 모든 것이 봉사활동과 이어질 수 있음을 알았다. 나프탈렌을 이용하여 과수원에 새나 곤충을 쫓는 법을 가르치는 학교, 풀빵 기계를 이용하여 저렴한 값에 팔아 남은 돈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학교, 네일 아트로 봉사활동 하는 학교, 빵을 만들어 팔아서 봉사하는 학교 등 단순히 노력봉사만 봉사라고 생각했던 이미지를 과감히 떨쳐 버려야 했던 생각을 하였다.

사회활동을 의무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라 즐거운 오락처럼 여기면서 활동들을 한다.

봉사활동을 실시하기 위해 출발하는 발걸음은 활기찬 출발이었으나 마치고 돌아오는 길은 늘 아쉬움 속에서 발걸음은 무거워지고 뒤를 돌아보게 되었는데 오늘은 함께 먹고 손뼉치고 발마사지 하고 이야기 하고 하니 한 식구처럼 느껴졌다.

사실 집에서도 복날이라고 삼계탕 못먹는 아이들도 많다. 면단위에 위치하고 특히 결혼가정 아이들이 많다 보니 이것 저것 다 챙겨서 사는 아이들이 많지 않다.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 자원봉사자들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 자원봉사자들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 자원봉사자들





초복맞이 삼계탕 잔치 (2006. 7. 20)
소망의 집에서

6. 사랑 나눔 한마당 문화행사에 참여했어요.

가. 언제 : 9월 16일에

나. 어디서 : 당진 문예의 전당에서

다. 무엇을 : 사랑나눔, 한마당 문화행사에 가서 장미 노

골들, 샌드위치와 햄버거를

만들고 나눠 먹었어요.

당진 문예의 전당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서 재미있었어요. 샌드위치를 만들어 나눠 먹었어요. 햄버거도 맛있게 먹었어요. 친구들과 함께 웃고 떠들었어요.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앞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잘 기억하고 있어요.

100명의 아이들이 모여서 한마당 문화행사에 참여했어요. 정말 즐겁고 재미있었어요. 친구들과 함께 웃고 떠들었어요.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잠심도 먹지 않고 일을 하는 학생들도 있었지만 배고픈 줄도 모른다.

오늘 행사엔 연예인도 오고 당진 사람들도 꽤 많이 모였다.

오랜만에 나들이를 해서인지 할머니 할아버지의 표정이 무척이나 밝아 보였다.

여기 저기서 봉사활동을 오신 분들이 꽤 많았다. 우

오늘 이 행사에 참가하여 여러 가지를 보고 배운 것이 오래도록 마음에 남을 것 같다.

봉사활동은 내가 주는 것보다 얻는 것이 몇 배는 많음을 아이들은 진하게 느꼈을 것이다. 앞으로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열심히 참가한다는 아이들이 더 많아진다.



사랑 나눔 한마당 문화행사 참여 (2006. 9. 16)

7. 샌드위치가 너무너무 맛있어요.

가. 언제 : 7월 15일에

나. 어디에 : 소망의 집에서

다. 무엇을 : 샌드위치와 햄버거를 만들어서

라. 몇 명이나 : 30명

다른 프로그램으로 봉사활동을 하기로 계획하였다.

1학년 학생들을 모아서 요리솜씨를 뽑내며 봉사활동을 하는 기회를 주었다.

재료를 구입하여 샌드위치 만드는 법을 설명하고 햄

버거 만드는 법을 설명한 후에 나눠 먹었어요. 정말 맛있었어요.

봉사활동은 정말 재미있고 배울 것도 많아요. 앞으로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열심히 참가한다는 아이들이 더 많아진다.

오늘 샌드위치와 햄버거를 만들어서 나눠 먹었어요. 정말 맛있었어요. 친구들과 함께 웃고 떠들었어요.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봉사상(충청남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소장)

사랑을 찾아다니는 반 | 결성중학교

대표 | 김혜진



숨겨진 사랑을 찾아서

1. '사랑을 찾아다니는 반'이란

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 작은 손길이 모여 이웃과 함

있던 '사랑을 찾아다니는 반'입니다.

는 동아리 소조

한 줄

축기노인 방문 및 위문, 문화재, 환경보존 등 결성중학교를 빛내고 있는 '효동아리' '사랑을 찾아다니는 반'은 그 역사가 깊습니다. 2002년 결성중학교가 교육청 주관의 '시범학교'로 선정되면서 '효동아리'는 '효동아리'라는 이름을 붙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녀는

2. 동아리 활동 방침

홍천군

가, 지역 사회와 연계하여 독거노인 및 노인 복지 사

다녀는

적용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을 실시한다.

다녀는

1. 봉사활동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봉사활동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다녀는

함께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동아리 구성을 위한 활동

다녀는

의회를 갖고 봉사활동에 다녀온 후에는 '봉사활동에 대한

다녀는

한 평가와 함께 소감을 발표하여 반상 및 발전의 자료

다녀는

로 활용한다.

다녀는

다. 호실천 의식의 확산을 위해, 다양한 캠페인 활동

다녀는

을 펼친다.

다녀는

라. 지역사회의 문화재를 이해하고 유적지 주변의 환

다녀는

경을 정확하여 애항심을 기른다.

다녀는

3. 동아리 구성

다녀는

2006년 '사랑을 찾아다니는 반' 동아리는 지도교사에

다녀는

임태수(사회)선생님, 두레장에 김혜진(3학년), 부두레장

다녀는

에 전지영(3학년) 학생을 중심으로 두레원을 크게 위문

다녀는

두레와 환경시설보전두레, 알림두레로 구성하였습니다.

다녀는

비록 두레를 구성하긴 하였지만 실질적인 활동은 모두

다녀는

같이 하기로 하고 기획과 중심 역할만을 담당한다는 구

다녀는

분입니다.

다녀는

4. 동아리 활동 세부 계획

차시	월 일	구 분	영 역	내 용	비 고
1	3/ 18	계 발	기타	부서조직	
2	3/ 27	동 아 리	기타	결성연 방문	

본 동아리 활동을 계획하였습니다. 2006년에는

봉사활동으로 그 범위를 넓혀 독거노인 방문 및 위

활동과 지역 대교산사, 만해 한용운 생가 등의

보호봉사활동, 석당산, 서산 AB지구 등을 찾아

환경보존 봉사활동을 펼쳐 왔습니다. 2005년에

적인 인성교육, 바람직한 예절, 선행 의식을 확산

동아리 명칭을 공모해 '사랑을 찾아다니는 반'으

게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올 해 역시 적극적인 봉사활동 의지를 갖고

동아리 부원과 지도교사를 결정하고 중점 추진

될 독거노인 위문활동의 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소를 찾았습니다. 사회복지계 이오균 담당자님과

담에서 작년 우리 학교와 인연을 맺어 사랑을 주

할머니들 중 두 분이 돌아가시고 한 분은 중환

계서서 봉사활동이 불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올 해는 다른 세 분을 소개 받았습니다.

관내의 할머니께 그리고 복지시설에 계시는

할아버지들께 고사리 같은 어린 학생들의 손길

흡족하실 리 없고, 큰 도움이 되지 못할 수도 있

입니다. 그러나 학생들은 할머니들과의 만남을

어른들에 대한 공경심을 키울 수 있으며, 사랑

사이의 예절을, 또한 사랑을 나누는 법을 배워

3	4/ 8	토요일	위문활동	독거노인 방문
4	4/ 10	동 아 리	환경시설보전	문화재 보호
5	4/ 15	계 밤	위문활동	독거노인 방문
6	4/ 24	동 아 리	기타	4월평가 및5월 계획
7	5/ 1	동 아 리	캠페인활동	효캠페인
8	5/ 6	계 밤	위문활동	장수린
9	5/ 29	동 아 리	기타	5월평가 및 6월계획
10	5/ 30	계 밤	위문활동	독거노인 방문
11	5/ 30	계 밤	환경시설보전	문화재 보호
12	5/ 31	동 아 리	위문활동	독거노인 방문
13	5/ 31	계 밤	위문활동	독거노인 방문
14	5/ 31	계 밤	위문활동	독거노인 방문
15	7/ 10	동 아 리	기타	7월평가 및 8월계획
16	7/ 10	계 밤	위문활동	독거노인 방문
17	7/ 10	계 밤	위문활동	독거노인 방문
18	7/ 10	계 밤	위문활동	독거노인 방문
19	7/ 10	계 밤	위문활동	독거노인 방문
20	7/ 10	계 밤	위문활동	독거노인 방문
21	7/ 10	계 밤	위문활동	독거노인 방문
22	7/ 10	계 밤	위문활동	독거노인 방문
23	7/ 10	계 밤	위문활동	독거노인 방문
24	7/ 10	계 밤	위문활동	독거노인 방문
25	7/ 10	계 밤	위문활동	독거노인 방문
26	7/ 10	계 밤	위문활동	독거노인 방문
27	7/ 10	계 밤	위문활동	독거노인 방문
28	7/ 10	계 밤	위문활동	독거노인 방문
29	7/ 10	계 밤	위문활동	독거노인 방문
30	7/ 30	계 밤	환경시설보전	문화재 보호
31	10/ 2	동 아 리	체험활동	쓰레기 분리수거
32	10/16	동 아 리	캠페인활동	캠페인
33	10/21	계 밤	위문활동	독거노인 방문
34	10/30	동 아 리	기타	축제 준비
35	11/13	동 아 리	위문활동	독거노인 방문
36	11/13	계 밤	캠페인 활동	불우이웃돕기
37	11/27	동 아 리	위문활동	독거노인 방문
38	12/ 2	계 밤	위문활동	독거노인 방문
39	12/16	계 밤	기타	활동 평가



2) 2005년 10월 21일 고영분 할머니(박삼염 할머니)와 박삼염 할머니를 찾아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고영분 할머니는 그 동안 고인이 되셨고, 박삼염 할머니는 중환자실에 입원해 계셔서 지속적인 봉사활동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 4월 6일 사랑을 찾아다니는 반에서는 결성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이오군사회복지사님으로부터 관내에 거주하시는 독거노인 현황에 대해 이야기를 듣고 효 봉사활동을 위해 결성면 성곡리 오할머니, 교항리 이할머니, 용호리 김할머니 이렇게 세 분을 새로 소개 받았습니다.



3) 2005년 11월 16일 노인정 방문
박삼염 할머니가 다니시는 노인정을 찾아가 떡과 다과, 치킨을 준비하여 음식을 나누었습니다. 특히나 치킨은 학교 축제에서 최우수상(장기지랑)을 받은 상품권을 이용하여 마련하여 더욱 호뭇했습니다.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시라고 내복, 목도리, 양말을 선물해 드렸습니다.



II. 활동내용 및 실적

1. 위문활동

가. 면사무소 방문

2005년도에 고영분 할머니와 박삼염 할머니를 찾아 사랑을 나누었으나, 고영분 할머니는 그 동안 고인이 되셨고, 박삼염 할머니는 중환자실에 입원해 계셔서 지속적인 봉사활동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 4월 6일 사랑을 찾아다니는 반에서는 결성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이오군사회복지사님으로부터 관내에 거주하시는 독거노인 현황에 대해 이야기를 듣고 효 봉사활동을 위해 결성면 성곡리 오할머니, 교항리 이할머니, 용호리 김할머니 이렇게 세 분을 새로 소개 받았습니다.

나. 독거노인 방문

1) 2005년 10월 21일 고영분 할머니 방문

평소에도 몸이 편찮으셨던 할머니께서 홍성의료원에 입원하셨다는 말을 듣고 병문안을 다녀왔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일은 무엇일까요? 몸이 아픈데 돌봐 줄 사람이 없다는 것 아닐까요 겨울방학이 끝나고 2006년 신입생들과 함께 찾았을 땐 벌써 고인이 되셨습니다.



4) 2006년 4월 8일 오남순 할머니댁 방문

연세가 90이신 할머니가 살고 계시는 곳을 찾아되었습니다. 첫 방문이라 음식을 준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각자 도시락과 할머니께 드릴 반찬을 준비하기로 하였습니다. 할머니댁에 도착하니 저희들을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마당에 풀뽑기와 집안 청소를 마무리하고 할머니 어깨를 주물러 드렸습니다. 할머니는 무릎이 많이 편찮으셨습니다. 각자가 싸온 도시락을 꺼내놓고 맛있게 점심을 먹었습니다. 서로 자기의 반찬과 김밥을 할머니께 드리려고 다투었습니다. 오랜만에 너무 많이 드신다며 활짝 웃으셨습니다.



5) 2006년 6월 26일 김창금, 오남순 할머니댁 방문
간단한 밑반찬과 간식을 준비하여 할머니댁을 찾아되었습니다. 말벗도 되어드리고 며칠 후에 있을 음식준비를 위한 사전 방문이었습니다. 싫어하지는 음식은 없을 까, 특별히 드시고 싶은 음식은 없을까를 알아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우연히 텔레비전에서는 갈비 광고 방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끄러미 바라 보고만 계시는 할머니를 보며 아이들은 그래, 내일 고기를 꼭 구워 드려라 라고 마음먹었습니다. 할머니들은 무척이나 부담이 되시는 모양입니다. 그냥 놀러 오라는 말씀만 하십니다.

6) 2006년 6월 28일 김창금, 오남순 할머니댁 방문
며칠 전의 사전 방문을 바탕으로 우리가 직접 음식을 만들어 할머니를 기쁘게 해드리기로 하였습니다. 계란말이, 감자볶음, 소시지전을 비롯하여 서툰 솜씨지만 열심히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가사실 한쪽에서는 김이 모락모락나는 밥이 완성 되고 드디어 밑반찬과 밥이 모두 완성되었습니다. 두개조로 나누어 할머니댁을 방문하였습니다. 깜짝 놀라며 우리를 반기시는 할머니께 저희가 직접 만든 반찬이라며 자랑 아닌 자랑을 하였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곧, 고기도 구워 드릴게요. 할머니 죄송해요 맛있는 갈비는 아니지만 양념 주물럭을 준비했어요. 맛있게 드세요. 할머니는 연신 “이젠 시집가도 되겠어”라며 저희들을 놀라십니다. 더욱 더 신이 난 우리는 설거지를 끝내고 할머니의 어깨를 주물러 드렸습니다.



7) 2006년 9월 5일 김창금, 오남순 할머니덕 방문
 아직도 무더운 여름입니다. 할머니들이 이 때 쫓이면 더욱 힘드실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가 좋을까? 백숙과 닭찜을 해드리기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저희들의 정성으로 폭 우려 낸 백숙과 매콤 달콤한 닭찜을 맛있게 드시고 원기회복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김창금 할머니를 오남순할머니덕으로 함께 모셨습니다. 두 할머니와 12명의 아이들 그리고 폭 고아 낸 백숙의 향기가 어우러지는 웃음 한마당이었습니다.

지역 봉사단체에서는 토요일마다 밀반찬을 갔다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할머니들에게 더욱더 필요한 것은 간장 한 가지를 놓고 먹더라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닐까 합니다. 비록 큰 음식점에서 한 백숙보다는 못하겠지만 손자, 손녀들의 웃음이 가장 맛있는 음식이 아닐까 생각되는 하루였습니다.

8) 2006년 10월 3일 김창금, 오남순 할머니덕 방문
 추석 명절을 앞두고 외로우실 할머니를 위해 송편 빚기를 하였습니다. 누구나 집에서 송편을 빚어 보았을 것으로 생각하였지만 대부분 학생들은 송편을 빚어 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집에서는 보통 떡 가게에서 맞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송편 빚기도 해보고 할머니들과 이야기도 나누며 정을 쌓기로 하였습니다. 누가 누가 더 예쁘게 빚을까? 할머니들도 개성 있게 당신들이 원조라고 고집하시며 지원지원하게 잘도 만드십니다. 어느덧 점심때가 되었으나 미처 점심 준비를 하지 못한 탓에 라면을 끓여 드렸습니다. 죄송한 마음 컸으나 할머니는 괜찮으시라며 맛있다고 하셨습니다. 송편 빚기도 끝이 나고 오할머니덕에 모여 송편을 찜습니다. 참으로 쫄깃쫄깃한 것이 맛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저희들에게 송편을 조금 싸 주셨습니다.

모처럼 함께 송편을 만들며 옛날이야기도 듣고 요즘 아이들은 뭘 좋아하는지도 이야기하던 마음 풍성한 시간이었습니다.



다. 장수원 봉사

장수원은 은하면에 있는 노인요양복지시설입니다. 그곳에는 외롭고 병든 노인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 학교의 큰 행사 가운데 하나가 장수원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젠 아이들도 장수원 봉사활동의 베테랑이 되었습니다. 매년 1회 이상 단체봉사활동을 실시하며 개인적인 봉사활동과 동아리를 통한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청소와 일손 돕기, 목욕 돕기, 말벗 되어드리기, 산책 등 다양한 방법으로 봉사활동을 실시합니다. 여러 할머니, 할아버지와 대화를 하다보면 표현은 모두 다르지만 사랑이 가득하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1) 2005년 10월 8일 두레원들의 장수원 방문

계발활동 시간을 이용하여 장수원을 방문하여 청소와 치매노인들, 환자분들의 식사를 도와드렸습니다. 사회복지사님께서 그동안 많이 와서, 이제는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면, 정말 도움이 필요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계신 곳으로 안내해 주셨습니다. 바로 치매에 걸리신 노인들과 거동이 불편하여 치료를 받는 노인들이 계시는 곳이었습니다. 아침 점심식사 시간이어서, 우리 두레원들은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식사하시는 것을 도와드렸습니다. 평소에는 늘 내 입으로만 가져갔던 숟가락이었지만, 다른 사람의 입에 음식을 떠 놓다보니 익숙하지 않아서, 한 숟가락 한 숟가락 정성을 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돌아다니다가 가슴 따뜻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한 할머니께서 거동이 불편하신 할아버지께 식사를 떠 먹여드리는데, 그 손길이 자신의 입에 음식을 떠 넣는 것처럼 매우 익숙해 보였습니다. 여쭙보니 끼니때마다 할머니는 이 할아버지께 이렇게 식사를 떠먹여 드렸다고 하셨습니다. 함께 도우며 산다는 것의 의미를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2) 2005년 11월 15일 장수원 방문

‘함께하는 사랑의 실천 쌀 모으기’ 행사를 통해 모은 쌀로 떡을 만들고 음료를 준비해가 어르신들과 함께하였습니다. 마치 어린아이처럼 다른 분의 떡과 음료수를 탐내고 투정부리는 모습을 보면서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음식이 아닐까 생각도 해봅니다. 요즘의 아이들은 밥과 우리 음식을 싫어하는 것을 자주 봅니다. 우리 땅에서 나는 우리 음식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겠습니다. 장수원에 계시는 분들은 과자나 음료수도 물론 좋아하시지만 떡과 같은 우리 음식과 추억을 더 좋아하시는 듯 합니다.

3) 2006년 5월 6일 장수원 방문

3학년 학생들과 사랑을 찾아다니는 반 두레원들이 장수원을 찾아 청소와 식사준비 및 산보를 하였습니다. 치매 환자들의 공격적인 행동에도 크게 당황하지 않고 심한 욕설에도 웃는 것을 보면 그동안의 경험이 상당했음을 칭찬해 줄만 합니다.



4) 2006년 6월 17일 장수원 방문

1,2학년 학생들과 사랑을 찾아다니는 반 두레원들이 장수원을 찾았습니다. 아직 서툰 1학년이지만 2학년 형들이 하는 모습을 보고 곧잘 따라합니다. 화장실이며 병실 구석구석을 청소할 때면 힘들기도 하지만 형들의 숙련된 솜씨엔 맘을 홀리며 배우기에 바쁩니다.

2. 환경시설 보전활동

가. 2006년 6월 13일 수원 화성 탐방 및 토고전 응원 후 환경정화활동

6월13일은 우리나라와 토고의 월드컵 본선 첫 대화가 있는 날입니다. 우리나라사람이면 누구나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경기입니다. 이번 기회에 학생들에게 꿈도 심어주고 하나 되는 마음 갖기도 겸해서 월드컵 응원을 가게 되었습니다. 경기를 관람할 지역은 우리나라 건축 기술의 백미인 화성이 있는 수원입니다. 우리 토목기술, 건축기술을 몸소 체험하기 위해 행궁과 화성을 답사하였습니다. 이어 저녁에는 목이 터져라 응원을 하고 응원석 주변을 깨끗이 치우는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세계 속에 발전된 우리의 위상과 문화국민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기 위한 활동이었습니다. 12시가 넘은 시간에도 흐트러짐 없이 하나 되는 모습을 볼 때 체험학습의 중요성을 새삼 실감하게 됩니다. 나라사랑과 우리 바로알기에 좋았던 시간이었습니다.



지 짐작하고도 남은이 있다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한마디 불평하는 사람 없이 주어진 일정을 잘 마쳤다는 것은 튼튼한 미래를 보는 것이라 하겠습니까.



동안 큰 활동을 하지 못하시고 방에만 주로 계시기 때문에 건강이 하루가 다르게 쇠약해지십니다. 병원에서는 허리와 무릎의 통증 치료와 물리치료를 받으십니다. 예전에는 병원에 정기적으로 가지 못해 약을 하루 걸러서 드시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5월 말경에는 고혈압 진단까지 받으셔서 이제는 매일 약을 드셔야 합니다.

할머니를 모시러, 집 앞엔 가면, 판공회, 차려와오시고... (The text is partially obscured by a large graphic element consisting of horizontal lines.)



3. 지도교사의 솔선수범 봉사활동

가. 배경

학생들과 사랑을 찾아다니는 반을 운영하면서 독거노인들과 직접 접하게 되었습니다. 독거노인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봉사활동을 한담치고 어디에선가 우르르 몰려와 선물 내놓고 사진찍고 전식을 쏘 빼놓고는 훌쩍 떠나버려 쑥쑥하시던 독거노



봉사상(충청남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소장)

그루터기 | 해미중학교

대표 | 이미소



사랑을 나누는 그루터기가 되자!

I. 그루터기의 탄생

해미중학교는 서산시 해미면에 있는 전교생 371명의 농촌학교로 2005년에 예절실천 봉사단 '그루터기'가 조직되어 해미 인근에 있는 시설에 머물고 계시는 노인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루터기"는 순수한 우리말로 "나무를 베고 남은 밑둥"이라는 뜻으로, 외롭고 힘들게 생활하는 주변의 이웃 사람들에게 훈훈한 마음과 따사로운 손길을 베풀어 모두가 환하게 웃을 수 있도록 하는 섬터와 같은 사람이 되자는 마음을 모아 만들어졌습니다.

지난 해에 '그루터기'의 취지에 동감하는 학생들 23명으로 봉사 동아리가 만들어져 고북면 가구리에 있는 무의탁 노인 수용 시설에 매월 1회씩 방문하여 단원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 함께 하는 시간을 갖도록 계획하고 실천하였으며 올 해에는 선배들의 뜻을 이어 받아 계속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II. 2006 그루터기 구성하기

2006년 3월 10일 모집 공고를 내고 3월 15일 희망서를 받아 35명으로 구성, 출발하였으나 지금 현재는 31명이 맹활약 중이다.

III. 그루터기의 활동 방안

'그루터기'의 지도선생님과 동아리원들이 지혜를 모아 설계한 2006년의 활동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적

- 가. 학생 중심의 자율적인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여 인성 함양에 힘쓴다.
- 나. 효 실천을 통해 이론적인 학습 내용을 행동화 하고, 봉사 후기를 쓰도록 하여 내면화, 생활화한다.
- 다. 효 실천의 확산을 통하여 '좋은 가정, 아름다운 사회 만들기'에 앞장서는 태도를 기른다.

2. 유의점

- 가.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여 효의 실천을 생활화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힘쓴다.
- 나. 동아리원들이 중심이 되어 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다. 활동 후 봉사활동에 대한 평가의 장을 마련하고, 교육 공동체의 공감대를 높이기 위해 활동 소감을 충청남도교육청 홈페이지 '교육마당/예절교육', 에듀스충남 '효와 예절실천을 위한 작은 모임', 충청남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홈페이지, 학교 홈페이지, '그루터기'카페 등에 탑재하도록 한다.
- 라. 봉사활동에 소요되는 자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봉사활동 관련 기관 및 교육공동체의 협조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본다.

3. 월별 활동 계획

2006년에는 아이들과 지도교사가 머리를 맞대고 연간 활동계획을 세우고 다음과 같이 활동하였다. 계획의 쏠점은 할머니들을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그 분들에게 진정 위로가 되어줄 수 있는 봉사활동을 펼치는 데 두었다.

일자	활동내용	활동장소
2006.03.10	봉사동아리 회원 모집공고 및 회원가입	해미중
2006.03.22	동아리 오리엔테이션 및 활동계획 수립	해미중
2006.03.25	샤론의집 방문 노인과의 인사하기	샤론의 집
2006.04.15	무의탁 노인 목욕시켜드리기 및 안마	샤론의 집
2006.05.05	카네이션 만들기	해미중
2006.05.05	카네이션달아드리기 및 썩개떡 만들어 대접하기	샤론의집
2006.05.27	무의탁 노인과 만두 빚어 대접하기	샤론의 집
2006.05.31	제민전: 환경정화 활동	제민전
2006.07.24	수리화채 만들어 대접하기	샤론의 집
2006.07.27	1학기 활동 평가 및 2학기 계획	해미중
2006.08.26	무의탁 노인 목욕시켜드리기 및 안마	샤론의집
2006.08.26	썩개떡 만들어 무의탁노인 대접하기	샤론의집
2006.09.28	샤론의집 방문 노인과의 인사하기 및 안마	샤론의집
2006.11.25	향토 수공예품 전시회	샤론의 집
2006.12.23	동화읽어 달아드리기 및 샤론의 집 위문공연 활동 평가(12월)	샤론의 집
2007.02.14	2006학년도 활동 평가 및 반성	해미중

3) 그 후 5월 5일에는 어머니들과 '그루터기' 동아리원들이 모두 학교의 회의실에 모였다.



4) 이렇게 알린뒤도 불구하고 '그루터기' 회원들은 자신들보다는 어르신들을 위하여 어머니 봉사단의 가르침을 받아 꼬물꼬물 카네이션을 만들었다. 모두들 처음 만드는지라 잘 만들지는 못하였고, 생화보다는 덜 예쁠지 모르지만 정성을 들여 만들었다. 정이 듬뿍 담긴 카네이션과 함께 선물을 들고 샤론의 집을 방문하였다.

IV. 그루터기의 효 실천 봉사활동 이야기

■ 이렇게 실천했어요.



1. 어머니 봉사단과 함께 한 봉사활동

어르신들을 찾아보는 효 실천 봉사활동을 하기에는 아직 어린 우리들에겐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어머니들께서 우리들의 봉사활동에 함께 참여하여 더욱 폭넓은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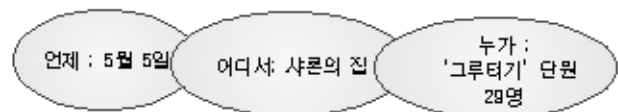
가. 사랑의 카네이션 만들기



1) 5월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그루터기'단원들은 할머니, 할아버지를 찾아 뵈는 준비를 하였다. 5월 5일 샤론의 집에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를 방문할 때 달아드릴 카네이션을 만들기 위해서다.

2) 우리들의 카네이션만들기를 지도하기 위해 어머니들은 5월 2일 충청남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선생님께 만드는 방법을 지도받았다.

나. 썩개떡 만들어 대접하기와 위문 공연



1) 우리 회원들과 어머니들은 썩개떡 재료와 카네이션, 음료수를 들고 샤론의 집을 찾았다.

2) 우리는 먼저 어르신들께 카네이션을 달아 드리고, 합창으로 '어머니 마음'과 '당신은 사랑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노래를 불러 드렸다.

3) 할머니들 중에는 우시는 분도 계셔서 우리의 마음을 정하게 만드셨다.

4) 거실에 둘러앉은 우리들은 떡 만들 판을 벌리고 할머니들과 함께 만들기 시작했다.

5) 먹어보기만 해본 썩개떡을 만들며 우리들은 담소를 나누며 즐거워했고, 이를 지켜보는 어르신들은 흐뭇한 표정을 지으셨다.



< 할머니들 개떡 만들기 재미있지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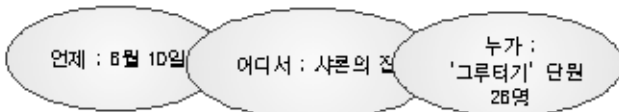


〈썩개떡 만들기〉

6) 다 만든 떡은 사론의 집 여러분과 어머니들이 써서 어르신들께 대접해 드리고 우리도 둘러 앉아 맛있게 먹었다. 즐거운 시간이었으며 친손녀처럼 환한 미소를 띠며 할머니들과 함께 기념사진도 찍고,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는 시간들은 아이들과 할머니들 모두에게 밝은 햇살처럼 행복을 안겨주었다.

7) 집에 돌아간 아이들은 즐거웠던 하루를 뒤돌아보며 자신의 느낌을 적어 까페에 올렸다.

다. 만두 빚기



1) 6월 10일 주5일수업제의 날, 어르신들의 간식을 만들어 대접하기 위해 어머니들과 우리는 아침부터 바빴다. 모처럼 쉬는 토요일인데 늦잠도 못자고 나왔지만 우리의 작은 손길이 어르신들에게 작은 기쁨이라도 된다면 그깟 잠쯤이야..

2) 사론의 집에 가서 어머니들께서 준비해오신 만두 재료로 만두를 만들기 위하여 우리는 모둠, 모둠 모여 앉아 서로의 만두를 비교해 보며 만두를 빚었다. 옆에 계신 어르신들의 눈길을 느끼며 우리들의 마음을 만두에 담아 보았다.

3) 다 빚은 만두는 어머니들께서 써 주셨다. 외모 같지 않게 예쁘게 만든 아이, 대충 대충 오므려서 터진 만두 등 갖가지 만두들이 선을 보였다.

4) 우리는 점시에 예쁘게 담아 음료와 함께 결연을 맺은 어르신들께 대접해 드렸다. 손이 부자유스런 어르신들께는 조금씩 떼어 입에 넣어 드렸다.

5) 그리고 우리가 만든 만두를 담아 놓고 빙 둘러 앉아 모양을 평가하며 만두를 입에 넣었다. 정말 맛있었다.

6) 애쓰시는 어머니들의 이마에선 땀방울이 조금씩

배어 나왔다. 우리와 함께 하시려는 어머니들의 애정이 들쭉 뭉치는 시간이었다

7) 아이들은 재미있었던 하루, 그리고 어르신들을 섬기 위하여 손길을 보냈. 자란다. 봉사활동, 수확활동 올렸다.



〈만두 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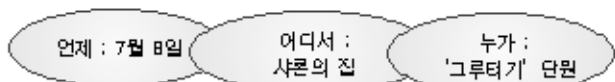


〈만두 찌기〉



〈우리가 만든 만두입니다〉

라. 수박 화채 만들기



1) 여름철 간식은 뭐니 뭐니 해도 수박이다. 더운 여름을 지내실 어르신들을 위해 우리가 만들어 드릴 수박 화채, 여기에 들어가는 재료는 어머니들께서 준비해 주셨다.

2) 기말고사가 끝나고 처음 맞이한 '놀토'가 가까워도 우린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활동을 하러 사론의 집에 갔다.

3) 어르신들께 큰 소리로 줄을 서서 인사를 드린 후 손을 닦고 덩벼 든 것이 바나나 껍질 벗기기, 요구르트 뚜껑 벗기기, 음료수 병 따기, 캔 따기, 여학생들은 수박 썰기를 했다. 얼음이 동동 뜬 수박화채가 먹음직스러웠다.



〈어르신들께 화채를 만들어 드림〉

이런 활동이건 화채를 그곳에 맡겨 마장 결연을 맺은 어르신께 찾아가 이야기를 나누며 구직해 드리며 두리번 두리번 둘러보니, 할아버지가 동리 보고 싶기도 했다.

마. 송편 빚기

연제 : 9월 23일

어디서 : 수린목요양원

누가 : '그루터기' 단원 26명

1) 명절이 되면 유난히 쓸쓸하실 어르신들을 찾아 뵙고 함께 송편을 빚으며 손자 손녀의 정을 느끼시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수린목요양원을 찾았다.

2) 요양원에 계시는 어르신들과 어머니, 그리고 그루터기 회원들이 모듬별로 모여 앉아 반죽도 하고, 미리 준비한 동부 고물로 속을 넣어 주물 주물. 처음 만들어 보는 남자아이, 제법 예쁘게 만드는 여자 아이, 빼어나지는 못해도 봐줄만한 송편도 있고, 너무 커서 만두 같은 송편들...



〈할머니 송편 어떻게 만들어요?〉



〈송편 예쁘게 만들기〉

3) 송편을 열심히 빚는 한편에서는 다 빚은 송편들을 찜통에다 넣어 익히고, 다 찌진 송편은 참기름을 발라

익혀 먹었다. 송편을 빚는 동안, 어르신들과 함께 수박을 먹으며, '수박화채' '자양원'이라고 했다. 어르신들과 '자양원'이 화제에 대한 의견을 가질 때 우리의 송편이 있어 더 즐거워진 것 같다.

2. 무의미한 노인 위문하기

목적노인을 방문하여 효를 실천하는 방법은 다음의 세 영역으로 구분하여 실행하도록 하였다.

'그루터기'의 위문활동 영역

위문활동 영역	활 동 내 용
대화 나누기	대화 나누기, 안마해드리기, 함께 산책하기 등
일손 돕기	집 주변 정리하기, 집안 청소하기, 식사 보조하기, 목욕시켜 드리기 등
위문품 전달	중편, 과일, 베이직, 라면, 1회용기저귀 등
미움 풀어드리기	동화책 읽어 드리기, 게임 등

가. 사람의 대화 나누기

1) 여러 어르신들이 함께 모여 계신 곳에서 항상 계시다 보면 사람이 그리운 것은 당연한 일이다. 특히 거동을 하실 수 없는 어르신들은 늘 침대에 누워 계시기 때문에 사람의 정이 더욱 그리우실 것이다. 이러한 어르신들에게 아이들의 방문은 무척이나 기다려진다. 보다 우리는 '다들 큰 주무라 드려요?' '어떻게 할까요?' '드려야지' '우리를 이야기나 어르신들 건강을 이야기 한다'

'그루터기' 단원들은 1개월에 한번 또는 두번 어르신들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어르신들을 찾아 뵙고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였다.

2) 지난 해 처음 어르신들을 방문하였을 때에는 서로가 낯설어 서먹하기만 하였지만 이제는 정이 많이 들어 어르신들과 나누는 이야기에 스스러움이 없게 되었다. 헤어질 때면 서운해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다음에 또 와”라고 하시는 할머니의 말씀이 너무나도 정겹게 다가온다.



〈 다리 주물러 드리기 〉

나. 일손 돕기

1) ‘그루터기’ 단원들은 어르신들이 기거하는 시설에 도착하면 먼저 인사를 드리고 대화를 나눈 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남은 시간을 이용하여 시설 안팎을 청소하거나, 식사 보조, 손톱 깎아 드리기, 목욕시켜드리기를 한다.

2) 여학생들은 주로 실내 청소를 맡는데 할머니들이 먼지를 마시지 않도록 손걸레를 사용하여 구석구석 걸레질을 하고, 테이프를 이용하여 침대 위의 먼지를 문혀 낸다. 남학생들은 할머니들이 잠수실 감자를 캐기도 하고, 잡초제거, 잔디 심기 등을 한다.

3) 목욕시켜 드리는 옷을 벗기고 입히는 사람 2명,

“처음엔 아무것도 몰랐지만 어르신들이 힘들어 하셨던 시간이 지나갈수록 손에 익게 되었다. 이 일은 정말 힘들었다.”



〈 목욕 시켜 드리기 〉

4) 어르신들은 일손을 돕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시며 고마움을 표현하기도 하고 무척 대견해하기도 한다. 아이들의 작은 노력이 어르신들의 마음을 즐겁게 해드리

고 있음을 알기에 아이들도 일을 하면서 마냥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인다. 사랑은 서로 나누어 가질수록 커짐을 깨닫게 되었다.

다. 위문품 전달

1) 정기적으로 어르신들을 방문할 때면 작은 선물을 전해드리기 위해 필요한 물품을 구입한다.

2) 학교에서는 동아리 지원비가 없어 충청남도청소년자원봉사센터에 우수동아리 활동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 40만원을 지원받았다.

3) 지원받은 돈은 간단한 생활필수품(과자, 과일, 화장지, 1회용 기저귀 등)이나 간식거리를 구입하여 전달하였다.

4) 나눔의 손길에는 물건을 사기도 하지만 우리들이 쌀을 모아 떡을 드리기도 한다.

라. 마음 풀어드리기

1) 처음 우리가 어르신들을 찾아뵙는 때는 프로그램 없이 가기도 했다. 그러나 봉사활동의 참 의미를 깨달으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해 보고 연습하여 프로그램을 가지고 갔다.

2) 프로그램에는 동화책 읽어 드리기, 노래 불러 드리기, 색종이 접기가 있었고, 다음달에는 간단한 게임을 준비해갈 예정이다.

3) 어르신들은 동화책을 들다가 하고 싶은 말씀도 하신다. 그리고 조용히 들으시기만 하는 분들도 계시다.



〈 동화책을 읽어 드려요 〉

3. 나눔의 꽃향기 퍼뜨리기

가. 나눔의 향기가 퍼져가는 사이버 공간

1) 까페 ‘그루터기’를 DAUM에 개설하여 ‘그루터기’

의 활동 내용을 소개하고, 단원들의 소감문을 공유하며, 봉사 정신을 널리 확산시켰습니다.

2) 카페 '그루터기'는 전교생의 대부분이 참여하고 있는 가상공간으로 「의견,자유글」, 「봉사활동 보고서」, 「좋은 글잔치」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 이곳에서는 봉사활동에 대한 공지사항 안내, 활동 후의 아이들의 소감 및 이에 대한 답글 등이 게시되고 있습니다.

4) 학교 홈페이지, 도교육청 홈페이지에도 '그루터기'의 활동과 관련된 글과 사진을 수시로 올려 가상공간을 통한 효과 봉사 정신의 확산을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 나눔의 향기가 퍼져가는 사이버 공간 〉

구분	사이트 명	웹 주소	비 고
교내	다음 카페 '그루터기'	http://cafe.daum.net/true1004	다음/cafe/그루터기
	해미중학교 홈페이지	http://www.haemi.ms.kr	학생마당/봉사활동
교외	충청남도교육청 홈페이지/교육마당/예절교육	http://info.cise.or.kr/@nsung/	예절실천활동/중학교
	에듀스충남/효와 예절실천 작은 모임	http://club.edus.or.kr/happy.do	포토갤러리
	충청남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우리들의 이야기	http://www.bongsai.or.kr/story	봉사활동등 다녀와서

나. 충남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2006년 5월 홈페이지 활용 우수자로 선정되었어요.

말하는 봉사라는 것은'이라는 시를 올렸습니다.

4. 동아리 활동에 대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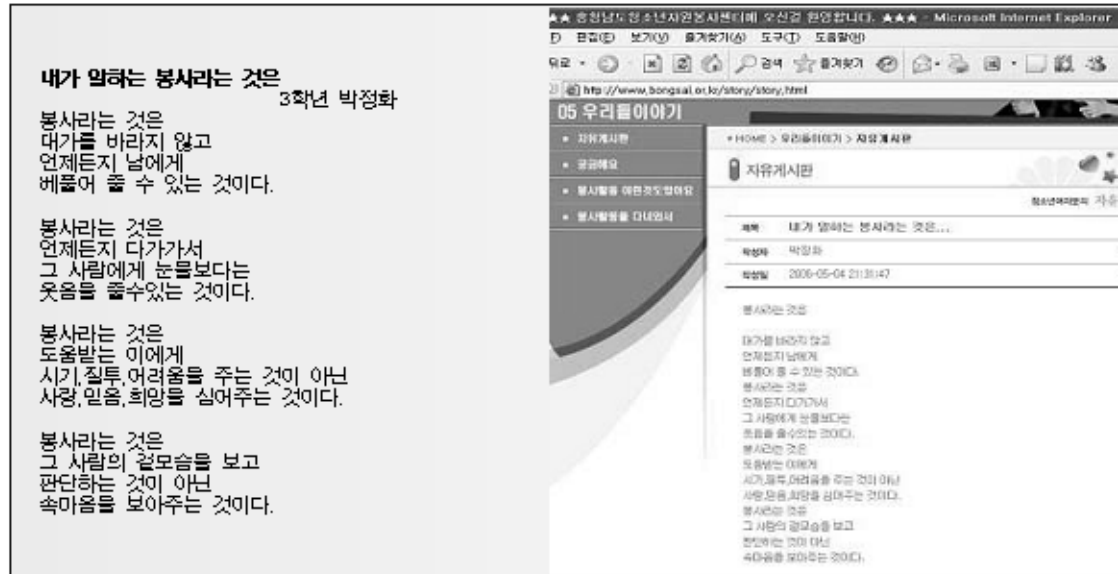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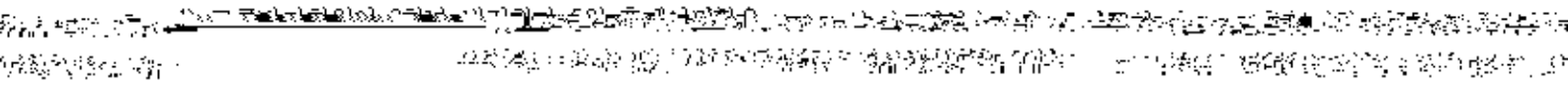
2006년 7월 22일 1학기 동아리 활동을 마치면서 5개월간의 활동내용을 반성하고 2학기 계획을 점검해 보았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회원수는 많아졌으나 참여하지 않는 동아리원이 있었다.
- 2) 어머니들의 지원으로 훨씬 다양한 프로그램이 되었다.
- 3) 선생님의 지도가 없어도 활동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 4) 시험이 있을 때에도 활동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겠다.
- 5) 2학기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하기 위해 방학동안 색종이 접기 등을 해 보자.
- 6) 다음은 1학기 활동을 마치며 동아리원들이 느낀점을 다양하게 표현한 것이다.

V. 그루터기의 활동 성과

1. 행복한 마음이 잔잔히 번져갑니다.

선생님, 친구들과 봉사활동을 함께 하면서 웃어른을 공경하고, 효행을 실천할 수 있는 자세를 기를 수 있었습니다. 행복은 받을 때보다도 줄 때에 더 크게 다가



가슴에 행복이 번져감을 느낍니다. 집에서는 투정과 어리광만 부리던 우리들이 봉사활동을 통하여 성숙해지면서 부모님과 대화도 많아지고, 부모님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어 행복한 삶에 더욱 가까이 다가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참여 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단원들이 함께하는 봉사활동 이외에도 자신만의 계획에 의하여 봉사를 행하는 친구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는 봉사활동을 통하여 단원들 마음속에 긍정적인 변화가 생겨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단원들뿐만이 아니라, 학급 친구들에게서도 관심과 참여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활동을 할 때 함께 하고 싶어 하고, 어머니들도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싶어 하십니다. 또한 선생님들도 조금씩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성과는 그루터기의 1년 선배님들이 작년 지도교사 이셨던 이광상 선생님과 봉사동아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 활동무대인 사론의 집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계신다. 선배님 중에는 멀리 공주에서 공부하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한 달에 한 번 집에 오는 날에 모여 이제는 힘든 일들도 척척 해내고 계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3. 주위의 격려로 봉사활동에 대한 각오를 더욱 새롭게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다.

아직 결성이 된 지 2년째인 동아리이지만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 우리들의 동내용이 학교, 동창회, 지역 등에 조금씩 알려지면서 많은 분들이 칭찬과 격려를 해 주고 계십니다.

Ⅵ. 그루터기의 앞으로의 계획

2006년 ‘그루터기’는 2005년과는 달리 어머니들과 함께 활동하였으며 또한 다른 점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봉사활동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10월 이후 ‘그루터기’는 어르신들을 위한 게임이라든가 색종이접기 등의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으며 연말 위안잔치를 계획중이다.

2005년보다 동아리원들이 많이 늘어난 ‘그루터기’는 내년 2월에 있을 평가 작업을 거쳐 봉사활동 전반에 대한 반성의 시간을 갖게 될 것이며, 새로운 변화가 시도 되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앞으로는 전 동아리원들이 흥미있으며 보람을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주력하여 2007년에는 더욱 성장된 모습의 동아리로 거듭나길 기원한다.



제8회 청소년자원봉사박람회

- 문예부문 -

| 체험수기 |

※ 수상자들의 자료가 너무 많아 다 실지 못하고
중요부분만 요약하였습니다.

[체험수기]

상 명	수상자	학교명
최우수상 (충청남도지사)	이종선	홍신농공업고등학교 3
	이재일	서령중학교 1
우수상 (충청남도교육감)	김의주	병천고등학교 2
	김영란	금호중학교 2
특선 (충청남도교육감)	양은지	청양여자정보고등학교 2
	박현아	온양용회고등학교 1
	강윤하	광석중학교 1
	조정희	온양용회중학교 3
봉사상 (충청남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소장)	김슬기	홍성여자고등학교 1
	장용익	청양정신고등학교 3
	신세리	공주금성여자고등학교 2
	김요셉	강경고등학교 1
	이경호	논산고등학교 2
	호종원	합덕중학교 3
	김범유	조치원중학교 2
	서보람	정신중학교 3
	이미영	석문중학교 1
	김에스더	대술중학교 2
	안새롬	순성중학교 2
	이가연	연동중학교 2

이런 친구가 같이 봉사활동을 하겠다는 것이다.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할 수 있지만 본인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할 처지에 남을 돕는 일을 하겠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친구들에 비하면 나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모른다. 건강하시고 자상하신 부모님과 공부도 잘하는 예쁜 여동생이랑 아무런 걱정 없이 살고 있는 나는 정말 행운이다. 나는 이런 두 친구를 존경한다. 이런 좋은 친구들과 여러 사람들이 보람 있는 일을 같이 할 수 있다니 정말 좋은 동아리라이다.

인원이 늘어가자 봉사활동을 하는 곳도 더 넓혀 갔다. 새로 시작한 곳은 부여읍에 있는 “삼신보육원”으로 “밀알의집”과 교대로 나누어 가기로 했다. 삼신보육원은 어린아이들이 있는 곳이다. 처음 갔을 때 밀알의 집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깨끗하고 좋은 시설이었다. 건물도 크고 다른 학교에서 봉사활동 온 학생들도 있었다. 여태껏 다니던 “밀알의집”도 이랬으면 좋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다. “삼신보육원”에서 시작한 일은 잡초제거, 청소, 빨래 등 여러 가지 일들을 하였다. 조금 힘들긴 했지만 여기 있는 아이들이 깨끗한 옷을 입고 깔끔한 집에서 산다는 생각을 하니 더욱 열심히 하게 되었다. 봉사활동이 끝 나갈 때 좀 어디서 어린아이 한명이 와서 우리보고 가라는 것이다. 어리둥절했다. 그때는 그 아이의 생각을 몰랐었다. 봉사활동이 끝나고 선생님 차를 타고 집으로 갈 때 벽 뒤에 숨어서 그 아이가 우리를 보고 있었다. 그때 생각했다. ‘저 아이의 본심은 우리들과 놀고 싶어 하는구나’하고, 나중에 가면 친형처럼 잘 대해줘야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그곳에서는 항상 같은 일과 노력봉사활동만 하느라 아이들과는 별로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이 지금도 아쉬움으로 남는다.

봉사활동을 하며 이런 저런 일이 있었지만 나의 첫 번째 봉사활동인 목욕봉사활동은 잊을 수 없다. 지금 생각해 보면 어색해 하며 아무것도 몰랐던 나와 지금의 나는 하늘과 땅 차이인거 같다. 봉사활동이란 동아리를 만들어 처음 시작했을 때는 아무것도 몰라 그냥 시키는 대로 닦아 드리고 청소만 하면 되는 줄 알았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시키는 대로 닦아 드리고 청소만 하는 것이 아닌 그분들과 마음이 통해 어딜 어떻게 닦아 드려야 할지 어떻게 청소해야 할지를 아는 것 같다. 2년 동안 봉사활동을 하며 52시간이란 조그마한 시간을 투자 했지만 19년을 살면서 이렇게 보람 있게 산적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짧은 2학년을 마치고 3학년에 올라오게 되었다. 3학년에 올라오면서 봉사활동 이끌어주시던 선생님께서 다른 곳으로 가지게 되었다. 다른 선생님이 맡아 주셨다. “작년엔 선생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는 몰라도 올해에는 나하고 열심히 해보자” 라는 말에 우리는 힘이 생겼다. 3학년에 올라와선 봉사활동 내용과 동아리 이름도 새롭게 한번 바꾸기로 하였다. 작년도의 봉사활동이 주로 노력봉사활동으로 우리들에게 봉사활동이 무엇이지를 알게 하였다면 올해에는 조금씩이나마 제대로 알고 활동을 하기로 하였다. 그래서 이름도 하참은 돌이지만 개울을 건너게 해주는 징검다리처럼 우리들도 무엇인가를 위해 한 발짝 한 발짝씩 나아가기로 하는 뜻에서 “징검다리”로 정하였다.

삼신보육원과 밀알의집 두 곳만 활동하던 것도 올해에는 밀알의집은 고정적으로 가고, 비교적 자원봉사활동하는 사람들이 많은 삼신보육원은 빼고 다른 곳으로 바꾸기로 하고 다른 곳을 구할 때 까지는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봉사활동을 하기로 했다. 그리고 “밀알의집”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여 가기가 더욱 힘들어 졌다고 하였다. 하지만 선생님께서 태워주신다는 말에 우리는 선생님께 고마울 따름이다. 부여에서도 버스타고 20분 다시 걸어서 30분 거리에 있는 밀알의집으로 봉사활동을 가는 날, 꼬불꼬불 산길을 올라 도착한 밀알의 집, 밀알의 집 식구들이 전보다 더 늘어난 것 같았다. 새집이라 그런지 좋아 보이고 거기 계신 분들도 건강해 보였다. 하지만 그전 밀알의 집은 가기 쉬운 곳에 있어 다른 사람들도 봉사활동을 올수 있지만 이곳은 너무 가기가 힘들어 어떨는지 걱정이 된다. 밀알의집에 도착해 우리가 평소 하던 목욕봉사를 하였다. 그전 밀알의 집은 따뜻한 물도 잘 나오지 않아 고생이 많았었는데 새집은 따뜻한 물도 잘나오고 목욕탕도 커서 여러 사람이 함께 할 수 있어 좋았다. 지난 1년 동안 밀알의집 식구들은 이전 가족 같은 분위기로 되어 가고 있다. 목욕봉사를 하며 서로 도와가며 닦아주고 챙겨주면서 봉사자와 도움을 받는 자에서 하나의 가족으로 바뀌어 가는 기분이 든다. 앞으로 남은 몇 달 동안 열심히 그분들을 도와 줄 수 있는 내가 되어야겠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가서도 밀알의집 식구 들 만큼은 꼭 찾아보고 싶은 나의 바램이다.

올해 다시 시작한 밀알의집 봉사활동은 건물이 달라진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또 다른 봉사활동이었다. 올해 선생님께서는 “아는 만큼 보인다.”며 활동을 나가기 전

에는 반드시 사전조사 및 관련 공부를 해야 한다며 돌아가면서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사전조사 및 관련사항을 공부하여 다른 단원들에게 발표하기로 한 활동 덕이다. 지체장애인과 신체장애인이 무엇이며 정신지체장애인,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 노인봉사활동, 복지시설의 종류, 장애인에 대한 예절 등 많은 것을 공부했다. 예전에는 아버씨의 몸이 왜 저렇게 불편하실까? 저 아버씨는 왜 말을 못하시나?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보지 않았었

다. 그러나 이제는 좀 알 것 같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가라고 하면 그 아이의 마음과 목욕봉사활동을 하면서 느껴보지 못한 아버씨의 몸이 나의 몸처럼 따뜻함을 느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나의 앞날을 보았다. 블로그, 카페, 관련 사이트 등 자원봉사, 장애인 등 자료를 검색하면서 세상에는 남을 위해 노력하는 분들이 많은 것을 알았다.

최우수상(충청남도지사)

이재일 | 서령중학교 1학년



신두리 사구에 핀 꽃을 위하여

정말 날씨가 따뜻해 놀러가기 좋은 토요일! 옆집 친구는 벌써 안면도 삼봉해수욕장으로 놀러 간다고 떠났다. 오늘은 우리도 같이 놀러 갔으면 좋겠다. 하지만 우리 아빠는 벌써 학생들과 봉사활동을 떠났다고 하셨다. 나는 토요일이면 그런 아빠를 도저히 이해 할 수 없었다. 오늘은 밖에 나가고 싶어서 엄마를 부축이기 시작했다. 혹시 아빠가 봉사활동 가지 않고 다른 데로 놀러간 것 아니냐고 물었더니 엄마의 눈이 금세 동그레 지시며 그럴 리가 없다고 하셨다. 아빠는 오늘 원복 신두리 해수욕장으로 봉사활동을 떠나셨다고 하셨다. 나는 오늘 아빠가 무슨 일을 하는지 한 번도 보지 못했다면서 서프라이즈 미팅을 해보자고 졸라댔다. 그러면서 엄마의 호기심을 한껏 자극했다. 그랬더니 엄마는 옷을 준비하시면서 한번 가보자는 것이었다. 아빠를 만나려면 우리가 직접 찾아가 만나는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식구는 뜻하지 않은 외출을 하게 되었다. 우리 집에서 원복 신두리까지는 아주 멀리 떨어져 있다. 차를 타고 가면서 펼쳐지는 한적한 시골풍경들! 나는 그 풍경들을 보니 신두리 바닷가는 더 흥편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막상 신두리 해수욕장으로 들어서자마자 펜션들이 즐비하게 서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이곳은 펜션 단지가 들어서고 각종 개발이 한창 진행되고 있었는데 마치 별천지와 다를 없었다. 멀리 바닷가를 보면서 들어오자 엄마는 드라마 촬영을 했던 곳이라며 좋아하셨다.

난 아빠를 한사리도 빨리 만나고 싶었다. 이리 저리 찾아다니다가 마침 해수욕장 쪽으로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것을 보았다. 그 사람들의 옷차림을 보니 들림없이 봉사활동을 나온 사람들의 옷차림이었다. 나는 그곳에서 아빠를 찾을 수있다고 확

신하고 그곳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운이 좋게도 나는 화성기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고 아빠를 확인 할 수 있었다. 아빠는 모래언덕에 서서 모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셨다.

“여러분 여기 사구를 보세요. 사구(沙丘)는 모래언덕이라는 것인데, 여기에 있는 사구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아름다운 사구입니다. 이곳 지형은 특이하다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이 사구를 잘 들여다보면 아직도 물결 모양으로 쌓여 있는 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해변에 있는 모래들이 바람에 실려 와서 사구를 이렇게 형성했어요. 이런 사구는 우리나라의 어떤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유일한 사구입니다. 우리는 그 동안 이 사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환경 단체들과 기관과 합세하여 이곳에 골프장이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고 싸웠습니다. 또 저 앞바다에서 바다모래를 채취하는 모래채취선과도 싸움을 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신두리 사구를 천연기념물 431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사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기에 모인 것입니다.”

나는 그곳에서 아빠가 하시는 말씀을 듣고 처음으로 아빠가 하시는 일을 보게 되어 기뻐했다. 그 때서야 아빠를 의심했던 나 자신이 부끄러워졌다. 엄마를 슬쩍 쳐다보니, 엄마도 약간 눈시울 적시고 계셨다. 아빠는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계셨다.

“자 이제 청소를 하면서 쓰레기만 줍지 말고 지금부터 이 사구에는 무엇이 살고 있는 지 살펴보세요. 이곳 주위를 잘 들여다보면 우리나라 자생식물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무엇이 있나 잘 보시고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구를 해치는 것이 무엇이 있는 가를 알아보고 그리고 사구보전방법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빠께서는 청소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장갑을 나누워 기도 하고 쓰레기봉투를 나눠 주기도 하였다. 또 아빠는 우선 동아리 학생들을 불러 쓰레기 수거 할 때 철저히 분리수거하라고 거듭 말씀하셨다. 쓰레기 줍는 데에 있어서도 아빠는 철저히 조별로 어울려 다니면서 캔을 줍는 사람은 캔만을 줍도록 하고 병만을 줍는 사람은 병을 줍도록 했다.

그런 다음 아빠는 나에게도 오셔서 직접 사구를 관찰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아빠는 사구를 바라다보면서 설명을 해 주셨다. 실제로 모래언덕을 잘 들여다 보니 그것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그 과정을 알아 볼 수가 있었다.

사구위로 올라가니 커다란 벌판이 한 눈에 들어왔다. 나는 그 벌판을 보는 순간 뛰어 놀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그래서 막 걸어 달려가려고 하자, 아빠는 내 걸음을 멈추게 하고는 따라오라고 하셨다. 이곳은 사구보호지역이라 아무데나 함부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하셨다. 아빠는 사구에 들어가는 길을 알고 계셨다. 해양환경감시원으로 활동하시는 아빠께서는 지금은 보전활동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신다고 하셨다. 1만평에 달한다는 사구를 아무리 쳐다보아도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오로지 여린 보리밭처럼 보인다. 도대체 무엇을 보호하고 있는 것일까?

아빠는 이곳에 있는 식물들을 건드릴까봐 조심조심 따라오라고 말씀하셨다. 얼마쯤 걸어 들어갔을까. 아빠는 걸음을 멈추더니 무엇인가를 가리켰다. 나는 아빠의 손끝 쪽으로 자세히 둘러다 보니 아주 이상하고 진귀한 식물을 발견했는데 아빠는 그것은 ‘초종용’이라고 하셨다. 실제로 이 사구에는 내가 지금까지 이름을 들어보지도 못한 수많은 자생동물들이 자라나고 가르쳐 주셨다. 멸종위기종인 초종용을 비롯하여 갯머위, 보리사초, 해당화...등을 관찰 할 수 있었는데 이 식물들은 국내에서도 보기 드문 사구식물로 알려져 보존가치가 높다고 하셨다.

잠시 후, 아빠는 또 그 옆에 노랗고 키가 큰 풀을 가리키며 뽑으라고 하셨다. 아빠는 그 꽃이 달맞이꽃이라고 하였다. 이 꽃은 외래식물로 이곳을 온전하게 보존하기 위해서는 뽑아내야한다고 하셨다.

아빠는 주위를 살펴보면 사구를 해치는 것이 무엇인지 한 번 찾아보라고 하셨다. 나는 사구를 둘러보았을 때, 나는 꿈직한 표지판을 보게 되었다. ‘해안전투사격장’이라는 표지판이 보였다. 여기는 분명 사구보호지역

인데도 불구하고 미군들에게는 이곳에서 훈련하는 ‘해안전투사격장’이란 팻말이 버젓이 서 있는 것이었다. 이상해서 아빠께 물었더니 이곳은 미군들이 정기적으로 훈련을 실시하는 야영장이라고 하셨다.

얼마 전에는 미8군 예하부대 소속 군인 250여명이 트럭 40여대에 나눠 타고 신두리 모래 언덕으로 진입한 일이 있었다고 아빠는 말씀해 주셨다. 그로 인해 해당화를 비롯하여 사구식물이 다량훼손 되었다고 한다. 그 뿐만이 아니라 더욱 큰 문제는 그 사구에서 미군들이 야영을 했다는 것도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모래는 따뜻하고 곱고 보리 같은 사초들이 있어서 마치 베고 자기에는 안성맞춤이었을지도 모른다. 진정 우리들이 정성들여 보호하는 이곳이 그들이 한낫 야영지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문하고 싶다. 나는 지금 다른 풀들을 밟을까 상당히 조심스럽게 들어가야 하는 데 탱크를 몰고 와 야영까지 하다니 나는 그 순간 그곳에 자라나는 식물들이 받았을 지도 모를 고통을 생각하니 내가 식물인 된 듯 무척 고통스러웠다.

내가 분노하는 사이에 아빠는 또 하나의 이상한 캔을 발견하시고는 바코드를 확인해보라는 것이었다. 캔의 바코드가 ‘5’라고 말했더니 아빠는 ‘5’ 나 ‘6’로 시작되는 바코드는 우리나라 것이 아니라, 미군들이 야영하면서 버린 것이라고 하셨다. 나는 그 캔에 대하여 사진을 찍어 두었다. 그들이 머물렀던 지역에는 짱통만이 아니라 다른 쓰레기들도 모래에 파묻혀 있었다.

그러나 이 사구를 해치고 있는 것은 일부 미군들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부터 돌아보아야 한다. 이 사구를 차지하려고 욕심부리는 사람들과 이곳에 왔다가 즐기고 가는 사람들 때문에 사구는 더욱 황폐화 되어 가고 있었다. 나는 여기에 오다가 느낀 일이지만 해변에 인접한 사구 위에는 H리조트 회사가 지은 펜션을 보고 놀랐다. 시간이 갈수록 이 사구에 집을 지으려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 이제는 사구를 상당부분 잠식하고 있었다.

그 뿐만이 아니라, 불법시설물들이 계속해서 지어지도록 허가 해주는 것도 문제다. 사구위에는 바로 사륜 오토바이 보관시설이 들어서 있었다. 이 오토바이들은 여름에 굉음을 내고 바다 모래를 달리면서 해안 사구를 망치고 있다. 나는 4륜 오토바이들이 있는 불법시설물에 대해서도 디카에 담았다.

이밖에도 또한 사구를 해치는 것은 바다에서 모래를 채취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모래 채취선을 이용해서

모래를 채취해 가면 결국 해변에 있는 모래들로 다시 바다를 채우게 될 테니까 결국 나중에는 사구도 없어지게 만들 지도 모른다.

나는 지금까지 사구를 해치는 것이 여러 가지 알아보았다. 하지만 내가 위에서 언급은 안했지만 가장 사구를 해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인간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들이 아닌가 생각한다. 사구 밖으로 나와 보니 벌써 사람들은 많은 쓰레기들을 줍고 있었다. 나도 이제 사구 보전활동을 왜 해야 하는 지에 대해서 알게 되니까 청소를 하는 데 더욱 힘이 쏟는 듯 했다.

쓰레기를 주우면서 주위를 돌아보면 불법으로 투기한 쓰레기 봉치들이 여기 저기 흩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여기 저기 아무렇게 사구에 버린 쓰레기는 치우기도 어렵다. 더우기 그 보다도 대부분 쓰레기들은 해변을 중심으로 바다에 흩어져 있었다. 이 쓰레기들은 여름철 해수욕장을 찾은 사람들이 버린 것들이다. 그 쓰레기들을 조사해보면 여름철 사람들이 먹고 버린 음식물부터 술병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해변을 따라서 쓰레기를 줍다 보니, 대부분 쓰레기는 물에 젖어 무거워서 나는 그 부대를 질질 끌고 다니면서 주어야만 했다. 오래된 음식쓰레기에 서는 부패되어서 냄새가 진동했다. 이곳 해변에는 쓰레기가 너무 많아서 얼마 줍지도 않았는데 부대에 가득 찼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식으로 주운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 문제가 있었다. 우선 해변 위쪽에 모두 쓰레기 부대를 모아야만 했다. 그 다음으로 아빠는 물기가 있는 쓰레기를 전부다 물에 적지 않도록 말려야만 했다. 모아진 쓰레기가 얼마나 많던지! 우리는 오늘 당장 처리하기에는 우리들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었다. 게다가 이곳은 너무 떨어진 곳이라 우리가 힘들여 줍는다고 하더라도 쓰레기차가 가져가지도 않는다.

마침내 나는 쓰레기 더미를 보면서 다른 단체와 연합해서 청소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했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우리와 함께할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갖고 인터넷에다 글을 올렸다. 나는 신두리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찍은 사진 자료들을 올리고, 신두리에서 봉사활동을 함께하자는 내용을 소개했다. 그 내용은 우리가 왜 신두리 사구를 보호해야 하는 이유와 환경을 보호하면서 이벤트에 참여해달라는 내용이었다. 여기에서 이벤

트는 내 아이디어에서 나온 것인데 그 다음날에 보물 찾기도 할 예정이었다.

그 날 저녁 아빠와 나는 거실에 앉아서 내일 사람들에게 줄 보물찾기 준지를 하고 아빠는 물도 포장했다. 그러면서 신두리 청소문제와 보전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고 있었다. 나는 그 신두리에다 코스모스 단지를 만드는 것이 어떻냐고 재의했다. 그러면 사람들이 더 많이 찾고 이곳을 찾게 될 것이고 사람들이 찾아오면 의식 수준이 높아져 함부로 개발하지 못할 것이라도 말 씀드렸다. 하지만 아빠는 개발은 절대로 안 된다고 하셨다.

그 날 저녁 나는 무척 피곤했고 꿈을 꾸었는데 나는 신두리 사구에 관한 것이었다. 나는 신두리 사구 위에 내가 만들 구름다리를 놓고 여러 친구들과 놀면서 그곳에 구름다리를 건너며 신두리 사구를 관찰하고 설명해주는 꿈을 꾸었다. 그런 열렬한 내 꿈 때문이었을까?

일요일 아침, 뜻하지 않게 한 은행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다행히 홍콩계 은행인 서울H은행의 직원들이 우리의 사연을 듣고는 쓰레기 수거 작업에 참여하고 싶다고 했다. 그 분들은 이 근처로 놀러 갈 생각이었는데 잠시 들러 청소를 하는 일을 돕겠다고 하셨다.

그 다음날 11시 경, 약속시간에 맞춰 차가 도착하였고 모두 나서서 쓰레기 줍는 일에 참여하였다. 우리는 신두리 해변을 오가며, 오늘 아침 일찍와서 숨겨둔 보물을 찾았다. 나는 보물을 못 찾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숨겨둔 보물을 찾아 주기도 했다. 해변에 남녀노소가 어울려 휴지를 줍는 모습은 더욱 아름다워 보였다. 환경을 생각하는 사람들이라 그런지 함께 청소만하여도 오랜 친구들처럼 보였다. 한편 우리의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는 마을에서도 동참하였는데 쓰레기를 실어 나를 트럭도 제공해 주었다. 그 날 나는 신두리를 청소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한결같이 신두리 사구를 사랑하고 지키려는 노력을 엿볼 수가 있었다.

신두리 사구를 보호하는 사람들이 있는 한, 앞으로 신두리는 정말 더욱 더 아름다워 질 것이라는 생각을 해 본다. 국내에서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보호하고 있는 신두리 사구! 나는 앞으로도 계속 이곳을 보전하는데 사랑과 관심을 기울일 생각이다.

우수상(충청남도교육감)

김의주 | 병천고등학교 2학년



작은 나눔 큰 기쁨

우리 학교에는 ‘아름다운 조리 나눔터’라는 봉사활동 동아리가 있다. 1학년 때는 조리과 선배들이 토스트를 구워 파는 모습이 멋져 보여 나도 2학년이 되면 동아리에 들어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다. 2학년이 되어 봉사활동 동아리를 모집한다는 설명을 듣고 조리과에서 배운 여러 가지 요리 솜씨와 실력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도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더욱 매력을 느껴 바로 참가했다.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오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을 정도로 경쟁률이 높은 동아리였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동아리 회원이 된 나는 친구들과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가족들에게 자부심을 가지고 “나

다. 이런 동아리의 임원이 될 수 있었음에 다시 한번 자부심을 가지게 되었고 나도 성심성의껏 회의에 임하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오랜 토의 끝에 우리는 작년과는 다르게(작년엔 전일제로 하루 종일 활동할 수 있었다) 올해엔 2시간 동안 모든 활동을 끝내야했기 때문에(올해엔 격주로 2시간씩 활동을 해야 한다.) 짧은 시간 안에 활동을 알차게 할 수 있는 방법에 중점을 두고 토의한 결과 학교 근처에 계신 ‘어려운 독거노인 돕기’를 활동 목적으로 정했다.

활동을 하기 위한 비용 마련은 작년과 같이 토스트를 판매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학교로 노인 분들을 모

준비를 해놓고 갔다.

다음날 아침, 나는 학교 기숙사에 있기 때문에 ‘아직 아무도 오지 않았겠지?’하는 뿌듯한 마음으로 실습실을 향했다. 그런데 벌써 실습실엔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고 창문이 활짝 열려 있었다.

과연 누가 먼저 온 것일까? 의아해하며 실습실에 들어가니 선생님께서 “의주 왔어? 오늘 일등이네! 상줘야겠다.”하시면서 반기시는 것이었다. 갑자기 “아 우리 동아리는 모두가 몸을 아끼지 않는 봉사정신이 꼭 필요한 동아리구나!” 라는 생각과 나도 뒤지지 않기 위해서는 열심히 활동해야겠다는 책임감이 가슴에 가득해 왔다.

다잡은 마음으로 나는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반죽 만들기에 들어갔다. 그동안 동아리 임원들이 한두명씩 실습실을 채우면서 자신의 역할을 해내고 있었고, 어둑어둑했던 바깥은 환히 밝아져 있었다. 구수한 냄새에 이끌려 판매를 하기도 전에 문을 두드리는 친구들을 보며 빨리 만들어서 판매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만들었다.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혔다.

드디어 판매를 개시한 7시 40분 친구들과 후배들이 양식실습실 창문에 길게 줄을 서고 있었다. ‘잘 팔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쓸데없는 기우였고 한 개에 500원인 토스트는 아침을 거르고 온 학생들과 선생님들께도 대인기였다. 담당하시는 반의 학생들을 위해 30-40개를 사 가시는 선생님도 계셨다.

이 날 토스트를 만들기 위해 재료 구입에 들어간 비용은 103,000원이었고 판매 수익금은 178,000원이었다. 그래서 계산한 결과 우리가 열심히 판매한 순수익금은 75,000원. 동아리 단장이 한 푼 한 푼 세어 총금액을 행정실로 가지고 갔다. 우리의 토스트 판매 수익금은 행정실에 넘기면 행정실에서 차곡차곡 모아 독거노인 댁을 방문할 때 필요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이렇게 1학기 동안 음식판매를 열심히 하였고 2학기에는 모아 둔 수익금을 이용해 독거노인 댁을 방문하기 시작하였다.

봉사활동 대상은 강경심 선생님께서 병천 면사무소에서 봉사활동을 담당하시는 분에게 의뢰하여 학교 근처에 계신 분으로 봉사활동을 나가기 쉬운 위치에 계신 독거노인 10분의 성함과 연락처를 받아 주셨다. 우리는 4-5명이 한 조가 되어 두 분씩 찾아뵙기로 했다.

내가 담당하신 분은 박종식 할아버님과 최정혜 할머니이셨다. 먼저 그 분들께 우리들의 활동 계획 및 방법

을 알려 드리려고 일일이 전화를 드렸다.

박종식 할아버님은 여러 차례 전화를 드렸으나 전화를 받지 않으셨다. 하는 수 없이 우리는 방과 후에 주소를 들고 직접 찾아뵙기로 했다. 최정혜 할머니는 다행히 전화를 받으셨다. 떨리는 마음으로 할머니께 먼저 인사를 드렸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희는 병천고등학교 조리과 학생이에요 저희가 한 달에 두 번씩 찾아뵙고 할머니 말씀무도 해드리고 청소도 해드리고 싶은데 괜찮으시겠어요?”

할머니는 처음엔 그럴 필요 없다고 거절하시더니, 이내 집 위치를 알려주셨다. “할머니! 그럼 저희가 2주 뒤에 찾아 뵙게요 그때까지 건강히 계세요.”

2주 후인 9월 29일 금요일 우리는 할머니께 약속드린 대로 찾아뵈었다. 노인 분들이 좋아하실만한 음식으로 어떤 게 좋을지 생각하다가 곧 추석도 다가오고 해서 송편과 बे지밀, 사탕을 준비해서 각 조끼리 각자가 맡은 독거노인 분들의 집을 향했다. 우리 조는 할머니 댁에 가기 전에 다시 한번 전화를 드리고 출발했다. 우리가 맡은 할머니는 학교에서 20분 정도 떨어진 비교적 가까운 곳에 살고 계셨다. 떨리는 마음으로 할머니 댁에 들어섰다.

“할머니, 계세요?”

그러자 할머니는 반대쪽에 있는 다른 문을 통해서 들어오셨다. 전화를 받으시고 혹시나 집을 찾지 못할까봐 아픈 몸을 이끌고 우리를 마중 나가셨던 것이다. 우리는 할머니께 인사를 드리고 거실에 모여 앉았다. 우리 5명과 할머니가 앉으니 거실이 꽉 들어찼다. 할머니께 준비해 온 떡과 사탕을 드렸다.

그리고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할머니께서는 내심 반기고 계신 듯 했다. 그동안 혼자 지내시며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생각을 했다. 알고 보니 할머니는 우리가 온다는 날짜를 잘못 아시고 지난 주에 오는 것으로 착각을 하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다고 하셨다. 우리를 위해 장에 가서 음료수도 사다놓으셨다고 했다. 그런데 우리가 오지 않으니 ‘아, 안 오는가보네’하고 계셨는데 전화가 왔으니 반가운 마음에 우리를 마중까지 나오신 것이었다.

떡을 맛있게 드시면서도 할머니께서는 앞으로 다시는 오지 말라고 하셨다. 우리는 할머니 뵈러 계속 올 거라고 말씀드렸더니 다음에는 올 때 그냥 오라고 신신당부를 하셨다. 작은 것인데도 할머니는 부담이 되셨나 보다.

할머니께 청소나 빨래할거 없냐고 여쭙더니 아니라고 그럴 거 없다고 그냥 앉아서 이야기나 하자고 하였다. 할머니는 우리에게 공부 열심히 하고 부모님께 효도라고 말씀하시며 눈물을 글썽이셨다. 나도 마음이 아팠지만 일부러 웃으며 할머니의 어깨를 주물러 드렸다. 할머니께 우리를 손녀딸처럼 생각하고 이제부터 자주 찾아 뵈니 꼭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라고 말씀드렸다. 그리고 할머니와 기념 촬영을 하고 할머니 댁에서 나왔다. 사진 찍은 것을 예쁘게 찾아서 액자에 넣은 다음 할머니를 뵈러 갈 때 드릴 생각이다. ‘그러면 할머니께서 무척 기뻐하시겠지?’ 할머니는 우리가 집에서 나와서 인사를 하고 골목이 안 보일 때까지 배웅해주셨다.

나는 다시 학교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찾아가서 대화를 하는 것만으로도 기뻐하시고 반겨주시는데 왜 진작 이렇게 하지 못했을까 생각했다. 사소한 아주 작은 것

이지만 그것만으로도 누군가에게 아주 큰 기쁨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 기쁨은 내 마음을 훨씬 따뜻하게 하고 보람을 느낄 수 있게 한다는 것을 알았다.

할머니 댁에 다녀온 경험을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말해주었고, 더 많은 친구들이나 가족들과 함께 봉사활동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우리 동아리에서는 계속 할머니를 찾아뵈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배운 요리를 최대한 활용해 할머니께 맛있는 음식도 만들어 드리고 정말 친손녀처럼 할머니를 보살피고 기쁨을 드려야겠다고 생각했다.

앞으로 대학에 진학하고 사회에 나가서도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누군가의 손길이 필요한 분들에게 기쁨을 주고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다.

우수상(충청남도교육감)

김영란 | 금호중학교 2학년



나에게 특별했던 1시간

중학생이라면 모두 해보았던 봉사 활동시간 채우기.

며칠 전 뉴스에서도 보았듯이 중/고등학생들이 방학 때 봉사활동 시간을 채우기 위해 우체국, 면사무소 등에 찾아가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대충 앉아있다 시간만 채우고 온다는 소식을 들은 적이 있다. 안타깝지만 지금의 현실이다. 물론 봉사활동 채우기란 여간 쉽지 않은 일이다. 또한 평소에 하기보단 학년말에 모아서 한꺼번에 대충대충 하는 모습을 종종 보았다. 그래서 나는 예절실천봉사단이라는 봉사단 모임에 들게 되었다.

1학년 중순쯤에 예절실천봉사단이라는 봉사단 모임을 공지사항을 통해 알게 되었다.

예절실천봉사단에서는 일단 독거노인 댁이나 노인회관을 방문하여 할머니, 할아버지 말벗되어드리기, 안마 해드리기, 청소해드리기, 심부름 해드리기 등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한다. 봉사활동을 하고 난 후에 예절실천봉사단만의 봉사활동 확인서 양식이 있는데 그 양식을 작성하고 이장님 도장을 받으면 봉사활동 한 만큼의 시간이 채워지는 식으로 진행된다.

처음에 예절봉사단에 들게 된 것은 봉사활동 시간을 빨리 채우고 많이 채운다는 조건으로 들어오게 되었지만 봉사활동을 실천하면서부터 나의 고정관념은 조금씩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예절실천봉사단에서 봉사활동 할 때에는 모둠을 정해서 활동을 하는데 내가 속해있는 모듬은 현재 용포리 3구 모듬이며 2명이 활동하고 있다.

비록 모듬원은 2명이지만 조그마한 노인 회관에 가면 정말 좋은 대접을 받는다.

그만큼 최선을 다해 열심히 노력하고 또 노력한 결과가 아닐까 나는 생각한다.

내가 1학년 때 선생님계선 모듬이 함께 노인회관이나

독거노인 댁을 방문하여 인사도 드리고 봉사활동도 하고 오라며 봉사활동 확인서 양식을 주셨다.

노인 회관에 한 번도 가보지 않았으니 어디로 가서 어떻게 하고 오는지 알 턱이 있나?

거기다 내가 모듬조장이었기 때문에 다들 나만 믿고 있었는데, 나는 긴장한 채로 아파트 단지에 있는 노인 회관을 방문했다.

그리고는 “저희들은 금호중학교에서 봉사활동을 나온 예절실천 봉사단 용포3구 모듬 이에요 실례지만 이곳에서 저희들이 청소도 해드리고 말벗도 되어드릴 겸 봉사활동 좀 하고 가면 안 될까요?” 라고 여쭙보았다. 그러자 노인 회장님께서 “그래, 그럼 그래라. 안 그래도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 모두 힘도 없으시고 외로워하시는데 잘됐구나!” 라며 답변을 해주셨다. 노인 회장님의 승낙에 나는 어쩔 줄 모르고 좋아하였다. 일단 1학년 때 나의 조는 총 4명으로 구성되었다. 나와 은유, 민지, 윤정이 이렇게 4명이다. 나와 은유는 할아버지들이 계신 방과 거실, 할머니들께서 계신 곳을 빗자루로 쓰는 일을 맡았고 민지와 윤정은 비질을 다한 후 걸레로 먼지를 닦는 일을 맡았다. 생각 외로 방은 정말 넓었다.

처음으로 주어진 봉사활동 과제를 실천하기 위해 무조건 열심히 방을 쓸고 닦았다.

얼마나 했는지 갑자기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끊어질 듯 아팠었다. 그 때 한 할머니께서 잠시 쉬었다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때 참 감사했었다. 그래서 인지 아직 까지도 기억에 남는다. 처음 다녀온 봉사활동이라 제대로 한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참 많이 아쉬웠었다. 긴장도 많이 하고 간 탓인지 몸이 더 아프고 뻣근했다. 다 끝나고 이장님 도장을 받고 나니 기분도 좋고 참 뿌

듯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

이렇게 해서 처음으로 한 봉사활동을 마쳤다. 할머니, 할아버지께 들은 칭찬은 정말 청소하는데 그만큼 큰 힘이 되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칭찬의 힘은 정말 대단했다. 칭찬이 설마 그렇게 대단한 힘을 가졌을까 처음엔 의문도 가졌지만 직접 듣고 실천해보니 거짓은 아니었다.

봉사활동 확인서 양식을 이장님께 받고 선생님께 제출했다. 선생님께선 처음 다녀왔는데 잘 했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대답해야할지 몰랐다. 열심히 한다고 하긴 했지만 뭔가 아쉬움이 남는 것을 보니 완벽하게 하고 온 게 아니었기 때문이다. 다음엔 더욱 잘 하고 오겠다는 다짐을 하고 그렇게 하루를 보냈다.

1학년 봉사활동은 자주 가고는 싶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다. 그래도 1학년 봉사활동 시간은 20시간 채울 수 있었다. 좀 짬짬한 뉘는 있었지만 철없던 그 때는 시간을 다 채웠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고 즐거웠던 것 같다.

▶2학년이 되어서 다시 들게 된 예절 실천 봉사단

2학년이 되고 나선 예절 실천 봉사단이 클럽활동으로 옮겨졌다. 나는 문예부라는 클럽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무엇을 할까 참 많이 망설였다. 많은 망설임 끝에 나는 1학년에 이어 계속 하자는 다짐을 하며 예절실천 봉사단에 다시 한 번 들게 되었다.

현재 2학년 재학 중인 나는 역시 예절실천봉사단 용포3구 모듬에 들게 되었다. 하지만 모듬원은 많이 바뀌었고 인원도 2명밖에 없었다.

1학년 때에는 4명이기 때문에 서로 도와주는 일도 많았고 금방 봉사활동도 끝낼 수 있었는데 2학년이 되니 모듬원도 2명으로 줄고 내가 항상 가던 노인 회관도 아니었기 때문에 걱정이 태산이었다. 아파트 단지로 가던 노인 회관 봉사활동을 끝내고 면사무소 주변에 위치한 노인 회관의 봉사활동을 시작하였다.

그 노인 회관은 2층으로 되어 있으며 할머니, 할아버지 방이 아래 위층으로 따로따로 되어있고 할머니들께서는 봉사활동을 하라고 송낙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할아버지들 방에서만 봉사활동을 할 수 있었다.

할아버지들 방이라 해도 작은 것은 아니었다. 비록 아파트 단지에 있던 방보단 1.5배 정도는 작지만 옥상으로 가는 계단과 아래층으로 가는 계단, 복도, 화장실 여간

청소할 장소가 많은 게 아니었다. 물론 이 곳도 처음 가는 거니까 기대도 많이 되고 긴장도 많이 되었다.

4월 달인가 5월 달부터 실시된 봉사활동을 딱 한 번 빠지고 열심히 봉사활동을 하였다. 물론 다른 모듬은 아닐지 몰라도 정말 정성껏 진실된 마음으로 하고 왔기 때문에 후회나 짜증남 같은 건 느낄 수 없었다.

2학년 때엔 시험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주말은 봉사활동으로 보내야 했다.

가끔씩 이주 가끔씩은 가기 싫은 날도 몇 번 있었다. 하지만 나중에야 깨달았다.

봉사활동만 하고 시간만 받고 오는 게 아니라 봉사활동을 하면서 많은 것을 깨닫고 온다는 것도 말이다.

2학년이 되어 처음으로 노인 회관을 찾았다. 이곳에서 는 할아버지들께서만 계신 곳이라 그런지 방도 깨끗하지 않고 들어가도 환하게 반겨 주시는 분이 계시지 않았다.

내 기대와는 완전히 달랐다. 전에 갔던 노인 회관과도 전혀 달랐다.

분위기, 방의 상태, 할아버지들의 표정 등등 달라도 많이 달랐다.

이번에도 역시 내가 모듬 장이었기에 내가 먼저 들어가 할아버지들께 말씀을 드렸다. 여전히 굳은 얼굴은 풀어질 생각을 하지 않았다.

“할아버지, 저희들은 금호중학교에서 봉사활동을 하러 온 예절실천봉사단인데 이 곳에서 앞으로 1년 동안 말벗도 되어드리고 청소도 해드리면 안될까요?” 라고 말씀드렸다.

긴장되고 고조된 분위기 속에서 노인 회장님이 말씀을 여쭙다.

“음, 일단 이 곳은 할아버지들만 계신 곳이라 꽤 꽤하고 학생들이 봉사활동 하는 데에 많이 힘들지도 모르는데 괜찮겠어요?”하고 말이다.

나는 모듬 원과 상의 끝에 “네, 괜찮아요.”라고 대답 해드렸다.

할아버지들께서 계신 곳을 청소하다보니 쉽게 친해지거나 그러지는 못했다. 그래도 옆에서 좋은 말벗이 되어드리기 위해 말은 많이 하는 편이다.

할아버지들은 그럴 때 마다 외롭고 쓸쓸했던 마음이 조금이나마 위안을 받는다고 하셨다. 물론 청소도 대화하는 것만큼이나 열심히 한다.

봉사활동은 이렇게 해서 시작되었다. 일단 방에 들어가 방을 쓸고 닦은 후에 복도로 나와 물걸레 2개를 들

특선(충청남도교육감)



양은지 | 청양여자정보고등학교 2학년



스카우트라는 곳에 들어가 봉사할
게 되었다. 가까운 독거노인
게 드리고, 말풍무 되어드리고, 밤
작 이였지만 나름대로 크게 찾아
다. 그렇게 작게 다녔던 봉사활동
었는지 고등학교에 올라와서도 계
해보이지만 뭔가 자꾸 나누어 줄
아라. 회원을 모집한다고 한다. 난
하게 되었고, 주위친구들도 같이
정하게 가입하여 활동하다보니까
등을 했다. 청양에 살고계시는 독
정산에 위치한 “사랑의집” 가기,
“부여삼신보육원” 등 중학교 때
활동을 하였다. 독거노인 방문하
은 울타리 안에서 조금은 넓어진
제행도 해서 독거노인 분들께 케
사 있을 때 만들어서 주위에 기증
는 많은 빵을 만들어 팔기도 한다.
빵을 팔아 남는 돈으로 봉사활동
도 하고 조금이나마 독거노인 분
의 덕분에 축제 때 구경도 제대로
빵을 팔면서 “아나바다” 운동이
물건들을 모아 파는 좋은 일도
“아나바다”는 축제 행사 중 하나
또 여가져 남은 물건들은 “사랑
하 해결한다.

자연스럽게 대화도 하면서 할 수 있을 만큼 많이 익
해졌다. 여러 번 찾아간 사랑의집은 너무 익숙하고 낯
설지 않고 푸근한 모습이다. 항상 따사로운 반겨주시는
사모님과 목사님, 그리고 그곳에 계시는 모든 분들 향
상 정감 가는 좋은 곳이다.

1년에 두 번, 방학 때만 찾아가는 “삼신보육원”은 청
양에서만 하면 봉사를 벗어나 그리 멀지않은 타지에서
처음 하게 된 활동이었다. 처음 접하는 보육원에 적응
을 못했지만 나름대로 아이들과 어울려 자장면도 먹고
방학숙제도 도와주면서 즐거운 한 때를 보내기도 했다.
독거노인 찾아뵙고, 목욕봉사하고 이런 봉사활동과는
사뭇 다른 봉사였다. 새로운 경험 하나 쌓고 갈 수 있
었다.

난 1학년 때 단장이라는 임무를 맡으면서 부질없게나
마 회장언니와 그 외 언니들을 쫓아다니면서 많이 배웠
다. 그렇게 1년 동안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면서 한 봉
사활동은 크게 자리 잡았다. 한 학년 올라와서도 계속
되었다. 2학년이 되서도 독거노인 방문해서 삼겹살도
같이 구워 먹기도 하고 자주 찾아뵙고, “사랑의집”에도
어낌없이 찾아뵙었으며, “삼신보육원”에 가서도 얼굴도
장 찍고 오기도 했다. 또 이번엔 색다른 봉사도 했었다.
‘청양보건소’에 정신적인 장애를 가지신 분들께 가서 풍
선아트를 가르쳐드렸다. 정말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에 “나눔미”를 ‘풍선아트 하는 특별동아리로 만들
까’ 라는 생각까지 갖게 했다. 색다른 봉사여서 하는 친
구들 모두, 또 나도 재미도 두 배, 기쁨도 두 배였다.
그만큼 봉사는 중독성이 강했다.

이차저차 이런 나에게 또 다른 엄청난 기회가 다가
왔다. 러시아로 해외 봉사활동을 가게 된 것이다. 10박
11일 동안 빠르티잔스크라는 연해주에 가서 고려인들을
돕고자 가게 되는 것이다. 러시아라는 말에 슬깃해서
당장 가겠다고 말을 했고 처음 가는 해외라 여권사진
도 찍고, 여권 만들고, 이것저것 서류내고 하느라 약간

중학교 입학해서 결
동이란 것을 처음 접
분들 찾아뵙어서 안마
차려드리고 하는 게 고
다녔던 봉사활동 이였
은 나에게 무엇이 되었
속되었다.

“나눔미”라는 소박
것 같은 이 이름의 동
당연히 손을 들어 가입
가입하게 했다. 어정적
이것저것 많은 봉사활
거노인 집 방문하기와
방학 때마다 찾아가는
보다는 더 폭넓게 봉사
는 게 고작이었던 좁은
봉사가 된 것이다.

또 우리학교에서는
이크도 갖다드리고 행
하기도 하고 축제 때는
우리 나눔미에서 그 행
하는데 보탬해서 쓰기
들게 드리기도 한다. 이
못하고 빵판 팔았다. 또
라 해서, 음악실 한편에
했다. 매년 하고 있는
의 행사로 자리 잡혔다
의집”에 기증해서 팔끔

“사랑의집”에 가서는
삼계탕 끓여먹기, 추워
행사로 가서 봉사를 하
쉬운 봉사가 되었다. 처
을 씻겨드린다는 게

은 정신이 없었다. 어떻게 되어 가게 되는지, 내가 가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런 거 없이 일단 해외, 러시아를 간다는 점에서 무작정 설레었다. 마냥 9월 4일이 오기만을 기다렸다.

일단 먼 여행이 될 10박 11일간의 러시아 길을 친한 친구인 선미와 동행하게 되어서 마음은 안심이 되었다. 그렇게 9월 4일이 다가왔다.

충남센터 11명의 모여 서울로 가기위해 논산 충남자원봉사센터로 다들 모였다. 엄마와 보고 싶을 거라는 마음을 접고 마지막 인사를 했다. 10박 11일간의 길고도 짧은 여행을 위해 버스에 올라탔다. 그리고 들뜬 마음을 부여잡고 버스는 떠났다. 대전, 청주를 거쳐 사람들을 태운 버스는 서울에 올랐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 전국으로 174명이 가는 크나큰 행사가 되어버린 러시아 해외봉사. 이 중 하나로서 내가 서있다는 게 뿌듯해지고 자랑스러워졌다.

찬단식을하고 저녁을 먹은 뒤 서울유스호스텔에서 하룻밤 묵었다. 다음날 속초항으로 다 같이 떠나기 위해서..... 저녁엔 간단하지 않은 많은 말과 러시아 말을 배우면서 흘러보내고 잠자리에 들기 전 나와 선미는 일본인 친구 스구루상을 만났다. 새벽 3시 넘어서까지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친구가 되었고 연락처도 주고받았다. 러시아 덕분에 일본친구도 사귀게 되는 텃까지 열게 되어 기분이 좋다.

다음날 아침 새벽같이 일어나 밥을 먹고 버스에 올랐다. 속초로 가는 것이다. 속초항에 내려서 이것저것 걸차를 밟고 동춘호 배에 몸을 실었다. 같은 센터인 충남식구들 10명과 함께, 아니 같이 가는 모든 분들이 무사히 한국에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밀고 배는 출발했다. 배안에서의 1박 2일 배안에서의 19시간은 길지만 짧게 느껴진 시간이었다. 나름대로 많은 것을 생각하고 다짐하면서 갔던 이유때문일지도 모른다. 어렵사리 긴 여정 끝에 도착한 러시아 땅. 러시아에 도착해서는 사진을 찍을 수 없다는 엄포 령을 내렸다. 사진 찍히면 잡혀간다고 한다. 도착해서 이제 숙소 가서 짐 풀고 다음날부터 봉사활동 들어가면 되겠지 했는데, 고려인들에게 나눠주고 우리가 가서 써야할 물건들에게 문제가 생겨버렸다.

사전에 연락해서, 우리가 도움을 주고자 해서 가는 것이니 무과세로 짐을 넘기기로 했는데, 막상 도착하니 kg당 5달러씩 내놓으라고 한다. 이런 어이없는 문제로 몇 시간을 항구에서 기다렸다. 열심히 짐을 배에서 러

시아 땅까지 내려놓느라 수고 많이 하고 고생했는데 그 짐을 다시 배에 싣게 되었다. 아깝지만 어쩔 수 없이 짐을 놓고 항구를 나와 늦은 점심을 먹었다. 러시아는 한국보다 2시간 빠르다. 시차적용은 쉬울 것 같다.

비포장도로를 9시간 달려야한다. 러시아는 화장실이 참 비극적이다. 노상방뇨를 해야 한다. 화장실 수준이 세계에서 하위권수준이란다. 중국정도로 생각하면 빠를 것이다. 9시간 가면서 화장실 한번 들리는 게 가장 큰 고통이다. 어렵사리 도착한 숙소.

밤이라 어두워서 아무것도 모르겠지만, 러시아시간 12시 넘는 시간에 저녁밥을 먹으러갔다. 보자마자 느끼한 냄새가 올라온다. 빵과 감자 삶아서 으갠 것, 스프까지 적용하지 못했다. 첫 식사는 먹지도 않고 잠자리에 들었다. 러시아에서의 첫날밤을 그렇게 지나갔다.

9월 7일, 4일째 되는 날 본격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 고려인회관으로 갔다. 고려인들이 모여 있기 위해 폐교된 학교 하나를 샀는데, 리모델링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해주기 위해 왔다. 첫날이니깐 일단 고려인 회관이 어떤지 살펴보고, 주변 풀만 뽑았다.

러시아 스타일이라서 그런가. 풀을 뽑다 똥이 나왔다. 이 기분을 어떻게 설명해야할지...

풀만 뽑다가 러시아 애들이 같이 간 여자아이들의 영명이를 만졌다는 사건으로 인해, 풀 뽑는 일을 철수하고 다시 숙소로 돌아왔다. 그곳에서 숙소로 돌아오는 길은 1시간이나 걸린다. 왕복으로 만 2시간 움직이는 시간이 너무나 많고 크다. 그 시간이 너무 아깝다.

9월8일은 충남, 전남, 전북센터와 같이 농장에 가서 일을 했다. 감자를 캐다느니 뭐니 해서 감자 쥬 줄 알았는데, 양파농장엘 가게 되었다. 캐놓은 양파의 꼭다리? 부분을 잘라주는 작업인데, 생각보다 쉽지 않고 오래 걸리는 단순노동 작업이었다. 칼 하나 들고 쭈그러 앉아서 자기가 맡은 도량 한 줄의 양파를 잘라내는 것이다. 오전 10시쯤인가부터 시작해서 점심 먹기 전 1시쯤 까지 양파작업은 계속되었다. 끝없이 펼쳐진 양파밭이 야속하기 그지없다. 다리저리고 손 저리고, 그래도 즐겁게 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즐거운 점심시간. 러시아식으로 나왔는데 먹기 힘들었다. 주식인 빵만 고추장에 발라 먹기를 몇 번, 파스타도 나오는데 입맛에 안 맞았다. 고추장 넣어서 비벼먹으니까 입에 맞는다. 역시 한국 사람은 고추장만 있으면 식사해결은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절실히 느꼈다. 직접 채취하신 꿀에도 빵을 찍어먹었는데 달콤하니 맛있다. 뭐든지 러시아산이니까

직접 체험해본다. 히히 배부르게 점심을 먹고 다시 일을 시작했다. 또 다시 꾸구려 앉아 양파 꼭지 잘라내기를 계속. 다리 저린 것도 무감각해질 무렵 내가 맡은 도량을 다 끝냈다. 감격적인 순간이라 기념촬영도 했다. 한 도량을 다 끝내고 다른 도량도 캐고 마무리를 지었다. 뿌듯하다. 남을 돕는다는 것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한계를 보여줬던 농장일, 힘들어도 다리에 일이 배겨도, 추억은 추억인거다. 힘든 농장 일을 마치고 저녁식사 뒤 저녁엔 안중근의사 손녀분이 오셨다. 그때 당시에 일어났던 안타까운 일들을 직접 설명해주시니 소름이 끼친다. 우리는 행복한 세상에서 살고 있다. 그러기에 봉사활동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간절하다. 내일은 더 열심히 해야지.

9월 9일은 충남센터 우리가 식사당번을 맡게 되어 숙소에 남아있게 되었다. 아침식사 준비도 하고 숙소 들어가서 쓸고 주변 쓰레기도 주었다. 비가 내렸다. 러시아 비다. 비가 내리니 쌀쌀해져왔고, 널린 빨래를 걸어 놓았다. 이곳에 와서 단체생활을 하니 마음이 넓어지는 것 같다. 저녁엔 피자가 나왔다. 도우가 굉장히 두껍고 고기는 양고기를 넣었으며 토핑은 양고기, 피망, 양파정도의 종류만 올렸다. 토핑에 양고기가 대부분이었지만 피 맛있는 피자였다. 한 아주머니께서 한국말을 잘하셔서 말이 통해 말을 했다. “아주머니! 오늘피자 맛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9월10일 차타고 1~2시간 걸리는 곳으로 갔다. 러시아에서 유일하게 하나 남은 목재 건물로 된 교회. 나무로 만든 교회는 다 태워버려서 없는데, 딱 하나 남아있는데 그곳에 가게 된 것이다. 어제 비가 와서 많이 쌀쌀해서 꽤 추웠다. 교회에서 기념촬영을 마치고 이제 또 다른 곳으로 이동했다. 발해유물들을 모아서 개인집에 전시 해놓은 가정집으로 갔다. 러시아 사람들은 발해유물, 그러니까 옛날물건들이 나오면 모두 버리거나 없애고, 태워버린다고 한다. 근데 집의 주인장인 할아버지는 버리지 않고 유물이 나오는 데로 모아서 전시 해 놓으신거다. 정말 대단 하신분이고 존경스러운 분이다. 할아버지 덕분에 좋은 거 많이 보고 많이 배우고 갔다.

9월 11날은 우리 쪽에서 많이 준비해가지고 간 공연을 선보이는 날이다.

아침식사를 마치고 러시아 사람들과 우리나라 사람들이 달리기를 했다. 삼시세끼 밥만 먹고 뛰는 애들이랑 달리려니 당연히 우리나라가 질 수 밖에 없었다. 그래도 좋은 추억이 되었다. 그렇게 달리기로 몸을 풀고 축

구 시합을 했다. 쌀쌀한 날씨 속에서 잘만 날라 다니며 뛰어다니는 사람들. 기분도, 몸도 한층 더 업 되었다. 축구하는 중간에 예쁜 러시아 애를 보았다. 정말 예뻐다. 솔직히 축구시합은 뒷전이었고 예쁜 러시아 애와 얘기하기 바빴다.

러시아 나이로 16살, 한국나이로는 18살 정도 되는 친구였다. 동갑이라는데 너무 비교가 되었다. 계속 예쁘다며 “그루쉬 와야”라는 말을 했더니 고맙다는 “스파시바”를 계속 했다. 잠깐의 말을 하다 보니 축구시합은 끝났다. 승부차기 까지 갔는데 러시아 애들이 이겼단다. 축구시합을 마치고 발대식을 했던 장소로 갔다. 그곳에 가니 빠르티잔스크 지역 분들이랑 고려인 분들이 많이 앉아 계셨다. 그곳에 한때 같이 어울려서 공연을 시작했다. 러시아 애의 귀여운 우리나라 동요를 부르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러시아 전통춤과 노래도 듣고 우리나라에서 준비한 제주 팀에서의 태권도도 재미있게 보고 강원 팀에서 온 B-Boy들의 춤도 즐겁게 보았다. 또 사물놀이도 흥겹게 들었다. 러시아에서 본 사물놀이는 뭔가 좀 색다르게 들렸다. 러시아사람들이 우릴 위해 많이 준비를 해주었다. 우리나라 부채춤을 보여주는 데 정말 예쁘고 멋있었다. 근데 중간에 음악이 끊기는 바람에 공연이 중단되었는데 더 보고 싶은 아쉬움을 남겨줄 만큼 멋진 공연이었다. 또 러시아 학생들이 사물놀이도 보여줬는데 솔직히 말하면 우리나라보다 더 잘했다. 처음 접해보는 팽과리, 북, 장구, 징을 붙잡고 흥겹게 열심히 하는 모습이 더 보기 좋아 보여서일지도 모르겠다. 또 대전팀에서 꼭지점 댄스를 준비해왔다. 우리 학생들, 고려인분들, 러시아인들 상관없이 모두들 일어나 같이 춤도 추고 웃으면서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대전 팀에게 많이 감사했다. 꼭지점 댄스하나로 한마음이 되어 즐길 수 있는 시간을 주어서. 마지막엔 러시아 전통 민요를 부르면서 끝으로 막을 내렸다.

러시아에 와서 봉사활동만 한다는 것 말고도 우리에게 많은 문화혜택도 주시고 정말 좋은 추억을 남겨줘서 아직도 기억에 남는다.

이곳 러시아에 같이 온 친구 중에 러시아인인데 한국으로 입양된 친구가 있었다. 정말 안타까운 사연을 갖고 있는 친구다. 집안사정은 어려운데 머리도 똑똑하고 성격도 활발하고 좋은 아이였다. 이런 아이를 보고 한국분이 입양하셨다고 한다. 당시 나이 12살 이었던단다. 수인이라는 이름으로 한국에 와서 한국말을 금방 익히

고 적응해 나갔다. 그렇게 약 6년 동안 친 부모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집안의 전화와 편지로만 연락을 해왔다. 그런데 때마침 러시아로 봉사활동을 오게 되어 친엄마께 연락하니, 잘됐다면서 꼭 만나러 간다하졌다. 그러나 그건 힘든 약속이었다. 집안사정도 어려울뿐더러, 사시는 그 곳에서 모스크바까지 오는 데만도 기차로 꼬박 일주일이 걸린다고 한다. 비행기를 타기에는 경비가 없어 오질 못하시고, 이런 사연을 듣고 본부 쪽에서 돕자고 말씀하졌다. 모두들 흔쾌히 동의를 했고, 1인당 5000원씩 돈을 내고 어른 분들은 더 기탁하신 분들도 계셨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모인 5000원이라는 돈이 너무나 크나큰 감동을 낳았다. 그렇게 감격적인 재회를 한 수인이라는 친구와 어머니는 6년 동안 쌓여왔던 눈물을 쏟아내었고, 모녀간의 사랑을 확인시켜 주었다. 안타까운 사연을 듣고 하니 집에 계시는 엄마 생각이 나서 눈물 날 뻔했다. 펜스에 엄마가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한국에 너무 가고 싶었다. 이렇게 내가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어 한 사람에게 큰 도움이 되어서 너무 좋았다. 이 사연은 한국일보 기사에도 실려 감동적인 이야기로 남았다.

9월11일은 고려인 회관 작업을 마무리로 끝기 위해 왔다. 열심히 시키는 일을 하고, 점심도 훑바닥에 앉아서 먹으며 일을 했다. 점심을 먹고 쇼핑도 하려갔다. 백화점 구경할 시간도 없이 슈퍼마켓에 가서 과자와 초콜릿 같은 간식거리를 사들고 나왔다. 짧은 시간이라 시간이 너무 촉박했다. 러시아에도 우리나라 할머니들이 길거리에서 나물 내놓고 과일 내놓고 이것저것 팔듯이 길거리에서 물건도 팔았다. 특히 수박을 많이 팔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너무 익숙한 풍경이라 마냥 신기했다. 일단 러시아에도 수박이 있다는 게 가장 신기했다. 숙소에서 밥 먹을 때 후식으로 항상 수박을 내주셨던 것도 인상적이었다. 또 시루떡을 어디서 보셨는지 시루떡도 내주셨고, 한국음식을 주려고 맘이 노력하졌다. 된장찌개에 토마토도 넣어서 끓여주시고, 그르쉬아라는 러시아 배도 주셨는데, 맛은 한국 사과맛과 비슷하고 씹는 맛은 배랑 비슷했다.

집안의 쇼핑을 즐기고 다시 회관으로 가서 일을 하고, 숙소로 돌아왔다.

이제 러시아에 적응할만하니까 갈 시간이 다가왔다. 날이 가면 갈수록 아쉬운 마음만 쌓여간다. 불편한 화장실에도 조금은 익숙해졌고, 러시아 냄새라고 우리가 불렀던 암내 냄새도 어느 정도 익숙해졌고, 러시아 풍

경에도 많이 익숙해졌는데, 떠나야 할 시간이 다가오니 웬지 모를 설렘이 있었다. 출항날짜가 가까워질수록 잡다한 생각이 많아졌다.

러시아에서 있는 마지막 날! 우리의 고생을 보여주는 결과물을 보러갔다. 264학교인 러시아 학교에 우리나라 문화를 알릴 수 있는 한국 체험관을 만들었다. 내가 농장일하고 고려인 회관에서 일을 하는 동안 다른 센터는 이곳에서 체험관을 탐방작업을 하면서 만들어 놓은 것이다. 고생한 흔적이 눈에 띈다. 너무 수고들 하셨다. 학교에서 고려인회관으로 갔다. 울산 센터에서 예쁘게 꾸며 놓은 풍선아트 작품들을 놓고 많은 사람들이 축하하는 가운데 고려인 회관 개관식을 기쁘게 맞았다. 모두 다 즐겁고 행복한 표정이어서 뿌듯하고 기쁘다.

그렇게 모든 일정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왔다. 이젠 러시아에서의 마지막 밤이다. 러시아에 온지도 엇그저께 같은데 벌써 한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니. 섬섬한 마음이 가득하다.

저녁엔 바미큐파티와 캠프파이어로 섬섬한 마음을 조금은 털어낼 수 있었다. 그리운 러시아, 많은 기억과 추억을 남기고 떠나기 위해 마지막 밤을 지새웠다. 잠정리 하느라 늦게 잠들었지만...

아침에 기념품을 받아 정리해서 챙기고 숙소를 떠나기 위해 버스에 올랐다. 정든 식당아주머니들에게 인사를 나누고 9시간의 버스길을 떠났다. 올 때 보다 갈 때가 날이 밝아서 그런지 짧게 걸리긴 했지만, 마음으로 가는 시간은 1시간 밖에 되지 않은 것 같았다. 마음이 들떠있어서 그런가.. 또 힘들게 도착한 항구. 러시아에 있을 동안 같이했던 러시아 가이드 언니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우리가 움직일 때마다 버스 운전 해주셨던 버스 운전기사 폴레 아저씨와도 인사를 나누었다. 한국으로 가는 배, 동춘호 배에 올랐을 땐 맘이 울적했다. 집에 가는 기쁨보다는 러시아 떠난다는 슬픔이 조금 더 커서 그랬나보다. 또 19시간을 배안에서 보내고 속초에 도착. 이제 이 사람들과 마지막이다. 점심을 먹고 마지막 발대식을 가졌다. 뜻내 아쉽고 그리운 사람들은 떠나보냈다. 같은 방 써서 많이 정들었던 총복 팀과 인사하고 말 몇 번 걸었던 맘은 친구들도 떠나보냈다. 그리고 우리 충남 식구들과도 다음에 또 다시 보자는 약속을 남기고 집으로 향했다.

너무나 아쉽고 좋은 추억 맘이 남길 수 있었고, 학생 때 해외봉사활동 갔다 왔다는 사명감도 얻었고, 새로운 봉사활동을 체험 할 수 있던 좋은 기회였다. 러시아 해

외봉사는 내 평생에 있어서 너무나 좋은 추억이 되고 많은 가르침을 주었다. 이젠 욕심이 생긴다. 한국에서도 물론 많은 봉사활동을 하고 싶지만, 또 다른 해외 봉사 활동을 체험하고 싶은 욕심 말이다. 러시아에선 솔직히 많은 봉사는 하지 못했다. 러시아 물론 내 마음 가득히 속을 꽉 채우고 올 수 있는 좋은 기회였지만, 내 마음을 더 짹짹 눌러 채워 담을 수 있는 봉사를 더 다녔으면 좋겠다. 나중에 친구들, 친구들이 아니더라도, 이번

우리학교 “나눔미” 동아리를 특색 있는 동아리로 만들고 싶다. 노인정이나 기타 회관에 찾아가 노래를 가르쳐 드린다든가, 풍선아트를 배워 풍선아트를 하는 그런 동아리 말이다.

욕심일 수도 있지만 회관에서 이번엔 “나눔미”가 왔으면 좋겠다는 연락을 받던가, 봉사동아리 하면 “나눔미”를 떠올릴 수 있는 그런 동아리가 되고 싶다. 꿈은 꿈에서 멈추지 않고 현실로 바뀌어한다. 꼭 그럴 수 있

에 러시아가이 가면 사랑들 삼년명 다른 색으로 봉등 두루 행성, 우리 “나눔미”엔진 활동하고 신인선 활공록

이 러시아가이 가면 사랑들 삼년명 다른 색으로 봉등 두루 행성, 우리 “나눔미”엔진 활동하고 신인선 활공록 이 무슨 짓을 하고 있고 오기 외가인 을=일년 시절인 것 같다. 이젠저 욕망하고 나머지 좋은 기록이 왔으니. 그리고 사랑들에게 많은 사랑을 할 수 있고, 기회도 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절실히 한다. 앞으로 꼭꼭노인 분들 더 찾아보고, “사랑의 집” 방문횟수도 더욱더 늘이고 더 폭 넓은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 같다.

난 또 하나의 꿈을 갖고 있다. 부질없을 수 있지만

이러한 꿈을 이루기 위해 할 수 있는 것... 2011. 06. 06. 06:00:00
 욕망하지만 살고, 영의 영기를 피안하는 것...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 봉사가 주는 보람을 위한 것... 봉사는 아니다. 봉사는 나와 내가 어떤 의미를 위한 것이다. 내가 있고 내가 있기에 세상은 완성되는 것이다. 주위사람들에게 항상 권하고 싶다. “봉사는 좋은 것이다. 잃기 싫고 얻을 것을 찾는다면 봉사를 해라. 봉사는 너의 것을 빼앗아 가지 않는다. 항상 줄 뿐이지.”

특선(충청남도교육감)

박현아 | 온양용화고등학교 1학년



영실 춤을
던 풍악은
기 무섭게
들의 동작
연마한 티
공기를 복
침은 농담
들이 때에

같은 느낌
들은 과자
몇 개는
들에게 안
기워 하

한 손에
다들 웃고
있었다. 그
때부터

영실, 금식실, 강양, 휴식실,
식사를 들어 알고 계시는지
안도란 담소를 나누고 계셨
어도 봉사활동 차원으로 양
이 않게 손이 겹쳤다. 알고
말들은 사물놀이를 하고 있
게 공연을 온것이었다. 그
초등학교에 대한 간단한 소
올려 띄웠다. 확실히 어르
좋아하셨다. 그것이 어르신
었다면 그것은 거의 적중했

“엄마 봉사활동 다녀오겠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일어나서 준비하는 손길은 바빴다. 서둘러 이것 저것 준비하느라 행여나 늦지 않을까 공연히 조바심이 났던 나는 급하게 버스를 탔다. 요행히 약정 시간을 지킨 나는 일행들과 무리 없이 합류할 수 있었다. 평소 알고 지내던 지도 선생님, 안면이 있는 친구들 몇과 함께하는 이번 봉사활동은 나로서는 기실 오랜만의 일이었다. 초등학교 외에는 맹목적으로 시간을 때우기만 했던 나는, 진정으로 봉사할 환 가운데의 여우가 있었던 것이다. 그 후,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시절, 봉사활동은 그저 ‘의무’로 보자면 선생님의 추천에는 응조하지 않을 수 없었다. 사전에 엄마에게 그러한 계획을 전했다더니 엄마는 적극적으로 나를 밀어주었다. 중평한 이들은 구원의 손길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들을 도와주는 것은 충분한 의의가 있었다.

다시금 선생님의 차를 타고, 미리 연락을 해 두, 양로

한 손에
다들 웃고
있었다. 그
때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드문드문 강양을 나서는 발걸이
찾아졌다. 까담을 물었더니 추천시간이라 하셨다. 내가
안마를 해 드린 할아버님께서도 나를 배려한 연유로 진
지를 드신다며 서둘러 자리를 뜨셨다. 나는 낭자하게
떠져있는 일회용 접시를 한 곳으로 모아 쓰레기통에 버
렸다. 나는 어르신들의 식사가 한창이라 우리는 식당에
들어가기 전 적절하게 강당에 남아 있어야 했다. 곧이
어 어르신들의 식사가 끝나고 뒤늦게 밥을 먹을 수 있
었다. 점심을 먹고 우리는 관계자를 따라 청소를 하게
되었다. 관계자들은 우리를 객이 아니라 식솔처럼 여기
며 달가워했다. 매일 청소를 하는 듯 얼핏 보기에 도 쳐

다고 보였다. 다소 쾌활하신 할머니께서 명실
추시며 여흥을 즐기셨다. 한동안 공동을 올리
짐을 끝으로 향취를 남겼다. 사물놀이가 끝나
다음은 저학년 아이들의 춤이 이어졌다. 아이
은 어수룩했지만, TV에서 보던 춤을 열심히
가 났다. 어르신들은 박수를 치며 그들에게
돌아 주시었다. 사물놀이를 담당하시던 선생
조로 어린 아이들보다 인기가 없느냐며 사물
권 동반을 주기도 하셨다

배설했다. 할머니들은 정말같이 어린 아이들의
감명을 받으신 듯 보였다. 아따 당신의 손주 같
에서이러라. 자라는 새대가 다른지라 어르신들
엔 손도 대시지 않고 과일만을 드셨다. 그 중
우리들의 입으로도 들어왔다. 다음은 어르신들

마음 해, 드리는, 슈셔였는데 어르신들은 매우 기
한 손에
다들 웃고
있었다. 그
때부터

러운 곳은 딱히 없었지만 하루에 한 번 쓰는 곳을 우리가 쓸면 일손을 덜게 되는 것도 사실이었다. 휴여 먼지가 날릴 수도 있으니 들어가 계시라고 어르신들께 당부를 한 다음 우리는 청소를 시작했다. 후덕하신 마음씨를 가지신 할머니는 뭣하러 여기까지 와서 고생이냐며 시종일관 미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셨다. 우리는 겸허하게 고개를 젓고 청소에 임했다. 초등학교 봉사단이 있어 적은 인원은 아니었던 우리는 둘로 나뉘 한 쪽은 화장실을 한 쪽은 복도나 발길이 닿는 곳을 청소하기로 했다. 초등학교 선생님은 일부러 어려운 일을 도맡아 화장실을 하겠다고 흔쾌히 나섰다. 덕분에 우리는 쉬이 복도를 할 수 있었다. 일이 너무 일찍 끝나게 되자 우리는 내부를 청소하고 밖으로 나와 화원에 있는 쓰레기를 주웠다. 초등학교 아이들은 아직도 청소를 마치지 못해 분주한 모습이었다. 잠시의 기쁨이 생긴 우리는 쉼터에 앉아 조용히 정경을 바라보았다. 뭔가 몽상에 젖을 무렵 나를 일깨우는 선생님의 소리가 들렸다. 다시 들어가 보니 또 시킬 일이 남으신 모양이었다. 그닥 어려운 일이 아니라 대충 심부름을 하고 뭘 또 치울 것은 없나 주위를 둘러보는 것으로 청소를 마쳤다. 양로원의 관계자는 우리에게 연신 고맙다고 감사의 예를 표하며 간식을 사주려 하였다. 하지만 선생님은 한사코 거절하시며 양로원을 나오셨다. 일추 시간이 되자 우리는 온자하신 어르신들께 인사를 드리고 밖으로 나왔다. 어르신들은 고사리 같은 아이들의 손을 잡고 안타까워 하셨다. 내가 보기에 그것은 안타까움 뿐만이 아니라도 정에 목말라하는 슬픔과도 같아 보였다. 당신계는 장성한 아들이 있겠지만, 연락이 두절된 것인지 아니면 아들 내외에게 폐해를 끼치고 싶지 않아 제 발로 나오신 것인지 몰이 자식과 떠나있다. 아이들의 아성이 그리울 만도 한 데 밝게 웃을 일도 없고 남은 잔년을 사시려니 얼마나 답답하였을까. 그저 찾아오는 객들을 보는 것만도 즐거우셨을 것이다. 선생님이 주차하신 곳까지 걸어가 다시 차를 가지고 오는 순간까지 탄감이 오갔다. 봉사활동을 할 장소가 꼭 양로원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예전에도 한 번 지체장애인이 있는 곳에서 봉사활동을 한 적이 있었다. 그때는 정말 우연찮은 기회로 하게 되었는데 아이들은 생각 의외로 굉장히 순수했다. 어리광

이 많고 광포할 거라 흔히들 생각하는 것은 모두 편견이라는 것을 그 때 알게 되었다. 그 아이들은 외부인의 방문을 무척 즐거워했다. 나에게 관심을 보이며 이것저것 말을 걸려 시도를 하기도 하였다. 나는 이상하게 그것들이 그다지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때 묻지 않은 순수함이 부럽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그때부터 나의 일편지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자각했다. 그러나 막상 봉사활동을 하게 될 발미가 없다는 것을 핑계로 나는 얼마나 편안한 삶에 안주하려 했었는가. 아마 베푸는 일에 미숙했던 나의 과오였을 것이다. 현세의 상황은 공경과 도덕을 망각한 상실의 시대다. 가끔 어른들이 탄식처럼 뇌까리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다. 온정이 메마르고 점차 아이들의 사고조차 달라지는 삭막한 현실을 염려하는 현실의 소리를..... 그런 것을 통감하고 있을 때에 때마침 나타난 자선의 기회는 나의 심안을 좀 더 눈 뜨이게 해주었다. 베풀지 못해 마음이 협소한 나는 예의범절을 알지만 행하기는 쉽지 않았다. 그러한 오점을 만회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으로 이번 일에 노력했지만 실질적으로 느낀 바가 더 큰 것 같다.

나에게도 떨어져 사시는 외조모가 계신다. 나는 늘 할머니와 같이 살고 싶어 하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아 가끔씩 통화로만 음성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이다. 할머니를 보면 항상 가슴 한 곳에 연민이 스미난. 가솔들과 함께 할 수 없는 아픔, 홀로 사시는 데 대한 환과고독이 얼마나 할머니를 괴롭게 할까.

양로원에서 무료한 시간을 지내시는 어르신들을 뵈며 할머니가 더욱 그리워졌다. 어지러운 상념에 젖어있는 동안 선생님의 차가 도착했다. 아이들은 차에 오르며 어르신들께 손을 흔들었다. 어르신들은 인사를 마치고 은행나무 아래로 향하셨다. 폭염은 꺾였지만 훈기가 온전히 가지지 않은 까닭에 잠시 소후식을 취하시는 모양이었다.

우리가 간다니 부쩍 서운해 사시던 그 분들의 낮이 자꾸만 마음에 걸렸다. 작은 것 하나에도 쉬이 감사해 하며, 정을 나누시는 다감한 모습이 편협한 나를 참회하게 하였다. 정말이지, 제대로 된 선(善)은 얼마나 행하기 어려운 것인가.

특선(충청남도교육감)

강윤하 | 광석중학교 1학년



웃고 있는 장애우와 함께하는 행복한 학교생활

지금 내 옆에서 웃고 있는 친구가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오늘도 다른 친구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친구들과 나 자신을 보고 많은 보람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바로 특수학교에서 공부를 해야 할 지경인데도 선천성 청각장애 2급(상대방 말을 50% 밖에 들을 수 없는 장애)장애우인 수지와 함께 공부하고 있는 광석중 1학년 1반 친구들입니다. 지난 4월 20일 『제26회 장애인의 날』 장애우가 있는 학급의 소중한 체험 학습으로 논산교육청 홍보자료실과 디지털충남교육,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 함께하는 세상에 소개된 바로 그 주인공 김수지 양입니다. 그 날의 체험 학습은 시각장애 체험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저희에게 눈을 가리고 도서실을 한 바퀴 돌도록 지도하셨죠. 그리고 청각과 촉각으로만 도서실의 여러 가지를 느껴보라고요. 소감문에서 모두들 수지를 걱정했습니다. 우리는 들을 수 있는 데 수지는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체험학습을 마친 수지는 식은땀이 많이나 있었습니니다. 정말 불안하고 무서웠던 모양입니다. 처음으로 해 본 장애체험이었는데 그 뒤로 수지를 더욱더 보살피 주고 있습니다.

제겐 장애우하면 싫어하고 꺼려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수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말도 잘 하지 못하고 듣지도 못한다는 말에 놀랐습니다. 저는 친해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는지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아이와 친구가 되면 제가 민망할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같이 놀고 싶지만 아이들 때문이었을 지도 모르죠. 공부도 못할 것 같고 제가 불편할 거 같고 힘이 들 것 같았습니다. 같이 놀지도 않았고 말을 걸어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장애우 수지와 말 한번 해보지 않고 존재감이 없는 친구처럼 대했습니다. 무시해버리

면서요.

언제부턴가 수지가 혼자 쓸쓸하게 있는 날이면 저도 왠지 조금은 우울해 진 것 같았고, 놀아주고 싶은 마음도 들었습니다. 이런 마음이 든 이유가 왠지 그 일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아침 8시경 등교이후 오후 5시에 하교할 때까지 하루 종일 9시간이상 수지와 함께하는 저를 우리 선생님은 도우미라고 부르십니다. 선생님 말씀에 의하면 “일과 중에 이루어진 활동이라서 규정 상 봉사활동으로 인정해 줄 수 없어서 참으로 안타깝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봉사 활동 인정을 바라고 하는 일은 절대 아닙니다. 제 자신이 착한 일을 한다는 마음의 보람을 느끼고 있으니까요. 한 달에 20일을 9시간 이상이면 180시간, 토요일 2번 4시간씩 8시간, 일주일에 3번(월, 수, 금) 미술학원에 함께 가서 3시간씩 12시간 한 달에 200시간 이상을 같이하는 저의 소중한 파트너입니다. 3월부터 9월 말까지 1,200시간 그리고 2006 논산 딸기축제 기간 봉사활동을 같이 한 8시간과 미술대회 3회 참가하여 같이 한 24시간까지 우리 선생님의 계산에 의하면 무려 1,232시간이네요. 이 많은 시간을 수지와 같이하면서 저는 전보다 더욱 성장한 느낌이 들어 오히려 수지에게 감사할 뿐입니다.

가장 안타까울 때는 수지가 몸이 불편할 때입니다. 자존심이 무척 강한 아이라 제게 말을 하지 않는다고요. 저는 마음이 통하는 친구라서 재빨리 표정을 알아차리고 수지 옆마에게 문자메시지로 연락을 합니다. 물론 담임선생님께도 말씀을 드리구요.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수지가 내용을 잘 못 알아들을 때면 저는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수지가 물어 보는 내용은 되도록이면 자세히 알려주려고 합니

다. 제 말을 못 알아들을 때면 글씨로 써 주거나 말을 또박또박해서 알려주기도 합니다. 수지는 저의 입모양을 보고 말뜻을 이해합니다. 수지도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수지는 자신이 청각 장애우라고 걱정을 하나 봅니다. 제가 바빠서 수지 얘기를 들어주지 않으면 무시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자존심이 아주 강한 아이고 고집이 아주 셉니다.

나는 그런 것이 아닌데,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수지가 알아주었으면 합니다. 항상 수지가 옆에 있어서 좋은 것은 아니에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듣고 알려주어야 하는데, 먼저 “뭐라고 말씀하세요?”라고 물어보면 수지 얘기를 들어주느라 그 다음 선생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알려 줄 수도 없거든요. 하지만 귀찮다고 말을 하면 속상할까봐 저는 아주 작은 배려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작은 배려가 수지에게 좋은 영향을 미쳤으면 하는 바램도 있고요.

가장 난처한 경우는 한 학기에 두 번 있는 교육방송의 영어듣기 평가시간입니다. 제가 통역을 할 수 없는 유일한 시간이지요. 거의 알아들을 수 없는 수지를 위해선 영어듣기 평가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를 위해서 노력하니까 기분이 정말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지는 우리에게 우정이라는 사랑을 느끼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뿌듯해지기도 합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과 친구가 되면 민망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에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신성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우정으로 저와 제 친구들은 오늘도 역시 많은 보람을 느낍니다. 정말 행복하고 힘찬 하루 하루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의 학교생활도 수지와 함께하며 그림자처럼 보살피주는 그런 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수지가 청각을 회복하여 행복한 학교생활을 같이 할 수 있는 날이 하루 빨리 오기를 오늘도 기원합니다.

특선(충청남도교육감)

조정희 | 온양용화중학교 3학년



나의 편견과 이기심을 잠재워준 만남

마음속에선 언제나 ‘시간이 되면 참다운 봉사란 결해 봐야지.’ 하고 늘 생각해왔었다. 하지만 언제나 생각뿐... 봉사하면 왠지 거창하고 어려운 절차가 생각이 났기 때문에 선뜻 나서질 못했다.

그러던 중 중학교에 들어와서 봉사활동이 주어졌고 내가 할 수 있는 거라곤 관공서에서 문서수발과 청소 등등 지극히 사소한 것들뿐이었다. 다행히 우리 용화중학교엔 ‘큰사랑봉사단’이란 단체가 있지만 그것 또한 왠지 ‘봉사’란 단어 때문에 근접하기 어려웠다. 그렇지만 한 번쯤은 지체장애우들, 소외된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생활하고 싶어서 오랜 시간 동안 생각한 후 엄마께 말씀 드렸더니 봉사단체에 흔쾌히 가입을 해 주셨다. 우리 용화중학교 봉사단은 학생들이만 가입하는 것이 아니고 어머니들과 함께 가입을 하기 때문에 좀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봉사를 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어 있었다. 난 3학년이 되어서 가입을 했기 때문에 다른 회원들보다는 참여 횟수가 적었지만 나한테 너무도 많은 것을 깨우치게 하고 느끼게 해 준 경험이었다.

봉사단에 들기 전 나는 학교에서 장애체험을 했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한번 체험해본 경험이 있었기에 힘이 들겠다고 예상은 하고 있었다. 비가 올 것 같다고 해서 휠체어체험은 하지 못했고 시각장애인의 흰 지팡이와 목발로 걸어가기로 했다. 몇 년이지나 있어버리고 있었던 장애인들의 느낌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다. 안대를 썼을 때의 그 어둡고 무서운 기분을 잊지 못할 것이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가야한다니 정말 딱딱했다. 그 짧은 거리와 시간이 무서웠다. 계다가 목발로 걷는 체험은 겨드랑이가 너무 아팠다.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이 항상 두발로 편하게 다녀서 몰랐는데 한발로 목발을 지탱 하며 걸으니 힘이 확 빠져버렸

다.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은 이 계단을 수 없이 오르내리셨을 텐데 얼마나 힘이 드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 체험을 통해 나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고 무조건 도와드려야겠다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들에 대한 예의 또한 지켜야겠다고 느꼈다.

그 후 내가 봉사단에 들어와 처음으로 했던 봉사활동은 풍선 만들기였다.

봉사 가기 전에 풍선아트교육을 미리 배웠고, 그 시설 실정에 맞게 계획을 짜면서 조심스레 시작된 체계적인 나의 첫 봉사였다. 청소나 하던 천편일률적인 봉사에서 어르신들과 같이 풍선을 만들면서 담소 나누며 알록달록한 색깔의 풍선으로 꽃과 나비, 왕관, 하트, 강아지를 만들었다. 다 만들어진 풍선 왕관을 할머니께 씌어드렸더니 너무도 기뻐하셨고, 마치 소중한 선물을 받은 듯 두 손으로 들고 방으로 가셨다. 남아있는 꽃과 나비로 된 풍선으로는 각 방에 장식을 해드리면서 몸을 잘 움직이지 못하시는 분들과 얘기도 나누었다.

각 방에 풍선장식을 해드리다 치매에 걸리신 할아버지를 뵈게 되었다. 처음에 할아버지 방에 풍선을 붙여드리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기에 할아버지의 손을 잡아드리고 당연한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니 환하게 웃으시면서 고개를 끄덕거리시며, 갑자기 배가 고프다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원장님께 말씀드렸더니 좀 전에 식사를 하셨다고 하였고 그 할아버지께서 치매에 걸리신 분이라고 하셨다. 원장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할아버지께 갔는데 나에게 왜 밥을 안 주냐고 화를 내셨다. 그 순간 나는 가슴에서 무언가가 고동치는 느낌을 받았다. 치매에 걸리신 분을 만난 것이 처음이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그 분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 때문에 그랬던 것인지 아직도 모르겠다. 이렇게 방망이 치듯 가슴 일렁이며 수없이 많은 깨달음을 안겨줬던 풍선 아트 봉사는 나의 봉사활동의 첫 출발이었다.

두 번째 봉사활동은 발마사지였다.

학교에서 강사 선생님께 발마사지 하는 법을 배우고 노인 분들께서 계신 곳으로 갔다. 나의 발마사지 상대는 할머니였는데 그 할머니께서 바지를 걷는 순간 다리에 각질이 하얗게 일어나 있고, 피부가 여러 군데가 터져서 피가 고인 것이 눈에 들어왔다. ‘아빠! 저 다리를 어떻게 만질까?’ 짧은 순간이지만 난 내 이기심과 싸워야했다. 그런데 할머니께서 나에게 “학생 미안해. 다리가 이래서.” 라고 하시며 멋쩍어 하시는데 내 자신이 정말 한심했고 죄송스런 마음에 눈을 어디에 둘지를 몰랐다. 다만 나의 이 작은 이기심이 할머니께 들키지 않기를 바랄뿐이었다. 그렇기에 나는 더욱 정성을 담고 마사지를 해드렸다. 발마사지를 끝내고나서 친구들과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계신 방에서 얘기를 나누었다. 얘기를 나누고 나서 친구들은 방을 나가고 나 혼자만 남았다. 내가 할머니의 손을 잡았는데 할머니께서 나에게 “학생! 고마워...” 말씀하시며 눈에 눈물이 맺혔다. 할머니의 눈물을 보며 나도 모르게 나의 눈에서 눈

할머니라고 부르기 전에 손녀와 손자로 먼저 다가오심에 그리움과 정이 이런 거구나 또 하나의 열매를 얻어왔다.

얼마 전에는 추석이 다가와 송편 만들기를 하였다.

반죽이 너무 일찍 와서 그런지 송편을 빚는데 반죽이 다 갈라져 버렸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할머니들께선 너무나 예쁘고 갈라진 곳이 없게 빚으셨다. 그러시면서 세월의 연륜으로 어머니들께 익반죽이 덜 돼서 갈라진 다며 뜨거운 물을 좀 섞으라하셨다. 가정에선 저리 살림을 지휘하셨을 텐데. 하는 생각에 마음이 짠~ 했다. 우리들은 그저 송편 빚으시는 것을 멍하니 바라만 보았고, 곁에서 말벗이 되어드리며 조금씩 송편 빚기를 배워갔다. 송편을 빚으시면서 즐거워하시는 모습을 보니 ‘우리가 아닌 가족들과 이리하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에 또 한번 가슴이 아파왔다.

그 외로 나는 봉사단 친구 한 명과 담당 선생님의 소개로 독거노인 보살피기를 하고 있다.

우리가 맡게 된 할머니는 연세가 팔십이 넘으셨지만 정말 밝으신 분이다. 할머니와의 첫 만남 때 설레임과 조금은 조심스런 마음으로 할머니를 뵈었는데 마치 며칠 전에 보고 또 보는 분처럼 편안하게 맞아주셨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조금이라도 할머니를 도와드리려고 하

나의 눈물을 닦아드렸고 할머니께서 고맙고 감사하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나서 방을 나오는데 봉사단 단장님께서 나를 보시며 빙그레 웃어주셨다. 그 곳에 오신 다과상에 둘러앉았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며 정말 마음으로 하는 봉사가 어떤 것인지 확실하게 할머니의 인생 소절 속에서나 보고

또 한번은 코스모스를 만들어 드리기 위해 다른 꽃을 찾아갔다.

꽃 만들거라서 그런지 할머니들께서 맘이 호젓고 모두 하하 호호 하며 재미있게 만들었다. 할머니들도 직접 꽃을 만드시니 너무나 좋으신가 보다. 내가 사진을 찍게 되었는데 친구들도 할머니들도 즐거워하시는 표정을 찍으니 나의 입가에도 미소가 걸렸다. 그러면서 난 또 하나의 편견을 깨뜨릴 수가 있었다. 시설에 계신 분들은 웬지 안 웃으시고 경직되어 보이고 슬퍼 보일 줄 알았는데 너무도 밝게 우릴 맞아주시고, 우리가 미처

봉사를 할 때 할머니들께서 맘이 호젓고 모두 하하 호호 하며 재미있게 만들었다. 할머니들도 직접 꽃을 만드시니 너무나 좋으신가 보다. 내가 사진을 찍게 되었는데 친구들도 할머니들도 즐거워하시는 표정을 찍으니 나의 입가에도 미소가 걸렸다. 그러면서 난 또 하나의 편견을 깨뜨릴 수가 있었다. 시설에 계신 분들은 웬지 안 웃으시고 경직되어 보이고 슬퍼 보일 줄 알았는데 너무도 밝게 우릴 맞아주시고, 우리가 미처

봉사를 할 때 할머니들께서 맘이 호젓고 모두 하하 호호 하며 재미있게 만들었다. 할머니들도 직접 꽃을 만드시니 너무나 좋으신가 보다. 내가 사진을 찍게 되었는데 친구들도 할머니들도 즐거워하시는 표정을 찍으니 나의 입가에도 미소가 걸렸다. 그러면서 난 또 하나의 편견을 깨뜨릴 수가 있었다. 시설에 계신 분들은 웬지 안 웃으시고 경직되어 보이고 슬퍼 보일 줄 알았는데 너무도 밝게 우릴 맞아주시고, 우리가 미처

봉사를 할 때 할머니들께서 맘이 호젓고 모두 하하 호호 하며 재미있게 만들었다. 할머니들도 직접 꽃을 만드시니 너무나 좋으신가 보다. 내가 사진을 찍게 되었는데 친구들도 할머니들도 즐거워하시는 표정을 찍으니 나의 입가에도 미소가 걸렸다. 그러면서 난 또 하나의 편견을 깨뜨릴 수가 있었다. 시설에 계신 분들은 웬지 안 웃으시고 경직되어 보이고 슬퍼 보일 줄 알았는데 너무도 밝게 우릴 맞아주시고, 우리가 미처

들이 참으로 창피하고 한심하다고 느껴졌다.

그 보잘 것 없는 틀에 왜 힘겹게 끼워 넣었을까? 마음은 그 분들이 더 부자인 것을. 우리가 작은 것 하나 나눠드리고 오지만, 되돌아오는 길엔 가슴이 벅차도록 넘치는 사랑을 오히려 받고 오는 것을... 아직도 사회에서 소외된 분들께 내가 드려야 할 것이 많기만 하다는

것을 이 값진 경험을 통해 얻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중학교를 졸업한 후에도 나의 작은 봉사는 계속될 것이다. 친구들과 혹은 가족과 함께 내 힘과 사랑을 조금이나마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다면 굳이 봉사란 이름을 내걸지 않더라도 나누며 더불어 살아갈 것이다.

봉사상(충청남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소장)

김슬기 | 홍성여자고등학교 1학년



봉사는 행복을 신고

청로회에서 봉사활동을 하기 전 나는 봉사라고 하면 부유한 사람들이 자신이 가진 부의 일부를 기부하여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 형식적인 일이라고 생각했다. 솔직히 '봉사'라는 말에 대해서 나는 노동이 필요하면서 가진 자들이나 할 수 있는 행위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내가 청로회라는 봉사단체에 들어가서 처음 봉사를 하면서 봉사가 그저 부유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봉사를 시작한 첫날 부자가정을 방문하여 어린아이(10세)를 돌보면서 가정일을 돕는 일을 하게 되었다. 어머니는 가솔하여 관심과 사랑을 받지 못한 아이. 알코올 중독자의 아빠 밑에서 가정이 무엇인지 행복이 무엇인지 모른 채 살아가고 있었다. 인스턴트식품으로 끼니를 때우며, 제대로 씻지도 못한 피죤이 가득한 몰골에다 그늘진 표정은 금새 방치된 아이임을 알 수 있었다.

처음 하는 봉사라 어디서부터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랐다. 그러나 곧 나는 선배들처럼 일을 하니, 봉사를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내 일처럼 우리 집 청소하는 것과 같이 청소를 하고 있는 나를 발견했다. 이렇게 남을 돕는 일이 즐거운지 몰랐다. 나는 먼저 열

심히 하려 했고 협동하면서 봉사하는 것이 즐거웠다.

등교길이 깨끗한 것은 우리가 잠들어 있는 깜깜한 밤에 환경미화원들이 깨끗하게 청소를 해주었기 때문이듯 내가 행한 봉사를 몰라준다고 노여워하거나 속상한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베푸는 사랑의 가치를 조금은 알 수도 있을 것 같았다.

봉사를 마치고 돌아온 직후 나는 다시 봉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내가 도움과 사랑을 나누어 줌으로써 다른 사람이 행복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행복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그 행복을 더 많은 사람들과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청소를 끝내고 느낀 쾌감, 한없이 선량하고 맑은 아이들의 눈빛 그리고 깨끗해진 집을 보며 즐거워하는 모습이 아직 까지도 눈앞에 아른아른 거린다. 친구들도 더 깨끗이 더 잘해주지 못한 마음에 많이 미안해하였다.

내가 봉사동아리에 들어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과 사랑을 나누어 주어서 그들이 행복해하고 나 또한 행복해지는 봉사! 봉사는 행복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다. 봉사를 통해 삶을 배우고 삶은 곧 나눔이라는 소박한 말이 진정한 진리를 이제는 조금이나 알 수 있을 것 같다.

봉사상(충청남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소장)

장용익 | 청양정산고등학교 3학년



캄보디아 하늘아래 (해외봉사활동)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 '캄보디아'라는 낯선 곳으로 9박 10일의 일정으로 봉사활동을 다녀왔습니다. 제가 아는 캄보디아는 우리나라의 60-70년대를 방불케 하는 살기 어려운 나라라는 것과 '앙코르왓트'와 '씨엠랩'이 캄보디아의 대표적 관광명소라는 것뿐이었습니다. 그것도 TV를 통해서 알게 된 내용이지만 말입니다. 웬지 떠날 때부터 마음이 내키지 않았습니다. 못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더럽고, 도둑과 강도가 많을 거란 생각이 저를 자꾸만 망설이게 했습니다.

떨리는 마음과 함께 저의 9박 10일의 봉사활동 대장정은 시작되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꼬박 8시간을 날아 태국에 도착한 후, 2시간 정도 비행기를 더 탄 후에야 목적지인 캄보디아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본 캄보디아의 수도 프놈펜은 우리나라의 제주도처럼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60~70년대의 모습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떠나기 전 불안했던 저의 마음은 기우에 불과했습니다. 짐을 차에 싣고 있는데 어디서 많이 보았던 차들이 지나다녔습니다. 대우, 기아, 현대. 등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차들이 프놈펜을 활보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낯선 땅에서 한국 사람을 만난 것만큼이나 기뻐했습니다. 그런 저의 마음을 아셨던지 선교사님께서 한국에서 쓰던 자동차들을 캄보디아에 원조 해준 것이라 하셨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우리가 묵을 숙소는 프놈펜에서 차를 타고 30분 정도 가야 하는데, 하늘에서 본 아름다운 프놈펜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TV에서 보았던 더럽고 낡고 지저분한 풍경들이 펼쳐졌습니다. 낡은 판자들을 이리저리 엮어 만든 집 앞엔 벽들로 번듯하고 튼튼하게 쌓은 집도 있었

습니다. 바로 지척에서 굶주리는 데 한쪽에서는 부족함 없이 살 수 이 먹을 것 없어 굶주리는데 한쪽에서는 부족함 없이 사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부익부 빈익빈의 사회적 모습을 캄보디아에서도 확연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낯선 여행지에서 하루를 머문 뒤, 우리는 캄보디아에 있는 교회를 순회 하며 봉사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구호품을 차에 싣고 캄퐁참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캄퐁참은 수도 프놈펜 북동쪽 약 80km 지점에 위치하며 메콩강(江) 본류를 끼고 있는데, 캄보디아에서 도시 계획이 가장 잘 이루어진 곳이라 합니다. 교회에 도착한 후 구호품을 내렸습니다. 여기저기서 아이들이 몰려와 '원 달러'를 외치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래서 전 무심코 달려 한 장을 꺼내 아이에게 주려 했습니다. 그러자 선교사님이 그러면 안 된다며 아이들을 내쫓았습니다. 전 불쌍한 아이들에게 왜 그러시느냐고 여쭙어 보았더니, 한 사람을 주면 모두를 다 취야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1달러는 가족들이 하루 배블리 먹을 수 있는 큰 돈이라 하였습니다. 1000원이라는 작은 돈으로 가족들이 하루를 배블리 먹을 수 있다니, 캄보디아의 열악한 현실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50년대만 해도 우리를 원조해 주었던 나라였는데, 오랜 내전과 전쟁으로 이런 열악한 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이 너무나 불쌍했습니다.

교회 앞에는 물웅덩이가 있었는데 온통 흙탕물이었습니다. 그 흙탕물 속에서도 아이들은 수영하고, 심지어는 그 물을 떠 마시기도 했습니다. 흙탕물로 식수를 하고 있는 그들의 안타까운 현실을 생각하면서 난 나도 저 물을 먹어야 하나? 걱정부터 앞섰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내 모습을 보며 인간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우리를 위해 5km 떨어진 곳에서 깨끗한 물을 받아오신 고마운 분 덕분에 우리 깨끗한 물로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본격적인 봉사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우선 아이들을 불러 손톱부터 다듬어 주었습니다. 아이들의 손톱은 때가 끼어 물로 닦아도 닦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는 석회질의 물을 마셔 고르지 못하고 썩어 있었습니다. 캄보디아에도 병원은 있습니다. 그러나 병원의 위생상태

가 있을 만할 수 없을 만큼, 여하한 면입니다. 재가다 남. 단. 영. 귀. 그. 진. 영. 을. 앞. 앞. 보. 기. 이. 해. 있. 는. 지. 지. 마. 는. 주. P. r. i. n. c. i. p. a. l. 이. 었. 습. 니. 다. 물. 이. 었. 습. 니. 다. 물. 만. 하루 먹고 떡이었습니다.

우리는 저녁을 준비하기 위해 두 팀으로 나뉘어 각각

말은 반찬거리를 사기로 했습니다. 캄보디아 사람들은 우리가 지나갈 때마다 서툰 한국어로 ‘안녕하세요?’ 인사도 해 주시고 ‘이거 싸’란 말도 해서 우리를 웃게도 만들어 주셨습니다.

장을 보고 숙소로 돌아와 맛있는 저녁식사를 한 후, 바탐방에 있는 교회로 가 준비해간 리코더로 연주 실력을 마음껏 뽐냈습니다. 춤도 추고 웃기도 하면서 어린 어느새 한 가족 이상의 정이 들고 말았습니다. 다음날 우리 봉사활동 하기 위해 배를 타고 이동해야 했습니다. 멀미를 하면 어쩌나 한참 걱정하고 있는데, 그런 저의 걱정을 아셨는지 그 곳에 사는 분이 옥수수과 바게트 빵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어찌나 맛있던지, 그것을 먹다 보니 어느새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우리가 도착한 섬의 작은 교회에 가 보니 예배를 드리고 계셨습니다. 조용히 앉아 함께 설교를 듣자니, 며칠 전 짐이 불에 탄

분을 위해 헌금을 걷는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도 적은 돈이지만 기쁜 마음으로 헌금을 하였습니다. 예배가 끝난 뒤 목사님께서 우리 봉사단을 마을 분들에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려운 분들을 찾아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도착한 곳은 한 노인이 누워계신 집이었습니다. 그 분은 예전엔 부자였고, 마음씨 또한 아주 좋은 분이였다 합니다. 그러나 중풍 때문에 병원에서 집까지 파졌지만, 완쾌 되지 못하시고 교회의 도움과 마을 분들의 도움으로 근근이 살아가고 계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 집도 청소해 드리고, 준비해간 약과 식료품도 나눠드리고, 이야기도 나누며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눈물을 보이지 않으시려 안간힘을 쓰시던 할아버지는 결국 우리들 앞에서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며 우리의 손을 꼭 잡고 계신 할아버지를 보니 예전에 돌아가실 때 제

교회로 나와 열심히 공부를 한다고 선교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아이들의 눈을 보니 캄보디아의 미래가 암담하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바탐방의 아이들을 뒤로 우리 세 번째 교회로 이동했습니다. 우리 그곳에서 3일 동안 머물기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도착한 후 가장 먼저 시장을 구경했습니다. 선교사님과 함께 갔는데 시장은 우리나라의 장처럼 복잡하게 거렸습니다. 먹거리도 많았고, 구경거리도 많았습

니. 이. 었. 습. 니. 다. 물. 만. 하루 먹고 떡이었습니다.

아이들의 손톱을 다듬어 주었습니다. 선교 시간을 가졌

캄보디아어로 노. 간을 보냈습니다. 모양의 인형을 었습니다. 참 순. 아프지 않고 건. 절히 기도했습니. 다음 날, 우리. 품들을 아이들. 장소인 바탐방. 쪽 160km에 우. 톤레사프호(湖) 니다. 태국에 속. 복귀된 곳입니다. 곳이기도 합니. 즐거운 시간을. 에서 가져간 한. 포육 안이주었. 로 자랑도 하고. 이었지만, 새. 게 줄 수 있다. 은 학교처럼 책. 들을 위해 공부. 나 없이 어두컴. 생각하니 시원. 사실에 감사할. 하기 싫다고 투. 럽기만 했습니.

손을 꼭 잡아 주시던 할아버지를 뵈는 것 같아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모든 봉사단이 함께 울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건강하게 사시길 기도드리며 우린 다음 장소로 이동하였습니다. 해맑은 아이들의 미소를 보니 조금 전 할아버지를 만나 뵈 후의 쓸쓸하고 서글픈 마음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활기찬 우리들의 본래 모습으로 돌아와 아이들과 풍선도 불고 노래도 부르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봉사활동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왔을 때는 몸 하나 움직이기 힘들 정도로 녹초가 되어 있었습니다. 잠자기 전 제가 실수한 것은 없는지 꼼꼼히 되짚어 보며 하루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다음 날, 봉사활동은 잠시 쉬고 그 도시의 청년들과 축구시합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냥 재미삼아 해야지 하던 생각은 딱상 경기장에 도착하고 유니폼을 입고 사진을 찍으면서, '이겨야 하는데 지면 어찌나?' 온통 걱정과 긴장으로 가득 찼습니다. 터군다나 많은 캄보디아 사람들이 구경을 나와서 그러니 더욱 긴장이 되었습니다. 응원단의 기세에 놀려 경기를 제대로 할 수 없었던 우리는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가며 결국 3:2로 이겼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 우리에게 박수도 쳐주고 임지를 들어 환호해 주는 캄보디아 국민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라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제가 이들을 위해 무언가 할 수 있다는 사실이 행복하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뜻 깊은 축구경기를 마치고 우린 봉사활동지인 교도소를 방문했습니다.

우리는 교도소하면 담장이 높고 철조망으로 둘러쳐져 있으며 규제가 엄격하며 경비가 삼엄한 무시무시한 분위기를 먼저 생각하는데 캄보디아 교도소는 우리의 생각과 많이 틀렸습니다. 경비하는 경찰도 2~3명, 담장도 그리 높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교도소는 교도소인지라 우린 긴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 선교사님은 천천히 말씀해주셨습니다. 이들은 모두가 나쁜 짓을 해서 들어 온 것이 아니라 일부러 들어 온 것이라고 여기 있으면 먹을 것 걱정이 없기 때문에 일

부러 도둑질을 하고 잘못을 저질러 들어온 사람이 많다고 선교사님의 얘기를 듣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 좀 전의 마음과 달랐습니다. 우린 그들을 위해 우리가 준비해간 먹을 것과 춤과 노래를 선사했습니다. 그분들의 답례로 박수 치며 열렬히 환호해 주셨습니다. 방문해 주어 고맙다며 다음에도 꼭 오라는 말씀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교도소 봉사활동을 마친 후 숙소로 돌아와 맛있는 저녁을 먹었습니다. 우리가 9박 10일 동안 캄보디아에 머물면서 빠지지 않고 꼭 나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기반찬이었습니다. 이상해서 선교사님께 여쭙어보았더니 잘살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왔기 때문에 고기반찬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귀한 손님이 오는 날 아니면 고기는 1년에 한 두 번 밖에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를 극진하게 대접해 주시는 그분들께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분들은 저희와 함께 밥을 드시지 않고 꼭 우리가 먹은 후에 식사를 하십니다. 나보다는 남을 배려해 주는 그분들의 모습은 그동안의 제 모습을 되돌아보게 했습니다.

길게만 느껴졌던 9박 10일의 일정을 다 소화하고 우린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저에게 많은 가르침과 깨달음을 주었던 캄보디아를 떠날 생각을 하니 너무 슬펐습니다. 더 열심히 할 걸 하는 후회도 일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꼭 다시 와서 순수하고 착한 마음을 지닌 그분들과 생활하고 싶습니다.

세계 최빈국 5위 안에 드는 캄보디아!

그러나 세계에서 행복지수가 제일 높은 나라 5위안에 드는 캄보디아

작은 것에도 만족할 줄 아는 사람들... 불행 속에서도 희망이란 단어의 끈을 놓지 않은 그들을 보니 캄보디아는 아직 희망이 있는 땅인 것 같습니다. 순수한 열정과 희망을 지닌 그들이 있기에 캄보디아를 잊을 수 없나 봅니다.

봉사상(충청남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소장)



본시업 | 봉사금장 | 학교 | 동학고 | 공학고

양원

내 집같이 편한 동곡요양원

고, 종이접기도 같이하면서 하트모양
주셨던 분도 있었다. 그리고 개그
아저씨도 있었다.

이곳에서 6시간동안 있지? 하는 생
사실 나의 마음이었다. 하지만 이곳
고 게임도하다보니 6시간이 짧게 느
도 빨리 지나갔다.

간이 되어서는 좀 더 있고 싶어졌었
에 돌아가는 동안에도 머릿속에는 온
구들 생각뿐일 정도로 짧은 시간동안
에게 정이 많이 들었었다.

원 식구와 선생님들 때문에 주말이
원에 가고 싶을 정도로 너무 편안하

면서 많은 것도 느끼게 되었고, 사람
가르쳐주지 못하고, 잘해주지 못 한
마음이 들기도 하였다.

동을 다니면서 장애인들에 대한 편견
장애인들과 신체적인 면에서만 약간
간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장애인들을 만나도 예전처럼 두려워
먼저 다가가 도와줄 수 있는 용기를
서 기뻐다.

나는 친구의 권유로 동곡요양원이라는 장애인복지시
설로 봉사활동을 가게 되었다.

처음에는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걱정이 되기도
하고, 사람들과 친하게 지낼 수 있을까하는 생각이 들
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설레기도했다. 동곡요양원은 중
증장애를 갖고 있는 장애인들이 생활하는 시설이다. 이
중에서도 정신지체를 가진 장애인들은 걸모습은 나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정신연령은 많아봐야 6-7세정도인
분들도 있었다. 그래서 그런지 얘기같이 순수한 사람들
이 많이 있었다.

처음에 가서 어떻게 할지 몰라 머뭇거리며 선생님들
께서 시키는 일만 하고 친구들이랑 같이 있으려고만 했
었다. 하지만 이곳사람들은 나의 생각과는 달리 오히려
먼저다가와 말을 걸어주기도 하고, 많은 것을 알려 주
기도하였다.

동곡요양원에는 다양한 재능을 갖고 계신분이 많이
있어보였다. '세상의 뒷란에서 말 걸기'라는 책을 쓰신
분들도 있고, 화가에게 그림을 배우며 그림을 그리시는
분도 있었다. 각자의 재능을 키워서 열심히 생활하는
아저씨들을 보고 나는 많이 놀라기도 하였다. 생각해보
면 내가 이곳에 가서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줬던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배워왔던거 같다.

어느 날은 연필과 종이를 가지고와서 초상화를 그려

주셨던 분도 있었
반지를 접어 선물로
맨보다도 더 웃긴 <

처음에는 어떻게
각이 들었었던 게
사람들과 얘기도하

겨 질 정도로 시간
막상 집에 갈 시
다. 차를 타고 집어

통 동곡요양원 식구
동곡요양원 식구들
친절한 동곡요양
되면 매일 동곡요양

고 좋은 곳이었다.
봉사활동을 다니
들에게 많은 것을
거 같아서 아쉬운 <

이곳으로 봉사활
도 버리게 되고, 비
다를 뿐 똑같은 인
또, 길에서 다른
하지 않고, 내가 <

가질 수 있게 되어

봉사상(충청남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소장)

김요셉 | 강경고등학교 1학년



나의 첫 번째 봉사활동 그 이야기..

바쁜 고등학생 생활속에서도 TV를 키고 뉴스를 보면 가끔 이런 예기가 나오곤 한다. ‘독거노인 홀로 조용히 숨지다’.

그렇다 요즘은 이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 그 소외 받은 할머니 할아버지들. 자식에게마저 관심받지 못하고 조용히 조그마한 방 한구석에서 괴로워 하다가 돌아가신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 그분들에게도 자신의 몸보다 더 아끼고 자신에게 있는 것은 무엇이든 주고싶은 자식들이 있었다. 그러나 그분들의 자식은 그분들께 어떻게 했는가? 자신의 부모님이라 부르는 분들께 어떻게 대했는가? 그래서 나는, 아니 나와 우리 교회 사람들은 그렇게 홀로 사시는 어른들을 도와드리고 있다.

지금부터 나는 나의 첫 번째 양로원 봉사활동 경험을 말해보려고 한다.

좀 오래되었지만 아직도 그때가 생생히 기억된다. 2001년 어느 겨울날 저녁. 교회 교육관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다. 우리가족과 목사님가족, 그리고 다른 집사님들 가족이 모여서 식사를 하고 있었다. TV를 켜놓고 어른들끼리 대화하시며 식사를 하고 있던 그때 TV에서 농촌의 한 독거노인이 방 안에서 숨진채로 발견되었다는 뉴스가 나왔다. 한겨울 날씨에 혼자 사시던 할아버지는 그렇게 돌아가셨다. 그 뉴스가 나오자 목사님과 다른 어른들은 모두 조용히 그 뉴스에 집중하고 들었다. 그리고 그때 나는 아버지께 물었다. “아빠 저런분들 어떻

사활동을 갔다. 나는 그때 양로원 이라는 곳을 처음으로 가보게 되었다. 양로원에 갈 때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이 좋아하실 떡과 여러 가지 음식을 가져갔다. 양로원에 도착하고 안에 들어가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이 계셨다. 할머니 할아버지 한분 한분께 인사를 하자 모두 반갑게 맞아주셨다. 난 어려서부터 친할머니, 할아버지와 같이 살아서 그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내 할머니 할아버지 같이 느껴졌다. 우리가 도착한 때가 점심 식사 할 시간이어서 우리가 가져온 음식과 떡도 식사에 내놓았다. 식사는 식판에 음식을 담아서 어른들 한분 한분께 갔다드렸다. 식사를 가져다 드릴 때 “맛있게 드세요” 라고하며 미소를 지었다. 그러면 식사를 받으신 할머니 할아버지도 웃으셨다. 그리고 식사가 힘드신 분들께는 직접 먹여드리기도 했다. 이가 없으신 분들은 음식을 씹는게 힘들어서 식사 속도가 좀 느리기도 했다. 국도 떠서 먹여드리고, 밥도 먹여드리고, 반찬도 먹여드리고 나니 식판이 다 비워졌다. 식사가 다 끝나고 식판을 가져다 놓으려고 일어나려 하는데 할머니께서 내 팔을 힘겹게 잡으시더니 “고마워 학생” 이라고 하시며 웃으셨다. 난 아직도 그 할아버지의 얼굴을 잊을수가 없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봉사활동을 가서 처음으로 내가 밥을 먹여드린 할아버지의 그 미소는 너무나도 인자하고 푸근한 미소였다. 나는 그 순간 왠지 모르게 가슴 한구석이 답답해지면서도 쫄쫄해지는듯한 느낌을 받았

기에 넣었다. 다같이 해서 그런지 일도 금방 끝났다.

설거지 하는 곳에서 나오자 나에겐 빗자루가 쥐어졌다. 방청소를 할 차례 이다. 할아버지들이 주무시는 방을 청소를 했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어서 그런지 방 곳곳에는 흰 머리카락이 떨어져 있었다. 난 흰 머리카락을 보고 생각했다. 이분들도 예전에는 어린 자식이 품안에서 재롱을 부리는 모습을 보고 즐거워하고, 자식이 아파하면 자신이 더 가슴 아파서 눈물 흘리고, 자기 자식에게 해주지 못하는게 많아서 눈물 흘리신 부모님이라는 분일텐데 그렇게까지 귀하게 여긴 자식과 떨어져 살아가고 있다니... 명심보감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온다. ‘어린 자식의 오줌과 똥 같은 더러운 것도 그대 마음에 거리낌이 없고, 늙은 어버이의 눈물과 침이 떨어지면 도리어 미워하고 싫어하는 뜻이 있다. 여섯 자나 되는 몸이 어디서 왔던가 아버지의 정기와 어머니의 피로 그대의 몸이 이루어졌네. 그대에게 권하노니 늙어가는 어버이를 공경하여 모시라. 젊었을 때 그대를 위하여 힘줄과 뼈가 닳도록 애쓰셨느니라.’

나는 이 글을 읽고나서 부모님이 나에게 해주신 것을 생각하면 부모님을 위해 힘줄과 뼈가 닳을 정도는 아니더라도 어떻게든 효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요즘은 어떤가 내가 간 곳은 한 지역의 작은 양로원인데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계신다. 앞에서 말했듯이 나는 아버지께서 할머니, 할아버지를 모시고 살기 때문에 어렸을 때만 해도 모든 집에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 가족들과 살아가고 있는 줄 알았다. 그러나 크면서 그 생각이 틀렸다는 걸 알게 되었고 봉사활동을 하러 가서는 커다란 충격을 받았다. “이것이 정말 ‘동방예의지국’이라고 불리는 곳의 모습이란 말인가?” 그렇다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국”이라고 불리는 나라이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그저 다른 나라들과 별 차이 없는, 아니 오히려 어떠한 한 나라보다 못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 그리고 나는 다짐했다. 제발 나만큼은 내 아버지, 어머니는 물론이고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모시고 살자! ‘동방예의지국’이라는 자존심을 지키자! 그렇게 생각 했다.

그리고 또 다시 열심히 여러 가지 일을 하기 시작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그 양로원에 살고계신 한 할아버지께서 양로원 뒤뜰에 만들어 놓은 조그마한 밭이 있다. 그 밭에서 할아버지와 나는 단둘이 풀을 뽑았다. 그러면서 할아버지와 대화도 했었다. 대화를 하다가 문득 나는 이런 질문을 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왜 이곳에 오셨어요?” 그러자 할아버지께서는 잠시

말씀이 없으시더니 “내가 집에 있으면 우리 아들이 나까지 먹여 살리느라 힘들어 할것 뻔히 알면서 그렇게 밭붙어 살수가 없으니까. 지금 여기 사는것도 돈 드는 일인데, 곧 죽을 몸이 뭐 이렇게 오래사는지.. 얼른 죽어야 나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이 없을텐디~” 라고 말씀하셨다. 그렇다. 이 할아버지는 자식에게 폐 끼치기 싫어서 양로원으로 오신 것이었다. 자기 자식이 먹고 살기 힘들다고 자신이라도 자식의 걱정 덜어주겠다고 양로원으로 오신것이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말씀하셨다. “여기에 사는 사람들중에 나같이 자식한테 폐 끼치기 싫어서 여기와서 사는 사람이 대다수여~ 나머지는 뭐지 자식한테 버림받은 사람도 많기도 하지만 그 버림받은 사람들도 다 자기 자식생각만 하면서 살고있당개~” 라고.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신 이 말을 부모님을 버린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그 부모를 버린 자식은 과연 어떻게 할까? 그래도 자신의 부모님을 버리고 살텐가? 과연 그럴 것인가? 물론 상황이 정말 너무나도 안좋은 경우도 있겠지만 만약 그들이 진정 인간이라면 부모님을 찾게 되는게 당연한 게 아닐까? 이 생각은 아직 내 머릿속을 떠나지 못하고 있다.

그 할아버지와 일하고 예기도 하고 이제 집에 갈 시간 이 되었다. 나는 점심에 식사를 먹여드린 할아버지를 뵈러가서 “할아버지, 저 다음에 또 올게요~ 그때까지 건강히 계세요” 하고 인사를 했다. 할아버지는 팔을 힘들게 올리시더니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다. 그 인자하신 미소. 그 미소는 내가 늙어서 그 할아버지 같은 모습이 될 때까지도 내 머릿속에 남아서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 계신 모든 분들께 잠시나마 봉사함으로써 그분들의 미소가 나와 우리 교회 분들의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싹을 틔웠다.

비록 나의 경험을 이렇게 짧게 밖에 쓰지 못했지만 이 글을 보고 우리 주변의 독거노인 또는 양로원이나 경로당 등을 찾아서 소외받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께 관심을 가져주게 된다면 나는 이 글을 쓴 것에 굉장한 보람을 느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자면. ‘동방예의지국’이라 불리우는 우리나라 한국. 나는 이 말에 부끄러움 없이 자부심을 느끼고 싶어 하는 한국의 학생이다. 딱히 특별한 것 없는 나지만 나는 어른들을 공경하고 예의를 지킬 줄 아는 학생으로서, 동방예의지국의 한 사람으로서 특별해지고 싶다.

봉사상(충청남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소장)

이경호 | 논산고등학교 2학년



나를 일깨워준 봉사, 나를 돌아보게 해준 봉사

- 진정한 봉사는 대가보다는 보람을 얻는 것 -

진정한 봉사란 무엇인가? 봉사라는 말을 한자로 풀어 보면 받들 봉(奉)자에 일 사(事) 즉 남을 받들어 섬기는 일이 봉사이다. 요즘에는 좋은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봉사점수 제도라는 것이 있다고 한다. 이 제도가 분명 좋은 취지에서 출발하였을 것이나 상당수의 해당 학생들에 의해 근본 취지가 퇴색하고 변질되어 가고 있음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밝히자면 대학 진학을 앞둔 많은 학생들이 진정한 봉사 정신의 자세를 외면한 채 오로지 시간 채우기와 점수를 얻는데만 급급한 나머지 봉사의 원래 의미가 무색할 정도로 실속도 없고 결만 번지르르한 형식적 봉사가 만연해 가고 있는 딱한 현실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나의 진정한 봉사는 나의 이익을 위해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노약자나 장애인 그리고 소외된 이웃에게서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봉사활동에 필요한 것은 대학진학을 위한 봉사점수 획득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희생이다. 그리하여 나는 언제부터인가 그런 이기적이며 자기 이익을 위해 계산적으로 뛰어드는 봉사활동이 아니라 쫓듯이 자기 몸을 태워 주위를 밝히듯이 자기희생을 통해 섬김을 실천하는 진정한 봉사 활동을 전개해야겠다는 마음을 굳게 먹었다. 내가 그렇게 결단하기까지는 교회의 영향이 컸다. 나만의 이익을 위해 이기주의적인 동기에서 행하는 봉사 활동보다 나를 희생하여 남을 섬기고 만드는 진정한 봉사 활동 속에 참된 가치와 보람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교회를 통해 깨달아 알게 되었고 그래서 봉사에 첫발을 내딛게 된 것이다.

내가 봉사활동을 처음 시작하게 된 것은 중학교 1학년 때부터이다. 비록 매일 매일은 아니지만 2주마다, 혹은 매월 1회 정도는 봉사활동을 가곤 했다. 그러면서 남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마음가짐과 자세를 더욱 가다듬을 수 있게 되었다. 나는 실제적인 봉사활동을 통해 “진정한 봉사란 희생적인 사랑이 핵심적 동기가 되어야 하고, 사랑은 댓가를 바라지 않는 것이다”라고 나름대로 정의 할 수 있게 되었다.

내가 처음으로 은진면 소재의 작은 자의 집(장애인 공동체)과 벌곡면에 있는 우리집 공동체를 방문하게 된 것은 타의에 의해 끌려가다시피 참여한 것이 아니라 순전히 내 뜻에 따라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나는 기쁜 마음으로 참여했고, 이 기회를 통해 나를 돌아 볼 수 있는 값진 성찰의 기회도 가지게 되었다.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선생님과 주위의 많은 도움, 그리고 부모님의 기대와 관심 속에서 꾸준히 봉사활동을 계속해 나갈 수 있었다.

이곳을 방문 할 때마다 나는 항상 방청소와 혼자 목욕이 어려운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의 목욕을 시켜드렸고, 말벗이 없어 외로워하시는 할아버지, 할머니께 다가가서 대화도 나누고 안마도 해드림으로써 그분들의 무로함을 달래 드렸다. 그리고 바깥생활을 하시는 중에 걸려 넘어지거나 다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택 주변의 잡초를 뽑거나 위험한 물건들을 치우는 등 여러 가지의 일을 했다. 나는 열심히 일했고 이 일을 통해 많은 보람도 느끼게 되었다. 그곳에는 태어나자마자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아이, 선천적인 난치병 때문에 버려진

아이 등... 한창 부모의 사랑과 기대 속에 재충부리고 귀엽게 자라가야 할 여러 아이들이 이런 곳에서 불쌍하게 생활하고 있다. 그곳에서 아이들이 사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안쓰러웠다.

내가 처음 봉사활동을 갔을 때를 되돌아보면 나 자신 그때만 해도 정말 철부지였고, 생각이 없는 바보였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와 모습이 다르고, 정신도 다르다는 선입견 때문에 불쾌해 하며 짜증도 많이 부렸었다. 그리고 어떻게 그들을 대해야 할지 도무지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그러나 선뜻 다가가지 못하고 주위에서 맴돌고만 있는 나에게 먼저 다가와서 손을 내미는 친구도 있었고, 지긋한 미소로 반겨주는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함께 놀아달라고 울고 불며 졸라대는 어린아이들이 먼저 내손을 잡아 주었다. 그 일이 있고나서 나는 먼저 손을 내밀어준 분들이 고맙워 더욱더 열심히 일하게 되었다. 나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보살피드렸다. 나는 전물 안으로 들어가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방을 청소도 하고 안마해 드리는 일도 했다. 비록 방은 지저분하고 심지어 역겨운 냄새도 많이 났지만 꼭 참고 즐거운 마음으로 열심히 했다. 내 방을 정성스레 청소하듯이 할아버지 할머니 방도 깨끗이 치워드렸다. 내가 이렇게 방을 청소하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시면 할아버지께서 고맙다고 하시며 사랑 몇 개를 쥐어 주시기까지 하셨다. 나는 그 순간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으로 할아버지께 보답해 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할아버지께서 목욕을 한다고 하시길래 도와드렸고 말동무도 해드렸다. 내친 김에 목이 불편하신 다른 분들도 손수 씻겨드렸다. 할아버지께서는 손자 같은 나에게 존댓말을 쓰시며 연신 고맙다는 말을 되풀이 하셨다. 그럴 때 마다 나는 ‘아니에요, 다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인데요’하고는 웃으며 넘겼다. 그리고 이런 말을 꺼내기 어려웠지만 나는 어떤 할머니께 여쭙어보았다. “할머니께선 왜 이곳에 오시게 되셨어요?”라고 여쭙어보니, 할머니께서는 아무 말씀이 없으시다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시며 말씀해주셨다. “사는 게 어려워지다 보니 자식들이 이곳으로 보냈단다.” 하며 처음엔 가족들이 매주 찾아오더니 나중에는 연락조차 끊어지고 전혀 신경도 안 쓴다며 할머니께선 내손을 붙잡고 서럽게 우셨다. 나는 괜한 질문을 던져 할머니를 울게 만든 것 같아 미안하기도 하고 너무 안쓰러워 할머니의 손을 꼭 붙잡아 드렸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할머니만 그런 것이 아니었다. 나와 할머니가 주고받는 이야

기를 들으신 몇몇 어르신들도 공감하시는 듯한 표정을 지으셨다. 나는 마음이 너무 아팠다. 자식으로부터 버림받고 비참한 노후를 살아가는 그늘진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모습에서 나는 아무리 어려워도 그런 불효자는 되지 않겠노라고 굳게 다짐했다.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눈 후 나는 조용히 방을 빠져나와 밖으로 나왔다.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최근 우리 사회에는 이런 불행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런 사회적 병폐를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해 복지정책을 시행하며 복지국가를 만들어 나간다고는 하지만 그 말은 너무 모순되어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나는 복지국가라는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복지국가란 국민전체의 복지증진과 행복추구를 가장 중요한 사명으로 추구하는 국가라는데 현재의 우리나라는 국민의 복지증진은커녕 행복추구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벌써 몇 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런 말을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민 복지에 많은 돈과 시간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 생각엔 그런 말에 신뢰가 가지 않을뿐더러 복지사회를 만들 것이라는 확신도 안 생긴다. 정부가 더 많은 돈과 시간을 투자한다면 그러한 일들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말뿐이지 역시 더 좋아진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도대체 국민들이 내는 세금은 얼마만큼 생산적이며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을까? 난 그게 궁금하다. 그렇지만 우리가 바라는 선진국이 되려면 지금 우리 사회가 직면한 초 고령화 사회에 걸맞는 실버계획 사업과 부족한 복지 시설 확충, 그리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하루 빨리 보완하고 시정하는 것이 국가정책의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힘만으로는 결코 쉽지 않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정부의 많은 노력 속에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는 생각을 한두 번 가져 본 것이 아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정부의 실태를 보면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권 연장이나 정권교체를 위해 눈에 불을 켜고 당리당략에만 매달리는 국회의원들이나 무능한 고위 관료들의 행동을 보면 참으로 한심하다는 생각이 든다. 말로는 국민 복지에 힘쓰겠다고 하지만 자신의 이익 때문에 다수가 피해 보는 일을 서슴치 않는 것은 지도자들의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무조건 지도자들만 잘못했다는 것은 아니다. 물론 우리에게도 문제가 있다. 아무리 힘들어도

자신을 낳아주신 부모님을 버리는 행위, 부모를 폭행하거나 살해하는 등의 패륜이 얼마나 비인간적인 범죄인가를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사회교육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많은 사람들 눈에 비치는 봉사활동이 점차 개선되어 나가야 한다고.. 우리 모두가 장애인의 입장에서 서서 생각해보면 그들을 위한 특별한 봉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장애라는 것은 단순히 생활하는데 불편할 뿐이지 인생 자체가 장애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봉사자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갖춰진 장애인들의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하고 치유해 줄 수 있어야 한다.

그들의 손과 발이 되고 그들의 신체 일부가 되어 서로간의 교감을 통해 세상에 대한 밝은 희망을 되찾아 주는 것도 봉사자의 임무, 아니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봉사는 건전한 성숙한 시민이라면 당연히 감당해야 할 사회적 책임인 것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자리 매김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하여 조금이나마 우리보다 어렵고 불편한 장애인들에게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도와주는 것이 얼마나 보람되고 가치 있는 일인가를 발견하게 해주는 동기부여를 정부가 제시해야 한다. 그래서 win-win 이라는 제도로 공공기관이나 개인 또는 동아리 활동의 영역을 넓혀가는 것도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한다. win-win은 봉사활동을 통한 보람과 경험을 얻으며 또한 자신이 필요로 하는 봉사 점수까지 얻을 수 있어 학생들에게도 일거양득인 셈이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봉사마일리지라는 프로그램과 봉사활동을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인터넷 사이트나 홍보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행사성이 아닌 지속적이고, 영구적인 발돋움이 필요한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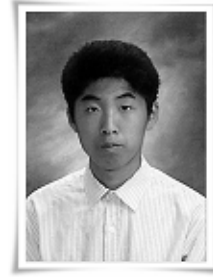
나는 봉사활동을 거듭하면서 내가 처음 봉사활동을 시작했을 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만족감과 성취감을 얻었다. 그래서 나는 내 주변에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하고 다닌다. “봉사는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 양식과 보람을 쌓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봉사활동, 정말 힘들고 많은 인내가 필요하지만 하고나면 기쁨과 보람을 느끼는 일이다. 나로 인해서 즐거워하시고 편안한 생활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었던 장애인과 할아버지 할머니들께 좀 더 잘해드리지 못한 것을 후회하기도 한다. 그런 가운데서도 봉사활동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과 섬기고 받드는 정신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고, 나 자신을 돌아 볼 수 있어서 좋았다. 또한 우리와 결모양도 다르고 정신도 온전치 않은 장애인들에 대한 선입견을 하나 둘씩 버리게 되었고, 내가 깨달은바 장애란 인생을 살아가는데 조그만 걸림돌이며 행동에 불편을 가져다 줄 뿐 인생 자체가 장애가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깨달았다.

처음에는 장애인들이 그저 무서운 존재로 느껴져 거부감마저 들었으나 지금에 와서는 그동안 내가 그들에게 베푼 조그마한 사랑이 그들의 인생에 희망과 용기를 불어 넣어 준 일이라고 감히 생각한다. 봉사활동을 한 느낌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지만 일을 마치고 보니 그때 그 느낌은 정말 나도 모르는 전율에 휩싸여 눈물을 흘릴 정도로 자랑스럽게 느껴졌다.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면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건넬 수 있는 용기도 기르고, 어려운 위치에 서 있는 이웃이 있다면 어려운 일을 함께 나누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힘든 일도 있지만 그렇다고 꼭 힘든 일만 있으라는 법은 없다. 내가 배블러 웃고 즐길 때에도 어느 누군가는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고통 중에 있음을 생각할 줄 알고, 내가 행복에 겨워 즐거워하는 동안 어느 누군가는 불행 속에서 절망하고 있음을 깨달아 어렵고 그늘진 곳에서 살아가는 이웃들에게 찾아가 함께 웃고 함께 울어주는 살맛나는 세상을 진정한 봉사활동을 통해 만들어 가고 싶다. 그리하여 작은 손을 내밀어 아직도 우리가 사는 세상은 따뜻한 세상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싶다.

봉사상(충청남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소장)

호종원 | 함덕중학교 3학년



왜 그랬는지 모릅니다. 엄마를 돕는 착한 아들이기도 가끔씩 나도 모르게 내 손은 다른 사람의 지갑에 닿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장애우에게, 외로운 할머니 할아버지를 돕는 손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부모님 말씀도 안 듣고 말썽을 부렸습니다. 어느 때는 나쁜 손머릿 때문에 집안이 학교나 상대로부터 전화가 오고 싫은 소리들이 들리는 등 시끌벅적 했습니다. 이 습관을 고치기 위해 부모님은 제게 여러 가지 방법을 시키셨습니다. 겨울방학 때 청학동도 가서 예절교육을 받게 하였고, 아빠 현장에 나가서 아저씨들과 어려운 일도 경험하게 시키셨습니다.

그렇게 노력하였음에도 중학교 2학년 때인 작년 새 학기가 시작되던 봄에 선배반의 가방을 열었고, 학교 가까운 문화원에 갔다가 그만 거기서 일하시는 분의 두툼한 지갑에 손을 대는 나쁜 짓을 또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문화원에 계시는 분의 돈을 갚아드리고 거기서 열흘간 무보수 봉사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작은 그림 전시회를 열 때에는 찾아오시는 할아버지 할머니께 그림에 대해 이야기를 해드리고 글씨를 못 보시는 분들께 대신 읽어드렸습니다. 그 이외도 한동안 실외 청소와 잔디밭 풀을 뽑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활동을 하면서 문화원을 찾은 할머니 할아버지 계도 이야기 해드리고 도와드리는데 왜 가장 가까워서 나를 정말로 사랑해주는 친 할머니께 무관심하게 했는지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친할머니께서는 제 곁에서 하나라도 더 먹이려 애쓰셨고 부모님께 혼날 때 풀어주셨습니다. 그런 할머니께 물어보는 일에 대담도 안 하고 얼굴도 마주치려 하지 않았던 일들이 후회되어 고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받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 일도 많지 않을까 하면서 특별히 거창한 일이 아니라도 내 주변의 가까운 사람들을 둘러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런 저에게 자꾸 담임 선생님도 하

교 시간에 마지막 복도 문단속을 시키셨고 장애우 친구를 돌보는 담당 학생으로 지정해주셨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2층 바깥 쪽으로 난 문단속을 하는 것이 꼭 쉬운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친구들과의 이야기에 정신 팔리는 날은 있고 집에 가기 쉽고 수업중에 야단을 많이 맞는 날은 문단속 생각도 까마득했습니다. 그래도 내게 주어진 책임을 잊지 않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젠 담임 선생님께서 “종원아, 문단속하고 가거라” 하지 않으십니다. 종례 때는 이미 다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학교에는 우리와 같은 학년으로 정신지체와 학습 부진 장애우가 한명씩 있습니다. 그 특별한 청소를 스스로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정신지체 장애우는 일반반에서 같은 반이었고 비장애 친구들 행동을 잘 따라합니다. 항상 양손을 각각 다르게 흔들면서 전체적으로는 알아듣지 못할 말이지만 부분부분 평소 친구들이 쓰던 단어들 나오는 걸 보면 우리를 무척 좋아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쉬는 시간 종이 울리면 광호,규준이, 정만이들은 열심히 장애우 교실에 달려갑니다. 그 반 담임선생님도 우리를 반기십니다. 장애우가 일반반에서 수업할 때는 어떻게 했는지 어디서 누구로부터 놀림을 당하기도 했는지 알려드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힘이 없고 마음 약한 제게는 장애우 교실이 편안했습니다. 거기에는 운동기구도 있고 내가 도와주면 따라주는 장애우 친구도 있으니까요.

장애우 친구와 더 가까워 지는 일은 같이 목욕을 가는 것입니다. 학교 교육과정에 자치활동 시간을 이용하여 우리는 정만이나 또는 광호, 민영이들이 돌아가면서 함께 해줍니다. 평소에 부모님과 같이 다니지 않는 곳 이어서 그런지 친구는 무척 좋아하면서 다녀오고 그러고나면 한동안 또 언제 가느냐고 묻습니다. 그 묻는 말이 즐거웠다는 표현이리라 생각합니다.

여름 방학 때 8월 18일부터 1박 2일로 천안 상록리조

트에서 당진 교육청 주관으로 당진의 장애우와 비장애우의 통합캠프가 있었습니다. 장애우를 도와 수영도 함께하고 캠프파이어도 즐겼습니다. 그 밖에도 소풍을 갈 때나 각종 체험하러 갈 때에도 친구를 옆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챙깁니다.

장애우 친구들과 같이 있으면 잠시나마 나의 또다른 모습을 보게 되고 검은 마음을 사라지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좀 더 넓은 봉사활동이 없을까하다 학교의 봉사활동 동아리 회원들과 함께 9월 22일 평안마을 사회 복지재단이라는 곳을 가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어머니께서 저의 1년동안 변한 모습을 보시면서 같이 가겠다고 하셨습니다.

당진군 당진읍 구룡리에 위치한 그곳은 65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노인성질환을 가진 노인과 비수급자로서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노인분들이나 65세 미만의 노인 중 노쇠현상이 현저하여 특별히 보호가 필요하신 분들을 모셔놓았다고 합니다. 평소에 목욕이나 소독, 세탁, 요리, 환경미화, 이미용, 김장과 같은 노력봉사나 수지침, 발마사지, 건강검진 등의 의료봉사, 그리고 한글, 음악 미술 등 프로그램 봉사, 각종공연, 유적 답사, 나들이 등 문화공연 봉사 들로 봉사활동하러 온답니다.

우리도 중학생으로서 할 수 있는 호박따기를 함께하고 가을 농산물 심을 곳을 가꾸어 드렸습니다. 화단에 자란 이끼와 잡초를 뽑아드리고 나서 준비해간 풍선으로 모자와 꽃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 때 할아버지 한분이 같이 동전던지기하자고 하셨습니다. 한 3미터 가까이 있는 조그만 동그라미에 가장 가까이 던진 사람이 던져진 동전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매일 연습하졌었는지 처음엔 할아버지께서 잘하셨는데 몇 번을 하다보니 같이 간 우리 학생들도 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번을 해드렸더니 할아버지께서 굉장히 기뻐하셨고, 바깥에서 구경하시던 할머니들께서도 우리가 만들어드린 풍선 모자를 쓰시고 함께 용원을 해주셨습니다. 식사하러 할아버지 할머니들께서 들어가시면서 우리는 다음에 다시 찾아뵙겠다고 약속을 하면서 돌아왔습니다.

평안마을 원장님이 우리의 봉사활동이 끝나고 봉사활동이란 특별한게 아니더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러시

면서 실제로 길을 건너가 짐이 무거운 노인분들 짐 들어 드리는 일, 다리가 불편한 분들 부축하기 같은 봉사의 생활화가 필요하다고 하신 말씀이 와 닿았습니다.

나는 거기서 또 한가지 가족이 함께 산다는 것이 소중한다는 것을 느꼈고 우리와 같지 못한 사람들에 조금 이나마 위안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우리 집에 가서 우리 할머니께 꼭 사랑한다는 말을 해드려야지, 그리고 다음에도 여길 또 와서 많은 이야기와 놀이 시간을 만들어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외로움을 잊어버리게 해드려야겠습니다.

10월 2일은 노인의 날인데 전 날이 마침 합덕 장날이라서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많이 나오실 것을 예상하여 9월 30일 모여 과자와 사탕을 일인용 지퍼락에 넣고 나누어드릴 동아리 회원들의 고깔모자를 장식하였습니다. 건강관리 20가지를 표로 작성하기도 하고 풍선연습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1일 장날에 엄마께서도 일인분씩의 떡을 준비하여 참석하셔서 회원 16명과 어머니 한분, 그리고 지도 선생님은 장을 돌아다니면서 준비한 것들을 나누어 드리고 즉석에서 풍선 아트 작품들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의 활동으로 항상 웃고 작은 관심을 갖는 일, 나 자신부터 생각하지 말고 남을 배려할 줄 아는 그런 청년으로 자라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봉사활동이 큰 힘이 못되었지만 작은 사랑을 남에게 주어 행복하게 하였다는 것이 기쁨이었습니다. 저에게 동생이 들이 있습니다. 형으로써 동생들에게 줄 수 있는 건 어머니의 말씀을 따르는 돌봄이 아니라 진심어린 사랑임을 알았습니다.

저에게 소망이 있다면 하느님께 다시 초등학교 시절로 돌아가게 해주어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하늘에 계신 할아버지를 실망시키지 않는 사람으로 다시 살게 되는 것이지만 그렇지 못하니 이제 그 때 한 잘못 이상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려합니다.

어머님, 문화원에서의 나쁜 짓 이후로 1년간 저는 변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니 어머니의 힘으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못난 아들 밀어버리지 않고 믿고 이끌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함께 봉사활동도 다니면서 어머니께서 저를 얼마나 걱정하셔왔는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더욱 믿음직한 아들 될 것을 약속합니다.

봉사상(충청남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소장)

김범유 | 조치원중학교 2학년



봉사활동으로 바뀐 ‘나’

간에는 그 분
들은 어린이
지만 다른 사
쁨을 주었다는

동면 연동초등
중에 ‘평안의
다. 이곳에서는
호반고 계셨다.
의 무성한 잡
그러나 호미와
구들은 위험하
그래서 맨손으
우트 대원들이
에 시설 주변
있었다. 이렇게
과정에서 무척
마치고 나서는
우리들이 준비
‘노아의 집’과
활동의 참다운

다.
우를 더 다녀왔
지 기분이 좋
좋았고, 누군가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이 말들은 진정한 봉사활동이 되기 위한 기본이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봉사활동 시간이 입학시험에 반영되면서부터 봉사활동 본래의 참다운 목표와 의의를 상실해 가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은 억지로 시간 채우기에만 급급해 봉사활동을 왜하는지조차 잊은 채 기계적으로 임한다. 나 역시 봉사 활동과 담을 쌓아 지냈고, 봉사에 대해 관심도, 아는 것도 없었다. 그런 이유로 중학교에 들어오기 이전에는 대부분의 봉사활동이 앞에서 말한 것처럼 시간 채우기식, 형식적 봉사활동일 것 이라고만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나에게 봉사 활동이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다. 중학교 입학 후 처음 계발활동 부서를 정하는 시간이 있었다. 아이들 말로는 봉사활동시간 채우기에 스카우트 활동이 엄청 좋다고 하였다.

그래서 나는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따로 봉사활동 시간을 갖기보다는 계발활동 시간에 하면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스카우트를 신청했다. 그러나 스카우트는 그런 곳이 아니었다. 보통의 봉사활동과는 다른 봉사활동을 하는 곳이었다.

스카우트에 가입한 후에 여러 곳을 다녔다. 연기군 전의면 ‘노아의 집’, 연기군 동면 ‘평안의 집’ 이다. 그 중에서 노아의 집은 연기군이 세우고 기독교단체에서 위탁 관리하는 사회복지시설이었다. 그곳에는 치매를 앓고 계시는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정신지체 장애우

질 끝에 끝마치고, 놀이 치료 프로그램시
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 노인
럼 마냥 좋아하셨다. 나는 짧은 시간이었
람을 도와줬다는 뿌듯함과 누군가에게 기
것에서 처음으로 큰 보람을 느꼈다.

그리고 지난 6월 3일과 4일에 연기군
학교에서의 스카우트 야영 활동 프로그램
집’이라는 양로원으로 봉사활동을 갔었다.
의지할 데 없는 무의탁 노인들께서 보
평안의 집 관리인은 우리들에게 시설 주변
초를 뽑아달라며 호미와 낫을 가져왔다.
낫을 사용해보지 않은 우리들에게 그 도
기 짝이 없었고, 능률도 오르지 않았다. 그
로 역센 풀을 뽑아야만 했다. 모든 스카
힘을 합쳐 한 시간 반 동안 땀을 흘린 끝
의 지저분한 쓰레기 까지 모두 치울 수 있
오랫동안 허리를 꾸부린 채 일을 하는
짜증스럽고, 곤욕스러웠지만, 힘든 일을
가슴이 뿌듯해 졌다. 그리고 돌아올 때
한 위문품으로 라면 2박스를 전달했다.

‘평안의 집’에서의 봉사 활동 이후, 봉사
의미와 진정한 보람을 느낄 수 있게 되었다.

그 후로 스카우트에서 몇 곳의 봉사활동
다. 봉사활동을 하는 날이면 그날따라 땀
었다. 내가 누군 도움을 수 있다는 것이

동안 여러 봉사활동을 했는데 가장 열심히, 그리고 오랫동안 하고 있는 것으로 2가지가 있다.

하나는 우리학교 근처 서창리에 사시는 6분의 독거노인들에게 음식배달을 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 봉사를 '목요봉사'라 불렀다. 일주일에 한번씩 목요일마다 배달하기 때문이다. 학교 급식에서 남는 음식들을 조를 짜서 한 주에 3명의 독거노인들에게 나누어 드리는 일이다. 이 일을 처음 하자고 건의 했을 때, 우려 섞인 목소리가 많았다. '만약 음식이 상해서 노인들께서 식중독에 걸리면 어떻게 할 거냐?'는 등 걱정스런 말들이 많았지만, 다행히도 2년째 아무런 탈 없이 잘 해내고 있다. 앞으로도 별 문제 없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예전에는 여섯 집을 배달했는데, 세분이 돌아가셨다. 그래서 이장님께서 두 분을 추천해주셔서 총 다섯 집(학교 후문 밖 노숙자 포함)을 배달중이다.

처음에 스카우트 담당선생님께서 희망자를 물었을 때, 나는 선뜻 손을 들었다. 그러나 막상해보니 정말 힘들었고, 때로는 귀찮기도 했다. 날은 더워지는데 국과 밥, 반찬이 든 음식통은 무겁기만 했다. 그리고 배달하는 집과 집사이의 거리가 꽤 멀어서 정말 힘들었다. 그래도 이왕 하기로 한거 열심히 했다.

음식배달을 하면서 가장 기억나는 할머니 한분이 계시다. 우리 학교에서 다른 집보다 멀리 떨어지신 곳에 사시는데, 그 할머니는 내가 갈 때마다 반겨주신다. 그리고 가끔은 마실 것도 주시고 화사하게 웃으며 맞아주셨다. 웃음이 참 많으신 분 인 것 같다. 별로 재미없는 말을 해드려도 즐거워하신다. 요즘은 그 할머니께 가는 것이 부담이 없다. 그리고 나머지 네 분의 할머니, 할아버지께서도 모두 좋으신 분이시다. 현재는 음식배달이 일주일에 한번 이지만 앞으로 더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 물론 더 힘이 들겠지만 말이다. 그러면 더 자주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말동무가 되어 드릴 수 있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힘들다는 핑계로 빠진 때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둘째로 지금까지 내가 2년째 활동하고 있는 것은 우리 고장 연기군 동면 송릉리에서 태어나신 장옥진화백의 생가와 탐비 환경정화 활동이다. 이 분은 지난 2004년 11월에 문화관광부에서 이달의 문화인물에 선정되신 분이지만, 아직 장옥진화백의 생가와 탐비가 문화재로 지정이 되지 않아 효율적인 관리가 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래서 우리 학교 스카우트에서는 2003년부터 지금까지 4년째 탐비와 생가 주변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하고 있다고 한다.

동면 용암리에 있는 장옥진화백의 탐비에 처음 갔을 때는 숲이 무성하여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과연 저 곳에 국가에서 문화인물로 지정된 분의 묘지가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또한 우리 고장의 자랑스러운 문화인물에 대해 지역에서 너무 무관심한 것이 아닌가하는 안타까움을 떨쳐버릴수 없었다. 탐비 오르는 언덕길과 탐비 주변의 제초 작업 등의 환경정화 활동을 하루에 다 하기는 힘들다고 판단하여 일부만 마치고 돌아왔다.

지난 달 9월 16일 토요일에 우리 학교 스카우트에서는 연동초등학교 공동통학버스를 타고 장옥진화백 탐비로 2학기 환경정화활동을 갔다. 버스에서 내려 좁은 시골길을 지나 탐비 올라가는 언덕길은 이번에도 잡초가 무성하였고 양쪽 팔이 가지에 허어 따끔따끔했다. 가는 중에 동면사무소에 들러서 낫 5개와 장갑 10개를 빌려서 사용했다. 탐비 근처가 나무숲이라 그런지 잡초도 숲을 이루고 있었다. 그 날은 시간이 없어서 언덕길 잡초제거는 못하고 탐비 주변의 풀과 아카시아 나무들만 제거하고 아쉽지만 다음을 기약했다. 며칠 후에 우리는 탐비 말고 생가에 갔다. 생가는 탐비보다 양호했지만 여전히 잡초는 무성했다. 우리 모두 합심하여 빨리 끝냈다. 깨끗해지자 보기가 참 좋았다. 앞으로 우리고장의 문화유산이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보존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장옥진화백에 대한 인식이 달라져서 지역에 살고 있는 많은 분들도 향토문화 인물에 대한 관심과 봉사 활동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나 또한 앞으로 3학년이 되어도 장옥진화백 홍보 활동과 그 분의 생가와 탐비 보존 및 환경정화 활동을 계속할 것이다. 스카우트 대원은 믿음직하고, 도움이 되어야 한다. 자랑스러운 스카우트의 한 사람으로서, 지역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고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것이다.

어느덧 중학교 2학년 생활도 반을 훌쩍 넘어서 3학년 진급을 앞두고 있다. 초등학교 때는 봉사라는 것 자체를 잊고 살았다. 그리고 그런 것은 내 인생에서 필요 없는 것, 즉 나에게 아무런 의미도 주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그동안 '노아의 집', '평안의 집' 그리고 향토문화인물 장옥진화백 탐비와 생가의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통해서 많은 것을 느끼고 배웠다. 기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면 두 배의 기쁨으로 보상을 받는다는 것과 세상은 나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를 위해 존재 한다는 것을 가슴 깊이 새길 수 있었다.

지금의 나는 초등학교 때와는 많이 달라졌다. 예전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봐도 그냥 지나쳤던 나이지만 요즘은 그들의 안타까움이 나의 아픔으로 다가온다. 길을 가다가도 딱한 처지의 사람들을 보면 피해가지 않고 가까이 다가간다. 무슨 어려움이 있는지 궁금해 한다. 왜냐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알아야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봉사활동을 하면서 내 성격이 조금씩 바뀌어 가고 있음을 많이 느낀다. 전에는 대부분의 사춘기 청소년이 그러하듯이 짜증도, 화도 잘 냈고, 나 밖에 몰랐지만 요즘은 매사를 좋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남을 배려해주고 있는 자신을 여러 번 발견한다.

‘봉사활동은 하면 좋은 것이다’ 라는 생각에만 머물지 말고 작은 것에서부터, 가까운 곳에서부터 몸으로 실천하는 봉사활동이 필요하다. 또한 시간이 많아야 하는 것은 더욱 아니며, 시간을 만들어서 해야 하는 것이다. 앞으로는 언제, 어디서든 나의 손길이 필요로 하는 곳에 아낌없이 도움의 손길을 보내려고 한다. 그러면 행복이 행복을 불러들이듯이 우리 사는 이 세상이 행복으로 가득 찰 것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행복한 세상을 향한 나의 작은 봉사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중학교 3학년, 고등학생, 대학생, 성인으로 자라면서 늘 새로운 봉사의 현장에 함께할 것이다. 왜냐하면 봉사하는 삶이 아름답기 때문이다. 나는 스카우트 봉사 활동을 통해서 아름다운 삶에 이 만큼 더 가까이 다가서 있다. 봉사활동은 사람을 바꾼다.

봉사상(충청남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소장)

서보람 | 정산중학교 3학년



하늘을 날아본 자만이 하늘을 안을 수 있다.

세상 처음 하늘 향해 날갯짓 하다.

아무것도 모른 채, 철없이 마냥 웃고 즐기지만 하던 초등학교 시절을 마무리하고 중학교라는, 그 때까지 경험했던 세상보다는 조금 더 넓은 세상에 발을 디뎠을 때는 설레는 마음과 약간은 두려운 마음이 함께 공존하고 있었다.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 하는 두려운 마음이 조금씩 날 지배해가고 있었지만, 난 항상 뭐든지 도전해보고 판단하는 타입이라서 그 두려운 마음을 뿌리 뽑기 위해 안간힘을 쓰며 노력하던 어느 날, 내게 좋은 소식인지 좋지 않은 소식인지 모를 소식이 하나 전해졌다.

“여러분들은 1년 동안 봉사활동을 20시간을 해야 해요. 1년 동안 적어도 20시간의 봉사활동을 하고 그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세요.”

그 때까지만 해도 난 봉사활동과는 무관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순간 당황했다.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웅성거림 속에서 한 친구의 질문이 들렸다.

“그럼 봉사활동은 어디서 어떻게 하는 건가요?”

당돌한 그 친구의 말에 선생님께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주셨다.

“봉사활동은 아무데서나 할 수 있습니다. 우체국이나, 면사무소 같은 공공기관에서 할 수도 있고, 홀로 사시는 분들의 집이나, 보육원 등 그 어떤 곳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마음가짐입니다. 그저 20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마지못해 봉사활동을 하기 보다는 긍지와 보람을 느끼며 도움을 받는 분들에게 정말 소중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봉사활동을 하는 게 더 중요하겠죠? 그럼 여러분도 행복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난 선생님의 말씀들 중에서 ‘우체국…면사무소…공공

기관… 홀로 사시는 분들의 집…보육원…’이라는 말들만 주워들었을 뿐 더 중요한 것은 듣지 못하고 딱딱한 내일을 두려워하기만 하고, 불평만 했다.

“아 무슨 봉사시간을 20시간이나 하는지 모르겠어. 정말!”

“맞아. 그냥 안하면 안 되냐?”

난 친구들과 함께 모여 앉아 불평, 불만만 잔뜩 내뱉었고, 봉사활동은 내일, 내일로 미루면서 어느덧 1년을 마무리해야 할 시간이 다가옴을 느꼈다.

1년을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나와 친구들은 진동한동 대며 공공기관에 가서, 또는 학교에서 한달에 한번씩 실시하는 ‘향토사랑 봉사대’ 활동으로 간신히 20시간을 채울 수가 있었다.

조금은 두려운 마음으로 비행을 시작하다.

그렇게 어설피게 일 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한 나는 ‘아, 이러면 안되겠구나!’하는 마음에 2학년 때에는 우리 학교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독거노인 도우미 활동을 정식으로 시작하기로 마음먹었다.

봉사활동을 하기를 원하는 학생, 할 수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실시하는 ‘독거노인 도우미’ 활동에 나는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친구들과 함께 담당 선생님께 신청을 했다. 그 친구들 중에는 작년 나와 함께 모여 앉아 봉사활동에 대해 불만을 토하던 친구들도 몇몇 있었다.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신청자가 꽤 많았는지 4명씩 한조를 편성해 한달에 한번씩 독거노인 분들의 작고 외로운 보금자리를 방문하기로 했다.

처음 가는 독거노인 돕기 활동에 기대와 설렘으로

처음 찾아간 곳은, 오동산이라는 작은 산 밑에 위치한 박용희 할머니 덕이었다. 담당 선생님과 친구들과 함께 찾아간 곳은 작고 초라하지만, 예쁜 꽃들과 나무들이 많았다. 무슨 꽃일까, 무슨 나무일까 궁금했지만 할머니께서 계시지 않아 여쭙볼 수가 없었다. 할머니께서는 어디 가신 걸까? 텅 비어있는 할머니의 낡고 초라한 집을 뒤로하고 우리는 결국 그냥 뒤돌아 나와야만 했다.

두 번째 독거노인 도우미 활동을 가기로 한 날, 독거노인 돕기 활동 처음의 실패담지 않은 실패가 내 기대와 부푼 설렘을 다 지워버려서 별 감정 없이 할머니 덕을 향했다. 이번에 할머니께서는 다행히도 집에 계셨고, 할머니를 보는 순간 다 지워진 줄 알았던 기대와 설렘이 나를 흥분시켰다.

집안일을 도와드리려고 하니 할머니께서는 할 게 없다면서 그냥 얘기나 하다 가라고 하셨다. 우리들은 안마도 해드리면서 첫 번째 독거노인 도우미 활동을 왔을 때 이야기를 했다. 그 때 할머니께서는 마을 회관에 가셨었다고 했다. 하루하루를 혼자 보내는 게 아무래도 많이 외로우셨나보다. 지난 번 궁금해 했던 조그마한 뜰에 심어져 있는 꽃과 나무들의 이름을 할머니께 여쭙보니 할머니께서는 자세히 알려주셨다. 그 꽃들만큼 할머니의 마음도 아름다움을 알 수 있었다.

“모기 뜰갈라 얼른 가”

할머니 덕을 방문할 때면 언제나 할머니께서는 우리들 걱정만 하셨다. 도움을 드리려 찾아갔는데, 우리들 걱정만 하시는 할머니를 보면 괜히 우리가 할머니께 피해만 드리는 게 아닌가 걱정도 했지만, 할머니께서 언제나 우리를 반겨주시니 정말 기뻐다.

마음만 먹으면 찾아와 할머니께 행복을 선사해드릴 수 있는 이 곳에 나와 친구들은 금새 정이 들어버렸고, 처음에는 어색해서 어쩔 줄 몰라 하던 우리들 모두 이제는 할머니께 조금이라도 더 큰 관심을 받고 싶어 할머니와 공통점을 찾으려 애썼다. 그러다가 할머니께서 담배를 피우신다는 사실을 알게 된 우리는 할머니께 담배를 피우시지 말라고, 몸에 좋지 않다고 말씀 드렸더니, “앞으로 얼마나 산다고”라고 말씀하시는 할머니의 말씀에 코끝이 시려왔다. 우리들은 막무가내로 “그래도 피우지 마세요. 앞으로 오래오래 사셔야죠”라고 말하며 할머니께서 담배를 끊으시길 바랐다.

언제부턴가, 독거노인 도우미 활동은 내게도 행복을 가져다주었다.

처음에는 정말 봉사시간을 채우기 위해 마지못해 시

작했는데, 지금은 독거노인 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어서 그 분들도, 그리고 나도 행복할 수 있었다.

1학년 때, 선생님께서 하셨던 말을 이해한 때가 언제였는가?

봉사활동이란, 도움을 받는 분들에게 정말 소중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지와 보람을 느끼며 하는 거라고, 그러면 도움을 주는 사람도 행복할 수 있다고, 나는 그때서야 그 말을 이해할 수 있었다.

1년간 계속 해온 독거노인 도우미 활동이 내게 너무나도 큰 감동이고 행복이 될 줄은 정말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이었다. 정말 난 행복했고, 이런 짜릿한 행복이라면 난 앞으로도 계속 봉사활동을 실천하고 싶었다.

하늘을 비행하며 지어 보인 미소, 하늘을 폼다.

나도 이제는 중학교 3학년이 되었다.

지난 1년 동안 실시해온 작은 봉사활동에 행복을 느끼고, 많은 것을 깨달았던 나는 올해에도 서슴없이 독거노인 도우미 활동을 신청했고, 나는 주위의 친구들에게도 “너도 해봐. 정말 뿌듯해지고, 행복해 진다니까.”라며 독거노인 활동을 추천하기도 했다.

올해에는 ‘무 학년 형제자매결연’을 맺어 학년 구분 없이 한 조가 되어 독거노인 도우미 활동을 더 활발하게 전개했다. 또한 올해에는 작년에 찾아뵈던 할머니 덕이 아닌 윤창원 할아버지 덕으로 가게 되었다.

내가 2살 쯤 되었을 때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나는 할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라든지, 애뜻함 같은 게 없었다. 그래서 그런지, 이번에는 할머니 덕이 아닌 할아버지 덕이라 해서, 조금 더 망설여지기도 했다.

3학년이 되어 처음 할아버지 덕에 찾아 갔을 때는 신의 장난인지, 할아버지께서 계시지 않았다. 작년에도 그러더니……. 할아버지께서는 편찮으셔서 병원에 가셨다고 했다.

한번도 뵈지 못한 할아버지지만, 편찮으셔서 병원에 가셨다고 하니 왠지 마음이 더 가고, 걱정이 되었다.

어버이날을 앞두고서는 직접 카네이션을 만들어 달아드리기도 하고, 삼복더위가 찾아올 무렵에는 어머니들과, 삼계탕을 만들어 전해드리기도 했으며 며칠 전에는 추석을 앞두고 송편과, 떡, 과일들을 전해 드렸다.

우리들이 직접 송편도 빚고, 선물들도 포장하고…. 할아버지 덕에 갈 생각만 하니, 절로 콧노래가 나왔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비쩍 마르신 할아버지께서는 반가운 얼굴로 우리들을 환영해 주었고, 우리들은 가지고 간 떡과 과일을 먹으

며 함께 사진도 찍었다.

마당에 떨어져 있는 낙엽들도 치우고, 풀도 뽑고, 설거지도 하고…….

깜빡 잊고 그냥 올 뻔 했지만, 우리들은 청소도 했다.

그냥 있어도 웃음이 절로 났고, 처음 봉사활동을 할 때처럼 짜증이 나거나, 귀찮다거나, 그저 봉사시간만을 바라고 봉사활동을 하지는 않았다.

아니,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도 내 몸은 이미 참된 봉사에 길들여져 버린 탓에 웃음만 나올 뿐이었다.

“봉사란 이런 거구나.”

비록 지금은 독거노인 분들을 돕는 활동만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기회가 된다면, 아니 내가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여러 가지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싶다.

나는 내가 깨닫게 된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다.

봉사활동은 여가시간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

른 모든 활동을 하고 난 다음 남은 시간을 이용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봉사활동은 시간을 만들어서 해야 한다는 것을, 봉사활동도 그 나름대로의 보람이 있고, 행복이 있다는 것을 말이다.

세상 모든 사람이 바쁜 세상살이에 지쳐 있고 있는 이런 참된 행복을 이제는 기억했으면 좋겠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잠에 빠지려는 순간이라도 좋다.

새로이 하루를 시작하려는 순간이라면 더 좋다.

나는 그저 내가 2년 동안 해 온, 앞으로도 할 봉사활동의 참된 행복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한번쯤은 느껴보았으면 좋겠다.

권력이나, 돈이 많은 사람들이 기부를 한다면서 생색을 내는 봉사활동이 아니라, 외롭고 지친 사랑을 그리워하는 사람들과 따스한 말 한마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봉사활동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짜릿한 참된 행복을…….

봉사상(충청남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소장)

이미영 | 석문중학교 1학년



나누는 사랑, 느끼는 기쁨

중학교에 입학하고서 여러 가지로 어설플른 3월 우리는 어떤 동아리에 가입해서 활동할 것인지에 대해 한창 시끌벅적했다. 신입생인 나로서는 어떤 동아리가 좋은지 잘 몰랐지만, 전교생이 그다지 많지 않은 탓에 내가 가입하고 싶은 동아리 또한 선택의 여지가 그리 많지 않았다.

그런데 맨 처음 입학할 때 밀알봉사반에 들어가면 봉사활동 대신점수를 쉽게 확보할 수 있다는 선배들의 말에 친구들과 함께 밀알봉사반에 들어가게 되었다.

밀알봉사단에 들어가면 그냥 학교에서만 잠초 뽑고 쓰레기 줍고 그리고 청소하고 그러는 줄만 알았다. 하지만 선생님계선 내 생각과 정반대로 독거노인 방문을 꺼내시는 거였다. 그것도 조를 편성해서 한 학생이 한 달에 두 번씩! 그해야 매주 찾아뵐 수 있다는 거였다. 한숨이 절로 나왔다. 달콤한 토요일을 할머니와 함께 보내다니, 이젠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탈퇴할까 맘이 망설였다. 하지만 중학교에 입학해서 처음으로 선택한 일인데, 시작도 하기 전에 포기한다는 것이 수치스럽게 생각되었다. 또 토요일날 빈둥빈둥하는 것보다 할머니의 말동무 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서 결국은 조를 짜서 지금까지 매주 독거노인 방문을 하게 되었다. 조에서는 아는 언니들이 몇 명 있기 때문에 그다지 불편함은 없었다. 언니들과 점심을 준비해서 할머니와 같이 밥을 먹고, 설거지와 청소도 하고 할머니와 재미있는 여러 이야기를 나누는 일들이 나름대로 내가 뜻 깊은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뿌듯하기만 했다. 지금 생각해보니 제일 기억에 남았던 일이 할머니 이불을 빨아서 말릴 때였다. 이불이 엄청 크고 세탁기도 없고 손빨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힘들고 어깨도 아프고 물도 잘 안빠지고 빨래대는 그 무게를 감당

하지 못하고 한쪽이 찌그러져서 엄청 난감했었는데, 휴~ 손빨래가 이렇게 힘들다는 것을 밀알봉사단에서 독거노인방문활동을 하면서 깨달았다. 딱상 할 때는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열심히 했다가 버스를 놓쳐 집에 못 갈 뻔도 한 적이 있었다.

우리학교 앞에는 감자와 고구마를 심을 수 있는 밭이 있다. 작년에도 감자를 심었다고 하졌는데, 올해도 당연히 감자를 심고 그리고 고구마를 더 심기로 했다. 감자를 자르고 나서, 쉬는 토요일 날 심고 비닐을 씌우기로 했다. 어제 자른 감자를 가지고 와서 구멍을 판 다음 하나씩 심었다. 감자를 심는 모습을 전에도 보았는데, 이렇게 힘든 일인 줄은 몰랐다. 우선 감자를 심기 위해서는 모종삽으로 깊게 파야 하는데 처음은 쉬웠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깊게 판 구멍에 자른 감자를 넣고 묻어주면 되는데, 손도 아프지만 허리가 더 아팠다. 그렇게 감자를 심은 다음에 이젠 비닐을 씌우는 일이 남았다. 비닐을 씌우는 일은 더욱 힘들었다. 바람만 안 불면 그래도 쉬울 텐데 왜 이리 바람이 부는지 알미울 정도였다. 점심으로 먹은 칼국수는 그 어떤 점심보다도 훨씬 맛있었다. 다들 신기할 정도로 맛있게 먹는 거였다. 옆에 고구마를 심을 밭은 비닐만 씌워놓았다. 남자가 별로 없는 우리 동아리는 여자도 삽으로 흙을 파야 했다. 처음 하는 삼질이여서 너무나 어설피서 선생님께 별 도움도 못 드렸을 것이다. 하지만 웬지 모르게 힘들고 뿌듯했다. 내가 이런 일도 다 할 수 있다니!

그러나 그 다음날 동아리에 일이 배겨서 짊어지는 게 너무나 힘들었다. 그래도 만약 내가 밀알봉사단에 들어가지 못했더라면 이러한 경험조차 하지 못했을 것이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들었다. 이 말이 지금 나에게 딱 맞는 것 같다. 더구나 이 고생은 단순한 고생

이 아니라, 남을 돕기 위한 고생이기에 더욱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감자를 심어놓고 나서 그 다음에도 많은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감자 싹이 올라오면 찾아서 구멍을 뚫어주고, 더 자라면서 복도 주었다. 비가 주룩주룩 온 다음날은 잡초를 뽑기 시작했는데, 잡초가 왜 이리도 많은지 손톱이 작아질 정도로 뽑고 또 뽑았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감자는 무럭무럭 자랐고, 드디어 감자를 캐게 되었다. 감자를 수확해서 광명실버하우스와 다솜공동체에 전달이 되고, 우리가 토요일마다 방문하는 할머니덕에도 드렸다. 그리고 상품성이 좀 떨어지는 것들은 따로 모아서 급식실 영양사님이 썰 주셨다. 전교생에게 감자 2개씩 돌리셨는데, 너무 맛있고 이 감자가 내가 심고 한 것이라고 생각하니 뿌듯하고 기쁘기도 했다. 밭에 나가서 일할 때는 힘들기도 했지만, 나름대로 기분이 좋고 아마 밀알봉사단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도 못했을 텐데 라는 생각도 해보았다.

6월 어느 토요일, 방과후에 왜목마을에서 쓰레기를 줍는 환경정화활동을 하러 갔다. 이젠 밀알봉사단은 물론이고 그곳에서 애항단 활동을 하는 사람들과 가고 싶은 친구들까지 다 같이 그곳을 갔다. 버스를 타고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 꽉 딱혀 가는 내내 너무 답답했다. 왜목에서 체육복으로 갈아입고 쓰레기를 주우러 나섰는데 처음에 쓰레기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 하지만 이게 웬일? 상가 앞엔 별로 없지만 바닷가 근처에는 쓰레기는 너무 많았다. 아마도 관광객들이 버리고 치우지 않고 간 것으로 보인다. 너무 하다 싶을 정도로 많았고, 게다가 모기와 모기 비슷한 게 너무 많았고, 냄새도 심하게 났기 때문에 쓰레기를 치우는데 무척이나 애를 먹었다. 구척구척 쓰레기를 줍고 나니깐 햇빛도 쨍쨍해서 너무 더웠고 게다가 어지럽기까지 했다. 쓰레기는 봉투에 담아도 담아도 끝이 없었고, 결국 겨우겨우 해서 4시 경에 다 마쳤다. 마치고 보니 쓰레기봉투가 산더미 같이 많았다.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곳에서 쓰레기가 이렇게 많이 나오니 깜짝 놀라기도 했다. 바닷가에서 쓰레기를 모두 줍고 나서 선생님께서는 몇 명만 더 남아서 조금 더 쓰레기를 치우자고 하셨다. 주차장과 그 근처의 산이었는데, 바닷가 근처나 산 근처나 쓰레기는 둘 다 많았다. 산 근처에서는 쓰레기에 개미들도 너무 많아 치우는데 힘들기도 했다. 곳곳을 돌아다니며 쓰레기를 주우니 여기도 역시 쓰레기가 무척 많았다. 50L 쓰레기봉투인데도 약 30개 정도 모았다. 누군가가 무심

코 버린 쓰레기를 줍는 일이 이렇게 힘든데, 나도 이제부터는 절대로 함부로 버리지 않고 쓰레기는 반드시 쓰레기통에 버려야겠다고 다짐했다. 쓰레기 버리는 사람 따로 있고, 줍는 사람 따로 있으니 줍는 사람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이다.

스포츠 마사지를 올해부터 배우게 되었다. 그런데 봉사부에서 웬 스포츠 마사지? 왜 이것을 배웠냐면 나중에 다 배운 후 2학기때부터 경로당에 가서 어르신들께 발마사지를 헤드릴 예정으로 스포츠 마사지를 배운 것이었다. 선생님계선 웬만하면 다 배우라고 하셔서 22명이 겨우겨우 스포츠 마사지를 다 배웠다. 나 또한 스포츠 마사지를 배웠는데 중간에 포기한 친구가 몇 명 있어 너무 안타까웠다. 맨 처음에는 스포츠 마사지라고는 난생 처음 하는 것이었고 게다가 마사지라고는 어깨 주무르고, 두드리고 하는 것 밖에 몰랐던 내가 머리에서 나중에는 발까지 온몸 마사지를 배우고선 부모님께 헤드렸더니 대견하다고 칭찬하셨다. 하지만 경로당에서 이 모든 것을 어르신들께 헤드드리기엔 시간과 우리들의 기억력이 안 따라왔기 때문에 다행히 강사선생님계선 따로 앉아서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

여름방학이 끝나고 2학기 때 드디어 스포츠마사지 발대식을 가졌다. 이제 경로당에 가서 스포츠마사지를 어르신들께 헤드리면 되는 것이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길, 다른 학교는 양로원과 같은 기관에 가서 마사지를 헤드린다고 하셨다. 그러나 우리는 경로당으로 찾아가서 봉사활동을 하기로 했다. 그 이유는 우리 학교가 시골에 있고, 소망의집이나 광명실버하우스 같은 곳을 가려면 버스를 두 번 타고 가서 또 한참을 걸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다행히도 우리 학교 주변 마을에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기에 석문면내의 경로당을 찾아가서 봉사하기로 한 것이다. 제일 처음으로 우리가 독거노인방문을 하고 있는 할머니께서 살고 계시는 초락1리 경로당부터 실시했다. 그 다음에 초락2리, 그리고 삼봉4리 경로당까지 3차례 돌아가면서 마사지를 헤드렸다. 나는 초락1리 마을회관은 못갔지만 초락2리 마을회관과 삼봉4리 마을회관 2번을 갔다 왔는데, 맨 처음 헤드릴 땀힘이 별로 안들어서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었다. 조금 쉬고 좀 아픈 팔로 2번을 더 헤드리니 무척 팔이 아프고 힘들기도 했다. 하지만 스포츠 마사지를 받으시는 할머니, 할아버지계선 우리들이 어설피고 실수도 웃으시면서 편찮다고 하시고, 시원하다고 하시면서 온몸이 싹 풀리는 것 같다며 칭찬을 많이 해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할 수밖에 없었다. 비록 전문가들보다는 못하지만, 이만한 것을 어디서 받을 수 있겠느냐고 하시면서 웃으시는 모습 때문에 더욱더 열심히 할 수 밖에 없었다. 앞으로도 계속 경로당을 돌면서 스포츠 마사지를 할 예정인데, 시간이 허락되기만 한다면 빠지지 않고 꼭 갈 것이다. 이렇게나마 봉사활동을 하면서, 더불어 사는 법과 나누며 사는 법을 배우니 너무 좋기 때문이다.

밀알봉사단에 들어와서 그동안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했다. 감자와 고구마 재배, 독거노인방문, 환경정화활동, 그리고 스포츠 마사지까지. 생각해보면 너무나 힘든 일이 많았었다. 감자를 심고 잡초를 뽑고 할 때도 힘들었고, 스포츠마사지를 할 때는 특히 팔과 손가락이 너무 아팠다. 다리에 알이 배긴 것도 몇 번인지 셀 수 없을 정도였다. 그러나 그만큼 나도 느끼고 깨달은 것도 많

았다. 이 부서를 들기 전엔 나밖에 모르고 봉사하는 법을 몰랐었는데 이젠 절대 아니다. 봉사활동도 하나의 추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때 흘렸던 땀들은 아마 보석보다 훨씬 아름다울 것이다. 밀알봉사단에서 그동안 한 일들을 돌이켜보면 가슴이 뿌듯해진다.

시간이 너무 빨리 흘러 아쉬운 것도 많다.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보다도 더욱 열심히 봉사활동하리라 다짐해 본다. 처음엔 이 밀알봉사단에서 내신점수 몇 점을 더 올리려고, 그래서 고등학교 진학하는데 도움이 될까 해서 들어 왔지만 이젠 성적 때문이 아닌 봉사활동 하기 위해 들어온 내가 스스로 생각해도 기특하기만 하다. 앞으로도 이 봉사활동 더욱 열심히 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기꺼이 도와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겠다.

봉사상(충청남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소장)

김에스더 | 대술중학교 2학년



발 마사지 봉사단의 『사랑나눔』 이야기

어머이날, 우리 발 마사지 봉사단은 선생님과 직접 만든 카네이션을 가지고 예산에 있는 노인복지회관에 갔다.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려고 가는 것이었는데 나는 수업 한 시간 안하고 간다는 생각 때문에 마냥 좋기만 했다. 그곳에 가서 조금 많은 어르신들께 한 분씩 카네이션을 달아드린다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것은 아니었다. 그리고 거기에 계셨던 어르신들도 우리는 거의 손자 손녀뻘 되는 학생들로서 카네이션을 다는 것은 당연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한 분 한 분 달아 드릴 때마다 기뻐하시는 어르신들 때문에 카네이션을 달아 드리는 것만으로도 정말 보람된 것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또 나는 옷핀으로 옷에 무엇을 다는 것을 많이 하지 않다 보니 꽃이 비뚤게 달아 지는 실수도 했지만 그래도 할아버지 할머니들께서 그냥 웃으면서 고맙다고 하시니까 죄송하기도 했고 꽃을 다는 내가 감사한 마음도 들었다.

또 지난 쉬는 토요일 5월 13일, 우리 발 마사지 봉사단은 카네이션을 달아 드리려고 갔던 예산에 있는 노인복지회관에 발 마사지를 해 드리러 갔다. 처음이라 가기 전에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기도 했다. ‘연세가 있으셔서 발이 조금 깨끗하지 못하다면 어떻게 해드리지?’, ‘그래도 봉사 점수를 받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하자.’ 등등 여러 가지 마음을 가지고 발 마사지를 하기 위해 노인복지회관으로 갔다. 쉬는 토요일이라서 각자 집에서 버스를 타고 노인복지회관까지 갔다. 그래서 인지 일찍 오는 사람도 있었고 늦게 도착하는 사람도 있었다. 나

는 약속시간보다 조금 늦게 갔었다. 가보니 벌써 발 마사지 봉사단 몇 명이 와서 몇 분 어르신들께 발 마사지를 해 드리고 있었다. 나는 늦게 도착한 것에 대해 조금 죄송한 마음에 대기하고 있는 어르신께 가서 발 마사지를 시작했다. 먼저 발을 주물러 드린 다음 크림을 발라서 학교에서 배워간 발 마사지를 했다. 그래도 아직은 연습도 미흡했고, 하는 요령도 잘 몰라서 어르신들이 시원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냥 시간만 낭비했다는 생각이 들면 어찌지 하는 걱정도 들었다. 그래도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 아무리 열심히 했다고 했지만 내가 생각해도 전문가처럼 잘 한 것 같지는 않았다. 그래도 고맙다고 말해주시고 가끔씩 시원하다면서 말도 걸어주시는 어르신들께 감사한 마음이 들기도 했다. 나는 열심히 한 분씩 해 드리려면서 나의 발 마사지를 받고 미흡하지만 그래도 기뻐하시는 어르신들을 보면서 다른 사람은 늘 때 이렇게 나와서 봉사하는 것이 참 보람된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비록 잘 해드리지 못했어도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른을 공경하는 마음과 다른 사람을 위하는 마음이 진짜 봉사라는 것을 깨달았다.

언제 또 오냐고 물으시는 할머니 할아버지께 매월 2회씩 봉사활동을 온다고 약속드렸다. 앞으로 다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단”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봉사하려 하게 되면 그때는 다른 마음을 품지 않고 공경하는 마음과 내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마음으로 기쁘게 진짜 봉사다운 ‘봉사’를 하고 싶다.

봉사상(충청남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소장)

인세롬 | 순성중학교 2학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기쁨과 행복

나는 초등학교 때 친구 어머니를 통하여 ‘따사모’(따뜻한 사람들의 모임)라는 모임을 통해 봉사 활동을 몇 번 해 본 적이 있다. 지속적으로 나간 것은 아니지만 장애우 들을 돕고 함께 시간을 보낼 때 ‘아 이렇게 다른 사람을 돕는다는 것은 즐거운 일이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 후 중학교에 입학해서 봉사를 해보지 않겠냐는 기술가정 선생님의 권유로 친구들과 학교 봉사단에 들게 되었다. 봉사단에 들자 우리 학교가 당진군 자원봉사 센터의 도움을 받아 ‘발마사지’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다. 매주 금요일 방과 후 2시간씩 강사 선생님께서 오셔서 발마사지 교육을 해주셨다. 교육을 받으면서 발에 대한 거부감과 더럽다는 편견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친구들 발을 가지고 실습을 열심히 하였다. 어렵게 교육을 끝마친 우리들은 수료증을 받았다는 뿌듯한 마음을 가지고 아셀 복지원, 평안마을, 소망의 집 등 3곳을 한 달에 2번 정도 번갈아 다니며 봉사활동을 하기 시작했다. 봉사를 하는 토요일이 되면 친구들과 함께 중례를 마친 후 가사실에서 라면을 끓여 먹고 선생님들 차에 나눠 타 봉사활동 하는 곳으로 향했다.

처음 봉사활동을 갔을 때 발마사지를 하려고 양말을 벗겨드리면 남 앞에 발을 내민다는 것이 쑥스럽다며 안 하시겠다는 분들도 계셨고 다음에 하신다며 뒤로 빼시는 분들도 계셨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난감하기도 했지만 할머니의 어깨도 주물러 드리고 말동무도 해드리며 발마사지를 열심히 해드렸다. 발마사지를 할 때에도 아직 어린 학생들이라며 못 믿어 하시는 분들도 계셨지만 그 때마다 우리들은 웃으며 “할머니, 저희 수료증도 있어요. 걱정마시고 발에 힘 빼세요.”라고 말씀 드리면 그제야 웃으시며 편히 발마사지를 받으셨다. 그러면 우

리도 평달아 웃으며 발마사지를 시작한다. 평안마을 같은 곳은 할머니들께서 많이 계셔 한 사람당 2-3분씩 해야 하는 데 우리들은 한 분만 해도 등에 땀이 난다. 그럼 할머니들께서 그만 해도 된다고 하시는데 우린 “저 힘 무지 세요!”라고 말하고는 더 열심히 발을 만진다.

발마사지를 할 때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 지루해하지 않도록 판소리 부, 사물놀이 부, 고전무용 부가 공연을 한다. 판소리나 사물놀이를 할 때 할머니들께선 추임새를 넣어 주시며 흥겨워하시고 고전무용을 할 때는 아리랑을 함께 불러 주시기도 하신다. 그러면 공연하는 친구들은 더욱 흥겹게 공연을 한다.

이렇게 발마사지 봉사활동을 다니면서 기억에 남는 일이 몇 가지 있다.

작년 여름방학, 발마사지 수료증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우리 발마사지 봉사단은 다른 날 보다 조금 특별한 봉사 활동을 하기로 하고 당일 아침 9시쯤 학교 가사실로 모였다. 그 날은 우리들이 직접 할머니들께 드릴 도너츠를 만들어 아셀 복지원을 방문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팥가루를 체에 치고 반죽을 하고 모양을 내며 ‘이런 간식을 할머니들께선 얼마나 좋아하실까?’라는 생각을 했다. 조금 뒤 도너츠가 완성되자 발마사지 용구를 챙기고 다른 봉사부 친구들과 라면을 먹고 아셀 복지원에 가 발마사지와 공연을 하고 모두 함께 웃고 이야기를 하며 간식을 먹는 것으로 끝을 맺었다. 우리들이 직접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해드려서인지 특히 기억에 남는다.

또 한번은 봉사를 나갔다가 어느 할머니께서 가족 이야기를 하시며 우시는 바람에 온통 눈물바다가 된 적이 있었다. 가족 이야기를 자주 하시는 분들은 거의 복지원에 들어오신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나 어린 손자, 손

녀를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다. 이럴 때마다 우린 ‘우리가 이 분들의 손녀가 되자’라는 생각으로 이야기를 잘 들어드리면서 더 정성스럽게 말을 마사지 해드린다.

발마사지 봉사 활동을 시작한지 벌써 2년이 다 되어간다. 요즘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서로 먼저 마사지를 받으신다며 양말을 벗으시고 봉사단 학생들에게 말도 잘 걸어주셔서 이젠 그 분들이 남이 아니라 한 가족 같

이 느껴지고 그래서인지 더 신바람이 난다. 그리고 봉사 활동을 하면 할수록 ‘내가 정말 이 봉사 활동을 시작하길 잘 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조금씩 알 것 같다. 아직 봉사라는 것에 익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봉사 활동을 하면서 내가 느꼈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큰 기쁨과 행복을 맛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평안의 집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여학생들이 모여 봉사활동을 하게 된 것도 벌써 1년이 넘었다. 참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다. 처음 연동중학교에 입학한 후 봉사활동을 할 때 기대도 되고 빨리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우리들이 과연 잘 할 수 있을지 걱정도 되었다. 하지만 지금은 친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친근하고 편하다. 아직 인원도 많지 않고, 도와드리는 것도 많이 서툴고, 부족하지만 할머니 할아버지를 친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생각하고 거라낌 없이 행동하니 할머니 할아버지께서도 우리를 친손녀처럼 좋아해 주시는 것 같다.

봉사활동 하는 장소는 우리 집이다. 내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우리 어머니께서는 평안의 집이라는 노인 복지시설을 운영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처음에 우리 집으로 봉사활동을 왔을 때는 사실 좀 부끄러웠다. 어렸을 때는 어머니께서 이 일을 하신다는 걸 자랑스럽게만 여겼는데 점점 커갈 수록 어머니께서 이 일을 하시는 것이 가끔은 부끄럽게 느껴졌다. 내가 이런 마음을 갖게 될 때 마다 어머니께 너무 죄송하고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 내가 정말 못 된 애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하지만 어머니가 훌륭하고, 자랑스러운 마음이 훨씬 크다. 처음에 봉사활동을 하러 왔을 때 애들은 할머니, 할아버지께 말도 잘 못 걸고, 어색해 했다. 그리고 차때문에 불편하신 할머니를 보고 좀 무서워하기도 했다. 하지만 나는 어렸을 때부터 몸이 불편하신 할머니, 할아버지를 많이 만나 뵈고 또 같이 살기도 했기 때문에 어색하거나 무섭지는 않았다. 하지만 우리 집으로 봉사활동을 하면서 힘들었던 것은 '내 집'이라는 생각이 들어 봉사 활동하는 것 같지 않게 편하게만 하고 싶은 마음을 참아야 했던 것이다. 하지만 매주 토요일마다 봉

사활동을 하면서 여긴 내 집이 아닌 평안의 집으로 생각 하게 된 것 같다. 애들과 함께 놀러가고 싶기도 하고 좀 편히 쉬고 싶은 유혹을 뿌리치는 것은 우리들에게 정말 힘든 일이었다. 하지만 우리들을 보고 반가워하실 할머니, 할아버지 얼굴을 떠올리며 유혹도 뿌리치고 토요일이 되면 어김없이 봉사활동을 한다. 오늘도 애들과 함께 봉사활동을 했다. 청소도 하고 걸레도 닦고, 이불도 겹고, 할머니와 대화도 했다. 적은 수가 있었지만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다. 난 항상 봉사활동을 하면서 느낀다. 내가 하는 이 봉사활동이 교과서에도 배웠듯 아무 대가 없이 나보다 조금 불편하신 분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조금 나누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 봉사활동을 하면서 할머니 할아버지와 대화 하는 시간도 더 많아 졌고, 그만큼 더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 친근하게 대해 주시는 것 같아 기분이 좋다. 오늘도 닦아주는 더웠지만 청소도 하고 소일거리도 하면서 비록 내가 어리지만 그래도 나의 도움을 받을 분들이 있는 것이 얼마나 기분 좋고 뿌듯한 일인지 새삼 느껴다. 아주 우리들이 하는 것이 많이 서툰데도 항상 할머니들께서는 우리들이 오면 너무 기뻐하시고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신다. 오늘도 우리들이 한 일은 아주 작은 일이다. 하지만 나는 몸으로 하는 봉사활동만 봉사활동이 아닌 친 손녀처럼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이야기도 하고 같이 게임도 하면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외로움, 아픔을 잠시나마 잊게 하는 것도 봉사활동이고 정말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필요 한 것이 아닌 가 생각한다. 우리들이 집에 간다는 말에 다음에 꼭 다시 오라고 말씀하시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모습에 우리들은 작은 걸 나누었다고 생각 하지만 받는 분들에게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걸 느꼈다. 그리고 내가 어머니를 부끄러워 한 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이었는지 새삼 깨닫게 되었다. 이젠 나도 애들과 함께 할머니, 할아버지를 위해 헌신하는

어머니처럼 나보다 조금 어려우신 분들에게 내가 드릴 수 있는 것들을 드릴 것이다.
할머니, 할아버지 사랑해요



- 문예부문 -

| 만화 · 포스터 · 컴퓨터그래픽 |

[만화 · 포스터 · 컴퓨터그래픽]

상 명	수상자	학교명
최우수상 (충청남도지사)	김희선	천안여자고등학교 2
	오예나	몬양용화중학교 1
우수상 (충청남도교육감)	최미연	청양여자정보고등학교 3
	이상아	강경여자중학교 3
특선 (충청남도교육감)	강은영	청양정산고등학교 2
	서은지	공주정보고등학교 1
	황수지	천안동여자중학교 2
	방정민	조치원중학교 1
봉사상 (충청남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소장)	임현미	논산여자고등학교 1
	임운아	논산여자고등학교 2
	안소정	천안여자고등학교 2
	조성미	청양여자정보고등학교 3
	이건혁	봉황중학교 2
	강진석	합덕여자중학교 3
	유지현	천안동여자중학교 1
	이보라	강경여자중학교 3

최우수상(충청남도지사)

김희선 | 천안여자고등학교 2학년



최우수상(충청남도지사)

오예나 | 온양용화중학교 1학년



우수상(충청남도교육감)

최미연 | 청양여자정보고등학교 3학년



우수상(충청남도지사)

이상아 | 강경여자중학교 3학년



특선(충청남도교육감)

강은영 | 청양정산고등학교 2학년



특선(충청남도교육감)

서은지 | 공주정보고등학교 1학년



SERVICE

진정한 자원봉사는
몸과 마음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충남 청소년 자원봉사 센터

특선(충청남도교육감)

황수지 | 천안동여자중학교 2학년



특선(충청남도교육감)

방정민 | 조치원중학교 1학년



봉사상(충청남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소장)

임현미 | 논산여자고등학교 1학년



봉사상(충청남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소장)

임윤아 | 논산여자고등학교 2학년



봉사상(충청남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소장)

안소정 | 천안여자고등학교 2학년



봉사상(충청남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소장)

조성미 | 청양여자정보고등학교 3학년



세상을 바꾸는 힘! 자원봉사

작은 도움의 손길, 어둠 속에서 앞을 밝혀주는 작은 촛불과 같은
하나보다 여럿일때 더 빛나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자원봉사... 내가 아닌 우리...



한국청소년자원봉사센터

봉사상(충청남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소장)

야간희 | 봉명중학교 2학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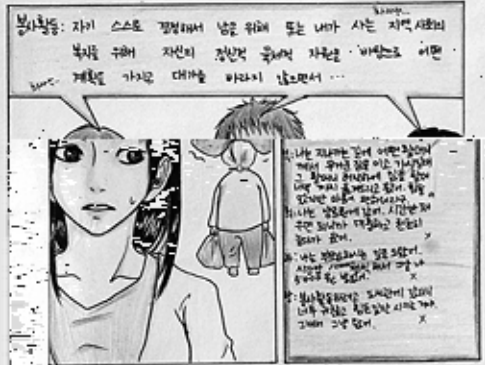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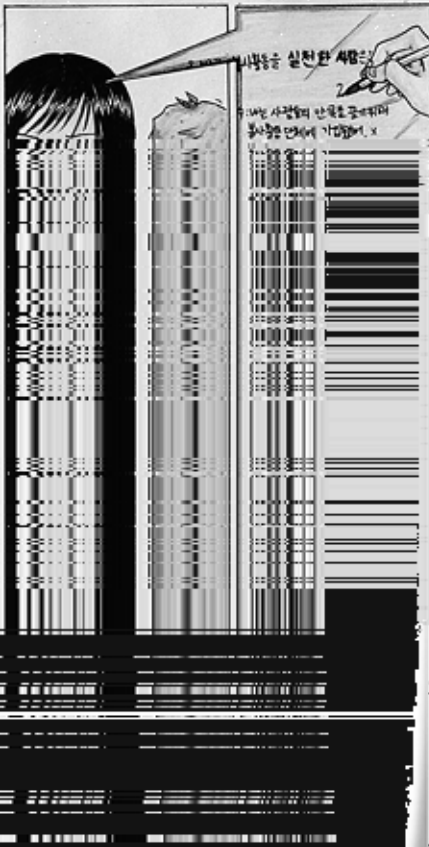


봉사상(충청남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소장)

강진석 | 함덕여자중학교 3학년



몸과 마음을 하나로



말고, 한번만



봉사상(충청남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소장)

유지현 | 천안동여자중학교 1학년



봉사상(충청남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소장)

이보라 | 강경여자중학교 3학년

